

인천광역시사 ㉘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㉘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 주권의 바탕, 인천 역사”



인천은 현재 인구 300만의 대한민국 제3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면적에서도 1,062km²에 이르러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한 도시로 부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최근 문화·교통·해양·환경·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천 주권」의 주요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300만 인천시

대를 위한 시민행복 비전」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문화주권」 「문화성시」 인천은 역사문화자원과 그 공간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바탕에는 2030여 년이 넘는 오랜 인천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인천 역사의 또 하나의 근원이 되는 《인천광역시사(⑧호)》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발간을 300만 시민과 함께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1965년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1973년 제1차 시사편찬 발간을 시작으로 대략 10년을 주기로 5차례에 걸쳐 《인천 시사》를 간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3년은 ‘인천’ 이름 탄생 600년의 의미를 담은 ‘정명(定名) 600년 인천 시사’를 5번째 편찬함으로써 인천 역사의 유구성과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고(提高)하였습니다.

인천은 그동안 여러 부문에서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였고, 1995년 광역시로 승격된 지 어언 20여 년이 되어 이제 다시 한번 그 변화상을 재정리할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끊임없이 시사편찬의 토대가 되는 각종 문헌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사(⑧호)》 편찬은 특히, 168개의 섬과 바다, 그리고 육지로 이루어진 인천의 오랜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인천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생활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점차 사라져 가는 인천 섬 지역의 역사적 연원과 역사문화유산, 그리고 생활상을 복합적으로 집적함으로써 해양도시 인천의 본원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래 인천은 송도경제특구에 GCF사무국과 세계은행(WB), 글로벌대학을 유치하고,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조성과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비상을 통해 명실상부 세계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발전은 오랜 세월을 걸쳐 인천지역사회에 쌓여 온 역사적 토양에 기반한 바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을 재발견하는 것은 곧, 국제사회 속에서 ‘인천만의 가치’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가치가 인천인의 자긍심이 되어 이 시대 지향하는 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인천광역시사(⑧호)》 발간에 열정을 기울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인천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천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시는 ‘인천 주권’의 확립을 위해 인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찾는 작업으로 무엇보다 시사(市史)의 증보(增補)는 물론, 시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하는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2017. 11.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축 간 사



반갑습니다.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통한 인천발전과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제갈원영입니다.

아름다운 가을하늘의 노을이 더욱 깊어가는 계절, 인천광역시사 8호인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이 발간되기까지 집필자와 조사자는 물론, 특히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였음에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00년이 넘는 유구한 세월동안 인천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역사와 문화를 다시 발굴하고 조명하기 위한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지난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통하여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UN의 녹색기후기금(GCF) 등 13개의 국제기구와 뉴욕주립대와 같은 글로벌 대학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국제·교육·

환경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인천의 앞바다에는 168개의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존재하며, 각 나름대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책을 발간함에 있어,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며, 인천의 멋과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인천의 무궁한 발전과 300만 인천 시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제갈원영

● 일러두기

1. 편찬 기본 방침

- 2017년 《인천광역시사(⑧호)》는 지난 1965년 인천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1973년부터 진행된 5차례의 시사편찬 경험을 바탕으로 『市史』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017년 ‘인천 가치 재창조’의 바탕이 되는 ‘미추홀2030여 년 인천정명600여 년’의 유구한 인천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천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인천인의 역사적 발자취가 담긴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천광역시사를 발간하고자 하였다.
- 서술체제 및 방법에서, 용진군과 강화군, 중구, 서구 등에 산재한 168개의 섬을 4권 역으로 분류, 각 권역별 섬의 역사문화유산을 정리하여 특성화함으로써 그 역사와 변천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포괄하되, 기사본말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통시대적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흥미롭게 인천의 섬과 그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규격과 판형에서도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과 가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 2013년 제5차 편찬 작업을 계기로 2014년 『인천 체육의 발자취』, 2015년 『인천의 지명』, 『인천의 지지와 지도』, 2016년 『인천의 건축』, 2017년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등 주제를 달리해서 매년 1~2권의 『시사』를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편찬하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2. 집필 원칙

- 그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되 중복되는 내용은 지양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최근의 변화 발전상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서술 시기는 전근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섬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2017년 8월까지 파악되는 내용을 범주로 하였으나, 편찬과정에서 수렴된 상황도 부분적으로 포함하였다.
- 문장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고등학교 교재 수준으로 하였고, 한자나 외국어가 필요한 경우는 괄호 안에 병기하였으나, 인용문과 각주는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력 등을 부기하였다.

- 용어는 국정교과서의 용례에 따랐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항목의 명칭은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 자주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 『』: 문헌이나 저서명
 - 「」: 논문명
 - 《》: 총서명이나 관보, 신문
 - 〈〉: 신문, 잡지 기사
 - 〔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 표기

3. 내용

-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은 인천의 전근대 및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섬의 역사적 연원과 스토리 및 문화유산 등을 복합적으로 집적 정리하고, 특히, 매립되어 사라졌거나 연육된 섬들도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다.
- 인천의 섬에 내재된 역사와 문화유산을 총합적으로 정리하되, 168개 인천 각 섬의 특성을 분류하여 4권역으로 구분하고, 대표적인 이미지를 상징화하여 섬의 가치를 극대화 하였다.
- 각 권역은 시간과 거리, 역사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제1권역은 ‘청정 바다와 사람이 그리는 섬, 서해 5도’, 제2권역은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섬, 강화군도’, 제3권역은 ‘뱃길 따라 풍경 따라 떠나는 섬, 덕적군도’, 제4권역은 ‘바다가 육지인 듯 가까운 섬, 인천만(仁川灣)의 섬’이라는 테마를 두고 4가지로 유형화 하여 특징화 하였다.
-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은 상·하 2권으로 구성되었다. 각 권은 내용의 과다를 편집상 조절하여 상권에는 제1권역에 속한 백령도, 대청·소청도와 연평도·소연평도, 제2권역에 속한 덕적군도 및 제4권역에 속한 북도면, 자월면의 섬들로 편제하였고, 하권은 제3권역인 강화군도의 섬과 연육된 인천의 섬 및 사라진 인천의 섬들로 편제하였다.
- 각 권역별 서술은 연혁과 지명유래, 전근대 지지류 소개, 역사와 문화유산, 실록기사 및 설화와 전설, 민속, 시문, 신문기사 등의 순서로 구성했으며, 사진과 고지도 및 현재의 지도 등을 함께 첨부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무인도나 사유지 섬인 경우, 옛 지명의 유래나 남아 있는 문화유산의 실상을 답사를 통해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어 자세한 현황은 제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자료의 제한으로 보다 면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파악되어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 부분도 있음을 밝혀둔다.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❶

발간사 / 축간사

일러두기

제1장.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섬, 강화군도 13

1. 지명유래와 현황	15
1) 강화군 소속 유인도	18
(1) 석모도	19
(2) 서검도	22
(3) 미법도	23
(4) 섬돌모루도	24
(5) 주문도	25
(6) 아차도(阿次島)	26
(7) 불음도	26
(8) 말도	27
2) 강화군 소속 무인도	29
(1) 돌섬	30
(2) 대섬	30
(3) 대송도 / 소송도	31

(4) 기장섬	31
(5) 납섬	31
(6) 괴리섬	32
(7) 은염도	32
(8) 분지도	32
(9) 석도	32
(10) 수섬	33
(11) 취봉도	33
(12) 용란도	33
(13) 우도	33
(14) 부념도	34
(15) 함박도	34
(16) 응암	34
(17) 동그랑섬	34
(18) 소황산도	35
2. 근대 이전 지리지 자료에 나타난 강화군의 섬들	36
1) 『世宗實錄地理志』(15세기 전반)	36
2) 『新增東國輿地勝覽』(16세기 전반)	37
3) 李衡祥, 『江都志』(1696년 撰), 海島條.	37
4) 『輿地圖書』(1760년경 撰)	38
5) 金魯鎭, 『沁都誌』(1783년 撰)	40

6) 金正浩, 『大東地志』(1866년경 撰)	41
7) 朴憲用, 『續修增補江都誌』(1932년 撰)	42
3. 조선시대 지도 자료에 나타난 강화군의 섬들	46
4. 역사 문화유산	55
1) 보문사	55
2) 어류정요망대	62
3) 서도 중앙교회	63
4) 대빈창지	64
5) 주문도 봉구산 봉수	64
6) 주문진	64
7) 불음도 은행나무	65
8) 불음도 요망대	66
9) 말도 요망대	66
10)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67
5. 설화	69
1) 설화	69
참고문헌	74

제2장. 연육된 인천의 섬 75

1. 강화도	77
1) 연혁과 지명유래	77

(1) 지리적 개관 및 연혁	77
(2) 지명유래	84
2) 전근대 지지류에 나타난 강화도	88
(1) 지도로 보는 강화도	88
(2) 지리지로 보는 강화도	95
3) 문화유산	111
참고문헌	120
2. 교동도	121
1) 연혁과 지명유래	121
(1) 지리적 개관 및 연혁	121
(2) 지명유래	128
2) 전근대 지지류에 나타난 교동도	139
(1) 지도로 보는 교동도	139
(2) 지리지로 보는 교동도	145
3) 문화유산	157
참고문헌	169
3. 영흥도와 선재도	170
1) 현황	170
2) 연혁	171
3) 지명유래	174
4) 옛 기록의 영흥도와 선재도	185

목 차

5) 문화유산	198
6) 설화	207
4. 영종도	214
1) 현황	214
2) 연혁	215
3) 지명유래	218
4) 옛 기록의 영종도	220
5) 문화유산	239
6) 설화	263
참고문헌	284

제3장. 사라진 인천의 섬 287

1. 현황	289
2. 사라진 섬들	292
1) 중 · 동구	292
2) 남구	296
3) 연수 · 남동구	297
4) 서구	300
3. 옛 지리지와 지도	304
4. 옛 기록의 사라진 섬	313
참고문헌	326

제1장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섬, 강화군도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섬, 강화군도

1. 지명유래와 현황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인천에서 옹진군 다음으로 많은 섬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강화군에는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강화도와 교동도, 동검도, 황산도 등을 제외하고 27개의 섬이 있는데 유인도가 8개, 무인도가 19개이다.

이들 27개 섬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 2>와 같다.

먼저, <표 1>을 보면 강화군의 유인도는 현 행정구역상 삼산면과 서도면에 각각 4개씩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섬의 크기로는 ①석모도(약 4,230만㎡), ②볼음도(약 658만㎡), ③주문도(약 455만㎡), ④서검도(약 227만㎡), ⑤말도(약 143만㎡), ⑥미법도(약 98만㎡), ⑦아차도(약 55만㎡), ⑧섬돌모루도(8만㎡) 등의 순서를 보였다.

〈표 1〉 강화군 소속 유인도 현황

No.	도서명	위치	면적(㎡)	세대수	인구수	세대당 인구수
1	석모도	삼산면	42,293,653	1,147	2,225	1.94
2	서검도	"	2,267,957	43	78	1.81
3	미법도	"	983,788	14	24	1.71
4	섬돌모루도	"	80,000	1	1	1.00
5	주문도	서도면	4,552,181	173	355	2.05
6	아차도	"	547,723	28	43	1.54
7	불음도	"	6,584,162	156	254	1.63
8	말도	"	1,428,896	15	22	1.47
계		—	58,738,360㎡	1,577세대	3,002명	

한편 세대수로는 ① 석모도(1,147세대), ② 주문도(173세대), ③ 불음도(156세대), ④ 서검도(43세대), ⑤ 아차도(28세대), ⑥ 말도(15세대), ⑦ 미법도(14세대), ⑧ 섬돌모루도(1세대) 등의 순서를, 그리고 인구수로는 ① 석모도(2,225명), ② 불음도(355명), ③ 주문도(254명), ④ 서검도(78명), ⑤ 말도(43명), ⑥ 미법도(24명), ⑦ 아차도(22명), ⑧ 섬돌모루도(1명) 등의 순서를 보였다(이상, 2014년 기준).

세대당 평균 인구수를 보면(단 1명이 거주하는 섬돌모루도 제외), 최소 1.47명(말도)에서 최대 2.05명(주문도)의 분포를 보여 각 세대 당 거의 2명 미만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2〉를 통해 강화군의 무인도 현황을 살펴보면, 19개의 무인도 중 삼산면에 7개, 서도면에 9개, 그리고 교동면에 1개, 길상면에 2개가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강화군 소속 무인도 현황

No.	도서명	위치	면적(㎡)	소유자
1	돌섬[석도]	삼산면 석모리	4,247	산림청
2	대섬[죽도]	삼산면 석포리	133,388	사유지
3	대송도	삼산면 매음리	29,300	산림청
4	소송도	삼산면 매음리	2,071	산림청
5	기장섬[서도]	삼산면 하리	91,041	산림청, 사유지
6	납도	삼산면 서검리	66,347	사유지
7	괴리섬[귀하도]	삼산면 서검리	11,000	사유지
8	은염도	서도면 주문도리	37,091	사유지
9	분지도	서도면 주문도리	35,901	산림청
10	석도	서도면 주문도리	1,190	산림청
11	수섬[수시도]	서도면 주문도리	5,455	사유지
12	취봉도[수리봉도]	서도면 아차도리	5,157	산림청
13	용란도	서도면 불음도리	4,323	산림청
14	우도	서도면 말도리	211,537	강화군
15	부념도[비도]	서도면 말도리	2,400	강화군
16	함박도	서도면 말도리	19,971	산림청
17	응암[상여바위]	교동면 읍내리	1,299	국유지
18	동그랑섬[소항산도]	길상면 동검리	12,793	산림청
19	소항산도	길상면 초지리	1,201	국토부
계		—	675,712㎡	—

섬의 크기는 ① 우도(약 21만㎡), ② 대섬(약 13만㎡), ③ 기장도(약 9만㎡), ④ 납도(약 6만 6천㎡), ⑤ 은염도(약 3만 7천㎡), ⑥ 분지도(약 3만 6천㎡), ⑦ 대송도(약 3만㎡), ⑧ 함박도(약 2만㎡), ⑨ 동그랑섬(약 1만 3천㎡), ⑩ 괴리섬(1만 1천㎡), ⑪ 수섬(약 5,400㎡), ⑫ 취

봉도(약 5,100㎡), ⑬ 용란도(약 4,300㎡), ⑭ 돌섬(약 4,200㎡), ⑮ 부넝도(2,400㎡), ⑯ 소송도(약 2천㎡), ⑰ 응암(약 1,300㎡), ⑱ 소황산도(약 1,200㎡), ⑲ 석도(1,190㎡) 등의 순위를 보였다.

한편, 각 섬의 소유는 산림청 소속이 9개로 가장 많았고, 사유지가 5개, 강화군 2개, 국유지와 국토부 소유가 각 1개씩, 그리고 1개 섬은 산림청 소유와 사유지가 섞여 있었다.

이들 27개의 유·무인도의 지명유래 및 현황을 살펴보겠는데, 일단 시기별 명칭의 변천 양상을 정리하여 소개해 본다.

1) 강화군 소속 유인도

강화군에 속한 유인도는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섬돌모루도, 주문도, 아차도, 불음도, 말도 등 8개다. 삼산면에 4개, 서도면에 4개가 분포한다. 아래 표는 각 시기별로 살펴 본 강화 유인도와 그에 딸린 섬의 지명 변천 과정이다. 서검도, 미법도, 주문도는 변화가 없었지만, 아차도, 불음도, 말도 등에서는 지명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강화군 유인도의 지명 변천

No.	도서명	15세기 전반	16세기 전반	1656년	1696년	1760년경	1783년	1863년경	1932년
1	석모도	今音北島	今音北島	今音北島	今音北島 席隅島	席毛老島	席毛老島	席毛老島	席毛島
		松家島	-	松家島	松家島	松家島	-	松家島	松家島
		煤島	煤島	煤島	煤島	煤音島	煤音島	煤島	煤音島
2	서검도	-	-	-	西檢島	西檢島	西黔島	西檢島	西檢島
3	미법도	彌法島	彌法島	彌法島	彌法島 綿法島	彌法島	彌法島	彌法島	彌法島
4	섬돌모루도	-	-	-	-	-	-	-	-

No.	도서명	15세기 전반	16세기 전반	1656년	1696년	1760년경	1783년	1863년경	1932년
5	주문도	注文島	注文島	注文島	注文島	注文島	注文島	注文島	注文島
6	아차도	小島	少島	少島	少島 阿此島	阿此島	阿此島	阿此島	阿此島
7	불음도	巴音島	甫音島	甫音島	甫音島	甫叱音島	虜音島	虜音島	虜音島
8	말도	末島	末島	末島		朶島	朶島	末島	末島

각 시기별 출처 자료는 아래와 같음.

- 15세기 전반: 「世宗實錄地理志」
- 16세기 전반: 「新增東國輿地勝覽」
- 1656년: 柳馨遠, 「東國輿地志」
- 1696년: 李衡祥, 「江都志」
- 1760년경: 「輿地圖書」
- 1783년경: 金魯鎮, 「沁都志」
- 1863년경: 金正浩, 「大東地志」
- 1932년: 朴憲用, 「續修增補 江都誌」

(1) 석모도(席毛島)

석모도는 강화도 외포항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면적은 약 42.3km²이고, 해안선 길이는 42km이다.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에 속한다. 삼산면은 석모도·미법도·서검도 등의 유인도와 섬돌모루·대섬·괴리섬 등의 무인도로 구성된다. 면적은 45.62km²이고,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2,335명이다. 삼산면이란 지명은 석모도에 해명산, 상봉산, 상주산 등 3개의 산이 있어 갖게 된 이름이다.

석모도는 삼산면의 주섬으로 섬마을의 아기자기한 정경을 만끽할 수 있는 강화군의 명소인데, 15세기 전반에 제작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는 금음북도(今音北島)였는데,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석모로도(席毛老島)’로 표기되어 있다. ‘석모로’라는 지명은 ‘물이 돌아 흐르는 모퉁이’ 혹은 ‘돌이 많은 해안 모퉁이’라는 뜻이다. ‘돌모로’를 한자화하면서 석모로(石毛老)가 되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초에 편찬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석모도(席毛島)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숙종 때에 간척사업으로 북쪽의 송가도(松家島), 남쪽의 매음도(煤音島), 어유정도(魚遊井島)와 합쳐졌다. 어유정도 또는 어리정도(魚里井島)는 석모도 남쪽에 있었던 섬이다. 삼산면 매음리 남부 지역이다. 같은 시기에 간척사업으로 강화도에 합쳐진 고가도와 이 섬 사이의 물길을 ‘가릉포’(嘉陵浦)라고 했다. 매음도는 석모도와 어유정도 사이에 있던 섬으로, 매도(煤島), 구음도(仇音島), 구음섬, 그음섬, 글음섬 등으로도 불렸다. 삼산면 매음리 지역이다. 조선 시대에 궁궐에 깔던 박석을 채굴하던 곳이라고 한다. 송가도는 석모도 북쪽에 있었던 섬이다. 삼산면 상리, 하리 지역이다.



석모도 어류정항

석모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보문사이다. 상봉산과 해명산 사이에 있는 보문사는 남해 보리암, 낙산사 흥련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으로 관음보살의 터전이다. 또한, 보문사는 전등사, 정수사와 함께 강화의 3대 고찰로, 신라 선덕여왕 4년(635)에 금강산에서 내려온 회정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보문사 이외에도 석모도에는 온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갯벌, 해수욕장, 강화나들길 ‘석모도 바람길’ 등 먹고 쉴 수 있는 곳이 널려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호젓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새로운 이색명소인 석모도 미네랄온천은 바다를 바라보며 노천탕에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 곳 온천수는 460m 화강암 등에서 용출하는 51℃의 고온으로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염화나트륨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이곳은 서해 수평선으로 넘어가는 석양을 감상하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수도권 유일한 곳이다.

또 석모도자연휴양림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장소이다. 연중 휴일 없이 운영되며 석모도 수목원과 연계돼 바다와 산림휴양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장소일 뿐 아니라, 산책로부터 등산로까지 고루 분포돼 있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코스를 달리할 수 있다.

석모도 남쪽에 있는 민머루해수욕장의 일몰은 서해의 3대 일몰 조망지로 손꼽힐 정도로 유명하다. 물이 빠지면 1km 이상의 개펄이 드러나 여름이면 조개, 게 등을 잡는 개펄체험지로 활용되고 있다. 해수욕장 인근에 어류정항과 장구너머포구가 있어 어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석모도는 강화 외포리 선착장에서 1.5km의 바닷길을 10분간 건너면 도착했으나, 2017년 6월 말에 강화본도와 석모도를 잇는 삼산연륙교가 개통되어 차로 건널 수 있게 된다. 삼산연륙교는 총사업비 849억 원을 투입해 길이 1.54km, 폭 11m의 규모로 건설되었다.



민머루해수욕장

(2) 서검도(西檢島)

서검도는 강화군 삼산면에 딸린 섬이다. 삼산면의 주도(主島)인 석모도에서 서쪽으로 2km, 강화에서 서쪽으로 10.2km 지점에 있다. 면적은 약 2.3km²이고, 해안선 길이는 6km이다.

주로 중국 쪽에서 오는 배들이나 교동도, 석모도, 연백, 개풍군 사이를 통해 한양으로 진입하는 배들의 검문소가 있는 섬이라는 데에서 지명이 유래하였다. 위치적으로 한강의 초입인 강화도 서쪽, 즉 교동도와 석모도 사이의 좁은 해역에 자리하기 때문에 한강을 드나드는 선박들은 반드시 이곳 서검도를 거쳐야만 했다. 특히 강화도의 서쪽에 있어 서검도라 하였다. 강화도 남동쪽에 위치한 동검도는 간척으로 강화 본섬에 편입됐지만, 그 섬도 과거에는 강화, 김포 해협을 통해 한양으로 올라가는 배들을 검문 수색하던 곳이었다.

서검도와 미법도는 민통선 안에 있어서 섬 주민들은 외부와 왕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민간인이 드나들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북한의 황해도 연백과 가까운 이 섬들은 지금도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군사 요충지다.

섬은 대체로 삼각형 모양이며 낮은 구릉 지형을 이룬다. 넓은 간척평야가 있어 주민 65%가 농사를 짓고 있으며, 수산 양식도 같이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상의 바다에서 고기잡이가 자유롭지 못해 교동도나 석모도 주민들처럼 쌀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섬 중앙에는 대규모의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염전이 있었다. 이때에는 전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이 많아 섬이 북적거렸다. 지금은 염전을 없애고 15만여 평의 대규모 대하 양식장을 설치하였다. 마을은 섬의 남쪽 선착장 주변에 분포한다.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콩·고추·마늘 등이다. 부근 해역에서 수산업과 양식업도 행한다. 석모도의 하리선착장에서 미법도를 거쳐 서검도까지 여객선이 운항한다.

(3) 미법도(彌法島)

미법도는 거의 무인도와 마찬가지로 섬돌모루도를 제외하면 삼산면에서 가장 작은 유인도다. 면적은 약 1km²이고, 해안선 길이는 4.8km이다.



미법도 원경

미법도라는 이름은 중국의 송, 금, 명조 때 사신들과 상인들이 해상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서검도에서 검문하고 육지로 가며 마지막 검색을 한 곳이기 때문에 미법도라 부른다고 전해진다. 또 하나는 이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착하고 양순하여 법을 몰라도 또 법이 없어도 산다는 뜻에서 ‘미법’이라 붙여졌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어업과 함께 농사도 많이 하는데 쌀, 보리, 콩 등이 생산되며 특수작물로 마늘과 고추가 재배된다. 섬에는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많으며 해안 쪽으로는 소사나무와 아까시나무가 자라고 있다.

미법도에는 ‘미법도 사건’이라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1965년 10월 29일에 미법도 주민 109명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황해도 은점벌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중 납북되었다. 다행히 그해 11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찌된 영문인지 납북됐던 어민들은 고정간첩 혐의로 감옥에 갔다. 마을의 민방위 소대장이었던 한 어민은 ‘인천제철 폭파 공작’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다. 주민 정 모 씨는 1982년에 고문 끝에 북한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억지 자백을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84년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15년을 복역한 후 1998년 광복절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 후 정 씨는 무죄로 판결났다.

(4) 섬돌모루[선모도(鮮毛島)]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앞에 있는 무인도였으나 건물이 들어서면서 유인도가 되었다. 약 8만㎡ 규모의 섬에 관리인 1명이 섬을 지키고 있다. 섬의 중앙에 3층의 아담한 콘도형 숙소 2채가 있다. 그중 한 채는 짓다가 중단되어 철골구조만 남아 있다. 1980년대 중반 한 사업가가 섬돌모루 섬에 리조트를 짓기 위해 투자조합을 만들어 추진했으나, 공사가 중단되며 유령의 섬이 되고 말았다. 돌모루는 ‘물이 돌아 흐르는 곳’이란 의미의 ‘돌’과 ‘모퉁이’의 뜻인 ‘모루’가 합성된 것이다. 한자 명칭은



섬돌모루

일제강점기 지도에서 선모도(鮮毛島)로 확인된다.

(5) 주문도(注文島)

강화군 서도면에 있는 섬으로 면적은 약 4.6km², 해안선 길이는 12.6km이다. 부속 섬으로 불음도, 아차도, 말도 등 3개 섬이 있다.

조선 시대 때까지는 교동도(喬桐島)에 속한 섬이었으나 1914년 강화군에 편입되었다. 조선 인조 때 교동수영에 속한 주문첨사를 두었으며 국영목장도 있었다.

조선 후기 임경업 장군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면서 이 섬에서 한양의 임금에게 하직의 글을 올렸다고 하여 주문도(奏文島)라 불렀다고 하며, 한편 폭풍으로 발이 묶이자 당시 왕이었던 인조에게 이 사실을 문서로 주달했다고 해서 주문도라 하였다고도 한다. 지금은 주문도(注文島)로 불린다.

주문도를 가기 위해서는 강화도 외포리에서 배를 타야 한다. 석모도 옆을 지나 불음도, 아차도를 거쳐 1시간 40분 정도 뒤에 주문도에 닿는다. 주문도와 불음도 사이에 아차도가 있고 불음도에서 더 나아가면 말

도가 있다.

해변으로는 대빈창 해수욕장이 가장 크다. 대빈창은 조선 시대에 중국 등 외국사신을 영접했던 ‘대변청’이 있던 곳이다. 뒷장술 해변은 1.6km 가량 곧게 뻗어 있는 해변으로, 해당화와 갯벌이 멋진 조화를 이룬다.

(6) 아차도(阿次島)

아차도는 강화군의 서도면에 있는 섬으로, 면적 약 0.5km², 해안선 길이 4.6km이다. 주문도에 붙어 있는 ‘작은 섬’이라는 뜻에서 소도(少島)라고도 부른다. 17세기 말에 편찬된 이형상의 『강도지』에 소도(少島)로 표기하고 “보음도의 서쪽 3리에 위치하고 수로로는 70리, 거주민은 12호이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 주문도와 석모로도 사이에 아차도(阿此島)로 표기되어 있다. “육지와 바다에서 각각 천 년씩 보낸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다가 임신한 여자를 보고 아차 하는 순간에 바다로 떨어져서 아차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6·25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강화군 내에서는 가장 부유한 섬으로 알려졌다. 예전에는 약 3백~4백여 척의 배가 조업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면사무소, 학교, 어업조합, 양조장까지 있었고, 망월항·창후항·황청항·선수항 등이 중심 어장 역할을 했다.

(7) 불음도(豊音島)

불음도는 강화군 서도면에 속한 섬으로 면적은 약 6.6km², 해안선 길이 16.3km이다. 강화도에서 서쪽으로 7km, 황해도의 연백군(延白郡)과 5.5km 떨어진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다. 서도면에서 가장 큰 섬으로, 북쪽 해안선은 휴전선의 남방한계선을 이룬다. 민통선 북방지역에 속해 있어 오염되지 않고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섬이다.

조선 인조 때 명나라로 가던 임경업(林慶業) 장군이 풍랑을 만나 이곳에 체류하던 중 보름달을 보았다 하여 만월도(滿月島)라고 하다가, 이후 보름달의 발음을 따서 불음도라고 하였다. 한자에는 ‘불’자가 없어

보(甫)자 밑에 ‘ㄹ’의 생김과 비슷한 ‘乙’을 붙여 ‘불(豊)’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섬의 유래는 통통배로 육지를 왕래하는 시절에 이 섬에 들어오면 기후와 배 사정으로 보름은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불음도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189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교동군에 속하였다가 1915년 경기도 강화군 부속도서로 편입되었다. 1962년 불음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95년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다. 북쪽에 봉화산(83m), 서쪽에 요옥산(103m)이 있으며, 그 사이의 지역이 낮고 편평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며, 쌀·보리·마늘·고추 등을 생산한다. 어획량은 미미하고, 백합 양식이 널리 이루어진다. 이곳 갯벌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천연기념물 제205호 저어새의 번식지이기도 하며, 노랑부리백로 등 20여 종의 새들이 무리 지어 날아드는 새들의 터전으로 더없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새들의 낙원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되는 영뜰해변, 조개를 채취할 수 있는 조개골 해수욕장, 천연기념물 제304호로 지정된 강화 서도면 은행나무 등이 유명하다.

(8) 말도(謫島)

말도는 서도면에 있는 섬으로, 면적 1.4km², 해안선 길이 5.9km이다. 말도는 강화 해역의 끝에 있다고 하여 끝섬, 또는 말도라 불렸다고 한다. 한자로는 서도면의 맨 끝에 자리하여 끝말(末)자와 교통상의 이유로 관청에 보고할 때 항상 늦어서 꾸지람을 듣는다는 뜻으로 끝말 자 밑에 꾸짖을 질(叱)자를 붙여서 말도(謫島)라 칭했다고 전해진다. 별칭으로 ‘끝점’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에는 말도(末島)가 아닌 말점(末占)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 편에는 한자상의 표기를 달리하여 “말도(末島)는 둘레가 10



말도 해변

일 볼음출장소 담당이 되었다.

인천에서 북서쪽으로 45km, 황해도 연백군 해성반도(海城半島)에서 남쪽으로 7km 해상에 위치하며, 산 정상에서 강화도와 북한의 연백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1950년 어로 저지선이 생기기 전까지는 조기가 대량으로 잡혔고, 새우잡이 어선이 드나드는 항구로서의 몫을 감당하기도 했다.

6.25전쟁 전까지만 해도 풍요로운 섬이었으나 지금은 군사상 최전방으로 묶여있어 극소수의 사람만이 살고 있다. 현재 군사 보호 시설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섬에 들어가려면 해당 군부대의 출입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강화군 소속 무인도

〈표 4〉 강화군 무인도의 지명 변천

No.	도서명	1696년	1863년경	조선 후기~말기	1932년
1	돌섬	—	—	石島	石嶼 / 猫嶼
2	대섬	斜島	—	竹島	竹嶼 / 蛇島
3	대송도	松島	—	大松島	—
4	소송도	松島	—	小松島	—
5	기장섬	黍島	黍島	栗島	黍島
6	납도	猿島	—	納島	納剌嶼
7	괴리섬	龜島	—	—	歸下島 瓦嶼
8	은염도	—	—	—	銀廉島 銀嶼
9	분지도	—	—	—	芬芝島 —
10	석도	—	—	—	—
11	수섬	—	—	—	—
12	취봉도	—	—	—	鷺峰島 鷺峰嶼
13	용란도	—	—	—	龍卵島 —
14	우도	—	—	—	牡蠣島 / 毛老島
15	부념도(비도)	婦島	—	—	—
16	함박도	—	—	—	咸朴島
17	응암(상여바위)	—	鷹巖	—	鷹巖嶼
18	동그랑섬	—	—	—	小項山島 大項山島
19	소황산도	—	—	—	小黃山道 小項山島

(1) 돌섬[석도(石島)]

돌섬은 삼산면 석모리에 속한 섬이다. 1932년 박헌용(朴憲用)이 편술한 『속수증보 강도지』에 “석모의 동쪽 바다에 있다. 그 모양이 웅크린 고양이와 같아 묘서(貓嶼)라고도 한다. 석모나루 부두로부터 바닷길로 약 5정이고, 둘레는 약 2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대섬[죽도(竹島)]

대섬은 삼산면 석포리에 속한 섬이다. 돌섬 동남쪽에 있는 섬으로 면적은 133,388㎡이고, 인천항에서 30.8km, 석모도에서 0.2km 거리에 있다.

1696년 이형상(李衡祥)이 편찬한 『강도지』의 해도(海島) 항목에 정포(井浦: 현재의 외포리) 남쪽에 있고 사도(斜島)라고 했고, 전죽(箭竹) 곧 화살 만드는 대나무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박헌용 편술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사도(蛇島)라고도 하는데 사장죽(蛇長竹)이 산출되어 옛날에 군용품으로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섬

(3) 대송도(大松島) / 소송도(小松島)

두 섬은 삼산면 매음리 아래에 있다. 석모도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섬을 소송도, 먼 쪽의 큰 섬을 대송도라고 부른다. 송도(松島)의 송(松)은 우리말 ‘솔’의 한자표기로 ‘솔다’가 ‘좁다’는 뜻이므로 좁은 섬, 곧 폭이 좁은 섬의 뜻이라고도 한다.

(4) 기장섬

기장섬은 삼산면 하리에 있는 섬으로 예전에 자생하는 기장이 많아 지리지 및 지도 자료에 서도(黍島) 또는 속도(粟島)로 기재되기도 하였다. 한편, 폭보다 길이가 긴 섬이므로 긴 섬의 뜻으로 ‘기장섬’이라고도 했다. 면적은 90,645㎡이고, 해안선은 1.3km이다. 해발고도는 20m이다. 육지와는 인접한 인천항에서 40.6km, 인근 석모도에서 0.5km이다. 토지 소유는 사유지와 국유지로 구분된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섬이다. 한때는 7~8가구가 거주하는 유인도였다. 근해에 어족이 풍부해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하며 풍요를 누렸으나, 미법도 무장간첩 사건이 터지며, 정부에서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켜 무인도가 되었다. 주민이 거주하던 흔적인 집터, 경작지, 우물, 전봇대, 선착장, 제방 등이 남아 있다.

기장섬 앞바다 새우잡이 배의 불빛인 서도어등(黍島漁燈)은 교동 팔경의 하나로 꼽힌다.

(5) 납섬[납도(納島)]

납섬은 삼산면 서검도의 서쪽에 있는 섬이다. 한편, 삼산면 석포리에도 납섬이 있는데 조선시대 지리지(1696년 이형상 편찬 『강도지』) 및 지도 자료에서 확인되는 원도(猿島)는 석모리의 납섬을 말한다.

(6) 괴리섬

괴리섬은 미법도 남쪽에 있는데 꽤리섬이라고도 부른다. 면적은 11.0㎡이고, 해안선은 0.8km이다. 해발고도는 15m이다. 괴리섬은 민통선 안에 있는 서검도와 미법도 사이에 있는 무인도다. 민통선 안에 있는 미법도, 서검도, 불음도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괴리섬은 서검도 앞바다로 침투한 남파 간첩이 그 섬에 숨었다가 도주한 뒤부터 괴리섬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삼산면지』에 따르면 이 섬의 본래 이름은 ‘귀아리섬’이었는데 한자로 옮기면서 귀하도(歸下島)가 됐고 그것이 괴리섬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괴리섬으로 불린다. 남북관계가 유화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괴리라는 용어 대신 괴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7) 은염도(銀廉島)

은염도는 서도면 주문도리에 속한 섬이다.

(8) 분지도(分芝島, 또는 芬芝島)

분지도는 서도면 주문도에 속한다. 주문도 서남쪽에 있는 섬으로 면적은 35,900㎡이고 해안선의 길이는 1.4km이다. 해발고도는 7m이다.

분지도의 이름은 주문도에서 분리되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분(分)은 갈래의 뜻이며, 지(芝)는 물이 돌아 흐르는 곳의 뜻이며, 글자의 형상이 구불구불 물이 도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분지도는 서북을 향해 갈라진 모습을 하고 있다. 큰 갯벌과 모래펄이 형성되어 있으며, 저어새와 멸종위기 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 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제7호다.

(9) 석도

석도는 주문도에 속한다. 진촌 남쪽에 있는 돌로 된 섬이다. 면적은

11,200㎡이다.

(10) 수섬

주문도에 속한다. 수살고지 동남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수심도, 수시도라 하며 썰물 때에 걸어서 건널 수 있다. 면적은 5,500㎡이다.

(11) 취봉도(鷲峰島)

취봉도는 서도면 아차도리에 있는 섬이다.

(12) 용란도(龍卵島)

용란도는 서도면 불음도리 북쪽 평양금이산 동쪽에 있는 섬으로 면적은 4,323㎡이고 국유지이다. 육지와는 인천항에서 42.2km, 불음도에서는 0.4km 거리에 있다.

용란(龍卵)과 같은 모양, 혹은 용이 등천하다 떨어져 된 섬이라고 한다. 용화루(龍華樓), 용난도라고도 부른다.

천연기념물 제419호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에 속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이다.

(13) 우도(隅島)

우도는 서도면 말도리에 속한다. 말도(耑島)로부터 남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민간인은 살지 않고 우도 경비대가 맡아 주둔하고 있다. 면적은 211,537㎡이다. 우도는 오랜 세월 동안 모로도(毛老島)로 불렸다. 모로도라는 뜻은 한 번 우도에 들어가면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나올 수 없다는 뜻으로 붙은 별명이다.

우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6km 남쪽에 있다. 우도에서 8.5km 북동쪽, 북방한계선에서 1.5km, 연평도에서 동쪽으로 25km 떨어져 있어 우도 해역은 서해 5도와 더불어 영토적 가치와 전략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중요한 지역이다. 서해 5도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우도는 주변 개펄이 매우 발달하고, 희귀식물인 석위(石葦)가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으며, 범게가 대량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14) 부념도

부념도는 서도면 말도리에 속한 섬으로 비도라고도 한다.

(15) 함박도

서도면 말도리에 속한 섬이다. 면적은 19,971㎡이고, 국유지이다. 육지와와의 거리는 인천항에서 55.2km, 볼음도에서 11.1km 거리에 있다. 말도 서쪽 4km쯤 되는 곳에 군사분계선이 있다. 썰물 때에는 우도와 갯벌로 서로 이어진다.

(16) 응암(鷹巖)

응암은 교동면 읍내리에 속한 섬으로 동진포 동남쪽에 있다. 교동도(喬桐島)와 송가도(松家島) 사이에 있다.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인 ‘여’라 하기에는 밀물 때에 잠기는 일이 없고, 바윗돌로 된 작은 섬인 ‘염’이라고 하기에는 식생대가 없는 바위섬이다. 교동도 사람들은 섬이 매[응(鷹)]와 같이 생겨 매바위라고도 하고, 또 상어를 닮았다고 해서 ‘상여바위’라고도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응암이라고 기록되어 주민들은 매여라고 불렀다고 한다. 응암은 응암상월(鷹巖賞月)이라 하여 교동팔경 중 하나이다.

(17) 동그랑섬

동그랑섬은 길상면 동검리 우측에 있는 섬으로 섬의 모양이 원형과 가깝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 기록에는 소항산도(小項山島)로 나타나기도 한다.

(18) 소황산도(小黃山道)

소황산도는 길상면 초지리에 속하는 섬으로, 강화해협 의 최남단에 있는 황산도(黃山島) 서쪽에 있는 섬이었으나, 1962년 간척으로 강화도에 합쳐졌다. 박헌용 편술 『속수증보 강도지』에 “대황산도의 남쪽 20칸 떨어진 해로에 있다. 둘레는 약 21정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2. 근대이전 지리지 자료에 나타난 강화군의 섬들

1) 『世宗實錄地理志』(15세기 전반)

(1) 강화도호부

- ① 매도(煤島) : 옛날에는 구음도(仇音島)라 하였다. 둘레가 60리이고, 나라의 말 327필을 놓아먹인다. 목자(牧子) 7호(戶)와 수군(水軍) 16호(戶)를 들여보내 소금을 구워서 살게 한다. 섬에 광박석(廣博石)이 있는데, 캐서 국용(國用)에 쓰게 한다.
- ② 주문도(注文島) : 둘레가 30리이다.
- ③ 파음도(巴音島) : 둘레가 40리이다. 밭 106결(結)이 있는데, 우도 수군영(右道水軍營)의 밭이므로 교동 수군(喬桐水軍) 8호(戶)가 들어가 산다.
- ④ 소도(小島) : 길이 5리, 너비 2리이며, 밭 5결(結)이 있다. 교동 수군(喬桐水軍) 4호가 들어가 산다.
- ⑤ 말도(末島) : 둘레가 10여 리이다. 밭 3결(結)이 있는데, 교동(喬桐)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농사를 짓는다.
- ⑥ 금음북도(今音北島) : 길이 10리, 너비 2리이다. 밭 20결이 있으며 교동 사람 7호가 들어가 산다.
- ⑦ 미법도(彌法島) : 둘레가 15리이다. 옛날에는 매잉도(買仍島)라 하였다. 밭 7결이 있으며, 교동 수군 6호가 들어가 산다.

(2) 교동현

- ① 송가도(松家島) : 동서가 2리요, 남북이 1리 반이며, 간전(墾田) 4결이 있다. 목자(牧子) 2호가 살며, 조수가 물러가면 매도(煤島)의 목마(牧馬)가 스스로 왕래한다.

2) 『新增東國輿地勝覽』(16세기 전반)

(1) 강화도호부

- ① 매도(煤島) : 부의 서쪽에 있는데, 예전 구음도(仇音島)로 주위가 60리요, 섬에 광박석(廣博石)이 있어 국용(國用)으로 삼는다. 목장이 있다.
- ② 주문도(注文島) : 매도 서쪽 7리에 있는데, 정포영전(井浦營田)이 있고 또 목장이 있다.
- ③ 보음도(甫音島) : 주문도 서쪽에 있는데 주위가 17리이다. 좌도수군영전(左道水軍營田)이 있고 또 목장이 있다.
- ④ 말도(末島) : 부의 서쪽 5리에 있는데, 주위가 43리다.
- ⑤ 금음북도(今音北島) : 부의 동쪽 16리에 있는데, 염분(鹽盆)이 있다.
- ⑥ 미법도(彌法島) : 금음북도 북쪽 2리에 있는데, 목장이 있다.
- ⑦ 소도(少島) : 보음도 동쪽 3리에 있다.

3) 李衡祥, 『江都志』(1696년 撰), 海島條.

- ① 매도(煤島) : 옛 구음도(仇音島)이다. 부(府)에서 서쪽으로 물길 50리 거리에 있다. 둘레는 60리이고, 주민은 31호이다. 목장이 있으며 박석(博石)이 산출된다.
- ② 금음북도(今音北島) : 지금의 석우(席隅)이다. 매도(煤島)에서 중앙으로 물길 46리 거리에 있다. 주민은 42호이며 염분(鹽盆: 소금을 굽는 곳)과 목장이 있다.
- ③ 미법도(彌法島) : 지금의 면법(綿法)이고 매도(煤島)에 딸려 있다. 금음북도(今音北島)에서 북쪽으로 2리 거리에 있는데, 물길로는 63리이다. 목장과 둔전이 있다.
- ④ 주문도(注文島) : 매도(煤島)에서 서쪽으로 7리 거리에 있는데, 물길로는 75리이다. 주민은 10호이다. 예전에는 정포영(井浦營)의

둔전(屯田)이 있었으나 지금은 목장이 있다.

- ⑤ 보음도(浦音島) : 주문(注文)에서 서쪽으로 물길 80리 거리에 있으며, 둘레는 17리이다. 주민은 84호이다. 예전에는 좌수영(左水營)의 둔전이 있었으나, 지금은 목장이 있어 강화부에서 양과 염소를 키운다.
- ⑥ 소도(少島) : 지금의 아차도(阿次島)이다. 보음(浦音)에서 서쪽으로 3리 거리에 있는데, 물길로는 70리이다. 주민은 12호이다.
- ⑦ 말도(末島) : 소도(少島)의 서쪽에 있다. 둘레는 43리이고 물길로는 90리 거리이다. 주민은 13호이다. 지금은 목장이 있어 강화부에서 양을 키운다.
- ⑧ 서검도(西檢島) : 매도(煤島)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주문(注文)에서 동쪽으로 물길 65리 거리에 있다.
- ⑨ 사도(斜島) : 정포(井浦)의 서남쪽에 있으며 전죽(箭竹)이 산출된다.
- ⑩ 원도(猿島) : 사도(斜島)의 남쪽에 있다.
- ⑪ 산도(蒜島) : 장봉(長峯)의 북쪽에 있다.
- ⑫ 구도(龜島) · ⑬ 서도(黍島) · ⑭ 송도(松島) · ⑮ 부도(婦島) : 네 섬은 모두 매도(煤島)의 서쪽에 있다. 이상 7개 섬은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다.
- ⑯ 송가도(松家島) : 비록 매도(煤島)와 서로 이어졌지만, 본래는 교동(喬桐)에 속해 있었다.

4) 『輿地圖書』(1760년경 撰)

(1) 강화도호부

- ① 매음도(煤音島) : 관아의 서쪽에 있다. 육로로 20리, 수로로 20리 합 40리이다. 둘레는 60리이다. 석모노도와는 육지로 이어져 있는데, 서로의 거리는 10리이다. 말을 놓아기르는 목장과 소금 굽는

가마가 있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35호이다. 남자는 74명이고, 여자는 51명이다.

- ② 석모로도(席毛老島) : 관아의 서쪽에 있다. 육로로 20리, 수로로 20리, 합 40리이다. 둘레는 40리이다. 미법도와는 거리는 11리이다. 말을 놓아기르는 목장과 소금 굽는 가마가 있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41호이다. 남자는 96명이고, 여자는 72명이다.
- ③ 미법도(彌法島) : 관아의 서쪽에 있다. 육로로 30리, 수로로 20리, 합 50리이다. 둘레는 8리이다. 서검도와는 거리는 7리이다. 어장(漁場)이 있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12호이다. 남자는 25명이고, 여자는 20명이다.
- ④ 서검도(西檢島) : 관아의 서쪽에 있다. 육로로 30리, 수로로 30리, 합 60리이다. 둘레는 40리이다. 말도와는 거리는 40리이다. 소금 굽는 가마가 있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49호이다. 남자는 92명이고, 여자는 69명이다.
- ⑤ 말도(謫島) : 관아의 서쪽에 있다. 육로로 30리, 수로로 70리, 합 100리이다. 둘레는 10리이다. 불음도와는 거리는 3리이다. 양과 염소를 놓아기른다. 어장이 있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18호이다. 남자는 29명이고, 여자는 24명이다.
- ⑥ 불음도(浦叱音島) : 망도(望島)라고도 한다. 관아의 서쪽에 있다. 육로로 30리, 수로로 70리, 합 100리이다. 둘레는 40리이다. 아차도와는 거리는 4리이다. 양과 염소를 놓아기른다. 어장이 있다. 강화 향교가 예전에는 이 섬에 있었다. 지금은 옛터와 위전(位田)만이 있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1백 43호이다. 남자는 2백 10명이고, 여자는 1백 89명이다.
- ⑦ 아차도(阿此島) : 관아의 서쪽에 있다. 육로로 30리, 수로로 60리, 합 90리이다. 둘레는 40리이다. 주문도와는 거리는 3리이다. 어장이 있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9호이다. 남자는 18명이고, 여자는 13명이다.

- ⑧ 주문도(注文島) : 관아의 서쪽에 있다. 육로로 30리, 수로로 60리, 합 90리이다. 둘레는 13리이다. 장봉도와는 거리는 25리이다. 말을 놓아기르는 목장과 어장이 있다. 계사년(1713. 숙종 39)에 첨사(僉使)를 두고, 수영(水營)에 소속시켰다. 호적에 편성된 민호는 86호이다. 남자는 2백 80명이고, 여자는 2백 89명이다.

(2) 교동부

- ① 송가도(松家島) : 수로로 모두 10리이다.

5) 金魯鎮, 『沁都誌』 (1783년 撰)

- ① 매음도(煤音島) : 관아에서 서남쪽으로 40리에 있다. 예전에는 구음도(仇音島)라 불렸으며, 둘레는 60리이다. 호는 73호, 인구는 250명이다. 토전(土田)은 없고 목장이 있다.
- 요망장(瞭望將) 1명과 요망군 10명을 두었다.
 - 동쪽에 작은 섬이 있는데 이름이 사도(蛇島)이다. 거주민은 없고 산에 대나무가 있어 베어서 군기(軍器)로 쓴다.
- ② 석모로도(席毛老島) : 매음도에서 북쪽으로 50리에 있으며 둘레는 40리이다. 호는 52호, 인구는 207명이다. 토전은 없고 말을 키운다.
- ③ 미법도(彌法島) : 관아에서 서쪽으로 50리에 있으며, 둘레는 8리이다. 호는 8호이며, 인구는 33명이다. 토전은 없고 말을 키운다.
- ④ 서검도(西檢島) : 관아에서 서쪽으로 60리에 있다. 호는 61호이며, 인구는 220명이다. 토전은 19결 26부 8속이다.
- ⑤ 말도(謫島) : 관아에서 서쪽으로 110리에 있으며, 둘레는 10리이다. 호는 27호, 인구는 76명이다. 토전은 3결 9부 1속이며, 양과 염소를 키운다.

- 요망장 1명과 요망군 10명을 두었다.

- ⑥ 불음도(浦乙音島) : 일명 망도(望島)라고도 한다. 관아에서 서쪽으로 100리에 있으며, 둘레는 40리이다. 호는 140호, 인구는 477명이다. 토전은 53결 31부 1속이며 양과 염소를 키운다.

- 요망장 1명과 요망군 10명을 두었다.

- 강화부의 향교가 예전에는 이 섬에 있었는데, 지금은 옛터와 위전(位田)만이 남아 있다.

- ⑦ 아차도(阿此島) : 일명 아도(牙島)이다. 관아에서 서쪽으로 90리에 있으며, 둘레는 40리이다. 호는 14호, 인구는 47명이다. 토전은 2결 67부 1속이다.

- ⑧ 주문도(注文島) : 관아에서 서남쪽으로 90리에 있으며, 둘레는 13리이다. 숙종(肅宗) 계사년(1713)에 첨사(僉使)를 두고, 통어영(統禦營)에 소속시켰다. 호는 149호, 인구는 562명이다. 토전은 없고 말을 키운다.

6) 金正浩, 『大東地志』 (1866년경 撰)

(1) 강화도호부

- ① 매도(煤島) : 고려 때는 구음도(仇音島)라 불렸으며 지금은 금음도(今音島)라 부른다. 둘레는 60리이며, 토지는 매우 기름지고 어염(魚鹽)은 약간 성하다. 섬 안에 박석(礪石)이 있는데 취하여 무덤에 길을 내는 용도로 사용한다.
- ② 석모로도(席毛老島) : 『고려사(高麗史)』에는 금음북도(今音北島)라고 적혀있으며, 둘레가 40리이다. 서쪽으로 미법도와 10리 떨어져 있고, 동쪽으로는 삼삼암돈(三三岩墩)과 10리 떨어져 있는데 모두 수로 거리를 말한다.
- ③ 소도(少島), ④ 서검도(西檢島), ⑤ 아차도(阿此島), ⑥ 어리도(魚里島),

⑦ 안도(鞍島) : 이상 서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2) 교동현

- ① 송가도(松家島) :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둘레는 25리이고 토지는 매우 비옥하다.
- ② 주문도(注文島) : 강화도의 매도(煤島) 서쪽 7리에 있는데 둘레가 30리이고, 동쪽으로 장봉도(長峯島)와의 거리가 수로(水路)로 25리인데 고기가 아주 많이 잡힌다.
- ③ 불음도(桴音島) : 『고려사』에는 팔음도(八音島) · 파음도(巴音島)라고 했는데, 둘레는 15리이고 동쪽으로 서검도(西檢島)와 주문도(注文島)와 서로 떨어져 있다.
- ④ 말도(末島) : 둘레가 10리이고, 북쪽으로 연안계(延安界)와 서쪽으로 연평도(延平島)와의 거리가 30리이며, 동쪽으로 불음도가 5리이다.
- ⑤ 미법도(彌法島) : 매도에 있는데, 북쪽으로 서검도(西檢島)가 7리이다.
- ⑥ 서도(黍島) : 서쪽 바다 가운데 있다.
- ⑦ 응암(鷹岩) : 부(府)의 앞쪽 바다 가운데 있다.

7) 朴憲用, 『續修增補 江都誌』 (1932년 撰)

- ① 매음도(煤音島) : 옛 구음도로 지금의 삼산면의 매음리다. 그 동북은 석포리와 석모리가 동서로 연달아 뻗어 있고, 그 북쪽은 옛 송가도(지금의 상하 2리)가 연육되어 한 면이 조성되었다. 정포진으로부터 바닷길로 14정이고, 둘레는 송가도를 합하여 6리가 된다. 석모도를 옛날에 섬이라 칭하여 구지(舊誌)에 별도로 써놓았는데, 연육된 이후로 지대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금은 이를 생략

한다.

- ② 어유정도(魚遊井島) : 매음리 남쪽에 있다. 본래 바다 속의 작은 섬으로 배와 샷대가 없으면 통하지 않는 곳이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가릉언을 축조한 후 해로가 변경되어 진두해에 물의 기세가 갑자기 바뀌어 섬의 북쪽 일대에 진흙이 생겨 매음도와 연육되었다. 조류가 만조시에는 푸르고 아득한 외로운 섬이나, 조류가 물러난 후에는 물을 건너서 통행하니 거리는 바닷길로 14정이고 둘레는 약 2리가 조금 넘는다.
- ③ 납섬서(納剌嶼) : 석포리의 납섬 해안에 있다. 조류가 물러난 후 통행이 가능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 납섬 마을로부터 약 3정 정도이고, 둘레는 약 5정이다.
- ④ 죽서(竹嶼) : 석포나루 앞에 있다. 사도(蛇島)라고도 하는데 사장죽(蛇長竹)이 산출되어 옛날에 군용품으로 사용하였다. 석포나루로부터 거리가 약 10칸이고, 둘레는 약 13정 정도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
- ⑤ 석서(石嶼) : 석모의 동쪽 바다에 있다. 그 모양이 웅크린 고양이와 같아 묘서(貓嶼)라고도 한다. 석모나루 부두로부터 바닷길로 약 5정이고, 둘레는 약 2정이다.
- ⑥ 미법도(彌法島) : 삼산면 하리 탄포나루 서쪽에 있다. 바닷길로 약 8정이고, 둘레는 약 2리 정도이다.
- ⑦ 서검도(西檢島) : 미법도 서남쪽 3해리에 있고, 둘레는 약 2리 정도이다. 오른쪽(앞의) 두 섬은 삼산면에 속한다.
- ⑧ 송책서(松柵嶼) : 서검도 서북포의 위 약 3정 밖에 있다. 주먹 하나 만한 작은 언덕이다. 조류가 물러가면 통행을 할 수 있고, 그 대안은 연백군이니 이는 즉 서쪽으로 가는 나루의 길이다.
- ⑨ 서도(黍島) : 탄포진 서북의 1해리에 있다. 둘레는 약 8정 정도이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구가 있으니 옛날 교동에 속한 섬이다.

- ⑩ 와서(瓦嶼) : 귀하서(歸下嶼)라고도 하는데 미법도 남쪽 1해리고, 둘레는 약 2정이다. 섬의 주위에 물살이 빠른 여울과 암초가 많다.
- ⑪ 복해서(伏蟹嶼) : 석모나루 동북쪽 1정 밖에 있다. 형상이 엷드린 게와 같아 이름이 되었다. 둘레는 8정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
- ⑫ 응암서(鷹巖嶼) : 교동 동진의 동남으로 6정 정도 떨어져 있다. 전체가 흙이 없고 다만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항상 해동청이 알을 키우는 곳이라 하여 이름이 되었다.
- ⑬ 아차도(阿此島) : 서검도 남쪽에 있다. 동북으로 탄포진이 3리 6정 떨어져 있고, 둘레는 약 2리 6정이다.
- ⑭ 주문도(注文島) : 옛날 수군첨사진이다. 둘레는 약 4리이고, 북쪽으로 아차도가 약 6정 떨어져 있다.
- ⑮ 불음도(豊音島) : 망도라고도 한다. 섬 안에 논밭이 많고 옛날에 향교가 있던 곳이다. 둘레는 약 4리 10정이고, 동쪽으로 아차도가 약 8정 떨어져 있다.
- ⑯ 말도(末島) : 불음도 서쪽 8정 정도에 있다. 둘레는 약 2리이고, 섬 안의 노적산은 서해의 가장 높은 산이다. 서쪽에 죽진이 있어 함박섬으로부터 연백군과 통한다.
- ⑰ 수심서(水深嶼) : 주문도 남쪽에 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조류가 물러나면 걸어서 건널 수 있다. 주문도와 함께 통하여 둘레와 거리를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 ⑱ 은서(銀嶼) : 주문도 동북 10정 밖에 있다. 둘레는 약 2정 정도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
- ⑲ 분지서(盆池嶼) : 주문도 서남쪽 2정쯤에 있다. 조류가 물러나면 땅으로 다닐 수 있고, 둘레는 약 3정 정도이고, 돌이 많고 흙은 적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
- ⑳ 취봉서(鷺峰嶼) : 아차도 서쪽, 망도의 동쪽 바다에 있다. 둘레가 약 1정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
- ㉑ 신취서(新鷺嶼) : 취봉의 서쪽에 있다. 둘레가 약 5반(反)이고 사람

이 살지 않는다.

- ㉒ 모려도(牡蠣島) : 속칭 모노도(毛老島)이다. 말도의 서남쪽 바다에 있다. 수로가 약 5해리이고, 둘레가 약 1리 정도이다. 사람이 살고 있다.
- ㉓ 함박도(咸朴島) : 말도의 서쪽 약 2해리 떨어진 바다에 있다. 둘레는 약 5정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
- ㉔ 대우서(大牛嶼) : 보문사 앞 10정 밖에 있다. 둘레는 약 6정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
- ㉕ 소우서(小牛嶼) : 대우서 동쪽 3정 거리의 바닷가에 있다. 조류가 물러나면 걸어서 건너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 두 섬은 형상이 누워 있는 소와 같아 명칭이 대·소우서라 한다.

3. 조선시대 지도 자료에 나타난 강화군의 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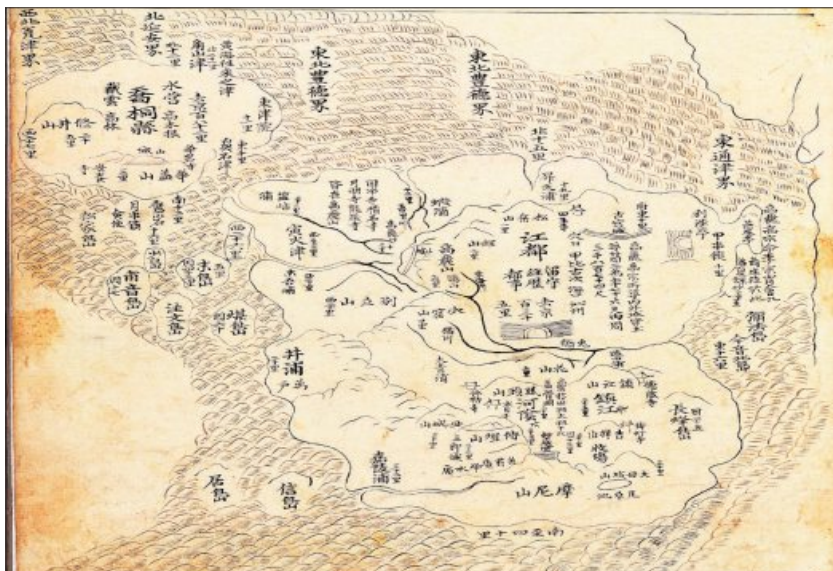
- ① 17세기 초 제작 『강화지도(江華地圖)』¹⁾ : 松家島, 少島, 末島, 甫音島, 注文島, 煤島, 彌法島, 今音北島, 鷹岩
- ② 1684년 제작 『강도전도(江都全圖)』²⁾ : 末島, 西檢島, 彌法島, 松家島, 席隅島(古 九音北), 煤島, 甫音島, 注文島, 望島
- ③ 1696년경 제작 『강화지도(江華地圖)』³⁾ : 松家島, 席隅島, 煤島, 彌法島, 黍島, 婦島, 松島, 猿島, 蛇島, 西檢島, 甫音島, 注文島, 末島, 少島, 蒜島
- ④ 18세기 초 제작 『강화전도(江華全圖)』⁴⁾ : 末島, 西黔島, 彌法島, 松家島, 煤音島, 竹島, 注文島, 望島, 鷹岩
- ⑤ 18세기 초 제작 『강화지도(江華地圖)』⁵⁾ : 松家島, 席毛老島, 煤島, 竹島, 納島, 注文鎮(島), 滿入島, 島項山
- ⑥ 1760년 제작 『강화지도(江華地圖)』⁶⁾ : 彌法島, 黍島, 西檢島, 甫音島, 阿此島, 注文島, 松浦島, 席毛老島, 煤音島, 魚里井(島), 黍島
- ⑦ 19세기 후반 제작 『강도부지도(江都府地圖)』⁷⁾ : 松家島, 席毛老島, 煤音島, 魚游井島, 竹島, 黍島, 彌法島, 西檢島, 納島, 芑音島, 黍島, 阿此島, 虎頭島, 注文鎮(島)
- ⑧ 19세기 후반 제작 『강화지도(江華地圖)』⁸⁾ : 松家島, 席毛老島, 煤音島, 魚游井島, 竹島, 彌法島, 西檢島, 納島, 芑音島, 黍島, 阿此島,

注文鎮(島), 小項山島, 黍島, 鷹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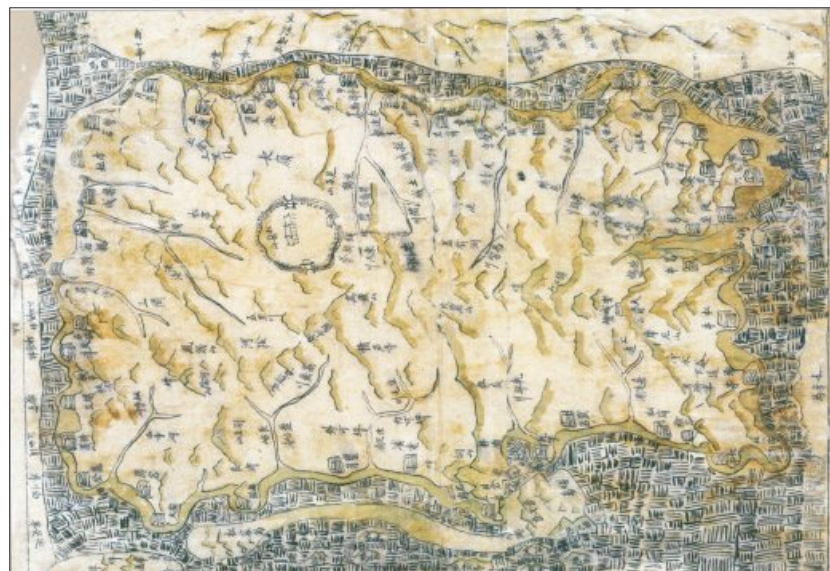
- ⑨ 1760년 제작 『교동지도(喬桐地圖)』⁹⁾ : 鷹巖, 松家島(喬桐 屬), 黍島(喬桐 屬), 彌法島(江華 屬), 西檢島(江華 屬), 黍島(江華 屬)
- ⑩ 18세기 중엽 제작 『교동부지도(喬桐府地圖)』¹⁰⁾ : 鷹岩, 松家島(本營 屬), 栗島(本營 屬)
- ⑪ 1872년 제작 『교동부지도(喬桐府地圖)』¹¹⁾ : 鷹巖, 松家島, 黍島, 面法島(江華 屬), 檢島(江華 屬), 望島(江華 屬), 黍島(江華 屬)
- ⑫ 1918년 제작 『강화지형도(江華地形圖)』¹²⁾ : 鷹岩, 黍島, 彌法島, 歸下島, 西檢島, 納島, 松冊(島), 黍島, 芑音島, 龍卵島, 鷺峰(島), 芬芝島, 注文島, スシト[스시도], 銀廉(島), 席毛島, 小松島, 大松島, 魚游井島, 納島, 竹島, 鮮毛島, 石島, 東檢島, 小項山島, 小黃山道, 黃山道
- ⑬ 2000년 제작 『강화지형도(江華地形圖)』¹³⁾ : 상여바위, 기장섬, 미법리(도), 괴리섬, 솔책(섬), 西檢島, 納島, 黍島, 芑音島, 龍華樓(島), 수리봉, 阿此島, 注文島, 분점, 수섬, 銀廉(島), 席毛島, 小松島, 大松島, 魚遊井島, 탄납섬, 대섬, 돌섬, 東檢島, 둥그랑섬, 小黃山島, 黃山島

1) 『支那朝鮮古地圖』수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江華 옛 地圖』, 인천광역시 강화군, 2003, 12쪽.
 2) 『古地圖牒』수록, 영남대박물관 소장 : 『江華 옛 地圖』, 13쪽.
 3) 李衡祥, 『江都志』수록,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 『江華 옛 地圖』, 14~15쪽.
 4) 『東輿備考』수록, 양산 대성암 소장 : 『江華 옛 地圖』, 17쪽.
 5) 육군박물관 소장 : 『江華 옛 地圖』, 22~23쪽.
 6) 『輿地圖書』수록,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 『江華 옛 地圖』, 28~29쪽.
 7) 서울대도서관 소장 : 『江華 옛 地圖』, 46~47쪽.
 8)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 『江華 옛 地圖』, 48~49쪽.

9) 『輿地圖書』수록,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 『江華 옛 地圖』, 76~77쪽.
 10) 『海東地圖』수록,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江華 옛 地圖』, 78~79쪽.
 1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江華 옛 地圖』, 84~85쪽.
 12) 조선총독부, 1:50,000 지형도 : 『江華 옛 地圖』, 198~199쪽.
 13) 1:50,000 지형도 : 『江華 옛 地圖』, 210~211쪽.



17세기 초 제작 「강화지도(江華地圖)」



1696년경 제작 「강화지도(江華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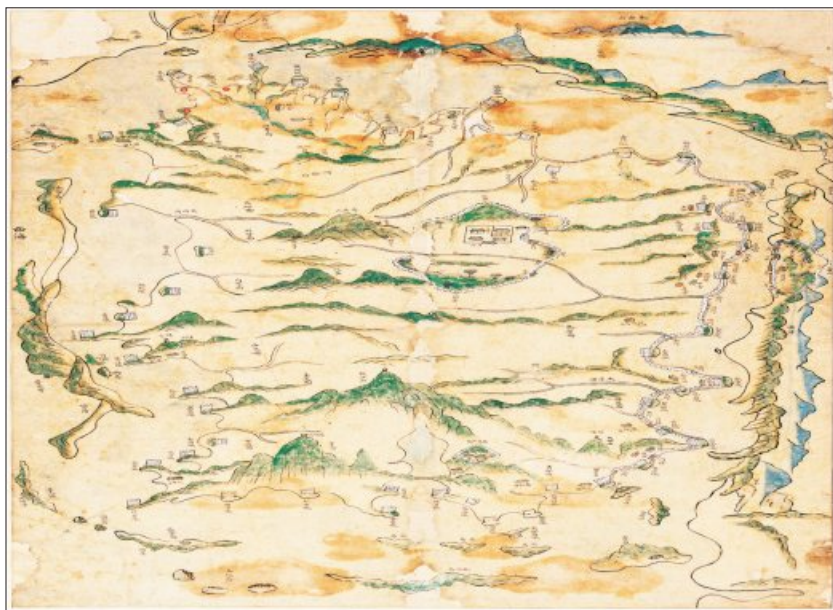


1684년 제작 「강도전도(江都全圖)」



1684년 제작 「강도전도(江都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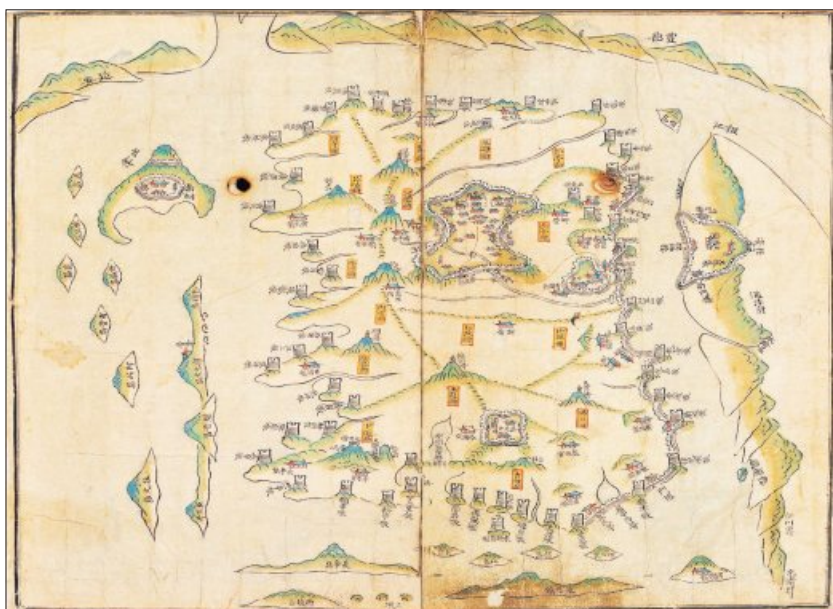
1) 李衡祥, 「江都志」 수록,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江華 옛 地圖」, 14~15쪽.



18세기 초 제작 「강화지도(江華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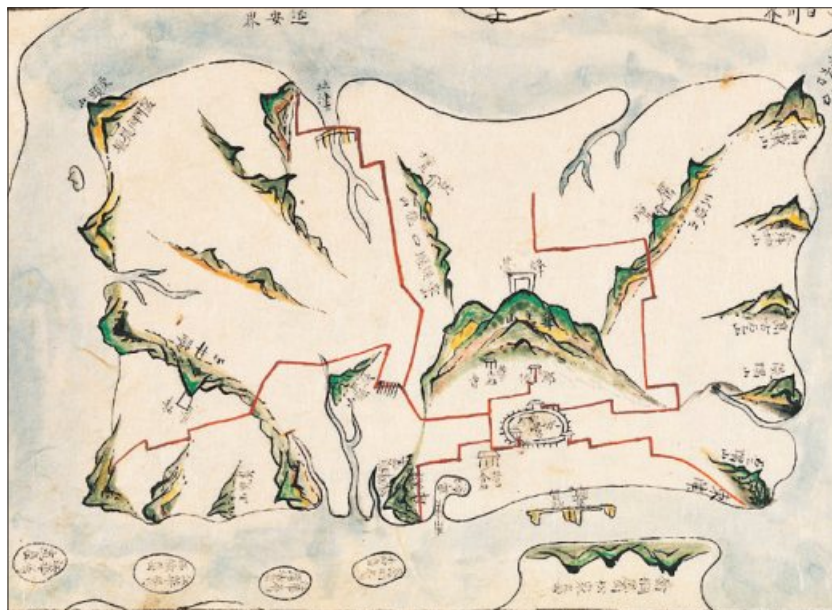
19세기 후반 제작 「강도부지도(江都府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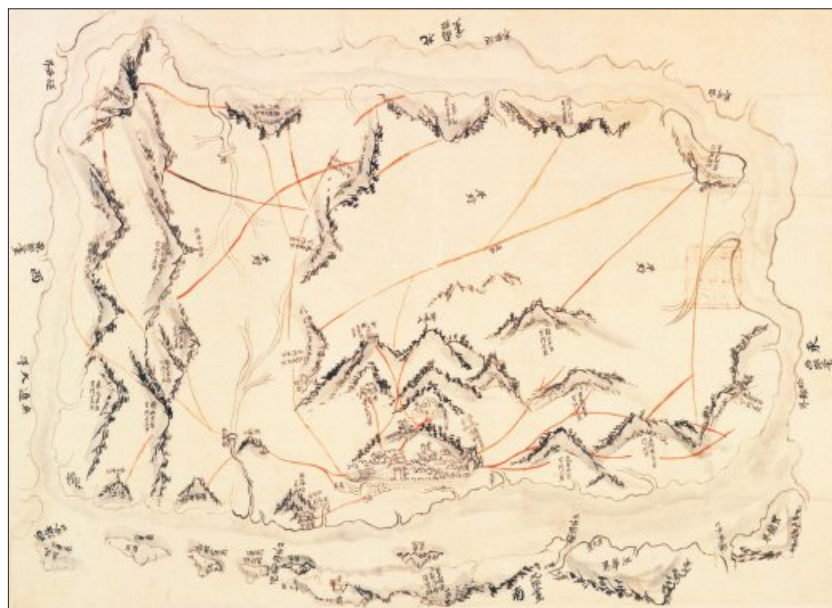
1760년 제작 「강화지도(江華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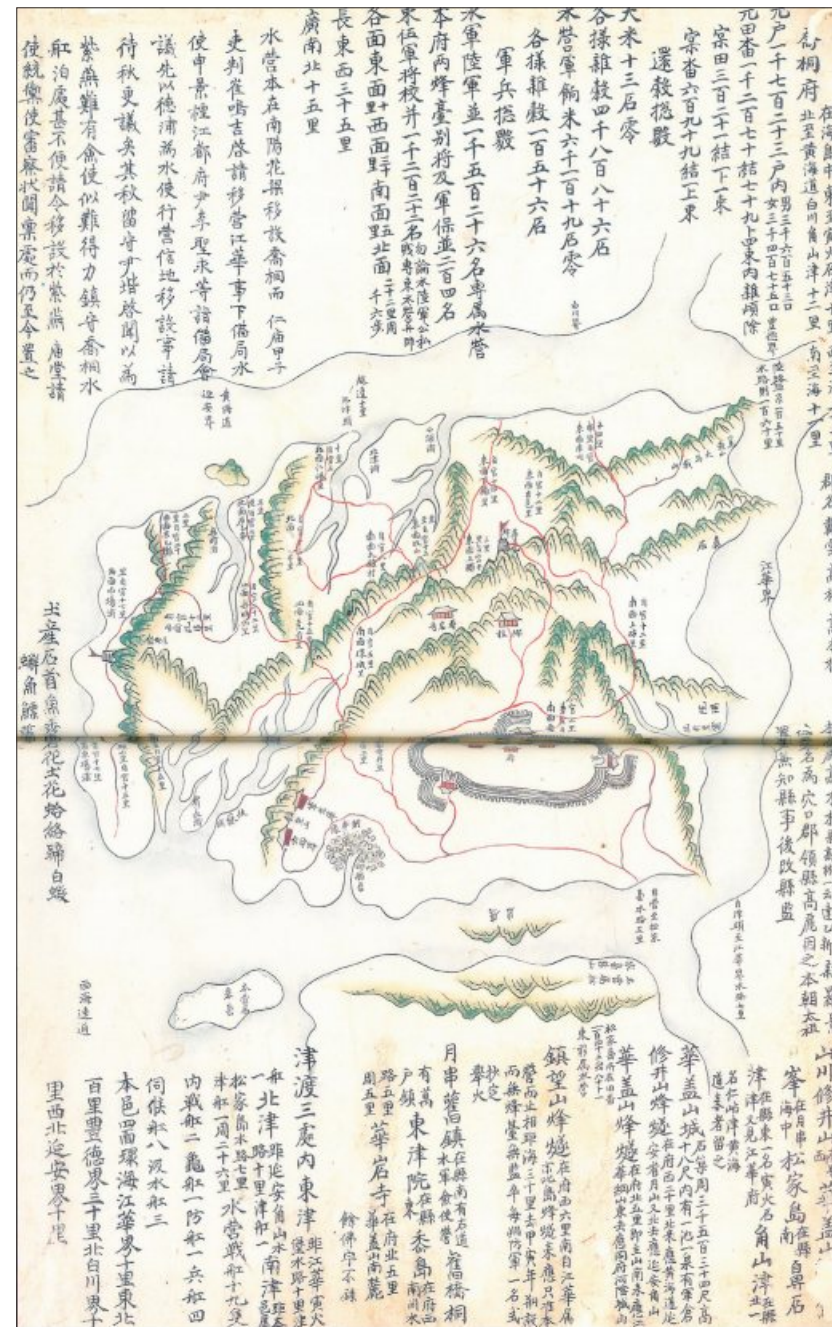
19세기 후반 제작 「강화지도(江華地圖)」



1760년 제작 「교동지도(喬桐地圖)」



1872년 제작 「교동부지도(喬桐府地圖)」



18세기 중엽 제작 「교동부지도(喬桐府地圖)」

2000년 제작 「강화지형도(江華地形圖)」²⁾

4. 역사 문화유산

1) 보문사(普門寺)

소재지 : 삼산면 매음리 629-1번지

보문사는 석모도 상봉산과 해명산 사이에 자리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이다. 양양 낙산사와 금산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상 관음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곳이다. 절이 자리한 곳을 낙가산이라 부른다. 근대의 고승인 석전 박한영이 작성한 ‘보문사 법당 중건기’에 신라 선덕여왕 4년(635년) 회정(懷正) 대사가 금강산 보덕굴(普德窟)에서 관음진신(觀音眞身)을 친견하고 이곳에 와서 절을 창건했고, 그 산세가 서천(西天) 사자국(獅子國)의 관음보살이 상주한다는 보타낙가산(寶陀洛迦山)과 흡사한 까닭에 산의 이름을 낙가라 하였다고 전한다.

보문사에는 다음과 같은 연기설화도 전해지고 있다. 635년에 삼산면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닷속에 그물을 던졌더니 인형 비슷한 돌덩이 22개가 함께 올라왔다고 한다. 이에 실망한 어부는 그 돌덩이들을 즉시 바



보문사 대웅전

2) 1:50,000 지형도: 「江華 옛 地圖」, 210~211쪽.

다에 던지고 다시 그물을 쳤지만 역시 건져 올려진 것이 그 돌덩이었으므로 다시 바다에 던졌다. 그런데 그날 밤, 어부의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나서 그것은 천축국에서 보내온 불상인데 그 귀중한 것을 바다에 두 번이나 던졌다고 책망하면서, 내일 다시 돌덩이를 건지거든 명산에 봉안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다음날 22개의 돌덩이를 건져 올린 어부는 노승이 일러준 대로 낙가산으로 이들을 옮겨 현재의 석굴 부근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돌이 무거워져 더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신령스러운 장소이구나”라고 생각하고는 굴 안에 단을 놓고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보문사에서 새벽에 서해를 관망할 때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강화팔경 중의 하나로 알려진다.

(1) 보문사 석실(普門寺 石室)

보문사 경내에 있는 보문사 석실은 나한상(羅漢像)을 모시는 나한전의 구실을 하는 석굴사원이다. 천연동굴을 이용하여 입구에 무지개 모양을 한 3개의 문을 만들고, 그 안에 불상을 모시는 23개소의 감실을 마련하여 석가모니불을 비롯한 미륵, 제화갈라보살, 나한상 등을 모셔두었다.



보문사 석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4년(635)에 회정 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여 오는데, 조선 순조 12년(1812)에 중건하였고, 그 후 몇 차례 중수하였다고 한다. 보문사 석실에 모셔진 석불들은 신라 선덕여왕 때 한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걸린 돌덩이를 꿈에 나타난 대로 석실에 모신 후 큰 부자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오지만, 불상의 실제 제작 연대는 그리 오래지 않은 것이다.

1974년 9월 26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1995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27호로 변경 지정되었다.

(2) 보문사 마애석불 좌상(普門寺 磨崖石佛坐像)

보문사 마애석불좌상은 1928년 금강산 표훈사의 주지인 이화응과 보문사 주지 배선주가 낙가산 중턱의 일명 눈썹바위에 조각한 것으로, 높이 9.2m, 폭 3.3m의 거대한 규모이다. 보문사 뒤쪽으로 난 돌계단 위 암벽에 새겨진 거대한 석불좌상이다. 불상은 갓처럼 생긴 바위의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조각되었는데, 머리에는 커다란 보관(寶冠)을 쓰고 있으며 얼굴은 네모진 모습이다. 얼굴과 비교하면 코가 넓고 높으며, 귀는 투박하고 목은 매우 짧게 표현되었다. 옷은 각이 진 양쪽 어깨를 감싸고 있으며, 가슴에는 큼직한 띠자 무늬가 새겨져 있다. 손에는 깨끗한 물을 담은 병을 들고 연꽃무늬 대좌(臺座) 위에 앉아 있으며, 불신 뒤에는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光背)가 있다.



보문사 마애석불 좌상

이 마애불은 문화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성지(聖地)로도 중시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기도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하여 찾는 여인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다. 1975년 9월 5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1995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29호로 변경 지정되었다.

(3) 보문사 맷돌

보문사 맷돌은 보문사 향나무 오른쪽 계단 옆의 화단에 있다. 지름 69cm, 두께 20cm의 규모로 화강암을 부드럽게 잘 다듬었다. 이 맷돌은 보문사 승려와 수도사들이 취사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윗돌과 아랫돌이 모두 남아 있다. 보통 맷돌보다 그 크기가 2배 정도나 된다. 정확한 제작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만든 기법과 양식으로 보아 조선 후기의 것으로 보인다.



보문사 맷돌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가 강화군의 인천광역시 편입에 따라 1995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민속자료 1호로 변경 지정되었다.

(4) 보문사(普門寺) 향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보문사 경내 석실(石室) 앞 큰 바위틈에서 있는 향나무이다. 수령 7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는 20m, 둘레는 3.2m 정도이다. 높이 1.7m에서 두 줄기로 갈라지는데 동쪽 줄기의 둘레는 1.3m, 서쪽 줄기의 둘레는 1.5m이다. 나무의 형태가 마치 용이 용트림을 하는 듯이 보여 기묘한 느낌을 준다. 일설에 한국전쟁 중에는 죽은 것 같이 보였으나 3년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보문사 향나무

보문사 향나무는 보문사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와 앞마당에 있는 느티나무와 더불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오래된 나무로서 생물

학적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1981년 7월 16일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는데, 강화군의 인천광역시 편입에 따라 1995년 3월 인천광역시 기념물 17호로 변경 지정되었다.

한편 느티나무는 향나무 옆 천인대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두 그루가 나란히 자라고 있다. 둘 다 수령은 약 290년이고 크기도 비슷해서 높이 16m, 둘레 4.8m 정도이다. 현재 군 지정 보호수로 관리되고 있다. 또 절 경내 아래 주차장에 수령 약 600년 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다. 높이 31m, 둘레 4.8m나 된다. 역시 군 지정 보호수로 관리되고 있다.

(5) 보문사 극락보전

현재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로 최근에 새로 건립되었다. 내부 넓이는 약 60평이며, 관음보살상으로만 3,000불을 안치하고 있다. 본래 이 자리에는 관음전이 있었으나 이 대웅전을 짓기 위해 해체했으며 실내에 있던 관음상 및 탕화는 옆의 요사로 옮겼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의 요사가 관음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설법전으로 꾸며질 예정인 또 다른 전각 역시 한창 새로 짓는 중이다.

(6) 보문사 범종각(梵鐘閣)

나한전 석실 앞 향나무 뒤에 있다. 1975년에 지어졌으며 안에는 국내 최대의 범종이 봉안되어 있다. 이 범종은 1975년 주지인 정수(正秀) 스님의 발원으로 조성되었는데, 높이 215cm, 밑지름 140cm, 무게 5t이나 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구리 2%, 말레이시아 산 주석 17%, 은 1%가 합금된 청동 범종으로, 제작되었을 때는 국내 최대의 범종으로서 나라 안팎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본 형태는 국보 제36호인 오대산 상원사 동종과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을 조화시켜 도안한 것이다. 범종은 고 육영수 여사가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범종각’이라는 현판 글씨는 강화가 고향인 서예가 박세림이 썼다.

(7) 보문사 삼성각(三聖閣)

삼성각은 나한전 석실 뒤쪽 오른편에 있다. 1960년에 지어졌으며 최근 중수되었다. 정면 2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위치는 경내보다 높게 축대를 이중으로 쌓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돌계단으로 오르내리게 되어 있다. 계단 옆에는 최근 조성한 석등 2기가 양쪽에 있다.

실내에는 불단은 놓여 있으나 불상은 없고 가운데 칠성탱화를 중심으로 산신행화·독성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양쪽 내벽에도 나한도가 각각 걸려 있다. 불단에 모셔진 칠성탱화 등은 모두 1992년에 봉안된 것이다. 삼성각 외측 벽 좌우에는 산신도와 나한도 4폭이 각각 그려져 있다. 정면 기둥에는 오른쪽부터 ‘영과광대혜감명(靈過廣大慧鑑明)’·‘주재공중영무방(住在空中映無方)’·‘나열벽천임찰토(羅列碧天臨刹土)’·‘주천인세수막장(周天人世壽莫長)’이라 쓴 주련(柱聯)이 각각 걸려 있다.

(8) 보문사 선방(禪房)

관음전으로 쓰이는 요사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식당 옆에 돌담이 있고 안에 초가지붕을 한 원형 건물이 있는데 이곳이 선방이다. 이곳은 스님들이 참선하기 위해 들어가는 일종의 토굴인 셈이다. 구조는 원형 건물 위에 초가를 얹은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예로부터 참선하는 스님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의 거처로 삼기 위해 지어졌다. 지어진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부터 있었다고 전해진다.

(9) 보문사 요사

보문사에는 요사 3동이 있다. 관음전으로 쓰이는 요사, 지장전 아래층 요사, 경내 동쪽 끝에 있는 요사 등이다.

먼저 관음전으로 쓰이는 요사는 요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ㄱ’자 형태를 하고 있으며, 현재 관음전 외에 스님 및 처사들 거처로 쓰이고 있다. 전체 7칸에 넓이는 217㎡으로 1932년 선주 스님이 중수하였다. 1972년에도 중수된 바 있다. 그런데 1893년 명성황후가 보문사 중건에 공을 들인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요사는 그때부터 있던 터 위에 지어진 듯하다. 이 요사의 경내 쪽으로 향한 곳은 현재 절을 찾는 신도들을 위한 기도 접수처 및 종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요사는 대웅전 맞은편 건물 바로 아래에 있다. 절 입구에서 일주문을 들어서서 다소 경사진 좁은 길을 계속 올라오다 보면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넓은 주차장 터가 나오고, 다시 이곳에서 10m쯤 올라가면 비로소 경내가 나온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바라보면 시멘트로 된 2층 건물 위에 목조전각이 올라서 있는 것이 보인다. 이 목조 전각이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고 그 아래쪽 2층 시멘트 건물이 바로 요사이다. 그래서 경내에서 바라보면 단층이지만 실은 그 아래에도 2층 건물이 있다. 곧 새 건물이 요사 건물 옥상에 지어진 셈이다. 요사는 1995년에 지었는데, 아래층은 기관실,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2층에 승방, 처사방, 식당 등이 있다. 특히 식당은 넓이가 660㎡이나 되는 널찍한 곳이다. 절에 기도하러 온 신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 다른 요사는 관음전으로 쓰이는 요사를 지나 오른쪽의 경내 한구석에 있다. 이곳은 지대가 경내보다 조금 낮다. 역시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은 시멘트 건물이고 그 위에 목조 가옥으로 지어졌다. 아래층은 처사 거처 및 창고로 사용되며, 위층 요사는 선방과 함께 스님들 수도처로도 활용된다.

(10) 보문사 일주문(一柱門)

마을이 있는 절 입구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곳에 세워졌다. 일주문 아래 절 입구 주차장에는 민가와 상가들이 들어서 있는데, 여기에서 북쪽 산으로 나 있는 길이 절로 들어가는 길목이 된다. 위쪽으로 약 300m쯤 올라가면 절이 나온다.

어떤 절이든 일주문의 형태가 있기 마련으로 보문사 일주문처럼 대개는 목조 건물 형식을 가지고 있다. 칸수는 한 칸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낙가산 보문사(洛迦山普門寺)’라는 현판 글씨는 여초 김응현의 작품이다.

(11) 보문사 천인대

천인대는 길이 40m, 폭 5m의 큰 바위로 나한 석실과 범종각 사이 서쪽으로 나 있는 계단 위 널찍한 평지에 있다. 천인대에는 절의 창건 무렵 인도의 한 큰스님이 바위에 불상을 모시고 날아온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 뒤 이 바위는 법회 때 설법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바위 위에 1,000명이 능히 앉을 수 있다고 하여 천인대라는 이름이 붙었다.

2) 어류정요망대

위치 : 삼산면 매음리 산399번지

어류정요망대는 해발 52m의 산 정상에 있다. 동쪽으로는 강화 본도가, 서쪽으로는 서도 여러 섬이 잘 조망된다. 동쪽과 서쪽은 급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민모루 해수욕장이 있다. 남북은 경사가 완만하다. 깊이 1m, 지름 3m, 둘레 12m의 연조 터가 남아 있다. 전체 규모는 지름 11m, 둘레 36m의 원형이다. 사방에는 요망대에 활용했던 석재가 수북이 쌓여 있다. 어류정요망대는 요망장 1명과 요망군 10명을 두어 운영하였으며, 해안의 위급상황을 교동 통어영과 강화 본영에 보고하기 위해 설치한 듯하다.

3) 서도 중앙교회(西島中央教會)

위치 : 서도면 주문도리 718번지

서도 중앙교회는 1907년 건축되었다고 한다. 현재의 서도 중앙교회 건물은 1923년 주문도 성도들이 7,000원의 헌금을 마련해 지었다. 한옥으로 지은 토착 예배당의 모습으로 목재와 기와를 강화에서 들여왔는데, 이를 나르기 위해 달구지를 끌던 소가 두 마리나 죽어 나갔다고 한다. 성당의 옆쪽으로 돌을 박아 장식한 벽에는 사람의 얼굴, 물고기, 별 모양이 있다. 1978년 주문교회에서 서도 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작은 산 중턱에 동서로 길게 자리 잡은 서도 중앙교회는 정면 4칸, 측면 7칸 규모의 한식 건축물이다. 지붕은 옆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의 팔작지붕이며, 홀처마 집이다. 정면 중탑부 돌출부에 2짝의 문을 달아 교회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 내부는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세 전기 서양교회 양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매우 단순하게 장식되어 있다. 내부의 전면에는 강단을 두었고 바닥에는 마루를 깔았다.



서도중앙교회

이 교회 건물은 근대 교회 건축사에서 성공회 강화성당, 온수리 성당과 공통점이 있는 중요한 건축물로 인정되어, 1997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14호로 지정되었다.

4) 대빈창지(待賓倉址)

위치 : 서도면 주문도리 산 298-2

대빈창은 주문도리에 현감이 부임할 때에 이곳을 거치게 되어 손님을 기다린다는 뜻에서 대빈(待賓)과 창고(倉庫)를 합하여 대빈창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현재 대빈창해수욕장이 있는 곳이다. 1997, 8년 방조제 공사로 주변 지형이 바뀌어 유적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곳이 주문진의 부속 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지만, 확인할 수 없다.

5) 주문도 봉구산 봉수

위치 : 서도면 주문도리 산 307번지

봉구산 봉수는 봉구산 정상에 있다. 정상에 오르면 남쪽으로 진말이 한눈에 들어온다. 북쪽으로는 읍사무소 소재 마을도 보이고, 불음도가 잘 조망된다. 봉구산 봉수는 관련 기록이 없어서 문헌 검토가 곤란하다. 그러나 그 위치와 구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해안의 여러 상황을 통어영에 보고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마을의 위급 상황을 다른 섬에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주문진(注文鎭)

위치 : 서도면 주문도리 600번지

주문진은 서도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했다. 서도초등학교 정문 왼편에 수군첨절제사 현득유의 영세불망비가 세워져 있다. 뒷면에는 “함풍 8년 12월”이라고 적혀 있어 이 비가 세워진 시기가 1858년(철종 9)임을 알려 주고 있다.

주문진은 1712년(숙종 38)에 설치되었는데, 철곶진을 옮겨 온 것이다. 경기수사 유성추가 해안 방어에서 주문도의 역할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주문진은 숙종 조를 거쳐 영조 대에 이르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것은 해적의 출몰, 외적의 침략 등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해안 방어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요한 지리적 위치임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7) 불음도 은행나무

위치 : 서도면 불음도리 산 186번지

불음도 은행나무는 800여 년 전 수해가 심할 때 바다에 떠내려 온 것을 이곳에 심은 것이라고 한다. 줄기 아래부터 발달한 굵은 곁가지들이 비껴 올라가면서 자랐다.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04호로 지정되었으며,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령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노거수이다. 나무 높이는 25m, 가슴 높이의 줄기둘레는 8m, 밑동 둘레는 9.7m이다. 가지 퍼짐은 동쪽 13.5m, 서쪽 12.2m, 남쪽 12.8m, 북쪽 10.3m이고, 가지 밑의 줄기 높이는 2m이다.

마을의 정자나무로 활용되고 있는 이 은행나무는 마을을 수호하는 당



불음도 은행나무

산나무 역할도 하고 있다. 해마다 1월 30일이면 마을사람들이 모여 평안함과 풍어를 비는 제사를 지내 왔다. 이곳은 북한이 흔히 내다보이는 곳으로, 한국전쟁 이후부터 고기잡이가 금지되자 풍어제는 자취를 감추었다. 나뭇가지를 꺾거나 부러진 가지를 불에 태우면 목신이 진노하여 재앙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주민 모두가 가지에 손대지 않으며 오늘날까지 정성껏 보호하고 있다. 굵고 오래 된 나무는 흔히 소리를 낸다는 전설이 전하는데, 이 나무도 그 가운데 하나로, 아침 저녁으로 줄기 속에서 벌레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8) 불음도 요망대

위치 : 서도면 불음도리 산 7-21

불음도 요망대는 불음도 최북단 봉화산 정상에 있다. 요망장 1명과 요망군 10명을 두어 운영하였으며, 해안의 위급상황을 교동 통어영에 보고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가공하지 않은 크고 작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현재 축대 시설이 남아 있다.

9) 말도 요망대

위치 : 서도면 말도리 산 68-1번지

말도 요망대는 해발 110m 산 정상에 있다. 이곳에서 사방을 살펴보면, 서쪽으로는 서해, 북쪽으로는 황해도 연백군, 동쪽으로는 불음도, 주문도, 아차도 등 서해 대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지다. 이곳에 요망장 1명과 요망군 10명을 두었다는 기록만 전한다. 말도 요망대를 비롯한 강화 내의 4개 요망대는 모두 봉수와는 달리 강화 본영이나 교동 통어영에 해안의 위급상황을 포성으로써 보고하는 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10)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강화 남단 갯벌은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번식지로 유명하다. 또 노랑부리백로, 도요새, 황오리, 검은머리갈매기 등 110여 종의 물새 4~5만 마리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방게·와게 등 강화 토종 게와 갯지렁이, 가무락조개, 망둥이 등도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적 희귀종인 넓적부리도요와 쇠창다리도요사촌과 알락꼬리마도요 등도 서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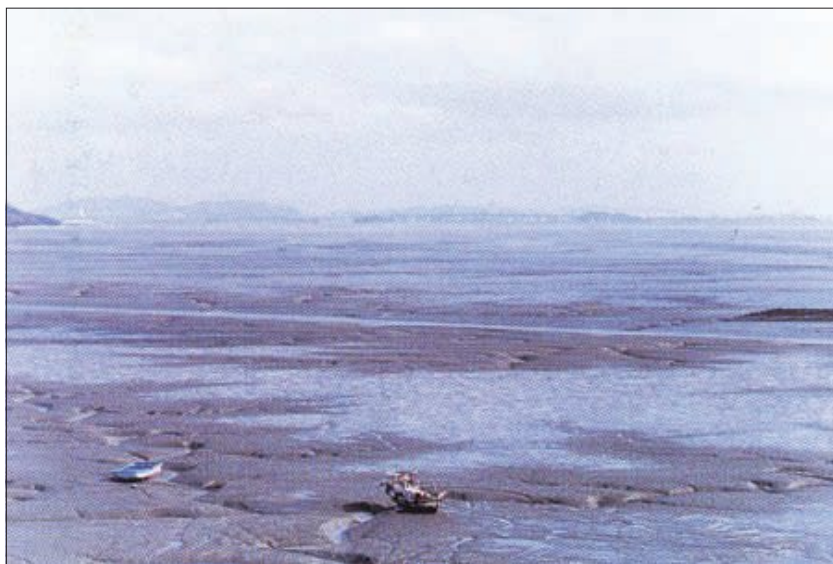
강화 갯벌의 저어새

저어새는 숟가락처럼 생긴 부리를 좌우로 저어가며 먹이를 찾는 모습이 특이한데, 발같이처럼 생긴 부리를 가졌다 하여 ‘가리새’라고도 한다. 몸길이는 73.5cm로 노랑부리저어새와 비슷하나 다소 작은 편이며, 부리도 14.5~19.3cm로 노랑부리저어새의 18.0~23.8cm보다 짧다. 부리에서 눈앞까지는 검은색이며 뒷머리에는 황갈색의 긴 땀기 같은 장식 깃이 있으며, 여름에는 깃이 흰색을 띤다. 목 아래 가슴 부분에는 황갈색의 테가 있는데, 겨울에는 장식 깃과 목 부분의 황갈색 테가 없어진다. 암컷은 수컷보다 약간 작으며 색깔은 거의 같다. 해안의 얕은 곳, 만입된 곳, 늪, 갈대밭, 논, 하구, 갯벌 등지에서 서식하며 숲과 습지(양어장 부근) 등에서 잠을 잔다. 국지적으로 중국 동부와 북한 서해안의 무인도서에서 번식하고 대부분이 중국의 동부와 남부에서 월동한다. 1945년까지는 서남 해안도서에 두루 번식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집단이 격감하여 통과 또는 월동하는 소수 개체만이 관찰된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매우 작은 집단이 남아 있어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는 서해안의 강화 남단 화도면 여차리 해안을 거쳐 중국 서남부 타이난 해안을 지나 동남아시아로 남하

하거나 북상할 때에 일시 기착한다.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1968년 5월 30일에 천연기념물 제205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강화 장화리에서 여차리, 동막리, 선두리, 초지리에 이르는 강화 남단 갯벌은 그 크기가 300km²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수많은 해양 생물 및 조류들의 서식지이다. 또한 이곳은 세계자연기금(IUCN)과 아시아습지보호협약(AWB)이 목록화한 우리나라 주요습지 10만 7,309ha의 10.5%, 인천과 경기도 갯벌 전체의 20%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2000년 7월 6일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는 모두 1억 3,600만평으로 여의도의 52.7배에 이르며, 단일 문화재 지정구역 가운데 최대이다. 강화군은 2005년에 화도면 일대에 갯벌센터를 건립하여 갯벌과 생물, 갯벌의 중요성 등 재미있는 갯벌 이야기와 더불어 저어새 관찰 등이 가능한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5. 설화

1) 설화

(1) 보문사 석굴 설화

삼산면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닷속에 그물을 던졌더니 인형 비슷한 돌덩이 22개가 함께 올라왔다고 한다. 이에 실망한 어부는 그 돌덩이들을 즉시 바다에 던지고 다시 그물을 쳤지만, 그 돌덩이가 또 올라와 다시 바다에 던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나 그것은 천축국에서 보내온 불상인데 그 귀중한 것을 바다에 두 번이나 던졌다고 책망하면서 내일 다시 돌덩이를 건지거든 명산에 봉안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다음날 돌덩이를 건져 올린 어부는 노승이 일러준 대로 낙가산으로 옮기는 중에 지금의 석굴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돌이 무거워져 더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신령스러운 장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굴 안에 단을 놓고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2) 보문사를 창건한 회정스님 설화

고려 의종 때 금강산 장안사(長安寺) 위에 자리 잡은 송라암(松羅庵)에서 관음기도를 올리는 한 승려(회정대사)가 있었다. 관음탄생일인 2월 19일부터 3년 기도를 마치는 날 밤 꿈에 한 노파가 “관음진신을 친견하려거든 해명골(解明谷, 현재 양구군 방산면)에 몰골옹(沒骨翁)과 해명방(解明方)이 살고 있을 것이니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꿈에서 깬 회정대사는 해명골을 찾아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대사는 그 노인에게 “혹시 이 고을에 몰골옹이 살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더니 “내가 몰골옹이오.”라며 반가이 맞이하였다. 하룻밤을 같이 자며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더니 그 노인은 해명방의 집을 가르쳐 주었다. 회정은 몰골옹의 말대로 그를 찾아갔는데, 해명방은 없고 묘령의 처녀만

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회정대사를 반기면서 말하기를 “어디서 오신 스님입니까? 해명방을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요?”라고 하니, 그가 찾아온 뜻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처녀는 “해명방은 나의 아버지인데 성품이 급하고 칼날 같아서 무슨 말이든지 순종을 해야지 만일 그렇지 않고 비위를 거스르기만 하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고 하였다. 이윽고 해명방이 나뭇짐을 짊어지고 오더니 눈을 부릅뜨며 말하기를 “너는 누구인데 남의 집 과년한 딸과 어울려 수작을 하느냐?” 하며 지게 작대기로 마구 때리는 것이었다. 회정은 그래도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고 “죽을 죄를 지었소이다.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무조건 사과하니 “이놈 답이 크구나.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부득이 내 사위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딸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하여 그 자리에서 혼례를 치르게 하고, 윗방을 신방으로 정해주기까지 하였다.

회정은 마굴(魔窟)에 빠진 것 같아서 아무 흥미와 이렇다 할 애정도 없이 47일을 지낸 후 장인인 해명방에게 “고향에 보내주십시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고 하였더니, “그 문수(文殊, 물골옹)란 영감이 공연히 너에게 내 집을 가르쳐 주어서 남의 딸만 버려 놓았구나. 가고 싶거든 어서 빨리 가거라.” 하였다. 회정은 다시 물골옹에게로 가서 말하니 그는 회정을 보고 “그대는 보현보살(해명방)과 관음보살(해명방의 딸)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해명방은 보현보살이요, 네 처는 곧 관음보살의 진신인 것을…”이라고 하였다. 그제야 깜짝 놀란 회정은 해명방에게로 다시 찾아갔더니 집도 없고 해명방과 그녀도 없었다. 회정은 발길을 돌려 물골옹을 찾아갔으나, 역시 그의 집도 물골옹도 없었다.

회정을 생각다 못해 금강산으로 다시 돌아와 관음보살을 만나게 해달라고 3, 7일간 기도를 했는데 꿈속에 백의 부인이 나타나 “네가 오늘 만폭동에 올라가면 관음진신을 다시 만날 터이니 가보라.”고 한다. 회정이 아침 일찍 만폭동의 폭포수를 끼고 올라가는 도중에 해명방의 집에서 같이 살던 딸, 즉 그의 아내가 개울가에서 머리를 감고 있지 않은가. 하도 반가워서 “여보, 여보, 당신이 여기서 무얼 하는 거요.” 하고

달려갔으나, 그녀는 파란 새[觀音鳥]가 되어 훨훨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회정은 미친 듯이 그녀를 뒤쫓아 가다가 물 아래를 내려다보니, 거울처럼 맑은 물속에 산 언덕이 비치고 그곳에 여자와 굴문이 비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머리를 돌려 쳐다보니 그녀가 굴문 앞에 서 있었다. 회정은 반가움에 찰넝쿨을 헤치며 단숨에 올라갔더니 그녀가 굴문 앞에서 반가이 맞아 주었다. “지난달 해명골에서 47일동안 저와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살던 인연은 백겁천겁이라도 만나기 어려운 인연입니다. 앞으로 기도 정진을 지성으로 하십시오. 물골옹은 문수보살의 화신이요, 해명방은 보현보살의 현신인데, 스님은 보덕화상의 후신이요, 나는 항상 이 굴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스님뿐만 아니라 인연이 있는 이가 찾아오면 그 인연을 따라 몸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회정대사는 크게 느낀 바 있어, 그곳 석벽에 “상주진신관자재보덕굴(常住眞身觀自在普德窟)”이라 새겨 놓았다. 그는 바위 위에 초암을 지어 삼백 일간 용맹 기도 정진을 하니 마침내 원통삼매(圓通三昧)를 성취하게 되었다.

(3) 섬돌모루의 큰 뱀

석모도 앞 섬들에는 엄청나게 큰 뱀이 살았다고 한다. 소도 삼길 정도로 큰 뱀이었다고 한다. 섬돌모루에는 암늪이 살았고 건너편 돌섬에는 수늪이 살았다. 둘이 교미를 하러 갈 때는 바다가 뒤집혀 어로 작업을 할 수 없었다. 한 주민은 “엄청 큰 뱀 구멍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뱀이 큰 걸 알았지. 그전에는 소도 놔 키웠는데 소도 잡아 먹어버리고 해서…” 소도 삼킨 전설의 뱀이라고 한다.

(4) 미륵을 새긴 보문사 눈썹바위

보문사가 있는 산은 상봉산 절고개라고 하는데, 산등이 전체가 돌로 되어 있다. 천연으로 된 바위로 지형이 험하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그곳에 미륵을 새길 때 자꾸 쇠가 구부러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불공을 드렸더니 쇠가 구부러지지 않고 부처님을 바르게 새길 수 있었다고 한다.

(5) 떠내려 오다 뒤집힌 상주산

석모도에는 상봉산과 상주산이 있는데, 상주산은 인화성에 있던 산으로 상봉산에 건너차여 산이 뒤집혔다고 한다. 예전 큰 홍수 때에 상주산이 거창하게 떠내려오자, 상봉산이 이에 밀려 자리를 잃을 것 같아 상봉산이 상주산을 뱉다 건너차자 떠내려오던 상주산이 엎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상봉산이 젖가다리 앞아 있는 모습이고, 상주산은 뒤집힌 모습이다. 상주산 꼭대기에 아직도 굴꼭지가 있고, 상주산 말바위도 뒤집혀 있다. 이런 연유로 이곳에서는 큰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6) 해적 한가라치가 붙잡힌 한가라지

석모3리 난곳에서 조금 올라가면 절터가 있다. 이 절터에는 옛날에 빈대가 많아서 절이 망했다고 한다. 나무가 흔해서 전등사에서 절이 헐렸을 때 싸리 기둥하고 칙 보를 가져다 기둥으로 썼다고 한다. 이곳은 운치가 좋아 가라치라는 중이 절을 짓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해적들이 절을 습격하였다. 해적들은 상선으로 위장한 해적선을 타고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해적질하며 먹고 살았다. 우연이 이 근처를 지나던 해적들이 산골짜기에서 쌀뜨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산골에서 웬 쌀뜨물인가 하고 쌀뜨물을 따라 살그머니 산골짜기를 올라가 보니 작은 절이 있었다. 조용히 절을 살피는데, 이를 본 가라치라 놀라 도망치다 붙잡히고 말았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해적을 피해 도망가던 가라치라는 중이 붙잡혔기 때문에 가라치가 한이 맺힌 곳이라 하여 한가라치라고 부르게 되었다.

(7) 굴을 따지 않는 날 검디통

주문도에서는 북쪽에 있는 서검도로 굴을 따러 다닌다. 그러나 시월 보름인 검디통에는 굴을 따러 가지 않는다. 옛날에 일기가 좋은 날에 굴꾼을 목선으로 잔뜩 싣고 가서 거기다 서검도 바위에 풀어 놓았으나, 풍랑이 갑자기 닥쳐오며 물이 높아지자 배를 갖다 대지 못해 굴을 따러 갔던 사람이 모두 죽고 말았다. 이때 불어온 북풍을 검디통 바람이라고 한다. 시월 보름으로, 물때가 여섯 때가 되는 날로 굴 따러 가기 좋은 물 때이다. 이후로는 시월 보름날에는 “오늘 검디통이다. 오늘은 가지 말아라. 조심들 해라.”라고 하며 굴 따러 가지 않는다고 한다.

(8) 쾡무니가 바다로 향한 말바위

삼산면의 말바위는 거꾸로 서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부자가 나오지 못한다 말의 머리가 바다 쪽에 있으면 좋은 형상인데, 쾡무니가 바다 쪽에 있어서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부자가 나오는 것이 탄 데만 못하다고 한다.

(9) 국운을 알리는 은행나무

불음도의 은행나무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한다. 한국전쟁 때도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도 은행나무에서 소리가 났다고 한다. 4·19혁명 때에도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몰래 숨어 그 소리를 들으려고 했지만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동네 사람은 다 들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쓸려서 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무에서 이상스런 소리가 나면 “이거 국운이 좋지를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

— 임학성(인하대 교수) · 문상범(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

※ 참고문헌

- 『世宗實錄地理志』(15세기 전반 撰)
- 『新增東國輿地勝覽』(16세기 전반 撰)
- 柳馨遠, 『東國輿地志』(1656년 撰)
- 李衡祥, 『江都志』(1696년 撰) : 『譯註 江都志(上)』,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6.
- 『輿地圖書』(1760년경 撰)
- 金魯鎭, 『沁都志』(1783년 撰) : 『譯註 江華府志』,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7.
- 『戶口總數』(1789년경 撰)
- 金正浩, 『大東地志』(1863년경 撰)
- 『喬桐郡邑誌』(1899년 撰) : 『譯註 喬桐郡邑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6.
- 朴憲用, 『續修增補 江都誌』(1932년 撰) : 『譯註 續修增補 江都誌(上)』,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6.
- 『신편 강화사』, 강화군, 2003.
- 『강화의 옛 지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2003.
- 『인천의 지명유래』, 인천광역시, 1998.
- 『강화군도의 국방 유적』, 육군박물관 · 강화군, 2000
- 『강화의 문화유산』, 인천광역시 ·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2.

제2장 연륙된 인천의 섬



연륙된 인천의 섬

1. 강화도

1) 연혁과 지명유래

(1) 지리적 개관 및 연혁

강화도(江華島)는 강화군의 본섬으로 한강·임진강·예성강 하류를 경계로 북한의 연백군과 개풍군이 인접해 있고, 동쪽은 염하(鹽河)를 사이에 두고 김포시와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은 서해 바다, 남쪽은 대규모의 해안 갯벌을 지나 여러 섬들을 아우르고 있다. 현재 강화도는 남북 간의 거리는 27km, 동서 간은 19km, 면적은 305.52km²으로 제주도, 거제도, 진도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큰 면적을 갖는 섬이다. 육지와 도서를 합한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264.78km이고, 총 26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9개의 섬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강화도의 지형은 남북이 동서 폭에 비해 길이가 긴 형태로 해안지역에는 대체로 해발 100m 내외의 저산성 구릉들이 분포하지만 내륙에는 마니산(摩尼山, 469m), 혈구산(穴口山, 466m), 진강산(鎭江山, 443m), 별립산(別立山, 400m), 길상산(吉祥山, 336m) 등의 비교적 높은 산지들이 솟아 있고 이들 산지 사이로 넓은 평지가 발달해 있다. 강화도는 현재 하나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본래 3~4개의 섬이었

다. 섬과 섬 사이의 간척지를 간척하여 그곳을 농경지로 사용하며 지형의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다. 현재 산지 사이의 넓은 평야 대부분은 바닷물이 드나들던 곳으로 후대의 간척사업으로 인해 육지가 된 것이다.

강화도의 간척사업은 고려시대 왕실이 강화도로 천도하며 갑자기 늘어난 이주민의 식량 자급을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졌다. 1256년 강화도 북부 조강(祖江) 연안의 '제포'와 '와포'에 독을 쌓아 좌둔전을 만들고 동쪽 염하 번의 '이포'와 '초포'를 막아 우둔전을 조성하였다. 공민왕 때에는 하점면 창수리 별립산 말단부에서 망월돈대 사이 길이 약 3km



의 바다를 막아 '만리장성 독'을 쌓았다. 이후 내가면 황청리 서쪽의 포촌해안으로부터 북쪽으로 망월돈대까지 방조제를 완공하여 해안방비와 물막이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강화에서 단일 간척평야로는 가장 넓은 망월평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 마니산이 있는 화도면은 원래 '고가도'라는 이름의 섬이었으나, 간척을 통해 강화 본섬과 연결되었다. 이후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간척이 진행되어 현재 강화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조선후기 간척 사업을 대표하는 '선두포언'은 강화도 최대 규모의 제언으로 간척지 주위는 약 12km에 달한다.

① 강화도의 시기별 간척사업(인천의 갯벌과 간척)

1969년 강화도와 육지 사이를 잇는 길이 694m의 강화대교가 놓이며 더 이상 섬이 아닌 육지의 연장선이 되었고, 2002년 길이 1.2km의 초지대교가 추가로 개통되어 육지와 섬은 더욱 긴밀해졌다. 강화군의 행정구역은 1읍 12면으로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으로 구성



강화도 초지진에서 바라본 초지대교



『삼국사기』 권36 지리2 해구군

되어 있는데, 본섬인 강화도에는 교동·삼산·서도의 3개 면을 제외한 1읍 9면이 있다. 2017년 1월 현재 강화군 전체 인구는 68,024명인데, 그 중에서 약 91%에 해당하는 62,050명이 본섬인 강화도에 거주하고 있다.

② 연혁

강화도에 사람들이 거주한 흔적은 구석기시대부터 확인이 되고 있고, 현재 하점면 부근리와 신삼리 등지의 고인돌이 보여주듯이 청동기시대 토착지배세력이 소국을 형성하였다. 삼국시대 초기 강화도는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어 갑비고차(甲比古次)라 불렸으며, 391년(광개토왕 1) 고구려의 백제 침공시 고구려의 영역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때 강화는 혈구군(穴口郡)이라 불렸으며, 그 속현으로 동음나현(冬音奈縣, 지금의 하점면)과 수지현(首知縣, 지금의 길상면), 고목근현(高木根縣, 지금의 교동면)이 있었다. 삼국시대 말기 이 지역을 놓고 벌인 삼국 간의 치열한 경쟁은 강화도가 갖는 전략적 위치를 짐작케 한다. 고구려나 백제의 입장에서 이 지역은 영역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을 것이

고 신라의 경우 이 지역의 확보가 중국과의 교역로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화도는 예로부터 한반도 내륙을 잇는 황해 북부 연안 항로의 기착점이었기 때문에 삼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중국과 교류했던 신라에게는 이 지역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결국 553년(진흥왕 14) 이 지역을 차지하여 황해 항로를 확보한 신라는 타국의 간섭 없이 당과 활발한 외교를 펼칠 수 있었고 그 결과 삼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

삼국통일 이후 685년(신문왕 5) 신라는 왕권강화를 위해 군현제를 기초로 하는 지방통치체도를 완성하여 전국을 9주로 나누고 5소경을 두었다. 강화도는 한주(漢州)에 속하였는데 757년(경덕왕 16) 지방제도 개편시 지명을 해구군(海口郡)으로 개칭하고 호음현(沔陰縣), 수진현(守鎭縣), 교동현(喬桐縣)을 속현으로 두었다.

844년(문성왕 6) 신라는 강화에 혈구진(穴口鎭)을 두어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혈구진의 설치 828년(흥덕왕 3)과 이듬해 이루어진 청해진(淸海鎭)과 당성진(唐城鎭)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당시 바다에서 출몰하던 해적을 방비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으며 이 세 곳은 모두 항로상의 주요 경유지였다. 따라서 삼국시대에 비해 전략적인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통일 신라시대에도 강화지역이 여전히 당으로 향하는 중요 경유지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통치체제가 거의 무너지게 되는 신라말 효공왕이 송악에 도읍하여 나라를 세운 궁예는 공암(孔巖, 현재 가양동)과 검포(黔浦, 현재 경기도 김포시), 그리고 혈구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즉 내륙에서 힘을 모은 궁예는 해상무역을 통해 성장한 송악 지역호족인 왕건세력을 복속함과 동시에 혈구진을 격파하여 높은 수준의 수군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왕건을 앞세운 태봉의 수군은 바다를 이용하여 후백제의 요지인 금성(나주)을 함락시켰던 것이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하고 그 명칭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때 강화(江華)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고려는 940년(태조 23) 강화도에 강화현을 설치하였으며, 1018년(현종 9)에는 현령(縣令)을 두고 진강현, 하음현, 교동현을 속현으로 하였다. 또, 백령도에 진(鎭)을 설치하여 통일신라 말 혈구진에서 담당하던 해안방어를 맡게 하였다.

1232년(고종 19) 몽고의 침입으로 고려왕실이 강화로 천도하며, 강화는 고려의 전시수도로서 항몽 투쟁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로써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할 때까지 39년간에 걸쳐 강도(江都) 시대가 전개되었다. 천도가 결정된 직후부터 궁궐, 내성, 외성, 관청, 중성 등을 건립하며 도성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고, 방어시설도 완비되어 갔다. 강화도는 자연조건뿐만 아니라 완비된 방어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고, 몽골군을 뛰어넘는 수군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39년간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왕실이 개경으로 환도하며 각종 시설들은 파괴되었고, 행정체제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강화는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강화는 조선의 수도에 인접하고 있어 뱃길과 나라의 관문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왕실의 보장지(保障地)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강화로 잠시 피난하기도 했는데, 이때 강화는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되었고 경기 남양에 있던 수영을 강화의 월곶진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이러한 조선 중기 이후의 강화에 대한 인식변화는 조선후기에까지 영향을 미쳐 성곽, 돈대 등의 관방시설과 사고(史庫)·행궁(行宮)·외규장각(外奎章閣) 등 국가의 주요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19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수도 한양의 초입을 지키고 있던 강화는 조선과 제국주의 열강이 충돌하는 전장이 되었다. 1866년에 일어난 병인양요와 1871년 발생한 신미양요가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는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을 빌미로 강화의 갑곶진에 상륙하여 강화부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외규장각과 기



1919년 강화 지형도[朝鮮五萬分一地形圖：江華, 金浦, 溫水里, 通津]

타 관아 및 전등사 등에서 각종 서적과 군기, 은자 등 귀중품을 약탈하였으며 관아 건물과 민가에 방화했다. 한편 상선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 아시아함대는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를 연이어 함락시키고 개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진 철수하였다.

두 번의 양요를 겪은 후 조선 조정에서는 대원군이 실각하고 1873년 고종의 친정이 이루어졌다. 1875년 8월 강화해협을 무단 통과하려는 일본군함 운양호(雲揚號)에 포격을 문제 삼아 운양호는 초지진을 파괴한 후 영종진을 함락시키고 물러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76년 2월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가 체결되어 조선은 개항을 하고, 강화에도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들었다.

1914년 일제가 조선의 부·군·면·을 통폐합할 때 교동군을 강화군에 편입하였고, 이때까지 강화 소속이었던 신도·시도·모도·장봉도를 신설 부천군에 이양하였다. 그래서 강화군은 부내(府內), 선원(仙源), 불은(佛恩), 길상(吉祥), 하도(下道), 양도(良道), 내가(內可), 하점(河岾), 양사(兩寺), 송해(松海), 삼산(三山), 서도(西道), 화개(華蓋), 수정(水晶)의 14개 면을 관할하는 군으로 개편되었다. 1934년 4월 1일 화개면과 수정면을 합하여 교동면(喬桐面)이라 칭하였으며, 1937년에는 하도면을 화도면(華道面)으로, 1938년 부내면을 강화면으로 각각 개칭하였다. 1962년 10월 1일에는 서도면에 불음출장소를 설치하였으며, 1973년 7월 1일에는 강화면이 강화읍으로 승격되었다. 1995년 3월 1일부터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편제되어 1읍 12면과 법정리 96개, 행정리 182개, 313 마을로 편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지명유래

갑비고차(甲比古次)라는 강화의 옛 지명에서 ‘갑비’는 고유어 ‘갑’을 포기한 것이고, ‘고차’는 ‘곶, 곶이’를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갑비고차는 ‘곶곶’, 즉 ‘두 갈래 물(바다·강)에 있는 곶이 고을’의 뜻이며, 후대에 고친 지명 ‘혈구(穴口), 해구(海口), 강화(江華)’에서 ‘혈(穴)·해

(海)·강(江)’은 앞의 ‘갑비’에 대응되는데, 이들 두 갈래의 의미는 제외된 물(바다·강)의 뜻만을 취한 것이다. 또한, ‘고차’ 즉 ‘곶’은 후대의 지명들과 ‘구(口)·화(華)’로 대응되는데 모두 같은 조어(祖語)인 ‘곶’에서 출발한 같은 의미를 가진 지명형태소임을 알 수 있다.

‘강화(江華)’라는 지명은 고려 초기인 940년(태조 23) 강화현을 설치하며 생긴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존 지명들 모두 ‘강(江)’과 ‘하구(河口)’에서 연유된 것으로 ‘강화’란 명칭이 ‘강의 아랫 고을’이라 하여 ‘강하(江下)’라 부르다가 ‘강화(江華)’로 변음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강도(江都)’는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을 피해 강화로 천도하며 부른 지명이고, 다른 별칭으로 ‘심주(沁州)’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심도(沁都)’와 ‘심부(沁府)’는 각각 『여지도서』(1760)와 『강화부지』(1783)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심(沁)’은 ‘물이름’이라는 새김을 가진 글자를 의미한다.

① 강화읍(江華邑)

강화읍은 고려전기에 강화현에 속하였고, 1232년(고려 고종 19) 몽골의 침입으로 개경에서 천도 한후 강도의 소재지였으며 1377년(우왕 3) 강화현이 강화부로 승격된 이후 부치(府治)가 자리하고 있어 조선시대 이래 부내면(府內面)이라 칭하다가, 1938년 강화군의 이름을 따라 강화면으로 개칭하였고 1973년 7월 1일 강화읍으로 승격되었다.

강화는 강과 연관된 지명으로 강(한강, 임진, 예성)을 끼고 있는 아랫 고을이라 강하(江下)라 부르다가 강 아래 아름다운 고을이란 뜻으로 강화(江華)로 개명한 듯하다.

② 선원면(仙源面)

고려 고종 때 전국 2대 사찰의 하나인 선원사(禪源寺)가 이곳에 있었다하여 선원면(禪源面)이라 하였고, 조선 인조 이후부터 선원면(仙源面)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선원은 신선(仙)이 사는 별천지 즉 이상향이란 줄

은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불은면(佛恩面)

고려시대 불교가 융성할 때 이곳 고릉리에 자은사(慈恩寺)가 있었는데 이 절의 이름에서 은자를 따서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지역이란 뜻으로 불은면이라 칭하였다고 하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불은면과 인정면을 병합한 후에도 그대로 불은면으로 부르고 있다.

④ 길상면(吉祥面)

조선시대에 길상산의 이름을 따라 길상면이라 칭하였으며 길상산에는 양마목장(良馬牧場)이 있었고, 임금께 진상하던 약쑥과 감쪽관청에서 향탄(香炭)을 공급하는 등 이로 인해 좋은 행운이 깃들었다는 뜻으로 길상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⑤ 화도면(華道面)

옛날에는 고가도(古加島)란 섬이었으며 강화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조선시대 이래로 하도면(下道面)이라 칭하다가, 1937년 하도공립보통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있던 일본인 산원(山元)의 제청으로 하도(下道)라는 명칭이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여 화도(華道)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⑥ 양도면(良道面)

조선시대 이후 하도면과 마주하면서 옛 진강현의 부치 쪽 곧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 상도면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위량면(位良面)과 합하고 위량면에서 양(良)자와 상도면에서 도(道)자를 따서 양도면이라 칭하였다.

⑦ 내가면(內可面)

조선시대 이래로 내가면이라 하였는데 내가면이란 명칭은 1914년 행

정구역 개편 이전에 있던 외가면(外家面)의 안쪽에 있다는 뜻으로 상대적 개념으로 붙여진 듯하다.

⑧ 하점면(河岾面)

고려 때 있던 하음현(河陰峴)의 이름을 따서 조선시대 이래로 하음면이라 칭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하음면에 간점면(艮岾面)과 외가면(外家面)을 합하고 하음에서 하(河)자와 간점에서 점(岾)자를 따서 하점면이라 하였다.

⑨ 양사면(兩寺面)

양사(兩寺)란 두 개의 절이란 뜻으로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서사면과 북사면을 합쳐서 양사면이라 칭하였다.

⑩ 송해면(松海面)

조선시대 이래 송정포(松亭浦)의 이름을 따서 송정면(松亭面)으로 칭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송정면(松亭面)과 삼해면(三海面)을 병합하고 송정면에서 송(松)자와 삼해면에서 해(海)자를 따서 송해면이라 칭하였다.

⑪ 교동면(喬桐面)

신라 경덕왕 때부터 교동현 즉, 큰오동나무 고을이라 칭하였으며 1934년 종래의 교동현의 이름을 따라 교동면으로 부르고 있다.

⑫ 삼산면(三山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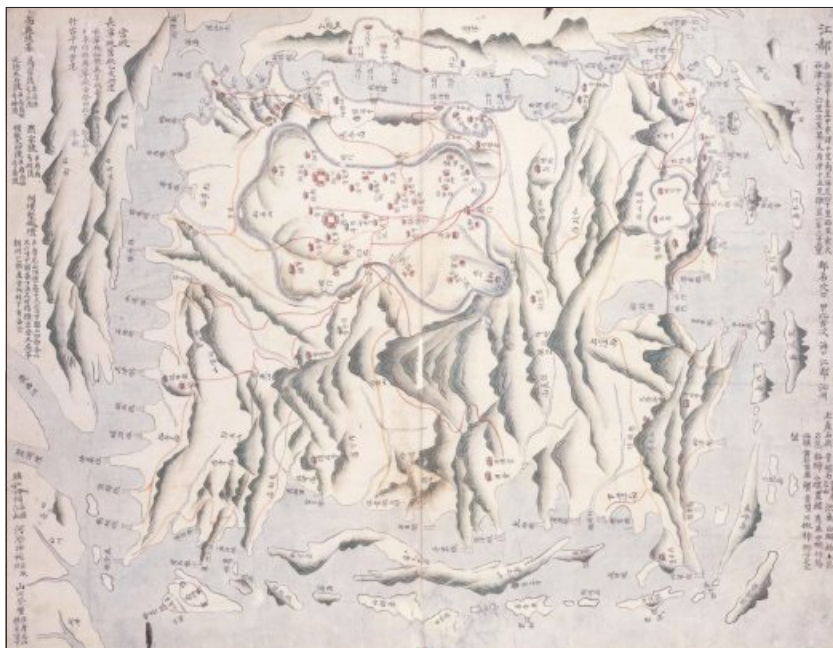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석모도(席毛島)에 있는 해명산(海明山), 상봉산(上峯山), 상주산(上主山) 등 세 개의 산이 있다고하여 삼산면이라 칭하였다.

⑬ 서도면(西島面)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강화부의 여러 섬인 주문도(注文島)·아차도(阿此島)·불음도(浬音島)·말도(謨島) 등 네 개의 섬을 묶어서 강화본도 서해상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여 서도면이라 칭하였다.

2) 전근대 지지류에 나타난 강화도

(1) 지도로 보는 강화도



『해동지도』(강도, 18세기 중반) 일부

① 해동지도

이 지도에서는 강화를 고려시대의 ‘강도’로 표기하고 있고, 지도의 위쪽을 동쪽으로 하여 강화 지역의 본섬과 부속 도서들, 그리고 김포 반도의 통진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산으로 고려산, 송악산, 혈굴산, 정족산, 마니산 등이 표시되어 있고, 염하 건너의 육지 쪽에 있는 문수

산도 나타나 있다.

지도의 왼쪽 상단에 음성 형태의 내성이 보이고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건물들이 조밀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곳이 강화의 치소이다. 이 안에는 행궁(行宮), 수진궁(壽進宮), 명례궁(明禮宮), 명선궁(明善宮) 등의 궁궐 건물들과, 상아(上衙), 이아(二衙), 호서고(戶西庫) 등의 관아 건물, 군기(軍器), 군포(軍舖) 등의 군사 시설, 서창(西倉), 남창(南倉) 등의 창고가 분포하였다. 또한, 외성은 한강 하류 및 염하에 접하는 해안선을 따라 집중 분포하고, 진보 및 돈대 등의 방어시설들이 연이어 나타난다. 광성보(廣城堡), 덕진진(德津鎭), 월곶진(月串鎭), 초지진(草



『조선지도』(강화, 18세기 중·후반)

芝鎭) 등의 방어용 진보(鎭堡)들은 주로 강화도 동쪽의 외성을 따라 분포하고, 갑곶돈(甲串墩), 건평돈(乾坪墩) 등의 돈대(墩臺)는 강화도의 모든 해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요한 나루터로 갑곶진(甲串津), 광성진(廣城津), 승천진(昇天津),

인화진(寅火津) 등이 확인되는데, 초지진과 광성진은 통진으로, 인화진은 교동으로, 승천진은 풍덕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이름이 일일이 기입되어 있고, 바다에는 섬들과 그 이름이 자세히 적혀있다.

② 조선지도

지도에 표현된 주요 공간 요소들은 비교적 단순한 편으로 산 이름과 치소의 위치, 행정구역과 섬 이름, 포구 이름 정도이다. 앞의 『해동지도』와 달리 치소의 건물들은 묘사하고 있지 않고, 봉수와 외성, 도로 등만 표시되어 있다. 주요 산으로 고려산, 혈굴산, 하음산, 정족산, 마니산 등의 산 이름이 보이고, 하천으로는 고려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과 정족산 인근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확인된다.

바다에는 염하 초입의 동검(東檢), 시도(矢島), 모도(茅島), 신도(信島) 등의 섬들을 비롯해 본섬 서쪽의 송가(松家), 석모로(席毛老), 주문(注文), 매음(煤音), 불음(虜音), 서(黍), 서검(西檢) 등의 크고 작은 섬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③ 광여도

이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을 가리키고, 강화 지역의 옛 지도 중 본섬을 비롯해 인근의 부속 도서들을 포함한 가장 넓은 공간 범위를 표현하며 매우 화려하게 채색된 지도이다. 지도에 표현된 주요 공간 요소들로는 산줄기와 물줄기, 치소의 위치, 주요 산 이름과 행정 지명들, 섬 이름 등이다. 앞의 『해동지도』와 달리 수많은 진보(鎭堡)와 성곽들이 소략하게 표시되어 있다. 또, 전체적으로 보아 강화도 본섬에 대한 상세정보보다는 주변의 다른 도서들의 전반적 분포와 함께 각 도서에 설치되었던 주요 국가 시설들을 표시해줌으로써 강화도와 주변 도서들과의 지정학적 지리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광여도』(강화, 19세기 전반)

강화도의 경우 강화부 읍성과 성문, 천등사(天燈寺)와 주변 성곽, 교동도의 경우 경기수영과 고을 터, 송가도와 매음도의 경우 금산(禁山) 및 둔답(屯畜), 기타 주요 섬들 사이의 거리 등이 나타나 있다. 강화도 본섬과 교동도 외의 소규모 섬들로는 매음도(媒音島), 송가(松家), 동검도(東儉島), 망음도(望音島), 아차도(我次島)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들 소규모 도서들에 대해서는 해당 섬이 행정적으로 강화부와 경기수영(교동도) 중 어디에 편입되어 있는지를 섬 이름 앞에 표시하고 있다.

④ 동여도

이 지도는 강화도와 교동도 지역의 행정 경계를 비롯해 군현 사이의 경계선이 천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지도에 표현된 주요 공간 요소들로는 산줄기와 물줄기, 치소의 위치, 치소로부터 뻗어나간 주요 도로들, 주요 산 이름과 행정 지명들, 섬 이



『동여도』(강화 및 교동, 19세기 중반)

름 등이다.

행정 지명이 매우 많이 등장하며 서해안에 표시된 섬들의 수도 다른 어떤 고지도들에 비해 많다. 강화도와 교동도에는 치소가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들 치소를 중심으로 간선 도로가 나타나 있다. 강화도의 간선도로는 치소를 중심으로 동쪽의 김포반도 방면, 북쪽의 황해도 방면, 서쪽의 교동도 방면, 남쪽의 장곶(長串) 및 정족산 방면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염하를 따라서도 간선도로가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바다 건너 인천 지역으로 연결되고 있다. 교동도의 경우 북쪽으로 황해도 방면, 남쪽으로 송가도 방면으로 주요 도로가 표시되어 있다.

⑤ 1872년 군현지도

이 지도는 위쪽이 북쪽을 가리키는 정방위 지도이고, 여타 회화식 지도와 달리 고른 축적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중앙부 약간 위쪽에 다수의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이 강화부의 치소이다. 섬의 해안선을 따라서는 강화도를 상징하는 많은 돈대와 진보들을 기호로 나타내고 있다. 상세하게 나타낸 산줄기와 함께 주요 하천들도 매우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섬의 곳곳에 빨간 원으로 표시된 곳은 강화부에 속한 행정 면들이다. 치소를 중심으로 각 면의 중심지와 돈대, 진보 등의 군사적 요충지를 연결하는 도로들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고, 염하를 따라서는 선박이 다니는 항로가 표시되어 있다. 물론 항로의 출발점인 주요 포구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확인된다.

강화도는 조선시대에 간척 사업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위 지도에서 보이듯이 이전의 고지도들에서 송가도와 매음도로 나뉘어 있던 석모도는 이제 하나의 섬이 되어 있다. 또, 해안 지역에는 동두언(東頭堰), 가릉포언(嘉陵浦堰), 장지포언(長池浦堰) 등의 제방 이름이 기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들 제방은 방조제 기능을 하였을 것이며, 이 지도에서 강화도 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방조제들은 당시 강화도 해안 지역에서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872년 군현지도』(강화, 19세기 중반)

(2) 지리지로 보는 강화도¹⁾

① 건치연혁(建置沿革)

옛 이름은 감비고차이고 고구려 때 처음 군을 설치하여 혈구라 하였
고, 신라에 속해서는 해구라 하였으며, 신라 때 진을 설치하여 혈구진
이라 하였다. 고려 때에도 옛 이름을 썼고 현으로 바꾸었다. 천도해서
는 강화라 하였으며 또 심주라고도 하였다. 군으로 복치하고 수도가 되
었는데 강도·심도라 불리는 것은 본래 이로부터 비롯하였고 이후에 인
천에 병합되기도 하였고, 또 부가 설치되어 부사를 두기도 하였다. 조
선 태종조에 이르러서는 부가 승격되어 도호가 되었고, 광해군 때 승격
되어 윤을 두었고, 인조조에 승격되어 유수를 두었다. 숙종조에는 진무
영을 두었는데 지금은 통어영으로 옮겨 속하게 하고 모두 유수가 겸하
였다.

② 성곽(城郭)

부치(府治) 내성(內城)은 돌로 쌓았고 송악을 기준으로 남쪽 화산에서
북쪽까지 둘레가 15리 343보이고 치첩은 1,813개이다. 옛 성의 둘레
는 1,658보이다. 정축년 도적떼의 난 때 오랑캐가 훼손하였는데 숙종
정사년(숙종 3, 1677)에 유수 허질이 개축을 시작하였고, 유수 박권(朴
權)·유수 민진원(閔鎭遠)이 계속하여 역을 마무리하였는데 그 터의 경
계를 확장하여 만들어졌다. 동문은 망한, 서문은 침화, 남문은 안파라
하였고, 북문은 문루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당시의 임금 계묘년에 유
수 김노진이 망루를 세우고 편액을 진송이라 하였다.

외성(外城)은 옥포에서 초지 연해까지에 걸쳐 쌓아 무릇 43리 290보

1) 강화 관련 지리지의 내용이 방대하고, 주어진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1783년(정조 7) 김노진(金魯鎭)이 편찬한 『강화부지(江華府誌)』에서 강
화도의 역사 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만을 추려서 정리하였다. ‘건치연혁(建置沿革),
성곽(城郭), 진보(鎭堡), 봉수(烽燧), 제언(堤堰), 도서(島嶼), 궁전(宮殿), 부해(府廩),
능묘(陵墓), 불우(佛宇), 고적(古蹟)’ 등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인데 옛날에는 흙으로 쌓았다. 영조 갑자년(영조 20, 1744)에 유수 김시혁이 구운 벽돌로 다시 쌓았는데 높이가 20척 너비가 5척이다. 그 후에 훼손된 것에 따라 보수하여, 이미 보수한 것이 17,762보, 보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 3,692보이고, 병인년부터 벽돌을 돌로 고쳐 시작하였다. 월곶, 옥포, 광성, 덕진, 갑곶진, 진해사 등 6곳 모두 가루를 설치하였다.

정족산성은 돌로 쌓았고 부치 남쪽 35리에 있고, 3개의 봉우리가 솟발처럼 대치하여 이러한 이름이 되었다. 둘레는 5리, 치첩은 705개이고 문루가 남문에 있는데 편액은 종해이다. 당시의 임금 계묘년에 유수 김노진이 중건하였다. 정포성은 옛날에는 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단지 웅성이 있고 이야기만 전한다. 반정 후 광해군 세자가 거처한 곳이라 하나 역사적 근거가 되는 것은 없고 지금은 진을 설치하였다.

③ 진보(鎭堡)

월곶진은 부치의 동북쪽 10리에 있다. 숙종 병신년 유수 홍중보가 설치하였다. 제물진은 부치의 동쪽 10리 갑곶진 위에 있다. 북쪽으로 가면 월곶진이 10리 거리에 있고 역시 병신년에 설치하였다. 용진진은 부치의 동남쪽 10리에 있다. 북쪽으로 가면 제물진이 10리 거리에 있고 역시 병신년에 설치되었다. 광성보는 부치의 동남쪽 25리에 있다. 북쪽으로 가면 용진진이 15리 거리에 있고 효종 무술년에 유수 서원이가 설치하였다.

덕진진은 부치의 동남쪽 30리에 있다. 북쪽으로 가면 광성보가 5리 거리에 있고 옛날에 통어영에 속하는 수군첨사를 두었다. 현종 병오년 유수 서필원이 계문을 올려 혁파하고 별장을 두고 첨사는 진의 동쪽 통진과의 경계인 신타포라 이르는 곳에 옮겼다. 숙종 정사년 유수 허질(許秩)이 계문을 올려 만호로 승격시켰다. 초지진은 부치의 남쪽 30리에 있다. 북쪽으로 가면 덕진진이 15리 거리에 있고 또한 병신년에 설치하였고 병오년에 계문을 올려 만호를 두었다. 영종 계미년에 유수 정

실이 계문을 올려 첨사를 감목이 겸하도록 승격시켰다.

선두보는 부치의 남쪽 35리에 있다. 동남쪽으로 가면 초지진이 20리 거리에 있다. 숙종 병술년에 유수 민진원이 계문을 올려 혁파하고 화도진으로 옮기고 이곳에는 별장을 두었다. 장곶보는 부치의 서남쪽 50리에 있다. 동북쪽으로 가면 선두보가 30리 거리에 있다. 숙종 병진년에 유수 허질(許秩)이 설치하였다. 정포보는 부치의 서남쪽 25리에 있다. 남쪽으로 가면 장곶보가 25리 거리에 있다. 옛날에 수군 만호를 두었는데 유수 서필원이 계문을 올려 교동 수군으로 옮기고 별장을 두었다. 기유년 유수 김휘가 도로 만호를 두었다. 숙종 무오년 유수 윤이제가 또 계문을 올려 장봉으로 옮기고 다시 별장을 두었다.

인화석진은 부치의 서쪽 30리에 있다. 남쪽으로 가면 정포보가 30리 거리에 있고, 또한 병신년 설치 처음에는 별장을 두었다가 기미년 유수 윤이제의 계문에 의해 만호로 승격하였다. 철곶보는 부치의 북쪽 30리에 있다. 남쪽으로 가면 인화진이 20리 거리에 있고, 옛날에는 통어영에 속한 수군첨사를 두었으나 유수 서필원의 계문에 의하여 풍덕의 수군에 속하게 하고 별장을 두었으나 유수 김휘가 첨사를 다시 두었다. 숙종 임진년에 유수 조태로가 계문을 올려 주문도로 옮겼고 다시 별장을 두었다. 승천보는 부치의 북쪽 20리에 있다. 서쪽으로 가면 철곶보가 5리 거리에 있고, 동쪽으로 가면 월곶진이 20리 거리에 있으며 또한 병신년에 설치되었다. 문수진은 갑곶진과 통진의 경계에 있으며 서쪽으로 가면 부치의 10리 거리에 있다. 숙종 갑술년에 설치되었다.

④ 돈대(墩臺)

적북돈은 부치의 북쪽 10리에 있고, 둘레 96보, 성가퀴 39개이다. 휴암돈은 북쪽으로 가면 적북돈이 550보 거리에 있고, 둘레 83보, 성가퀴 30개이다. 월곶돈은 북쪽으로 가면 휴암돈이 1,110보 거리에 있고, 둘레 124보, 성가퀴 48개이다. 옥창돈은 북쪽으로 가면 월곶돈이 775보 거리에 있고, 둘레 104보, 성가퀴 41개이며 강변으로 300여 보를

간다. 이상의 4개 돈은 월곶진에서 관장한다.

망해돈은 북쪽으로 가면 옥창돈이 1,12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0보, 성가퀴 20개이다. 제송돈은 북쪽으로 가면 망해돈이 681보 거리에 있고, 둘레 106보, 성가퀴 29개이다. 염주돈은 북쪽으로 가면 제송돈이 761보 거리에 있고, 둘레 84보, 성가퀴 23개이다. 갑곶돈은 북쪽으로 가면 염주돈이 625보 거리에 있고, 둘레 112보, 성가퀴 40개이다. 이상 4개의 돈은 제물진에서 관장한다.

가리산돈은 북쪽으로 가면 갑곶돈이 1,40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4보, 성가퀴 34개이다. 좌강돈은 북쪽으로 가면 가리산돈이 1,30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6보, 성가퀴 37개이다. 용당돈은 북쪽으로 가면 좌강돈이 1,20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4보, 성가퀴 36개이다. 이상 3개 돈은 용진진에서 관장한다.

화도돈은 북쪽으로 가면 용당돈이 1,39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2보, 성가퀴 42개이다. 오두돈은 북쪽으로 가면 화도돈이 700보 거리에 있고 둘레 80보 성가퀴 33개이다. 광성돈은 북쪽으로 가면 오두돈이 2,154보 거리에 있고 둘레 86보 성가퀴 38개이다. 이상 3개 돈은 광성보에서 관장한다.

손석항돈은 북쪽으로 가면 광성돈이 223보 거리에 있고, 둘레 66보 성가퀴 31개이다. 덕진돈은 북쪽으로 가면 손석항돈이 2,01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0보 성가퀴 40개이다. 이상 2개 돈은 덕진진에서 관장한다.

초지돈은 북쪽으로 가면 덕진돈이 1,650보 거리에 있고, 둘레 83보, 성가퀴 34개이다. 장자평돈은 북쪽으로 가면 초지돈이 90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4보, 성가퀴 39개이다. 섬암돈은 북쪽으로 가면 장자평돈이 2,30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3보, 성가퀴 40개이다. 이상 3개 돈은 초지진에서 관장한다.

택지돈은 북쪽으로 가면 섬암돈이 2,100보 거리에 있고, 둘레 84보, 성가퀴 37개이다. 동검북돈은 북쪽으로 가면 택지돈이 1,250보 거리에 있고, 둘레 209보, 성가퀴 85개이다. 후애돈은 북쪽으로 가면 동검북

돈이 1,75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1보, 성가퀴 40개이다. 이상 3개 돈은 선두보에서 관장한다.

양암돈은 북쪽으로 가면 후애돈이 1,450보 거리에 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갈곶돈은 북쪽으로 가면 양암돈이 1,645보 거리에 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분오리돈은 북쪽으로 가면 갈곶돈이 1,645보 거리에 있고, 둘레 84보, 성가퀴 37개이다. 송곶돈은 북쪽으로 가면 분오리돈이 42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4보, 성가퀴 36개이다. 마니산 남쪽 한 산기슭을 구불구불 비스듬히 돌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바닷물이 명주처럼 흘러가고, 돈대 그 위아래 모두 돌마당이 되었고 물 밖의 섬들은 혹은 연결되고 혹은 단절되어 그 가로막음이 병풍으로 가로막고 추녀가 뿔린 형세를 이루었다. 비록 작고 겸손한 제비꼬리가 기이하고 화려하게 지나가는 곳일 지라도 이미 피해갔으니 잠깐 돈대를 세우면 된다. 비록 섬 가운데의 사람이 역시 이 이름을 알지 못해도 이 장소가 아깝다. 유자후[유종원(柳宗元)]가 호두(鄆杜)를 설치하지 않은 느낌은 아니지만 이곳은 선량하다. 이상 2개의 돈은 영문(진무영)에 별도의 돈장이 있어 관장한다.

미곶돈은 북쪽으로 가면 송곶돈이 87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2보, 성가퀴 38개이다. 북일곶돈은 동쪽으로 가면 미곶돈이 1,44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3보, 성가퀴 40개이다. 장곶돈은 동쪽으로 가면 북일곶돈이 1,26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6보, 성가퀴 40개이다. 검암돈은 동쪽으로 가면 장곶돈이 1,260보 거리에 있고, 둘레 33보, 성가퀴 23개이다. 이상 4개 돈은 장곶보에서 관장한다.

송강돈은 남쪽으로 가면 검암돈이 35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3보, 성가퀴 40개이다. 굴암돈은 남쪽으로 가면 송강돈이 1,098보 거리에 있고, 둘레 88보, 성가퀴 36개이다. 이상 2개 돈은 영문에 별도의 돈장이 있어 관장한다.

건평돈은 남쪽으로 가면 굴암돈이 1,440보 거리에 있고, 둘레 88보,

성가퀴 38개이다. 망양돈은 남쪽으로 가면 건평돈이 3,24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8보, 성가퀴 40보이다. 삼삼암돈은 남쪽으로 가면 망양돈이 1,44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1보, 성가퀴 55개이다. 석각돈은 남쪽으로 가면 삼삼암돈이 1,080보 거리에 있고, 둘레 58보, 성가퀴 27개이다. 이상 4개 돈은 정포보에서 관장한다.

계룡돈은 남쪽으로 가면 석각돈이 1,960보 거리에 있고, 둘레 79보, 성가퀴 33개이다. 망월돈은 남쪽으로 가면 계룡돈이 1,525보 거리에 있고, 둘레 100보, 성가퀴 42개이다. 이상 2개 돈은 영문에서 관장한다.

무태돈은 남쪽으로 가면 망월돈이 3,100보 거리에 있고, 둘레 109보, 성가퀴 47개이다. 인화돈은 남쪽으로 가면 무태돈이 1,47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8보, 성가퀴 44개이다. 광암돈은 남쪽으로 가면 인화돈이 1,350보 거리에 있고, 둘레 42보, 성가퀴 38개이다. 귀등돈은 남쪽으로 가면 광암돈이 2,724보 거리에 있고, 둘레 90보, 성가퀴 46개이다. 작성돈은 남쪽으로 가면 귀등돈이 500보 거리에 있고, 둘레 68보, 성가퀴 38개이다. 이상 5개 돈은 인화진에서 관장한다.

초루돈은 남쪽으로 가면 작성돈이 1,500보 거리에 있고, 둘레 85보, 성가퀴 38개이다. 불장돈은 서쪽으로 가면 초루돈이 646보 거리에 있고, 둘레 81보, 성가퀴 34개이다. 의두돈은 서쪽으로 가면 불장돈이 566보 거리에 있고, 둘레 32보, 성가퀴 27개이다. 철북돈은 서쪽으로 가면 의두돈이 297보 거리에 있고, 둘레 76보, 성가퀴 33개이다. 천진돈은 서쪽으로 가면 철북돈이 545보 거리에 있고, 둘레 94보, 성가퀴 38개이다. 이상 5개 돈은 철곶돈에서 관장한다.

석우돈은 서쪽으로 가면 천진돈이 984보 거리에 있고, 둘레 73보, 성가퀴 31개이다. 빙현돈은 서쪽으로 가면 석우돈이 993보 거리에 있고, 둘레 69보, 성가퀴 25개이다. 적우돈은 서쪽으로 가면 빙현돈이 585보 거리에 있고, 둘레 70보, 성가퀴 25개이다. 숙용돈은 서쪽으로 가면 적우돈이 1,096보 거리에 있고, 둘레 82보, 성가퀴 33개이다. 악성돈은 서쪽으로 가면 숙룡돈이 914보 거리에, 동쪽으로 가면 적북돈이 940보

거리에 있고, 둘레 96보, 성가퀴 34개이다. 이상 5개 돈은 승천보에서 관장한다.

무릇 53개의 돈은 숙종 기미년(숙종 5, 1679)에 쌓아서 사용했다.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의 3도 승군 8,000명 및 어영군 4,300명이 대략 41일에 걸쳐 축조하여 완성하였다. 빙현, 철북, 초루, 작성의 4개 돈은 모두 추가로 축조하였다.

⑤ 봉수(烽燧)

대모산 봉수는 동쪽으로 통진 약산과 응하고, 서쪽으로 본부(강화부) 진강과 응한다. 봉수군은 19명이다. 진강산 봉수는 동쪽으로 대모산과 응하고, 서쪽으로 망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9명이다. 망산 봉수는 동쪽으로 진강산과 응하고, 서쪽으로 교동 화개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6명이다. 하음산 봉수는 곧 봉두산으로 서쪽으로 화개산과 응하고, 돌아서 본부 남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6명이다. 남산 봉수는 서쪽으로 하음산과 응하고, 동쪽으로 통진 남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20명이다. 이상 5개 봉수는 본부에 속한다. 전라도 해남관에서 시작하여 홍충도(충청도) 당진에서 불을 올려 연해로 가며 통진 약산으로 들어온다.

양성 괴태길곶 봉수는 동쪽으로 직산 망해산과 응하고, 북쪽으로 수원 흥천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00명이다. 수원 흥천산 봉수는 남쪽으로 괴태길곶과 응하고, 북쪽으로 남양 염불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00명이다.

남양 염불산 봉수는 남쪽으로 흥천산과 응하고, 북쪽으로 해운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97명이다. 해운산 봉수는 남쪽으로 염불산과 응하고, 북쪽으로 안산 정왕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96명이다. 안산 정왕산 봉수는 남쪽으로 해운산과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 성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00명이다

인천 성산 봉수는 동쪽으로 정왕산과 응하고, 북쪽으로 부평 축곶과 응한다. 봉수군은 100명이다. 부평 축곶 봉수는 남쪽으로 성산과 응하

고, 북쪽으로 김포 백석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00명이다. 김포 백석산 봉수는 남쪽으로 축곶과 응하고, 북쪽으로 냉정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96명이다.

냉정산 봉수는 서쪽으로 통진 남산과 응하고, 동쪽으로 양천 개화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95명이다. 통진 남산 봉수는 북쪽으로 본부 남산과 응하고, 동쪽으로 김포 냉정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03명이다. 수안산 봉수는 남쪽으로 백석산과 응하고, 서쪽으로 본부 대모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03명이다.

양천 개화산 봉수는 서쪽으로 냉정산과 응하고, 동쪽으로 서울 목척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100명이다. 교동 화개산 봉수는 남쪽으로 본부 망산과 응하고, 동쪽으로 본부 하음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46명이다. 수정산 봉수는 서쪽으로 연안 간월산과 응하고, 북쪽으로 연안 각산과 응한다. 봉수군은 45명이다. 이상 14개 봉수는 통어영에 속한다. 남쪽으로부터 올라온 것은 본부 봉수와 같이 불을 올리고 동시에 서쪽으로부터 온 것은 연안에서 교동 수정산에 이르면 북쪽으로 연안 각산이 응하고 서울에 들어간다.

두 영은 무릇 19개 봉수가 있으며, 각 봉수에는 봉수장 1명, 감관 5명, 도감고 1명을 둔다.

⑥ 제언(堤堰)

굴곶언은 불온리에 있다. 고종 병신년에 유수 홍중보가 쌓았다. 대청포언은 선원리에 있다. 현종 갑진년에 유수 조복양이 쌓았다. 정포언은 위량리에 있다. 현종 병오년에 유수 서필원이 쌓았다. 삼간포언은 삼해리에 있다. 인조 병자년에 유수 장신이 쌓았다.

선두포언은 길상리에 있다. 숙종 병술년에 유수 민진원이 쌓았다. 여러 제언 중 가장 견고하다고 알려져 있고 땅이 넉넉하여 백성들은 풍족하게 생활하였다. 이정섭의 시에 이르기를, ‘눈발은 끊어진 포구 사이로 높이 날리고 바닷물은 숨가쁘게 갑문까지 통하였다. 급히 내닿는 여

울물은 고기를 끓고 용을 숨게 하였으니 넓은 들판과 밭은 만대의 공을 이룰 것이다’ 하였다.

적북언은 장령리에 있다. 이포언은 장령리와 옥포에 걸쳐 있다. 가리산언은 선원리에 있다. 만월언은 선원리에 있다. 가릉포언은 상도리와 하도리 모두에 걸쳐 있다. 마니산 북쪽의 진간 서쪽에서 나오는 두 물줄기가 모여드는 곳이다. 건평수구언, 우량리에 있다.

⑦ 도서(島嶼)

매음도는 부의 치소에서 서남쪽으로 40리에 있다. 옛 이름은 구음도이며 둘레는 60리이다. 73호에 250구가 산다. 토전은 없다. 말 목장이 있다. 요망장 1인과 군인 10명을 둔다. 동쪽에 작은 섬이 있는데 이름은 사도이다. 거주하는 백성은 없고 산에는 대나무가 있어 군사용으로 베어 쓴다.

석모로도느 매음도 북쪽 50리에 있으며 둘레는 40리에 이어져 있다. 52호가 있고 207구가 산다. 토전은 없고 말을 키우는 목장이 있다. 미법도는 부의 치소에서 서쪽으로 50리에 있다. 둘레는 8리이고 33구가 산다. 토전은 없고 말을 키우는 목장이 있다.

서금도는 부의 치소에서 서쪽으로 60리에 있다. 둘레는 30리이며 61호가 있고 220구가 산다. 토전은 19결 26부 8속이다. 맛잘도는 부의 치소에서 서쪽으로 110리에 있다. 둘레는 10리이며 27호 76구가 산다. 토전은 3결 9부 1속이다. 양을 키우는 목장이 있다. 요망장 1인과 군인 10명을 둔다. 보을음도는 일명 망도라 한다. 부의 치소에서 서쪽으로 100리에 있다. 둘레는 40리이며 240호 477구가 산다. 토전은 53결 31부 1속이다. 양목장이 있다. 요망장 1인과 군인 10명을 둔다. 옛날에 본부의 향교를 이곳에 두었는데 지금은 터와 그 땅만 남아있다.

아차도는 일명 아도라 한다. 부의 치소에서 서쪽으로 90리에 있다. 둘레는 40리, 14호에 47구가 산다. 토전은 2결 67부 1속이다. 유수 이민서의 시에 이르기를, “가벼운 회오리 바람을 스치며 돛배는 돌아가는

데, 실의에 차 안석에 의지하여 반취해 앉아, 물 건너 산을 보니 먼지가까운지 모르겠다. 키를 돌려 가고자 하지만 방향을 잃었구나. 해는 저물고 떼로 나는 새는 많기도 하다. 안개 속 고깃배는 때맞춰 토끼가 용궁에서 나올 물때이구나. 부중이 있어 믿을 만하니 손님과 손을 잡고, 사람으로 하여금 흥을 돋구어 끝까지 길을 찾고자 한다.”라 하였다.

주문도는 부의 치소에서 서남쪽으로 90리에 있고 둘레는 13리이다. 숙종 계사년에 첨사를 두고 통어영에 속하게 하였다. 149호 562구가 산다. 토전은 없고 말목장이 있다. 유수 이민서의 시에 이르기를, “남은 배로 작은 섬을 찾아가니 깨암나무 밭을 지나 높고 낮은 길을 넘는다. 옛 우물은 마른 채 산 밑에 남아있고 떼 밭에는 교목이 서쪽을 향하여 있다. 깊은 이랑은 옥토를 자랑하고 땅은 오지이지만 생물들은 오히려 엄하게 깃들여 있다. 옛적에는 뗏목을 타고 건넜다 하지만 바람을 맞고 있는 지금 다시 처량함이 느껴진다.” 라고 하였다.

장봉도는 부의 치소에서 남쪽으로 70리에 있으며 둘레는 40리이다. 숙종 정유년에 만호를 두고 통어영에 속하게 하였다. 100호와 461구가 산다. 토전은 없고 말목장이 있다. 유수 이민서의 시에 이르기를, “박자 맞추어 이는 풍량은 가만히 섬 앞에 오는데 해 저물 때까지 움직이던 배는 밤이 되어도 쉬질 못하는구나. 떠돌던 구름은 이미 가버리고 바다 집은 맑아졌네. 밝은 달은 다시 와 머물러 뱃머리에 걸리고 커다란 기상은 빌릴 수 없어 넘치는 힘만 붙들고 있네. 뜻을 얻어 끝없이 넓은 곳에서 노니는 것이 진여(眞如)인가. 취하여 누우니 북두칠성이 없어지는 것도 모르겠구나. 날이 밝아도 꿈은 같은데 흰 갈매기만 보이는구나.”라 하고, 제호를 상월(賞月)이라 하였다.

신도는 부의 치소에서 남쪽으로 60리에 있다. 둘레는 10리이며 옆에 2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 썰물이 되면 걸어서 갈수가 있다. 하나는 시도라 하는데 말목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모도이다. 두 섬 모두 약간의 민호가 있는데 신도에 속하여 있다. 신도에는 68호와 300구가 산다. 토전은 2결 17부 7속이다. 동금도는 부의 치소에서 남동쪽으로 40리에

있다. 둘레는 10리이고 76호 311구가 산다. 토전은 9결 36부 1속이다. 양목장이 있다.

⑧ 궁전(宮殿)

행궁은 부의 관아 북쪽에 있다. 승정 신미년에 유수 이시백이 세웠다. 숙종 신묘년(1711)에 유수 민진원이 다시 세웠다. 봉선전은 천계 임술년(1622)에 세웠다. 태조의 어용을 봉안하였는데, 정축년 난리 때 무너졌다.

장녕전은 행궁 동쪽에 있다. 경종 신축년(1721)에 유수 홍계적이 세웠다. 처음에 숙종 때 유수 김구가 장녕전을 세우고 (태조의) 어용을 봉안하였는데, 이것이 지금의 장녕전이다. 어필로 현판에 장녕전이라 쓰여 있었는데 나중에 서사에게 명하여 다시 바치게 하였다. 하나는 선원전에 봉안하였고, 또 하나는 옛 장녕전에 봉안하였다. 그리고 옛 장녕전에 있는 구본은 곧 세초하였다. 새로운 장녕전이 세워지게 되자 옛 장녕전에서 어용을 옮겨 안치하였고, 옛 장녕전에는 연어를 보관해 두었다.

장녕구전은 신전(新殿)의 동쪽에 있다. 숙종 을해년(1695)에 유수 김구가 세웠다. 만녕전은 장녕전 동쪽에 있다. 계사년(1713)에 유수 조태로가 세웠는데 처음 이름은 별전이었다. 영조 을축년(1745)에 어용을 봉안하고 편액을 만녕전이라 하였다. 정조 병신년(1776)에는 장녕전으로 옮겨 봉안하였고, 이곳에 수직을 두었다. 선원각은 정족산성에 있다. 현종 경자년(1660)에 유수 유념이 세우고 선원보를 봉안하였다. 사각은 사적(史籍)을 보관하는 곳으로 선원각 남쪽에 있다. 현종 경자년(1660)에 세웠고, 숙종 무술년(1718)에 처음으로 실록을 봉안하였다. 정해년(1767)에 유수 황흠이 다시 세웠다. 별관이 있는데 이름은 취향당이다. 임시로 두 실록을 보관했던 곳이다. 규장외각은 행궁 동쪽에 있다. 정조 신축년(1781)에 유수 서호수가 연초헌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웠다. 금상이 각신에게 명하여 편액을 써서 걸게 하였다. 이는 대

개 동문일시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 다른 지방에서는 비할 바가 없는 것이다. 본부에는 예로부터 내책고가 있어 귀중한 책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규장외각에 옮겨 보관하였다.

㉑ 부해(府廨)

해구보장지관은 장녕전 아래 객관이 있는 곳에 있다. 옛 제도에 따라 처음 지어졌다가 인조 무인년(1638)에 유수 김개국이 다시 세웠다. 이 관당은 행궁 아래 있는 객사의 서쪽에 있다. 해구보장지관과 같이 무인년(1638)에 세웠다.

...(중략)... 정해당은 이관당 남쪽에 있다. 현종 을사년(1665)에 유수 조복양이 세웠다. 상량문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해당은 험준한 곳을 지켜 나라를 굳건히 하는 곳이다. 참으로 막중한 임무를 맡은 유수의 관사이다. 옛 건물을 새롭게 꾸며 마침내 정사를 보는 집을 창건하였으니, 산과 들판은 광채를 더하였고 고을 부로(父老)들은 경관을 고친 것이라 하였다. 돌아보건대 오직 이 심도(강화)만이 천연의 요새라 불리어왔다.

...(중략)... 이야는 객사 동쪽에 있다. 경력이 있는 치소이다. 관아 동쪽에는 삼아관의 도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진무영은 상아 남쪽에 있다. 숙종 갑자년(1684)에 유수 윤계가 세웠으며, 유수가 사열하는 곳이다. 중영은 진무영의 서쪽에 있다. 중군이 머무는 관소이다. 향청은 상아(上衙) 서쪽에 있다. 향임들이 머무는 곳이다. 여러 영에 속해있는 비장과 이교로부터 졸오에 이르기까지 모두 강화부 아래 쪽 향청과 나란히 있다. 번잡하기 때문에다 적지는 않는다. 종각은 부의 남쪽 큰 길가에 있는데 옛 남문 동쪽이다.

내탕제고는 각종 명목이 번잡하여 일일이 나열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대도호부에만 있다고 한다. 사창은 이야 남쪽에 있다. 호조창은 소동문 안에 있다. 서창은 관청의 서쪽에 있다. 유수 박권이 설치하였다. 남창은 강화부 남쪽 성 안에 있다. 유수 박권이 설치하였는데, 지금

은 수리한 성에 위치해 있다. 유비창은 제물진 밑에 있다. 유수 신후재가 설치하였다.

이상의 각 창고에서는 군사용으로 봄 가을 곡식을 저장하고 있다. 옛 날에는 옥포창과 갑곶창, 덕진창, 정포창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관청고는 향청 밑에 있다. 보민청은 관청에 속해 있다. 부사고는 동문 안쪽에 있다. 화약고는 3곳인데, 하나는 북쪽 성곽에 있고, 하나는 남산사에 있으며, 하나는 남창에 있다. 경적고는 객사 뒤에 있다. 한성의 장적을 보관하는 곳이다. 부적고는 공방고와 연이어 붙어 있다. 본부(강화부)의 장적을 보관하는 곳이다. 공방고는 상아의 안쪽 문 밖에 있다. 호남고는 사창 동쪽에 있다. 내탕에 쓰는 여러 물건들을 보관한다. 약방고는 객사 남쪽에 있다.

진홀고는 부의 사창 서쪽에 있다. 병방고는 정해당 남쪽에 있다. 군수고는 병방고에 속해 있다. 수성고는 남창에 있다. 선두리에 독을 쌓은 후 설치하였다. 부료고는 진무영 동쪽에 있다. 빙고는 관청 서쪽에 있다. 감옥은 향청 아래에 있다.

대변청은 송정리에 있다. 기해년(1779) 유수 홍낙순이 세웠다. 군기고는 대변청 아래에 있다. 화약고는 대변청 아래에 있다. 선창은 대변청 아래 쪽 포구에 있다. 통어영이 옮겨온 후에 세웠다. 전선과 병선을 보관한다.

어영청은 장령리에 있다. 금위영은 진해사 앞에 있다. 훈련도감은 선원리에 있다. ○군량과 군기를 보관한다. 직둔감 1인을 삼류영에 차송하여 삼군문과 나란히 세운다.

㉒ 능묘(陵墓)

고려 희종릉의 명칭은 석릉이며 부치에서 남쪽으로 21리에 있다. 고종릉의 명칭은 홍릉이며 부치에서 서쪽으로 6리 떨어져 있다. 원덕태후릉은 고종 비로 호는 곤릉이다. 부치에서 남쪽으로 23리에 있다. 경순태후릉은 원종 비로 이름은 가릉이다. 부치에서 남쪽으로 35리 떨어져

있다. 이 네 개의 능은 조복양이 유수로 있을 때 찾아 나서 봉분이 고려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부(강화부)에 있을 때 찾는 것을 그치지 않았지만, 묘역은 점점 쇠퇴하여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다. 이규보 묘는 진강산 동쪽 기슭에 있다.

황형 묘는 장령리 대묘동에 있다. 송대립 묘는 선원리 연곡에 있다. 황선신 묘는 장령리 사왕동에 있다. 금상(영조) 기해년(1779)에 유수 이복원이 묘표를 세웠다. 구원일 묘는 의관을 매장하였다. 불은리 수장동에 있다. 유수 이복원이 묘표를 세웠다. 강홍업 묘는 의관을 매장하였다. 장령리 장승동에 있다. 유수 이복원이 묘표를 세웠다. 정유성 묘는 진강산 서쪽 기슭 하현 아래쪽에 있다. 정제두 묘는 진강산 서쪽 기슭 하현 동쪽에 있다. 이대성 묘는 하도리 사곡에 있다. 숙종 병신년(1716)에 유수를 지냈다. 황응로 묘는 장령리 대묘동에 있다. 숙종 계묘년(1723)에 경력을 지냈다. 윤광왕 묘는 하도리 박산동에 있다. 영조 기묘년(1759)에 경력을 지낼 때 사망하여 장사를 지냈다.

⑩ 불우(佛宇)

전등사는 정족산성에 있다. 언제 세워졌는지는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원나라 지원 3년(1337) 3번째 증수하였고 고려 충렬왕의 원비인 정화궁주가 중 인기를 바닷길로 송나라에 보내 간행된 대장경을 이 절에 두었다고 한다. 대웅전 (불상) 앞에 있는 옥등 역시 정화궁주가 시주한 것이라 한다. 이색의 시에, “납극(蠟屐) 신고 산에 오르니 흥이 절로 맑은데, 전등사 늙은 중이 나의 행차를 인도하네. 창 밖에 먼 산은 하늘 끝에 벌려 있고, 누 밑에 부는 바람 물결 쳐 일어나네. 성력(星歷)은 오태사(伍太史)가 까마득한데, 구름과 연기는 삼랑성에 참담하여라. 정화궁주 원당(願幢)을 뉘라서 다시 세울 건가. 벽기(壁記)에 쌓인 먼지 객의 마음 상하네.”라 하였다. 여기서 오태사는 오윤부를 말한다. 이안눌의 시에 이르기를, “남쪽으로는 절간을 향하고 바다 북쪽은 물가 일뿐, 붉은 안개는 허공을 날아 산속 깊숙이 푸른 옥이 되었구나. 삼한 풍

속에 유두일이 있는데, 만권서를 평상에 놓고 엉뚱한 사람만 괴롭히는구나. 옛 술 남아 있으면 독이나 없앨 걸, 어린 닭 잡아 구워 길일에 대비하네. 친구들 아직 만날 수 없는데, 대나무 부적만 간직하여 이 몸을 힘들게 한다.” 하였다. 승군이 있어 총섭이 거느린다.

…(중략)… 선원사는 선원리에 있다. 고려 때 최우가 세웠다. 규모와 화려함을 극도로 하였는데 이른바 반천선감이 그것이라 할 것이다. 선(禪)을 고쳐 선(仙)이라 하였고 이에 따라 지명이 되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한 때 융성함이 쇠퇴하더라도 없어진 다음에 오히려 그 흔적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선수암은 마니산에 있다. 월명사와 수월사는 삼해(면)에 있고, 미륵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왕림사는 장령에 있고 수륙암은 남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⑫ 고적(古蹟)

참성단은 마니산 정상에 있다. 돌을 포개어 쌓았는데 일명 참성단(參星壇)이라고도 한다. 단군이 감응을 받아 만들었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 그 근본을 잊지 않았다고 전하는데 이곳이 그 장소이다. 동방은 특히 천지에 제사지내는 의례 장소로 처음 이르게 되었다. 후에 갑자기 무너져서 증수하였다. 이색의 시에 이르기를 “산하가 이와 같이 험고하니 장하기도 해라 우리나라여, 꼭대기에는 오색 운기가 흐르고 절벽에서는 높은 고목을 굽어보네. 바람 앞에서 길이 휘파람 부니 울리는 소리가 암곡을 진동하네. 소문의 놀이를 잊고자 하노니 석수는 지금 한창 푸르렀으리. 해와 달은 두 수레바퀴와 같고 우주는 한 칸의 집이 되었도다. 이 단이 천연으로 된 게 아니라면 정히 누가 쌓았는지 모르겠구려. 향 연기 오름에 별은 나직해지고 녹장이 들 제 기운 막 엄숙해지네. 다만 신명의 보우에 보답함일 뿐 어찌 스스로 복을 구해서 이랴”했다. 그 두 번째 시에서는 “긴 바람이 나에게 불어 요대에 올라가니 넓은 바다 먼 하늘이 만리나 트이었네. 옷 털고 또 발 깨끗이 씻을 필요도 없

이 신선의 생학이 구름 타고 오는 듯하구나” 했으며 그 세 번째 시에서는 “만 길의 높은 제단에 밤기운 하도 맑아 녹장 아뢰자마자 희로애락을 다 잊었네. 돌아가는 안장에 장생복 가득 실어서 우리 님께 바치어 태평성대 이룩케 하리”라고 하였다.

삼랑성은 일명 정족산성이라 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단군이 세 아들에게 각 봉우리 하나씩에 성을 쌓도록 시켰기에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러나 믿기 어렵고 대체로 성은 신라 또는 고려 이전에는 있었다. 고려 성 터는 예부터 전하는 기록에 이르기를 “고려 고종 임금이 천도했다. 내성과 외성을 모두 흙으로 쌓았는데 외성의 둘레는 16,066척이다” 하였다. 옛 기록의 장령의 성문고개, 선원의 대문고개, 인정의 서문고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해동악부에 이르기를 “강의 가장자리를 둘러 쌓았는데 둘레를 한 바퀴 돌면 수 백리이다” 하였다. 이것은 삼문 고개 간의 경우와 분명히 다르다. 의심컨대 잘못이다. 또 내성의 둘레는 3,877척이다. 지금 옛 궁터를 추측하면 송악의 동쪽에 해당된다. 그러나 성터가 넓지 않고 어그러져 있어 역시 명백히 하기 어렵다. 고려사에는 내성이 2,900칸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생각건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척도가 또 서로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간혹 연해의 흙 언덕을 장성 터라고 가리키는데 대개 예로부터 떠도는 바를 계승한 말이다. 간혹 외성이 바닷가에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지만 형역(形域)은 잘 보이지 않는다. 기록에는 깎아지고 무너져 버렸다고 전한다. 오로지 나중에 생긴 것은 믿을 바가 아니다.

고려 궁 옛 터는 관아의 동남쪽 정자산 밖에 있다. 궁터의 4, 5리 안에는 큰방의 옛터와 관청 건물의 옛터가 많다. 주변 담장은 예전처럼 주춧돌이 줄지어 남아있으며 부서진 기와와 깨진 벽돌이 밭이랑 사이마다 쌓여 있다. 지금도 대모동, 도감동이라는 명칭이 아직까지 불리고 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문혀있던 옛 종을 파내려고 하자 갑자기 천둥과 비가 내렸다고 한다. 마니산 남쪽 흥왕촌에 역시 이궁 옛 터가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중략)… 옛 남문 터는 김상용이 순절한

곳이다. 김창협이 그 사실을 돌에 새겨

기록하여 이르기를 “아 이곳은 강화부의 성 남문으로 돌아가신 우의정 문충공 선원 김선생께서 순의하신 곳이다. 선생의 존함은 상용으로 본관은 안동이다. 만력 18년인 경인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대의 임금을 섬기며 재상을 역임하셨는데 충후함과 정직함으로 선비들의 추앙을 받으셨다.

…(중략)… 손돌 무덤은 손돌목 위에 있는데 손돌은 옛 뱃사공의 이름이다. 몽골병이 닥쳐오자 고려의 임금이 이 바닷물을 건너는데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막혀 마치 나아갈 길이 없는 것만 같았다. (이에) 사공이 자신을 속였다고 여겨 목을 베라고 명하였다. 바다 위 언덕에 그 시신을 묻어 주었다. 지금의 이른바 손석총이 바로 그것이다. 매년 10월 20일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 거센 파도가 치는데 일 년마다 똑같이 도래한다. 대개 손석이 처형당한 날이라고 이르고 있다. 그 아래로 배가 지날 때 반드시 술을 붓고 간다고 한다.

이규보의 집 터는 인정리 진강산 동쪽 기슭에 있는데 지금은 백운골이라 전한다. 옛 강화지에 이르기를 장령 성정에서 언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곧바로 넘어가면 강화부로 통하는 큰길이 나오며 남쪽으로 올라가서 삼십 보를 못 가면 언덕을 등지고 서쪽을 향한 곳이 나오는데 바로 이규보의 집터라고 한다. 지금은 가히 현판이 없어 지세의 연유를 알 수 없다. 추모 당시 궁부 중앙이 백운이 거주하던 집이라고 바로잡았으나 의심컨대 처소가 아닌 곳을 적당히 배치한 것일 뿐이다. …(후략)….

3) 문화유산

강화도는 지정학적 특성상 한반도 서해안을 통과할 때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곳이며, 반대로 이곳을 거쳐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어 선

사시대부터 해상교통의 요지로 주목받았다. 또한, 중요한 국방상의 요충지와 대중국 교류의 전초기지로써 그 중요성이 높았던 지역으로 수많은 유적들이 이곳에 밀집해 남아 있다. 특히, 고려시대 몽고침입기 39년간 임시수도로서 고려와 관련한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고려궁지, 정족산성, 강화외성, 선원사지 등과 그 외의 사찰 유적, 그리고 홍릉과 석릉같은 왕릉 4기를 비롯하여 당시 고려 문화의 전반을 찾아 볼 수 있다. 더욱이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보장처와 수도방어의 요충지로서 부각되어 돈대, 포대, 진, 보, 산성, 봉수, 요망대 등의 관방 유적이 강화도 곳곳에 남아 있다.

2016년 3월 기준 인천광역시 전체에 총 264개의 종목이 국가 및 인천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강화군에 소재한 지정문화재가 113개 종목으로 인천 전체의 43%에 육박한다. 강화도는 가히 역사문화유산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 강화군 소재 지정문화재 현황(2016.03.기준)

연번	지정	구분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면적)	소재지	지정일자
1	국가	보물	10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1기	하점면 장정리 산193번지	63.01.21
2	국가	보물	11-8	사인비구 제작 동종 -강화 동종	1구	하점면 강화대로 994-19, 강화역사박물관	63.01.21
3	국가	보물	161	강화 정수사 법당	1동	해안남로1258번길 142 (화도면)	63.01.21
4	국가	보물	178	강화 전등사 대웅전	1동	전등사로 37-41 (길상면, 전등사)	63.01.21
5	국가	보물	179	강화 전등사 약사전	1동	전등사로 37-41 (길상면, 전등사)	63.01.21
6	국가	보물	393	전등사 철종	1구	전등사로 37-41 (길상면, 전등사)	63.09.02
7	국가	보물	615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1구	하점면 장정리 584번지	78.03.08
8	국가	보물	994	강화 백련사 철조아미타여래좌상	1구	하점면 고려산로61번길 270, 백련사 (부근리)	89.04.10

연번	지정	구분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면적)	소재지	지정일자
9	국가	보물	1785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3구	전등사로 37-41 (길상면, 전등사)	12.12.27
10	국가	보물	1786	강화 전등사 목조지장 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31구	전등사로 37-41 (길상면, 전등사)	12.12.27
11	국가	보물	1787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구	고비고개로188번길 112, 청련사 (강화읍)	12.12.27
12	국가	사적	130	강화 삼랑성	260,536㎡	길상면 온수리 산41번지	64.06.10
13	국가	사적	132	강화산성	787,585㎡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64.06.10
14	국가	사적	133	강화 고려궁지	15,097㎡	강화읍 북문길 42 (관청리)	64.06.10
15	국가	사적	136	강화 참성단	5,774㎡	화도면 홍왕리 산42-1번지	64.07.11
16	국가	사적	137	강화 부근리 지석묘	69,293㎡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64.07.11
17	국가	사적	224	강화 홍릉	31,415㎡	강화읍 국화리 산129- 2번지	71.12.28
18	국가	사적	225	강화 초지진	4,242㎡	길상면 초지리 624번지	71.12.28
19	국가	사적	226	강화 덕진진	15,171㎡	불은면 덕성리 373번지	71.12.28
20	국가	사적	227	강화 광성보	144,632㎡	불은면 덕성리 23-1번지	71.12.28
21	국가	사적	259	강화 선원사지	12,486㎡	선원면 지산리 산133번지	77.11.29
22	국가	사적	306	강화 갑곶돈	65,099㎡	강화읍 갑곶리 1021번지 외	84.08.13
23	국가	사적	369	강화 석릉	793㎡	양도면 길정리 산182번지	92.03.10
24	국가	사적	370	강화 가릉	2,656㎡	양도면 능내리 산16-2번지	92.03.10
25	국가	사적	371	강화 곤릉	1,091㎡	양도면 길정리 산75번지	92.03.10
26	국가	사적	424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6,968㎡	강화읍 관청리 22	01.01.04
27	국가	사적	452	강화 외성	247,651㎡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강화도 동해안 일대)	03.10.25
28	국가	천연기념물	78	강화 갑곶리 탕자나무	79㎡	강화읍 갑곶리 1016번지	62.12.03
29	국가	천연기념물	79	강화 사기리 탕자나무	262㎡	화도면 사기리 135-10번지	62.12.03
30	국가	천연기념물	304	강화 불음도 은행나무	1주 (593㎡)	서도면 불음도리 산186번지 외 1필지	82.11.04
31	국가	천연기념물	419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435,015,316㎡	강화군 일원	00.07.06
32	국가	천연기념물	502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314㎡	화도면 문산리 산55번지 참성단 내	09.09.16

연번	지정	구분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면적)	소재지	지정일자
33	국가	중요무형 문화재	103	완초장	이상재	강화군	96.05.01
34	시	유형문화재	20	옹흥궁	3동 (2,497㎡)	동문안길 21번길 16-1 [관청리 441번지]	95.03.01 (72.07.03)
35	시	유형문화재	21	총렬사	5동 (14,803㎡)	총렬사로 232, 총렬사 [선행리 371번지]	95.03.01 (72.07.03)
36	시	유형문화재	24	연미정	1동 (2,149㎡)	강화읍 월곶리 242	95.03.01 (72.07.03)
37	시	유형문화재	25	강화유수부 동헌	1동 (326.8㎡)	북문길 42	95.03.01 (73.07.10)
38	시	유형문화재	26	강화유수부 이방청	1동 (1,765㎡)	북문길 42	95.03.01 (73.07.10)
39	시	유형문화재	27	보문사 석실	1동 (282,054.1㎡)	삼산남로 828번길 44, 보문사 [삼산면 매음리 629번지]	95.03.01 (74.09.26)
40	시	유형문화재	28	교동향교	9동 (3,835㎡)	교동남로 229-49 [교동면 읍내리 148]	95.03.01 (74.09.26)
41	시	유형문화재	29	보문사 마애석불좌상	1구	삼산남로 828번길 44, 보문사 [삼산면 매음리 629번지]	95.03.01 (74.09.26)
42	시	유형문화재	30	강화 석수문	1기 (77.5㎡)	강화읍 국화리 883	95.03.01 (74.09.26)
43	시	유형문화재	33	후애둔대	1기 (1,064㎡)	길상면 선두리 954번지	95.03.01 (74.09.26)
44	시	유형문화재	34	강화향교	1궐 (2,460㎡)	향교길 58 [강화읍 관청리 938-2번지]	95.11.15 (95.03.01) (85.09.20)
45	시	유형문화재	35	삼암둔대	1기 (11,521.1㎡)	내가면 외포리 산223- 4번지	
46	시	유형문화재	36	분오리둔대	1기 (11,728㎡)	화도면 사기리 산185- 1번지	99.03.29
47	시	유형문화재	38	적석사 사적비	1기 (71,704㎡)	연촌길 181, 적석사 [고천리 산74번지]	99.03.29
48	시	유형문화재	41	강화 온수리 성공회사제관	1동 (124,46㎡)	길상면 온수리 505-7번지	01.04.02
49	시	유형문화재	43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	1폭	전등사로37-41,전등사 [길상면온수리635번지]	02.02.04

연번	지정	구분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면적)	소재지	지정일자
50	시	유형문화재	44	전등사 약사전 후불탱	1폭	전등사로37-41,전등사 [길상면온수리635번지]	02.12.23
51	시	유형문화재	45	전등사 법화경판	104매	전등사로37-41,전등사 [길상면온수리635번지]	02.12.23
52	시	유형문화재	46	전등사 청동수조	1구	전등사로37-41,전등사 [길상면온수리635번지]	02.12.23
53	시	유형문화재	47	전등사 업경대	1쌍	온수길38번길14 [길상면온수리505-3번지]	02.12.23
54	시	유형문화재	48	전등사 대웅보전 수미단	1식	전등사로 37-41, 전등사 [길상면 온수리6 35번지]	02.12.23
55	시	유형문화재	52	강화 온수리 성공회성당	1동 (618㎡)	온수길 38번길 14 [길상면 온수리 505-3번지]	03.10.27 (97.07.14)
56	시	유형문화재	53	청련사 큰법당 삼장탱	1폭	고비고개로 188번길 112, 청련사 [강화읍 국화리 547번지]	04.04.06
57	시	유형문화재	54	청련사 큰법당 현왕탱	1폭	고비고개로 188번길 112, 청련사 [강화읍 국화리 547번지]	04.04.06
58	시	유형문화재	55	청련사 원통암 감로왕탱	1폭	고비고개로 188번길 112, 청련사 [강화읍 국화리 547번지]	04.04.06
59	시	유형문화재	57	전등사 약사전 석불좌상	1구	전등사로 37-41, 전등사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04.04.06
60	시	유형문화재	60	강화 솔정리 고씨가옥	542㎡	강화대로 674번길 23-4 [송해면 솔정리 337번지]	06.05.15
61	시	기념물	15	이규보 묘	1기 (668.9㎡)	까치골길 72-17 [길상면 길직리 산115번지]	95.03.01 (72.07.03)
62	시	기념물	16	강화 내가 오상리 고인돌	1기 (9.1㎡)	내가면 오상리 산 125- 1번지	95.03.01 (72.07.03)
63	시	기념물	17	보문사 향나무	1주 (85.1㎡)	삼산남로 828번길 44, 보문사 [삼산면 매음리 629번지]	95.03.01 (81.07.16)
64	시	기념물	18	봉천대	1기 (231.3㎡)	고려산로 463번길 30-6 [하점면 신삼리 산63번지]	95.03.01 (72.07.03)
65	시	기념물	19	장곶둔대	1궐 (1,328.6㎡)	화도면 장화리 113번지	95.03.01 (72.07.03)
66	시	기념물	20	강화전성	1궐 (7,176.4㎡)	불은면 오두리 563번지	95.03.01 (72.07.03)

연번	지정	구분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면적)	소재지	지정일자
67	시	기념물	22	계룡돈대	1곽 (2,727㎡)	내가면 황청리 282번지	95.03.01 (74.09.26)
68	시	기념물	23	교동읍성	1곽 (5,958.7㎡)	교동면 읍내리 577번지	95.03.01 (74.09.26)
69	시	기념물	24	천제암(공지)	1,025.2㎡	화도면 문산리 산64-1번지	95.03.01 (88.03.21)
70	시	기념물	25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2개소 (1,253㎡)	강화읍 갑곶리, 김포군 월곶리 성동리 일원	95.03.01 (88.03.21)
71	시	기념물	26	하유전 묘	1기 (557.9㎡)	불은면 두운리 산297번지	95.03.01 (88.12.02)
72	시	기념물	27	강화 인산리 석실분	1기 (402.6㎡)	양도면 인산리 산71번지	95.03.01 (93.06.03)
73	시	기념물	28	강화 능내리 석실분	1기 (2,340.9㎡)	양도면 능내리 산16-1번지	95.03.01 (93.06.03)
74	시	기념물	29	이건창 묘	1기 (241.5㎡)	양도면 건평리 665-27번지	95.03.01 (94.10.29)
75	시	기념물	30	이건창 생가	2동 (1,163㎡)	해안남로 1114번길 6 [화도면 사기리 167-3번지]	95.03.01 (94.10.29)
76	시	기념물	31	강화 대산리 지석묘	1기 (558㎡)	강화읍 대산리 1189-1번지	95.03.01 (94.10.29)
77	시	기념물	32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	1기 (529.3㎡)	하점면 부근리 743-6번지	95.03.01 (94.10.29)
78	시	기념물	35	김상응 순절비	1기 (43㎡)	강화읍 관청리 416번지	95.11.15 (72.07.03)
79	시	기념물	36	양현수 승전비	1기 (45㎡)	전등사로 37-41, 전등사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95.11.15 (72.07.03)
80	시	기념물	37	망양 돈대	1곽 (1,124㎡)	내가면 외포리 680번지	99.03.29
81	시	기념물	38	건평 돈대	1곽 (2,600㎡)	양도면 건평리 산39번지	99.03.29
82	시	기념물	39	굴암 돈대	1곽 (4,026㎡)	양도면 하일리 487번지	99.03.29
83	시	기념물	40	미루지 돈대	1곽 (1,369㎡)	화도면 여차리 170-2번지	99.03.29
84	시	기념물	41	복일곳 돈대	1곽 (986㎡)	화도면 장화리 산361번지	99.03.29
85	시	기념물	42	옹진진	1곽 (5,503.2㎡)	선원면 연리 215번지	99.03.29

연번	지정	구분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면적)	소재지	지정일자
86	시	기념물	44	부근리 고인돌군	16기 (216,036㎡)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99.04.26
87	시	기념물	45	삼거리 고인돌군	9기 (177,577㎡)	하점면 삼거리 산118번지	99.04.26
88	시	기념물	46	고천리 고인돌군	18기 (414,212.1㎡)	내가면 고천리 산96번지	99.04.26
89	시	기념물	47	오상리 고인돌군	12기 (39,185㎡)	내가면 오상리 산124번지	99.04.26
90	시	기념물	48	교산리 고인돌군	11기 (287,625㎡)	양사면 교산리 산108번지	99.04.26
91	시	기념물	49	강화 통제영 학당지	6,381㎡	강화읍 갑곶리 1061번지	01.04.02
92	시	기념물	56	정제두 묘	694㎡	양도면 하일리 산65번지	07.02.26
93	시	기념물	64	강화 망산봉수	3,074㎡	내가면 외포리 산131번지	11.12.28
94	시	기념물	65	황형 묘	2,629㎡	강화읍 월곶리 산72-1번지	13.08.02
95	시	기념물	66	강화 정족산성진지	5,821㎡	전등사로 37-41, 전등사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14.04.21
96	시	기념물	67	강화 정족산사고지	94,22㎡	전등사로 37-41, 전등사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14.04.21
97	시	문화재자료	7	전등사 대조루	1동 (159.7㎡)	전등사로 37-41, 전등사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95.03.01 (83.09.19)
98	시	문화재자료	8	철종외가	2동 (1,952.5㎡)	철종외가길 46-1 [선원면 냉정리 264번지]	95.03.01 (83.09.19)
99	시	문화재자료	9	원충사지	7,339㎡	하점면 이강리 산177번지	95.03.01 (83.09.19)
100	시	문화재자료	10	선수돈대	1기 (3,187㎡)	화도면 내리 1831번지	95.03.01 (83.09.19)
101	시	문화재자료	11	망월돈대	1,583.1㎡	하점면 망월리 2107번지	95.03.01 (83.09.19)
102	시	문화재자료	13	참성단 중수비	1기 (714.9㎡)	화도면 흥왕리 산42-1번지	95.03.01 (94.10.29)
103	시	문화재자료	14	강화 서도 중앙교회	1동 (1,077㎡)	서도면 주문도리 718번지	97.07.14
104	시	문화재자료	17	화도 돈대	1곽 (1,263㎡)	선원면 연리 54번지	99.03.29
105	시	문화재자료	18	무태 돈대	1곽 (1,191.1㎡)	하점면 창후리 산151-4번지	99.03.29

연번	지정	구분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면적)	소재지	지정일자
106	시	문화재자료	21	전등사 대웅보전 후불탱	1폭	전등사로 37-41, 전등사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02.12.23
107	시	문화재자료	22	전등사 강설당 아미타불탱	1폭	전등사로 37-41, 전등사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02.12.23
108	시	문화재자료	25	김취려 묘	1기	양도면 하일리 산71번지	10.12.06
109	시	민속자료	1	보문사 맷돌	2기 (2.7㎡)	삼산남로 828번길 44, 보문사 [삼산면 매음리 629번지]	95.03.01 (83.09.19)
110	시	무형문화재	1	삼현육각	김석송	삼동암길 18	85.10.23
111	시	무형문화재	8	강화 외포리 꽃창굿	정정애	강화읍 합일길9번길 10	97.07.14
112	시	무형문화재	12	강화 용두레질소리	황인범 황길범	양도면 도장리 823-1 강화군 북문4길 16번길 3-3	03.11.10
113	시	무형문화재	19	갑비고치농악	전내익 임명선	- 양사면덕하로93-11	08.12.15

앞의 표와 같이 강화군의 지정문화재는 총 113개 종목이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물이 11개, 사적이 16개, 천연기념물이 5개, 중요무형문화재가 1개이고, 지방 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27개, 기념물이 34개, 무형문화재가 4개, 문화재자료가 12개, 민속자료가 1개이다. 또한, 강화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이 총 19개인데, 세부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 강화군 향토유적 현황

연번	지정	구분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일자
1	강화군	1	윤집 택지	강화읍 월곡리 492-4	86.04.01
2	강화군	2	강화 중성	강화읍 선원면 일원	86.04.01
3	강화군	3	황형 택지	강화읍 월곡리 242	86.04.01
4	강화군	5	보만 정지	강화읍 국화리 282	86.04.01
5	강화군	7	철종 외가묘	선원면 냉정리 산70-46	86.04.01

연번	지정	구분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일자
6	강화군	9	경고비	불은면 덕성리 836	86.04.01
7	강화군	10	쌍충 비각	불은면 덕성리	86.04.01
8	강화군	11	정족산 가곶지	길상면 온수리 산48	86.04.01
9	강화군	12	선원 보각지	길상면 온수리 산404-1	86.04.01
10	강화군	13	고려 이궁지	화도면 흥왕리 산30-2	86.04.01
11	강화군	17	흥익한 택지	화도면 흥왕리 산30-2	86.04.01
12	강화군	18	분청사기 요지	화도면 사기리 산178	86.04.01
13	강화군	19	함허대사 부도	화도면 사기리 산86	86.04.01
14	강화군	25	봉가지	하점면 부근리 420-2	86.04.01
15	강화군	26	신삼리 지식묘	하점면 신삼리 69	86.04.01
16	강화군	27	석주 권필 유허비	송해면 하도리 892	86.04.01
17	강화군	28	연산군 적거지	교동면 읍내리 270	86.04.01
18	강화군	29	교동 봉수대	교동면 고구리 233	86.04.01
19	강화군	30	고구리 산성지	교동면 고구리 산145	86.04.01

- 황은수(남구청 주무관)

※ 참고문헌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 2002.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편, 『인천역사문화총서 6—인천의 섬』, 2004.
- 인하대학교박물관, 『강화 초지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2005.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편, 『인천역사문화총서 33—譯註 江華府志』, 2007.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편, 『인천역사문화총서 55—인천의 갯벌과 간척』, 2009.
- 인하대학교박물관, 『강화향교 복원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강화군, 2009.
- 강화군, 『강화의 문화재』, 강화군, 2013.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⑤—인천의 지명(하)』, 인천광역시, 2015.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⑥—인천의 지리와 지도(상)』, 인천광역시, 2015.
- 강화군, 『5천년의 역사 ·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강화』, 강화군, 2015.
-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신편 강화사 증보』 중편, 강화군, 2016.
- 강화군, 『2016 군정백서』, 2016.
- 강화군, 『2016 강화기본통계』, 2016.
- 강화군청(<http://www.ganghwa.go.kr>)
- 강화 히스토리(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history/)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사진
- (http://dryplate.museum.go.kr/program_2016/main/main.jsp)
- 종로도서관 고문헌 검색시스템(<http://jnliboldbook.sen.go.kr/web.do>)
- 문화재청(<http://www.cha.go.kr>)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2. 교동도

1) 연혁과 지명유래

(1) 지리적 개관 및 연혁

교동도(喬桐島)는 한강 · 임진강 · 예성강이 만나는 강화도 서북부 쪽에 위치한 섬으로 행정구역상 강화군 교동면에 속한다. 북쪽으로는 황해도 연안 · 배천을 건너다보며 예성강을 거슬러 올라 개성에 도달할 수 있고, 동쪽으로는 강화도 북부를 지나 한강하류와 맞닿으며, 남쪽으로는 석모도를 거쳐 경기만에 이르고, 서쪽으로 해주만 및 웅진반도 등 황해도 남부 해안으로 이르는 해상교통의 요지이다. 현재 교동도의 해안선길이는 37.5km이고, 면적은 47.17km²로 전국에서 14번째 큰 섬이다. 지난 2008년 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길이 3.44km, 폭 13.85m의 연륙교 공사를 시작해 6년만인 2014년 7월 1일에 이르러 정식 개통되며 연륙된 섬이 되었다.



교동도 현재 항공사진

2017년 1월 현재 교동면에는 전체 1,408세대 3,011명(남 1,529명/여 1,42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대룡리·읍내리·상용리·봉소리·고구리·삼선리·인사리·지석리·무학리·난정리·서한리·동산리·양갑리 등 총 17개의 마을(里)이 있다. 섬 북단 해안가에 걸쳐있는 철조망을 비롯하여 전 지역이 민통선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민간인의 활동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교동대교의 개통에 따라 교동 지역은 점차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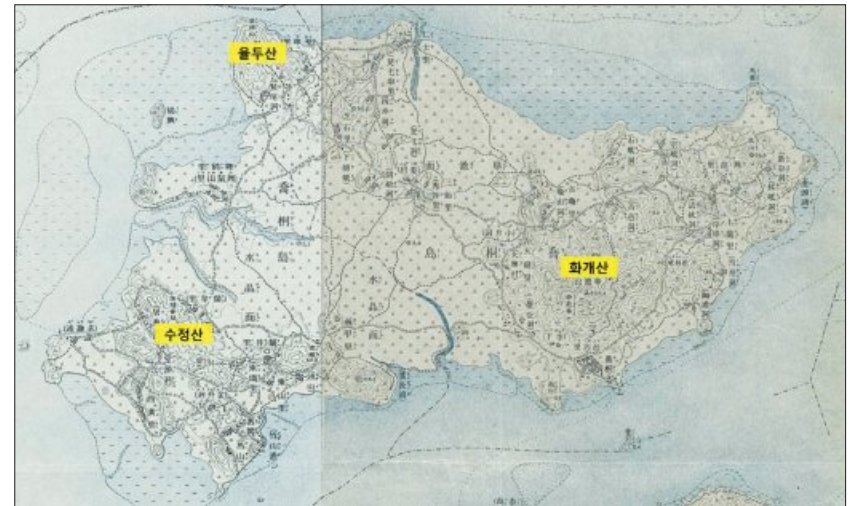
교동도는 처음부터 하나의 섬은 아니었다. 원래 화개산(259.5m)을 중심으로 하는 섬의 동쪽 부분과 남서쪽 수정산(100m), 서북쪽 울두산



1999년 항공사진 및 2005년 위성사진에 나타난 교동도

(89.5m)을 중심으로 하는 3개의 섬이 고려 조정의 강화천도 시기부터 매립이 시작되고, 자연변화와 지속적인 간척으로 현재 하나로 된 섬의 윤곽을 갖추게 된 것이다. 다음 지도와 같이 세 개의 작은 섬을 연결하여 간척지를 간척지로, 다시 간척지를 농경지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섬이었던 곳은 산으로, 간척된 곳은 대부분 농경지로 변모한 것이다.

『삼국사기』(지리) 이래로 각종 지리지의 건치연혁에 등장하는 교동의 옛 지명은 고구려의 고목근현(高木根縣)이라 적고 있고, 별칭으로 대운도(戴雲島)·고림(高林)·달을신(達乙新)도 병기하고 있다. 삼국시대 경기만과 한강유역은 삼국 사이에 영토를 둘러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 곳인데, 고구려 장수왕이 475년 한성과 한강유역을 점령했을 때 교동



1919년 교동 지형도[朝鮮五萬分一地形圖：舞鶴里，江華]

도 수중에 넣어 고목근현을 설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교동(喬桐)’이란 이름이 정해진 것은 신라 경덕왕대에 이르러 전국의 고유 지명을 중국식 한자명으로 바꿀 때이다. 교동현(喬桐縣)은 757년(경덕왕 16) 지방제도 정비에 따라 지금 강화의 옛 지명인 혈구군(穴口



『삼국사기』 권36 지리2 고목근현

郡)의 영현(領縣)이 되며, 독자적인 지방행정기구의 면모를 갖추었다. 고려 초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강화현의 영현으로 독립성이 취약했고,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었다. 그러다 1172년(명종 2) 교동에도 처음으로 감무(監務)가 파견되어 다소 읍격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교동은 수도 개성의 인후라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교류의 중심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 개성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통로는 연안항로든 국제항로든 교동을 통해야만 했고, 서해안 남·북의 왕래도 교동의 좌우 해류를 이용해야 했다. 교동 진망산 아래의 남산포로 알려진 포구에 고려와 송의 사신이 머물던 사신관이 있고,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사신당이 있었다. 때문에 정치·외교적으로 수도의 관문이 되었고 송나라를 왕래하는 사신들의 교통상 기착지로 경제적으로도 번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몽골이 고려에 침입하면서 고려는 1232년(고종 19) 강화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고, 교동은 강화의 전위로서 경제적·군사적 배후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려시대 교동은 벽란도를 통한 중국과의 무역에 기점이었으며, 조운선이 도성으로 들어올 때에도 중간 기착지로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여말선초에 이르기까지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 특히, 1363년(공민왕 12)에는 왜구의 선박 213척이 교동에 정박하기도 하였고, 1376년(우왕 2)에는 왜구의 침입을 피해 교동의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주민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왜구의 출몰과 더불어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며, 조선의 건국 직후인 1395년(태조 4) 교동에 수군만호가 파견되어 지현사(知縣事, 현감)를 겸하게 되었다. 무반인 종3품 만호가 문반 종6품 지현사를 겸하게 한 것은 왜구의 위협이 남아 있던 당시 교동의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1409년(태종 9) 교동현에 경기우도도만호(京畿右道都萬戶)를 두어 군사적 지위를 강화하면서 교동의 행정책임도 겸하도록 하였고, 1414년(태종 14)에는 경기우도수군첨절제사(京畿右道水軍僉節制使)를 두어 강화도 남부의 정포

(井浦), 강화도와 교동 사이의 교동량(喬桐梁)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교동의 군사적 위상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더욱 높아졌다. 강화도가 전란에 의한 국가위기사 왕실을 지켜주는 보장지(保藏地)로 인식되면서 강화도와 도성을 지키는 교동의 수영(水營)이 확대 개편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1629년(인조 7) 남양부에 있던 경기수영을 교동으로 옮기고, 교동현은 도호부로 승격되어 정3품의 수군절도사가 교동부사를 겸하게 되었다. 그리고 1633년(인조 11)에는 교동의 경기수영을 삼도수군통어영(三道水軍統禦營)으로 확대하여 경기도·황해도·충청도의 3도 수군을 총괄 지휘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영종(永宗), 덕포(德浦), 덕적(德積), 화량(花梁), 주문(注文), 장봉(長峯) 등 6개가 속진으로 배속되었는데, 각각 만호 또는 별장이 관할하였다.

그러나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손쉽게 함락되고, 교동의 삼도수군통어영이 강화의 육군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자, 효종~숙종 연간에는 보장지인 강화도 자체의 수비체제 증강에 나서게 된다. 강화도 해안 요충지에 진보와 돈대를 설치하고, 1679년(숙종 4) 진무영(鎭撫營)을 설치함으로써 육군수비체제를 크게 강화시킨 것이다. 또한, 18세기 접어들어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방어체제를 구축하자는 도성수비론(都城守備論)의 대두에 따라 수군방어체제는 더욱 위축되고, 교동의 중요성도 낮아지는 상황이 되었다.

1883년 인천 제물포가 개항되자, 교동은 서해중부 해양방어 군사기지로서의 지위와 해상교통로의 기능을 모두 상실하였다. 이때까지 만해도 교동군에는 동·서·남·북의 4개의 면과 송가면까지 총 5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895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 교동은 강화군에 편입되고 감옥서(監獄署)만 남게 되었다가, 이듬해 7월 다시 군(郡)으로 복귀되었다. 1906년 교동군 남면에 속했던 송가도가 송가면(松家面)으로 분리되어 기존의 동·서·남·북 4개의 면에서 5개의 면으로 되었고, 1911년 송가면은 송남면(松南面)으로 개칭되어 강화군에 편입됨으로서 다시 교동군은 4개면 13개리가 되었다.

■ 근대 교동의 행정구역 변천과정

	교동군(조선후기)		교동군(1911년)		강화군(1914년)		강화군(1934년)
동면 (東面)	말곶리(耑串里)	아미면 (仁東面)	봉소동(鳳韶洞)	화개면 (華蓋面)	봉소리(鳳韶里)	교동면 (喬桐面)	봉소리
	고읍리(古邑里)		고구동(古龜洞)		고구리(古龜里)		고구리
	구산리(龜山里)		상룡동(上龍洞)		상룡리(上龍里)		상룡리
	상방리(上坊里)		읍내동(邑內洞) * 용정리 일부 병합		읍내리(邑內里)		읍내리
남면 (南面)	용정리(龍井里)	부면 (北面)	대룡동(大龍洞) * 용정리 일부 병합	수정면 (水晶面)	대룡리(大龍里)	교동면 (喬桐面)	대룡리
	읍내리(邑內里)		삼선동(三仙洞) * 건지암리 일부 병합		삼선리(三仙里)		삼선리
	대이촌리 (大雅村里)		인사동(仁士洞) * 비사곶리 일부 병합		인현리(仁峴里)		인현리
북면 (北面)	비곶리(斐串里)	서면 (西面)	지석동(芝石洞)	삼산면 (三山面)	지석리(芝石里)	교동면 (喬桐面)	지석리
	독지리(禿旨里)		무학동(舞鶴洞)		무학리(舞鶴里)		무학리
	인현리(仁峴里)		양갑동(兩甲洞)		양갑리(兩甲里)		양갑리
	건지암리 (乾支岩里)		난정동(蘭井洞) * 동장리 일부 병합		난정리(蘭井里)		난정리
	돌곶리(疇串里)		동산동(東山洞) * 두산리 일부 병합		동산리(東山里)		동산리
서면 (西面)	무서산리 (舞鼠山里)		서한동(西漢洞)		서한리(西漢里)		서한리
	남갑리(南甲里)	송가면 (松家面)	상동(上洞)	삼산면 (三山面)	상리(上里)	삼산면 (三山面)	상리(上里)
	북갑리(北甲里)		하동(下洞)		하리(下里)		하리(下里)
	난고리(蘭臯里)						
	두산리(頭山里)						
	동장리(東場里)						
	서장리(西場里)						
남면 (南面)	말탄리(未灘里)						
	송가도 (松家島)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어 교동군의 읍동면과 북면이 화개면(花蓋面)으로, 북면 일부와 서면이 수정면(水晶面)으로 통합되어 강화군에 편입되었다. 1934년 화개면과 수정면이 통합되어 강화군 교동면으로 개편되었고, 1995년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될 때 교동면도 아울러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14년 「경기도전도」에 나타난 교동군과 강화군

(2) 지명유래

‘교동(喬桐)’은 757년(경덕왕 16) 전국의 고유 지명을 중국식 한자명으로 바꿀 때 붙여진 지명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목근(高木根)·달을참(達乙斬)이 교동(喬桐)으로 바뀌었고, 『고려사』에서 읍호 이외의 별칭으로 대운도(戴雲島) 혹은 고림(高林)으로 나타난다. 달(達)은 산(山)의 뜻이지만 도성(都城)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교동의 옛 이름 ‘달을참’에서 달을(達乙)은 고(高), 대(大)의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참(斬)은 ‘벌, 불’의 훈차(訓借)이고, ‘불’은 곧 ‘부리’로 파생되어 모[角]가 난 산(山)으로 봉(峯)을 가리킨다. 결국 삼국통일 이후의 지명인 교동(喬桐)에서 교(喬)는 고(高)나 대(大)와 통하는 글자이고, 동(桐)은 오동나무 및 ‘고을, 마을’의 뜻이기에 교동은 ‘크고 높은 산이 있는 고을’ 또는 ‘큰 오동나무 고을’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하겠다.

① 대룡리(大龍里)

옛날 이 마을에서 역마(驛馬)를 사육하여 대역촌(大驛村)이라 부르다가 뒤에 대아촌(大雅村)으로 개칭하였다. 교동의 중심이 되는 마을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룡리로 바뀌었다.

- **대명(大明)** : 매바지와 방골을 합쳐서 대명이라 부르고 있으며 대명은 하늘에 제사지내는 마을이란 뜻에서 유래된 듯하다.
- **매바지** : 방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매의 모습과 흡사하여 매바지라 하였으며 응수동이라고도 부른다.
- **방골(方谷)** : 대촌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온양 방씨가 세거해 온 마을이라 방골이라 부른다.
- **부시미산(富米山)** : 매바지 서쪽 바닷가에 있는 산이다. 쌀이 풍부하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지만 옛날 양갑리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몹시 가난하게 살았는데 마을에 마음씨 곱고 착한 사람이 매일 새벽 부시미산에 올라가 우리마을도 잘 살게 해 달라고 신에게 빌었는데 하루는 꿈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나 빈장산

과 부시미산 사이에 작고 낮은 산이 많은데 그 흙과 나무를 전부 치워버리면 잘 살 것이라고 말한 후 사라졌다. 꿈이 이상해 그 사연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 온 동네가 합심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그 후부터 언제나 풍년이 들어 잘 살게 되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였다.

- **장승마루** : 금정산 기슭에 나무로 만든 장승이 서 있던 고개마루를 장승마루라 부른다.
- **조개맨들** : 혼다리 서쪽에 있는 들로 조개껍질이 많은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쥐비(燕巢)** : 마을모양이 제비가 깃을 들고 있는 형태라 쥐비라 부른다.
- **천자현(天字峴)** : 토지의 지번을 설정할 때 천자문의 순서대로 맨 먼저 붙여진 곳이라 천자현이라 부른다.

② 읍내리(邑內里)

1629년(인조 7) 교동부의 치소(治所)를 고구리에서 이곳으로 옮긴 이후 읍내리라 칭하고 있다.

- **남산** : 읍내 서남쪽에 있는 높이 53m의 산. 조선시대 진망산(鎭望山) 봉수가 있었는데 서남쪽의 말도(末島) 봉수를 받아 교동 본영에 전했다.
- **남산포(南山浦)** : 남산포 가에 있는 마을. 포구에는 교동부 시절 대변창(大變倉)이 있어 병선(兵船)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조선소도 있었다.
- **대변창(待變倉)** : 남산포가에 있는 마을로 옛 교동부 시절 대변창이란 군사기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문무정(文武井)** : 읍내리 북쪽 화개산 남쪽에 있던 샘으로 동서로 두 개가 있어 동쪽 것을 문정, 서쪽 것을 무정이라 하였는데 문정에 물이 많으면 무정의 물이 줄어들고 고을에서 문관급제가 많이 나고 그 반대로 무정의 물이 넘치면 문정의 물이 줄고 무관급제가 많이

났으므로 문정, 무정을 통틀어 문무정이라 하였다.

- **사신당(使臣堂)** : 옛날에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사신이 왕래할 때 뱃길이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당집에서 유래되었다.
- **상여바위** : 동진포 동남쪽에 있는 여로 상여와 비슷하다고 하여 상여바위라 하였으며 일설은 매같이 생겨 매바위라고도 부른다.
- **성내(城內)** : 교동읍성에 있는 마을이라 성내라고 칭한다.
- **영말레** : 장거리 위쪽 마루터기에 있는 마을로 옛날 신임 수령이 부임해 올 때 이곳에서 영접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고개를 뜻하는 마루가 변하여 말레가 되었다.
- **영창말** : 남문밖 서쪽에 있는 마을로 교동진영의 창고가 있어 영창말이라고 하였으며 ‘영청말’로도 부른다.
- **절아래(寺下洞)** : 읍내 서북쪽 화개사 아래에 있어 ‘절아래’라 부른다.
- **진망산(鎭望山)** : 읍내 서남쪽에 있는 일명 남산으로 조선시대에 봉수가 있어 서남쪽의 말도 봉수를 받아 교동진영에 전한데서 유래되었다.
- **화개산(華蓋山)** : 교동면 읍내리, 상룡리, 고구리, 대룡리에 걸쳐있는 교동의 종산(宗山). 높이 295.5m로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어 동쪽으로 하음산성, 남쪽으로 망산봉수에 응하였다. 화개산에는 내외성이 있었으나 내성만 터가 남아있고 축조연대는 알 수 없다.

③ 상룡리(上龍里)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동면 상방리(上坊里)와 남면 용정리(龍井里)를 병합하고 상방리의 상(上)자와 용정리의 용(龍)자를 따서 상룡리라 하였다.

- **낭아래** : 법장에서 쭉고개로 가는 길목에 험준한 낭떠러지가 있어 ‘낭아래’라고 부른다.
- **달우물** : 이 마을에 달이 뜨면 우물에 달빛이 비추는데 매우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일명 월정(月井)이라고도 한다.

- **뜬구지** : 본래 부곡동(浮谷洞)으로 뜬 골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 **마뺩(馬房)** : 역참이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필을 기르던 마방에서 유래되었다.
- **법장동(法杖洞)** : 승려들이 사용하는 법장을 만들던 마을로 법장동으로 부른다.
- **북달이고개** : 뜬구지 서쪽에서 고구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북이 달려있던 고개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 **상방(上坊)** : 윗말이란 뜻으로 동면에 속했던 뜬구지와 법장동을 합쳐서 부르는 지명이다.
- **송림(松林)고개** : 뜬구지 남쪽에서 미르물로 넘어가는 고개로 소나무가 무성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월선(月船)** : 예전에 배를 만들었던 마을이라 선멸 선촌이라 하였는데 광복 후 월선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 **용정(龍井)** : 용이 승천했다고 전해오는 우물이 있어 붙여진 지명으로 속칭 미루물 또는 미르물이라 부른다.
- **탄현(炭峴)** : 옛날 이곳에서 숯을 구웠다하여 숯고개라 부르며 그 고개 밑에 마을도 숯고개로 칭한다.

④ 봉소리(鳳韶里)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종전의 말곶리(謫串里)를 버리고 봉황동(鳳凰洞)과 소소동(簫韶洞)에서 한 글자씩 따서 봉소리라 하였다.

- **되투리** : 도를 통했다는 뜻의 도통리(道通里)라 하였다가 와전되어 ‘되투리’라 부른다고 한다.
- **말곶리(謫串里)** : 말곶은 끝곶 즉 끝곶에 있는 마을에서 유래되었다.
- **서재(書齋)마을** : 되투리 위쪽마을로 신천영(申天榮)의 서재가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 **신골(申谷)** : 붉은 고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신씨가 많이 살았다하여 신골이라 부른다.

- **종모루** : 마을 뒤 마루터기에 큰 종이 걸려 있어 종모루라 부른다고 하며 일설에는 조선시대 이래 이씨들이 대종을 이루고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통수골(通水谷)** : 신골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홍수가 나면 이 마을 골짜기로 물이 모여 흐른다고 하여 통수골이라 부른다.
- **호소(虎韶)** : 호두포(虎頭浦) 가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범의 머리와 비슷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속칭 버머리라고 부른다.
- **홍현(紅峴)** : 마을 일대에 붉은 흙이 많아 붙여진 지명으로 속칭 붉은고개라고 부른다.

⑤ 고구리(古龜里)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고읍리(古邑里)와 구산리(龜山里)를 병합하여 고구리라 하였다.

- **가장골** : 구산리가 거북이 형상이며 가장골은 거북이의 가장자리쯤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래되었다.
- **고랑말** : 마을이 깊숙이 후미진 곳에 자리 잡은 지형에서 유래하였다.
- **고읍(古邑)** : 옛 교동현 시절 고을 소재지 마을이라 고읍이라 부른다.
- **구산(龜山)** : 마을 지형이 거북이 같은 형상이라 하여 구산이라 하였다.
- **독고개** : 고읍 북쪽 고개 밑에 있는 마을로 이곳에 돌이 많다고 하여 독고개라 하였으며 석현(石峴)으로도 부른다.
- **병풍바위** : 절골에 있는 바위로 바위모양이 마치 병풍을 둘러친 것 같이 보여 붙여진 이름이다.
- **빙구테** : 옥모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교동 고을의 빙고가 있어 '빙구테'라 부른다.
- **사жат매** : 생깃골 남쪽에 있는 산으로 옛 교동 고을의 사직단이 있어 붙여진 지명으로 사직단은 1852년(철종 3)에 이곳에서 읍내리 진망산으로 옮기었다.

- **생깃골** : 종모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고읍리에 교동 고을이 있었을 때 향교가 있었다하여 불려온 이름으로 '향곶골'로도 부른다.
- **성안** : 옛 교동현 성터가 있는 안쪽마을이라 성안이라 하였다.
- **송계(松溪)** : 옛날부터 소나무가 많았고 마을 앞으로 시내가 흐른다고 하여 송계라 부른다.
- **연산골(燕山谷)** : 연산군이 유배되어 병사한 곳이라고 전하는 골짜기라 하여 유래되었다.
- **옥모루** : 증뽕 서남쪽에 있는 버덩으로 옛 교동현의 옥이 있던 곳이라 '옥모루'라 부른다.
- **중현(中峴)** : 고구리의 중앙에 있는 마을로 종모루고개 밑에 있어 붙여진 지명으로 중마루 또는 중모루라고도 부른다.

⑥ 삼선리(三仙里)

원래 북면 소속으로 독지리(禿旨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비곶리(斐串里)와 건지암리(乾支岩里) 일부를 합하고 삼선리라 하였다.

- **가오라지** : 본래 개오동(開梧洞)이었는데 지금과 같이 개칭된 것으로 곡암(谷岩)이라고도 부른다.
- **독지리** : 지형이 무지러진 손가락 모양과 흡사하다고 하여 무지니라 칭하였고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독지리이다.
- **비살곶(非沙串)** : 바닷가로 뻗은 산과 곶이 있는 마을에서 유래되었으며 선암(仙岩)이라고도 부르며 일명 비살고지, 비살구지로도 부른다.
- **팔도(八道)들** : 무지니 동남쪽에 있는 들로 여덟 갈래의 길이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⑦ 인사리(仁士里)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종래의 북면 인현리(仁峴里)에 비사을

곶리(非士乙串里)의 일부를 합하고 두 마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인사리라 하였다.

- **대쟁이 고랭이** : 풀모기 서남쪽에서 삼선리의 아랫기재로 넘어가는 고개로 대장간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민재** : 인사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인산, 인현, 인현동, 인재로도 부른다.
- **북진나루터** : 민재 서북쪽에 있는 나루터로 예전에 연백군 호동면 봉화리로 건너다녔다.
- **우물네골** : 풀모기 남쪽 고을에 있는 마을로 우물이 네 개가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사정동(四井洞)이라고도 부른다.
- **인현진** : 1915년경 연안선을 개척하여 왕래하던 인사리에 있던 나루터.
- **초목(草木)** : 이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하여 초목이 많아 붙여진 이름으로 속칭 풀모기라고 부른다.
- **풀모기** : 민재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뒷산에 풀이 많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 **화수방죽** : 풀모기 앞들 북편에 있던 못으로 조수가 드나들었다.

⑧ 난정리(蘭井里)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서면 난곶리(蘭串里)에 구정동(九井洞)의 일부를 합하고 난곶리와 구정동에서 한 글자씩 따서 난정리라 하였다.

- **구정(九井)** : 옛날 이 마을에 아홉 개의 우물이 있다고 하여 구정동이라 칭하였다.
- **난곶(蘭串)** : 지형이 난초의 잎처럼 뽕족하게 생긴 언덕에 형성된 마을에서 유래되었으며 난구니라고도 부른다.
- **난서(蘭西)** : 맑은 물이 난다는 셋말과 큰장터 마을인 장골을 합친 것으로 난곶 서편에 있는 마을에서 유래하였다.
- **뒷물** : 셋말 북쪽에 있는 마을로 뒤에 우물이 있어 뒷물이라 부른다.

- **셋말** : 뒷물과 큰물 사이에 있는 셋말이 있는 마을에서 유래 되었으며 이물을 마시면 불로장생 한다는 전설이 있다. 셋말이라고도 부른다.
- **월정(月井)** : 구정동에서 초승달이 지는 것을 보면 이 마을 뒤로 넘어가는데 마치 큰달이 굴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월굴이라 부르다가 광복 후 월정으로 고쳐 부르고 있으며 월구리라고도 한다.
- **장골** : 셋말과 뒷물 사이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장이 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황새방죽들** : 셋말 동북쪽에 황새방죽이라는 못이 있고, 그 일대의 들에 황새가 많았다고 한다. 한수방죽, 한수박죽들이라고도 부른다.

⑨ 양갑리(兩甲里)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빈장산(濱長山) 남쪽의 남갑리(南甲里)와 북쪽의 북갑리(北甲里)를 병합하고 두 마을을 합쳐 이루어졌다고 하여 양갑리라 부른다.

- **갑산(甲山)** : 보통 겹재라 부르는데 겹재는 봉우리가 두 개 있는 산에서 유래하였으며 이곳에서는 빈장산을 가리킨다.
- **골안말** : 겹재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갯고랑이 있어 붙인 이름으로 골말이라고도 부른다.
- **밀척고개** : 겹재 서쪽에서 동산리의 두산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몹시 가팔라서 내려갈 때 뒤에서 미는 것처럼 밀려 내려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밀치라고도 부른다.
- **배진개** : 겹재 동북쪽에 있는 들로 예전에는 개였으며 배를 만들던 곳이다.
- **빈장개** : 빈장개 주변에 있는 마을 또는 양갑리와 동산리 경계에 있는 개로 빈장포라고도 한다.
- **빈장산(濱長山)** : 남갑리 동남쪽 갯가로 길게 뻗은 산으로 높이가 102.4m이고 ‘겹재동산’이라고도 부른다.

- 산제단골 : 빈장산에 있는 골짜기로 산제단이 있었다.
- 응골 : 큰골 동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 장삿바우 : 응골 아래에 있는 큰 바위로 사람이 앉았던 자국이 있는데 장사가 앉았던 곳이라 전한다.

⑩ 동산리(東山里)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서면 동장리(東場里)와 두산리(頭山里)를 통합하고 두 마을에서 한 글자씩 따서 동산리라 하였다.

- 구려(舊閭) : 동산리에서 최초로 생긴 마을이라 ‘구려, 구래’라고도 부른다.
- 금정굴(金井窟) : 예전에 이 마을에서 굴을 파고 금을 켜다고 하여 금정굴이라 칭한다.
- 두산(頭山) : 마을 뒤에 있는 산세가 까치머리 같다고 하여 작산리라 하다가 두산으로 고쳐 부른다고 한다.
- 마산(馬山) : 구래 서남쪽에 있는 마산 밑에 있는 마을.
- 외깃들 : 동녘 북쪽 골짜기에 있는 들로 ‘외기울, 외깃들’로도 부른다.
- 죽산포(竹山浦) : 동산리에 있는 후미진 포구로 이곳에 정박하고 있는 배의 돛대가 마치 대나무 숲처럼 밀집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테메 : 테메산 동쪽에 있는 마을로 테메를 머리메라고도 하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 해자를 판 것이 마치 머리에 테를 두른 것 같이 보여 테메라 하였으며, 속칭 죽산포라 부른다.

⑪ 서한리(西漢里)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서면 서장리(西場里)와 말탄리(末灘里)를 병합하여 서한리라 하였다.

- 거미(居美) : 당뒤 서북쪽 끝에 있는 마을로 ‘거미동, 계미동, 계미’라고도 부른다.
- 당뒤(堂後) : 옛부터 당제를 지내던 당산이 있고 그 뒤쪽에 있는 마

을이라 당뒤라고 한다.

- 말탄리 : 말탄을 끌어올이란 뜻으로 교동 서쪽 끝을 휘돌아드는 여울에서 유래하였다. ‘말탄개, 말탄, 몰탄개’로도 부른다.
- 몰탄개나루 : 말탄개 앞에 있었던 나루.
- 서장리 : 옛날에 마장이 있던 서편에 있는 마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 장성(長城) : 이 마을 앞 해변을 따라 긴 성이 있었다하여 장성이라 부르고 있으며 또한 ‘막개’라고도 한다.

⑫ 무학리(舞鶴里)

종래의 북면 무서산리(無鼠山里)로 마을 지형이 학이 날아와 앉은 형상이라 무학리라 하였다.

- 고양이산 : 산세가 마치 고양이가 웅크리고 앉은 형상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괴미, 고이미, 괴밋산’이라고도 부른다.
- 노적봉(露積峯) : 괴미 북쪽에 있는 산으로 노적가리 같이 생겼다.
- 돛논 : 무학 동쪽에 있는 논으로 예전에는 바다로 되어 있어 배가 드나들었는데, 이곳에서 돛을 내렸다고 전한다.
- 물없는들 : 무학리와 지석리 경계에 있는 들로 토박하고 물이 없었다.
- 용터구 : 다랫들 북쪽에 있는 들로 용이 하늘로 올랐다고 전한다.
- 장사공깃돌 : 서월산 아래에 있는 둥그런 바위로 장사가 가지고 놀던 공깃돌이라 전한다.
- 쥐산 : 무학 서쪽 갯가에 있는 산(37m)으로 쥐와 비슷하여 쥐산이라 하였으며 붓처럼 뾰족하다고 하여 문필봉(文筆峯)이라고도 부른다.

⑬ 지석리(芝石里)

돌로 되 곳(串)이 있는 마을이라 돌곶리(玆串里)라 불렀는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북면 돌곶리와 건지암리를 병합하고 지석리라 하였다.

- **건지암** : 마을 입구에 사람이 수건을 쓴 형상의 바위가 있어 ‘건암’이라고도 부른다.
- **기재** : 서남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기치, 기재동, 기현’이라고도 부른다.
- **농장말** : 오미 서쪽에 있는 마을로 앞들을 간척하여 새로 이룩되었으며, 이민촌이라고도 한다.
- **돌곶리** : 돌은 우리말 돌의 취음으로 즉 돌이 많아 유래되었다.
- **바머리** : 지석리 서북쪽 바닷가에 있는 산으로 노핑가 87m이며 울두산이라고도 부른다.
- **바머리 나루터** : 바머리에 있는 나루터를 말하며 바머리는 한자로 울두진(栗頭津)으로 이것을 한글로 풀어쓴 것이다. 여기서 황해도 연백군 호남면 석천리의 백석포로 건너다녔다.
- **서남골** : 지석리 중앙에 있는 마을로 화양사가 있었으며, ‘산양골, 선양골, 선양동, 화양골, 화양동, 화양말’이라고도 부른다.
- **수건바위** : 선양골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사람이 수건을 쓴 것처럼 생겼으며 예전에 건지암에 부자가 많이 살았는데 모두 욕심이 많고 인색하여 중이 동냥하러 왔으나 한 사람도 시주하지 않으니 중이 돌아가면서 혼자 말로 “이 바위만 깨뜨리면 이 마을이 더 큰 부촌이 될 더인데” 하는 말을 듣고 바위를 깨뜨린 뒤로 가난한 마을이 되었다고 전한다.
- **오현(鰲峴)** : 마을 형상이 자라 꼬리 같아 오미라 부르다가 광복 후 오현으로 개칭하였다.
- **원나루터** : 바머리 서쪽에 있는 나루터로 ‘원에’라 부르기도 한다.
- **절너머** : 바머리 남쪽 화양골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화양골(華陽谷)** : 옛날 화양사가 있던 마을에서 유래되었으며 ‘서남골’이라고도 부른다.

2) 전근대 지지류에 나타난 교동도

(1) 지도로 보는 교동도

① 해동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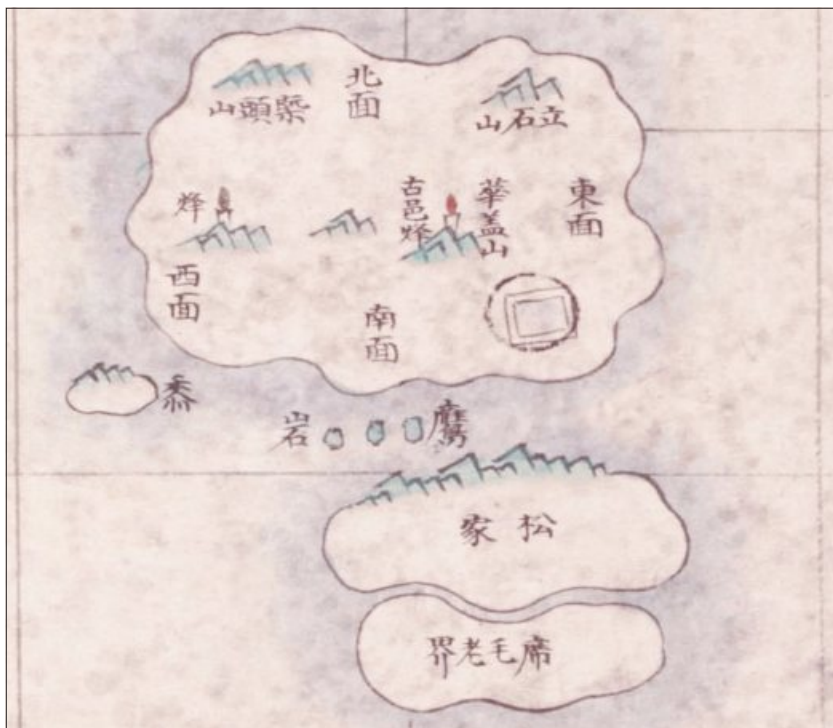
이 지도를 보면, 주요 산으로 읍성 북쪽의 화개산(華蓋山), 동쪽의 대마재산(大馬載山)과 소마재산(小馬載山), 서쪽의 수정산(修井山), 남쪽의 진망산(鎭望山)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읍성 안에는 ‘부(府)’라 기입되어 있어 이곳이 치소임을 알 수 있고, 그 안에 다섯 채의 건물이 묘사되어 있으며 이들을 둘러싸고 타원형의 성곽이 표현되어 있다. 읍성은 남문·동문·북문 등 세 개의 문이 표시되어 있고, 북문 밖에 향교가 있으며, 화개산과 수정산 정상부에 각각 돈대 및 봉수 표시가 있다. 섬 남쪽의 진망산 자락에는 군광고(軍光庫)와 육물고(六物庫)라는 창고, 그 아래의 해안가에 저수처(貯水處)와 선창(船倉)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곳이 바다로부터 읍성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통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동 안의 행정구역과 포구 등의 지명, 주요 지점까지의 거리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해동지도』(교동부, 18세기 중반) 일부

② 조선지도

지도에 표현된 주요 공간 요소들은 비교적 단순한 편으로 산 이름과 치소의 위치, 면과 섬 이름 정도이다. 앞의 『해동지도』와 달리 치소의 건물들은 묘사하고 있지 않다. 교동도 본섬도 간략히 표현되어 있으며, 치소 내의 건물을 그리지 않고 다만 그 위치만 표시하고 있다. 주요 산으로는 개두산(槩頭山), 입석산(立石山), 화개산(華蓋山) 등의 산 이름이 보이고, 두 개의 봉수(烽燧)를 빨간 기호로 표시하였다.



『조선지도』(교동, 18세기 중·후반) 일부

③ 광여도

이 지도는 교동도 지역의 옛 지도 중 가장 화려하게 채색된 지도라 할 수 있다. 지도에 표현된 주요 공간 요소들로는 산줄기와 물줄기, 치소의 위치와 치소 안의 주요 건물, 주요 산 이름과 마을 이름들, 부속 도서의 이름 등이다. 또, 전략적 요충지답게 읍성에 대한 표시가 자세한데, 각각의 문에 웅성(甕城)도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읍치의 북문 밖에 향교가 보이고, 화암사(華巖寺)와 같은 불교 사찰, 해안가에는 포구가 자세하며 선창(船倉), 저수처(貯水處)와 같은 특수 시설도 확인된다.



『광여도』(교동, 19세기 전반) 일부

④ 여지도

지도의 명칭이 교동수영(喬桐水營)으로 바뀌었지만, 앞의 『광여도』의 교동부 지도와 전체적인 구도와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일부 표현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광여도』에는 없지만 읍성에 적의 화살이나 총포 공격을 피하면서 적을 공격하는 성가퀴[女裝, 城堞]가 그려져 있고, 일부 지명에 채색 사각형 표시가 누락되어 있다.



『여지도』(교동수영, 18세기 중엽) 일부

⑤ 1872년 지방지도 교동부

지도를 보면, 섬의 남쪽에 묘사된 읍치와 성곽 및 성문, 이곳을 중심으로 섬의 곳곳을 향해 뻗어간 도로들, 섬 안의 주요 산지와 물줄기, 섬 남쪽에 주로 분포하는 작은 도서들 등이다. 섬의 해안 지역 중 간선도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치소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기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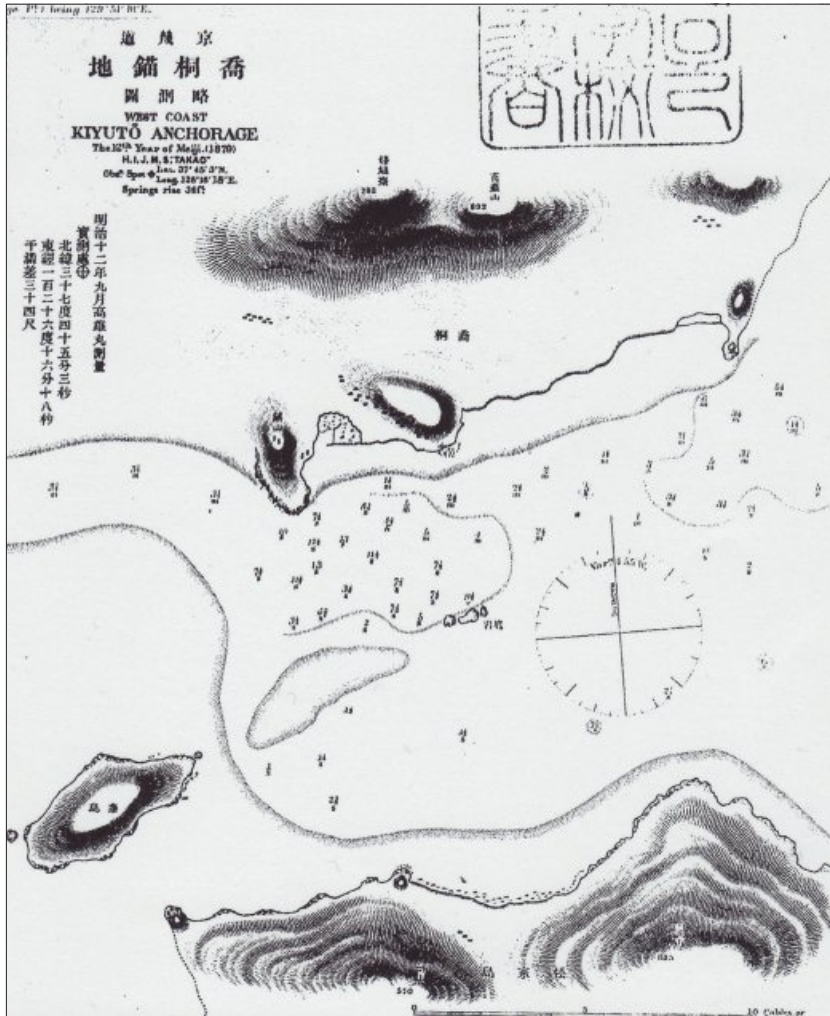
섬의 남부에 있는 치소 부근은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남문의 홍예문과 누각까지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남문의 일대의 성곽 경관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 남문 밖에는 시장(市場)도 표시되어 있으며, 성 안에는 비교적 많은 건물들이 빼곡히 있었음을 보여준다. 북문 밖으로는 향교가 표시되어 있는데 중앙의 명륜당으로 보이는 건물과 그 양쪽의 동재 및 서재로 추정되는 건물이 확인된다. 읍치 서쪽으로 난 도로에는 하천을 건너는 교량도 설치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남문을 벗어나 바닷가에 이르면 어변정(禦邊亭)이라는 정자가 보이는데, 이곳은 고려시대 이래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순풍을 기다려 출항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872년 지방지도』(교동부, 19세기 전반) 일부

⑥ 경기도 교동 정박지 약측도

이 지도는 1879년 일본의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일행이 서해 안에 개항장을 설정하기 위해 많은 포구들을 조사할 때 교동도 남변 일대에서 송가도 북변에 이르는 지역을 측량한 것이다. 『교동군읍지』에도 “기묘년(1879) 7월에 일본공사 하나부사 등 49명이 읍에 들어와 산천



『경기도 교동 정박지 약측도』(京畿道喬桐錨地略測圖, 1881)[일본 해군성]

의 모습을 그리고 수심(水深)을 측량하고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교동도 남변의 정박지를 중심으로 수심을 측량하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34척(尺)이라고 표시해 놓았다. 이때 ‘남양(南陽), 아산(牙山), 당진(唐津), 서산(西山), 교동(喬桐)’ 등이 개항장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결국 한양과의 인접성으로 인천의 제물포 지역이 개항장으로 설정되었다.

(2) 지리지로 보는 교동도²⁾

① 건치연혁(建置沿革)

■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1899)

본래 고구려 고목근현인데, 신라 경덕왕 때 군 이름을 고쳐 혈구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에서도 계속 이어오다 명종 때 감무를 두었다. 조선 태조 4년(1395)에는 만호 겸 지현사를 두었다. 뒤에 현감을 고쳐 훈도로 삼았다가 다시 현을 두었다. 인조 7년(1629) 기사년에는 화량으로부터 수영을 교동 월곶진 터로 옮겨 설치하여 읍호를 승격시켜 부사를 겸하게 하였고 월곶진은 강화로 옮겼다. 4년 뒤인 계유년(1633)에는 삼도통어사를 겸하게 하여 경기, 황해, 충청 3도의 수군을 관할하게 하였으며 전함을 두고 군사 기물을 비축하여 서남해 방어에 대비하였다. 정유년(1657)에는 부사를 강등하여 현감으로 하였고 3년이 지난 기해년(1659)에는 통어사를 강화로 이속시켜 부사 겸 방어사로 하였다. 11년 뒤인 기유년(1669)에는 비변사에서 계를 올려 다시 통어사를 두게 되었다. 88년이 지난 병인년(1746)에는 통어사를 강화로 이속

2) 교동 관련 지리지의 내용이 방대하고, 주어진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동의 역사 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하였다. 또, 지리지마다 동일 반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새로운 정보나 내용 위주로 ‘건치연혁(建置沿革), 성지(城地), 창고(倉庫), 관역(關陬), 진보(鎭堡), 봉수(烽燧), 학교(學校), 단묘(壇廟), 충묘(塚墓), 불우(佛宇), 궁실(宮室), 공해(公廨), 누정(樓亭), 역원(驛院), 목장(牧場), 고적(古蹟)’ 순으로 정리하였다.

시켜 수군절도사 겸 부사로 하였고 9년 후 갑술년(1754)에는 다시 통어사를 두었다. 9년 뒤인 임오년(1762) 6월, 통어사를 다시 강화로 이속하여 수군절도사 겸 부사로 하였고 같은 해 8월 다시 통어사를 두었다. 3년 뒤인 갑신년(1764)에는 해방영에서 올린 초기로 말미암아 통어사를 이속시켰고 이 영이 부사 겸 방어사가 되었다. 11년 뒤인 을미년(1775) 5월에는 고을을 혁파하고 강화군에 붙여 감옥서를 두었다가 이듬해 병신년(1776) 7월에 다시 읍호를 회복시켜 군수를 두었다.

[표] 교동의 지리지

제목	찬자	연도	출전 및 소장처
삼국사기지리지 (三國史記地理志)	관찬	1145년	『삼국사기』권 35, 잡지 제4, 지리 2, 신라
고려사지리지 (高麗史地理志)	관찬	1451년	『고려사』권 56, 지 제10, 지리 1, 양광도 강화현 조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관찬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경기도 부평도호부 교동현조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관찬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권 13, 경기도 교동현 조
동국여지지 (東國輿地志)	유형원	1656년	『동국여지지』 경기도 교동현 조
여지도서 (輿地圖書)	관찬	1760년 경	『여지도서』 경기도 교동부 조
교동부읍지 (喬桐府邑誌)	관찬	1842년	『경기지』 교동부읍지 조, 규장각(奎12178)
여도비지 (輿圖備志)	김정호	1856년	『여도비지』 교동부 조
대동지지 (大東地志)	김정호	1863년 경	『대동지지』 교동부 조
교동부읍지 (喬桐府邑誌)	관찬	1871년 경	『경기읍지』 교동부읍지 조, 규장각(奎12177)

제목	찬자	연도	출전 및 소장처
교동군읍지 (喬桐郡邑誌)	관찬	1899년	『경기도』 교동군읍지 조, 장서각(K2-4218), 규장각(古915.12-G999g, 奎10731)
교동읍지 (喬桐邑誌)	교동군	1914년	고희인(高熙寅)씨 소장

■ 여지도서(輿地圖書, 1760)

(전략) … 관원은 현감과 훈도이다. 각 1명씩 두었는데 지금은 없다. 신증. 인조 7년 기사년(1629)에 승격시켜 도호부로 삼았다. 수영은 처음에 남양 화랑진에 설치했으나, 천계 9년(1629)에 월곶진 터로 수영을 옮겼다. 이에 부사로 승격시켜, 관제에 따라 수사가 겸하게 했다. 월곶진은 강화로 옮겼다. 인조 11년(1633)에 통어사를 겸하게 했다. 교동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서 서북쪽에는 큰 바다에 가로막혀 있으며, 강여울을 눌러 웅거한 요해처로서 강화도와는 뗄 수 없는 곳이다. 이에 삼도통어영을 설치하고 황해도와 충청도의 수군을 함께 관할토록 하여, 바닷가의 각 진으로 하여금 황당선의 오고 감을 살펴서 본영에 즉시 보고하게 했다.

② 성지(城池)

■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1899)

화개산성은 옛 현감 시절에 쌓았다. 신묘년(1591) 10월 지현으로 있던 이여량이 외성을 헐고 읍으로 옮겨 쌓았다. 지금은 단지 내성 터만 남아있고 성안에는 2개의 큰 우물이 있다. 읍성은 둘레는 1,006척이고 동·남·북 3개의 문이 있다. 수영을 설치할 때 쌓았다. 두 번 지난 계유년(1813)에 통어사 백동명이 수리해서 쌓았으나 치첩은 없었다. 지난 갑신년(1884)에 통어사 이교복이 성의 문루와 치첩을 포함해서 전체를 쌓았으나 수영으로 교체되어 돌아간 이후 완성하지 못하였다. 남문은 방어사 백낙륜이 같은 해 중건하였다. 해자는 오래되어 구덩이가 되었다. 동북쪽 두 개 문은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지만 다시 세우지 않

았다.

■ 교동부읍지(喬桐府邑誌, 1871)

화개산성은 옛적 현이었을 때 쌓았으나 해가 오래되어 무너지고 훼손되어 지금은 단지 터만 남아있다. 읍성은 둘레가 1,006자이고, 높이는 18자이며, 동쪽·남쪽·북쪽의 세 개의 문이 있다.

■ 대동지지(大東地志, 1863)

읍성은 둘레 1,006척이고, 웅성으로 3개 성가퀴가 있다. 사방으로 동·남·북 삼문과 작은 남문이 있다. 화개산성은 둘레 3,534척이고, 연못과 샘이 1개씩 있다. 영조 때 개축하였지만, 지금은 무너져 내렸다. 고읍성은 도호부 북쪽으로 10리 되는 곳에 터가 남아있다.

■ 여도비지(輿圖備志, 1856)

읍성은 둘로 쌓았고 둘레는 1,006자이다. 곡성이 셋이고 치성이 넷이며 성문 4개, 우물이 하나이다. 화개산성은 둘로 쌓았고 둘레는 3,534자이다. 연못 하나, 샘이 하나 있다. 영조 13년 개축하여 총어영으로 삼았다. 지금은 없어졌다. 고읍성은 읍치에서 북쪽 10리에 터가 있다.

■ 여지도서(輿地圖書, 1760)

화개산성은 둘로 쌓았으며, 둘레는 3,534자이고, 높이는 3길이다. 안에 못 하나와 샘 하나가 있다. 지금 임금 4년 정사년에 군창을 개축하였는데, 지금은 없다. 읍성은 둘레는 1,006자이고, 높이는 3길이다. 동·남·북에 3개의 문을 설치했는데 모두 단층 루이다. 옆에 곡성이 있으며, 네 곳에는 웅성이 있다. 언제 쌓았는지 알 수 있는 문서가 지금은 없으나, 월곶에 진을 설치할 때 쌓았다고 예로부터 전해온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화개산성은 둘로 쌓았는데, 둘레는 3천 5백 34자이고, 높이는 18자이다. 그 안에 못 하나, 샘 하나가 있고, 군창이 있다. ○최숙정의 시에, “푸른 산 높아 육오두 눌렀는데, 게으른 손 올라서니 먼 근심 없어 지네. 물나라 찬 조수에 고기잡이 마을 저물었고, 하늘 끝 지는 해에 바다 문에 가을 왔구나. 가슴은 활짝 트여 삼천리요, 눈길에 멀리 보이는 건 수십 주로다. 둘러앉은 풍류는 누가 가장 씩씩한가. 술잔 부어 서로 주며 더 놀고 가세.”라 하였다.

③ 창고(倉庫)

■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1899)

사창은 성 남문 밖 열무당 동쪽 끝 좌우에 있다. 군수고는 객사 남쪽 끝에 있다. 지금은 없다. 군량고는 군기고와 맞닿아 있고 중군영의 남쪽 끝에 있다. 군기고는 어변정에서 옮겨 왔고 군량고와 맞닿아 있다. 병고·척고·호고는 서로 맞닿아 있고 근민당 동쪽 끝에 있다. 예고·어물고·포미고는 서로 맞닿아 있고 관청 남쪽 끝에 있다. 공고는 안해루 남쪽 끝에 있다. 육일고는 교련관청 남쪽 끝에 있다. 보민고는 향청의 남쪽 끝에 있다. 화약고는 진망산에서 옮겨와 군기고에 합쳤다. 육물고·장고는 어변정 북쪽 끝에 있다. 지금은 무너졌다.

④ 관액(關陬)

■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1899)

본읍은 경기 연안의 요충에 있어 두 서울을 가려주고 있다. 그런 까닭에 수군과 군사 무기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방어하는 데에 근심이 없다.

■ 교동부읍지(喬桐府邑誌, 1871)

본 섬은 경기도와 황해도가 교차하는 경계에 있으며 양서와 삼남으로 통하는 바다를 단속한다.

■ 여지도서(輿地圖書, 1760)

본 교동부는 서쪽과 남쪽 두 바다의 급소에 위치하여 서울을 방어하는 관문이 된다. 적이 쳐들어오는 경로의 첫길에 군영을 설치하고 전선을 둔 까닭은 준비하여 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⑤ 진보(鎭堡)

■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1899)

월곶진 터에 수영을 설치한 이후에 강화로 옮겨갔다.

■ 대동지지(大東地志, 1863)

주문도진에 수군동첨절제사 1명, 장봉도진 수군만호 겸감목관 1명이 있다.

－ 요망은 장봉도, 말도, 불음도이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월곶진은 현 남쪽 16리에 있다. 우도수군 첨절제사영이 있는데, 소관은 정포 교동량이다.

－ 첨절제사 1명이 있다. 교동량영에 수군 만호 1명이 있으며, 교동현감이 겸한다.

⑦ 봉수(烽燧)

■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1899)

화개산봉수는 강화 진강산 남쪽으로부터 받아 동쪽으로 강화 하음산 봉수로 보낸다. 수정산봉수는 연안부 간월산 서쪽에서 받아 북쪽으로 연안부 각산봉수로 보낸다.

■ 대동지지(大東地志, 1863)

화개산, 수정산, 장봉도, 불음도, 말도에 있다.

■ 교동부읍지(喬桐府邑誌, 1842)

세 곳이 있는데 그 중 한 곳은 서면 난곶리 수정산에 있고, 한 곳은 남면 용정리 화개산에 있으며, 한 곳은 남산에 있다.

■ 여지도서(輿地圖書, 1760)

주산봉수는 관아의 북쪽 5리 화개산에 있다. 강화부의 강산봉수로부터 남쪽에서 신호를 받아 동쪽으로 강화부 하음산봉수에 보낸다. 수정산봉수는 관아의 서쪽 20리에 있다. 황해도 연안의 간월산봉수로부터 서쪽에서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연안부 각산봉수에 보낸다.

신증(新增) : 진망산봉수는 관아의 서쪽 2리에 있다. 강화부에 속해 있는 말도봉수로부터 서쪽에서 신호를 받아 오로지 본영에 보낸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수정산봉수는 북으로 황해도 연안부 각산에 응한다. 화개산봉수는 남쪽으로 강화부 망산에 응하고, 동으로 강화부 하음성산에 응한다.

⑧ 학교(學校)

■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1899)

세 갑자 전 신유년(1741)에 부사 조호신이 화개산 북쪽에서 옮겨와 관아의 북쪽, 화개산의 남쪽에 설치하였다.

⑨ 단묘(壇廟)

■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1899)

사직은 군의 남쪽 2리 되는 진망산 북쪽 기슭에 있다. 지난 임자년(1852)에 구산리에서 옮겨왔다. 여단은 교궁의 동쪽 기슭에 있다. 지난 임자년(1852년)에 고읍리에서 옮겨왔다. 독신각은 진망산 동쪽 기슭에 있다. 냉정단은 화개산 서쪽 꼭대기에 있다. 진망단은 진망산에 있다. 마재단은 마재산에 있다. 화개단은 화개산 꼭대기에 있다. 율두단은 율

두산에 있다. 수정단은 수정산에 있다. 상주단은 송가도 상주산 북쪽 기슭에 있다. 이상 일곱 개 단에서 비를 빌면 영험이 있다.

■ 교동부읍지(喬桐府邑誌, 1871)

사직단은 관아의 북쪽 10리에 있다. 향교는 관아의 북쪽 3리에 있다. 여단은 관아의 북쪽 10리에 있다. 성황사는 관아의 북쪽 7리에 있다.

■ 교동부읍지(喬桐府邑誌, 1842)

사직단은 동면 구산리에 있는데 관아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여단은 동면 고읍리에 있는데 관아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

기우제단 : 여덟 곳이 있는데 그 중, 한 곳은 사단으로 동면 구산리에 있고, 한 곳은 냉정(冷井)으로 남면 용정리에 있고, 한 곳은 진망산으로 남산에 있고, 한 곳은 마재산으로 동면 맛꽃리에 있고, 한 곳은 화개산으로 남면 용정리에 있고, 한 곳은 울두산으로 북면 니꽃리에 있고, 한 곳은 수정산으로 서면 난꽃리에 있고, 한 곳은 상주산으로 남면 송가도에 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사직단은 현 서쪽에 있다. 문묘는 향교에 있다. 성황사는 화개산에 있다. 여단은 현 북쪽에 있다.

⑩ 총묘(塚墓)

■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1899)

대사간 김사안(金思安)의 묘는 부의 북쪽 20리인 돌곶리 염천동에 있다. 습독관 김현(金僉)의 묘는 화개산 북우동에 있다. 대사간 김난상(金鸞祥)의 묘는 대우동에 있다. 영릉참봉 김봉상(金鳳祥)의 묘는 대우동에 있다. 김현의 아들이며 난상의 형이다. 경산현령 김구상(金龜祥)의 묘는 대우동에 있다. 봉상의 바로 아래 동생이다. 군위현감 김경선(金

慶先)의 묘는 대우동에 있다. 상서 호신의 아들로 봉상의 손자이다. 습독관 김윤공(金允恭)의 묘는 대우동에 있다. 남부령 전거(全矩)의 묘는 대우동에 있다. 구례현감 이원춘(李元春)의 묘는 부의 서쪽 5리 되는 대아촌리 금성산에 있다. 상호군 박란(朴蘭)의 묘는 대아촌 천수현에 있다. 제흥군 고언백(高彦伯)의 묘는 부의 서쪽 20리 되는 수정산에 있다. 감찰 황태빈(黃泰彬)의 묘는 염주동에 있다. 정사공신 황경기(黃景祺)와 진무공신 황후헌(黃後憲)의 묘는 길곶리에 있다. 충신 황경례(黃景禮)의 묘는 부에서 북쪽으로 10리 되는 고읍리 중현에 있다. 도사 안여지(安汝至)의 묘는 송가도 상주산 남쪽 기슭에 있다. 지평 김광서(金光瑞)의 묘는 부에서 동쪽으로 10리 되는 길곶리 오봉산 동쪽 기슭에 있다. 회봉선생 권득평(權得平)의 묘는 동장리 금정동에 있다.

⑪ 불우(佛宇)

■ 동군읍지(喬桐郡邑誌, 1899)

갈공사는 화개산 북쪽에 있다. 목은 선생이 수양하던 곳으로 지금은 없다. 안양사는 화개산 남쪽에 있다. 지금은 없다. 화양사는 돌곶리 화양동에 있다. 석탑만 있다. 화개암은 부의 북쪽에 있는 화개산의 남쪽에 있다.

⑫ 궁실(宮室)

■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1899)

객사는 안해루 서쪽에 있다. 상변에는 대운관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잠저소는 동문 안에 있다. 철종대왕이 갑진년(1844)에 머물렀던 잠저이다. 지난 경인년(1890) 봄에 부사 이태권이 초가를 철거하고 새로 정당과 외문을 지었다. ○대운관 외삼문은 기해년(1839) 4월 일 중건하면서 단청을 입혔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객관은 황치신의 시에, “3월에 바빠 돌아오니 해는 지려 하는데, 원림(園林) 곳곳에 푸르게 그늘이 생겼네. 어여쁠사 철쭉꽃은 너무도 멋지게 피어서, 봄빛을 독차지하고 손의 마음 위로하네.” 하였다.

⑬ 공해(公廨)

■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1899)

근민당은 정사를 보는 곳이다. 응수당은 근민당과 맞닿아 있다. 정사를 보는 곳이다. 백화당은 병고 동쪽 변에 있다. 비장의 거처다. 사전재는 안해루 서쪽 너머 방이다. 곧 통인이 근무하는 곳이다. 관청은 안해루 서쪽변에 있다. 내사는 근민당 서쪽에 있다. 이사영은 중영이다. 운사헌은 중군 처소이다. 연사당은 서문 안에 있다. 향청이다. 교련관청은 객사문 밖에 있다. 별군관청은 중영문 밖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기패관청은 교련관청 서쪽에 있다. 수성청은 남문 밖에 있다. 토포청은 남문 밖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부옥은 토포청 서쪽 가에 있다. 열무당은 사창 서쪽 위 가장자리에 있다. 훈련청은 열무당 남쪽 가에 있다. 파초가 머무는 곳이다.

■ 교동부읍지(喬桐府邑誌, 1871)

내아사 32칸, 근민당 16칸, 안해루 15칸, 객사 12칸, 비장청 9칸, 관청 20칸, 병고 9칸.

■ 대동지지(大東地志, 1863)

통어영, 곧 경기수영이 읍성에 있다. 조선 초 남양의 화랑에 경기수영을 처음 두었다가 나중에 이곳으로 옮겼다. 인조 11년(1633) 수사검 삼도통어사를 두어 경기·황해·충청 3도의 수군을 거느리게 하였다. 정조 3년(1779)에는 통어영을 강화로 옮기게 되어 교동부사는 수군방어사와 우해방장을 겸하게 되었다. 정조 12년(1788)에는 다시 본

부로 통어영을 환속시켜 이전과 같이 수사를 겸하게 하였다.

⑭ 누정(樓亭)

■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1899)

안해루는 세 갑자 전 무신년(1668)에 통어사 구문치가 처음 세웠다. 73년 후인 경신년(1740)에 통어영 조재신이 증축하여 중건하였다. 동헌 남쪽 변과 맞닿아 있다. 삼문루는 안해루 앞에 있다. 지난 병신년(1836) 통어사 신소가 중건하였고 경인년(1890) 봄에 지부인 민경호가 또 중건하였다. 추오헌은 곧 백화당이다. 팔각정은 관아 북쪽의 위에 있다. 지금은 없다. 해안정은 북문 안쪽에 있다. 지금은 없다. 능파정은 관아 뜰 북쪽 위에 있다. 지금은 없다. 식파정은 진망산 아래 있다. 신묘년(1891)에 중건하였다. 어영정이다. 경량루는 남문이다. 갑신년(1894)에 중건하였다. 통삼루는 곧 동문이다. 지금은 없다. 공북루는 곧 북문이다. 지금은 없다. 노룡암은 동헌 북쪽 뜰 층계 아래쪽에 있다. (노룡암) 위에는 울창한 노송이 있고 아래에는 축대가 있다. 정유년(1717) 충민공 이봉상이 ‘노룡암’ 세글자를 썼다. 그 후 57년이 지난 계사년(1774)에 그 손자 달해가 옛 사적을 짓고 돌에 새겼다. 지난 경진년(1820)에는 통어사 이규서가 ‘호로암장군호봉’ 7자라 쓰고 바위에 새겼다. 신묘년(1831) 춘3월에 석대를 증축하였다. 화개서재는 화개산 남쪽에 있다. 옛날 서상서가 공부하던 곳으로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다.

⑮ 역원(驛院)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동진원이 현 동쪽 11리에 있다.

⑯ 목장(牧場)

■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1899)

분담하는 좋은 말 세필을 돈으로 대신 상납했는데, 지금은 혁파되

었다.

⑦ 고적(古蹟)

■ 교동군읍지(喬桐郡邑誌, 1899)

고려 때 본군은 경도 가까운 곳에 있고, 하류는 수륙의 운수가 모여 편리함이 있었다. 여러 방향에서 조세, 상인, 어염이 아울러 도달하고 가득히 모여 나라의 외부가 되었다. 그러므로 조사(관원)나 부호가 많이 이곳에 거처하였다. 옛적에는 송가도의 상주산 북쪽이 읍과 연륙해 있고, 바다로 통하는 것은 산의 남쪽이어서, 조선이 이로 인하여 매음도 난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중엽에는 상주산의 북쪽이 바다로 통하고, 상주산의 남쪽이 매음도에 미쳐 뿔이 스스로 생겨나 읍에서 독을 쏘아 둔전을 만들었다.

진망산 아래 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사신관이라고 불렀고, 곁에 신당이 있어 사신당이라고 불렀다. 바닷가 바위 위에는 정으로 조아 만든 계단이 있어 사신등선지로라 명명하였다. 이곳은 고려 때 중국의 남경으로 가는 사신의 통행로였고, 조선에서는 사신관에 군사무기를 저장하였다. 지난 신유년(1861)에 건물이 모두 붕괴되자 통어사 정기원이 옛 제도를 없애 버리고 군기고를 지었고, 후에 무진년(1868)에는 방어사 이근영이 성안으로 군기고를 옮겼다. 정덕 원년(1506) 병인에 연산군이 본 현으로 방출되었다. …(후략)

■ 교동부읍지(喬桐府邑誌, 1871)

옛 고을의 터가 관아 북쪽 10리에 있는데, 성가퀴의 터가 아직 남아 있어 백성들이 살고 있다. 북진의 깊은 바다가 용경 을사년 겨울에 육지로 변하여 인마가 통행하였다. 13년 신사 초봄에 스스로 복구되어 심해로 다시 바뀌었다.

■ 대동지지(大東地志, 1863)

고려 고종 2년(1215) 최충헌이 희종을 교동에 옮겼다가 6년(1219)에는 교동에서 희종을 맞이하였다. 14년(1227)에는 최충헌의 아들 최우가 희종을 교동으로 옮기고 나중에 인주의 자연도로 옮겼다.

…(중략)… ○본조 중종 원년(1506) 3월 폐주 연산군을 교동으로 옮겼다. 11월에 연산군이 죽자 강화로 옮겨 예를 다해 장사지냈다. 나중에 양주로 이장하였다. 인조 원년(1623) 3월에 광해군 아들인 폐세자와 폐빈 박씨를 교동으로 안치하였다.

■ 여지도서(輿地圖書, 1760)

옛 고을의 터가 관아의 북쪽 10리에 있는데, 성가퀴의 터전이 지금도 남아 있다.

3) 문화유산

(1) 교동향교(喬桐鄉校)

■ 지정사항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8호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229-49

교동향교는 1127년(인종 5) 화개산 북쪽 기슭에 세워진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이다. 1286년(충렬왕 12)에 고려의 유학제거(儒學提舉)로 있던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 1243~1306)이 원나라에서 공자상(孔子像)을 들여와 이곳 문묘에 봉안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향교 역사상 최초로 공자상을 모시게 되었다. 이후 교동향교는 1741년(영조 17)에 지부(知府) 조호신(趙虎臣)이 화개산 북쪽기슭에 있던 향교를 화개산 남쪽기슭의 현 위치로 옮겼는데, 화개산 자락이 앞으로 길게 나와 바다에 다다른 이곳을 향교골이라 한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으로 경사가 급하여 향교 내의 단(段) 차이가 심한 편에 속한다. 현재 입



구에는 홍살문이 있고, ‘수령변장하마비(守令邊將下馬碑)’라고 새긴 하마비가 함께 서있다. 건물은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 제기고 등이 있다.

한편, 향교 안에는 ‘노룡암(老龍巖)’이라 부르는 작은 바위가 놓여 있다. 교동현 동헌 북쪽뜰 층계 아래에 있던 것인데 1987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1717년(숙종 43) 이봉상이 ‘노룡암’이라는 세 글자를 새겨 놓았고, 이어 손자인 이달해가 1773년(영조 49) 여기에 글을 지어 새겼으며, 1820년(순조 20) 통어사 이규서가 ‘호거암장군이 풍기를 깨끗이 하였다’는 뜻의 ‘호거암장군쇄풍(虎距巖將軍灑風)’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았다.



노룡암

(2) 교동읍성(喬桐邑城)

■ 지정사항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3호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7 외

교동읍성은 교동부와 경기수영 및 성내에 거주하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서북방향에서 동남방향으로 길쭉한 타원형 구조를 하고 있으며, 둘레는 856m이고 화개산의 남쪽 줄기가 바다에 면한 낮은 구릉지에 축조하여,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완



교동읍성

만한 경사를 이룬다. 그러나 현재 성벽의 대부분이 원형을 상실한 채 민가의 담으로 활용되거나 훼손되었고, 남아있는 구간도 치첩이 없어지고 석축마저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교동읍성은 화개산 북쪽 기슭의 고구리에 있었던 것으로 1629년(인조 7) 경기수영을 교동으로 옮기고, 교동현을 도호부로 승격시켜 경기수사가 교동부사를 겸하게 하면서 지금의 위치로 이설되었다.

동문, 북문, 남문이 있었으며 성문 위에는 각각 문루를 두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문의 홍예문과 석축 일부만 남아 있다. 그리고 홍예석의 좌우에 각각 ‘삼도대(三道大)’, ‘삼도통(三道統)’의 각자가 남아 있다.

(3) 연산군 적거지

■ 지정사항 : 강화군 향토유적 제28호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70

연산군이 유배와 머물던 곳으로 부근당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여m 떨어진 곳에 ‘연산군잠저지(燕山君潛邸址)’라는 명문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연산군(1476~1506년)은 성종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폐비 윤씨이다. 1506년의 중종반정으로 교동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연산군의

유배지로 봉소리 신골과 고구리 연산골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4) 교동 봉수대 [화개산 봉수대]

■ 지정사항 : 강화군 향토유적 제29호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233

조선시대 쌓은 봉수대로 화개산 정상 서쪽 봉우리 정상에 위치하는데, 남쪽 아래로는 교동읍성과 남산봉수가 한눈에 들어오고 동남쪽 멀리로는 덕산봉수가, 동쪽으로는 하음산 봉수가 조망된다. 이 봉수의 역할은 본도의 덕산봉수에서 연락을 받아 다시 본도의 하음봉수로 연락을 보내는 것이다. 봉수군은 46명이었으며, 현재 장방형의 석단이 남아 있는데 그 크기는 높이가 2.5m, 가로 8m, 세로 6m이다.



교동 봉수대

(5) 고구리 산성지 [화개산성]

■ 지정사항 : 강화군 향토유적 제30호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산145

교동도의 동단에서 가장 높은 화개산 위에 주산·성산 등으로 불리우는 돌로 쌓은 산성이다. 화개산은 산세가 우뚝 솟아 마치 두 켜를 활짝 벌려 놓은 것 같다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교동도에서 가장 높은 고지로서 사방이 완전히 조망되는 관측상 매우 유리한 장소이다.



고구리 산성지

화개산성은 전체 둘레 2,168m에 이르는 포곡식 산성으로 내성과 외성의 2중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성의 둘레는 1,013m로 화개산의 정상부를 감싸고 있다. 이곳은 절벽을 자연 성채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성의 일부를 북쪽으로 길게 빼어 긴 용도를 형성하고 있다. 외성의 둘레는 약 1,155m이며 석축은 대부분 무너져 잡석만이 성벽 선을 따라 흩어져 있다.

화개산성의 최초 축조시기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고, 관련된 몇 가지 기록은 찾아 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현 남쪽 7리에 있다. 석성으로서 둘레는 1천 5백 65보이며, 안에 못[池]이 1개, 샘[泉]이 1개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증개축에 관한 기사로는, 1555년(명종 10) 최제운(최제운)이 증축하고 1591년(선조 14)에 이여양(李汝讓)이 외성을 철거하여 읍성을 축조하는데 사용하였으며, 1737년(영조 13)에 개축하고 군창을 두었다는 등의 기록이 있다.

(6) 갈공사(葛公寺) 터

■ 지정사항 : 비지정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233 추정

갈공사터는 고읍저수지가 관망되는 화개산 중턱에 위치한다. 「교동군읍지」(1899)에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이 수행하던 절터로 화개산 북쪽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당시에 이미 절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현재 추정지에는 민묘가 들어서 있고, 대부분이 경작지로 변해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훼손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축대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토단만이 일부 남아 있다.



(7) 고읍 형옥 터

■ 지정사항 : 비지정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산113

교동 고읍성의 서남쪽으로 약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고읍성 쪽으로 돌출한 화개산의 낮은 구릉으로 주변은 임야이며, 민묘 몇 기가 있다. 오늘날의 형무소와 비슷한 감옥으로, 죄인을 수용하였으며 황해도도의 죄인도 이송 수감하였다고 한다. 현재 건조물은 없고 석재를 혼용한 토담과 그 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8) 교동 고읍성

■ 지정사항 : 비지정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283-1

고구리 저수지 남동쪽에 위치한 읍성으로 읍내리에 있는 교동읍성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으로는 화개산, 북동쪽은 해발 80m의 나지막한 산이 있어 서쪽으로 개방된 지형이다. 고읍성의 둘레는 1,171m이고 면적은 약 47,500㎡이며, 평행사변형의 평면 형태를 띠고 있다. 북문지와 추정 동문지, 추정 서문지의 3문이 있었으며 성의 동북·서북·서남쪽에 3개의 치를 두었다. 성 내부에는 타원형 연못과 장방형의 관아터가 발견되었으나, 현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근래의 경지정리 과정에서 멸실되었다고 한다. 현재 남쪽 길이 약 300m, 폭 6m의 토성이 남아있고 북문지를 포함한 동북쪽에 토성이 남아 있으나 훼손이 심하여 석축의 일부 및 흔적만 찾아볼 수 있다.

(9) 교동부지(喬桐府址)

■ 지정사항 : 비지정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67-7

이곳은 교동현이 교동도호부로 승격되어 설치한 관아 건물지이다. 관

아와 객사를 비롯하여 내아, 외아 등의 관청건물과 문루인 안해루(晏海樓) 등의 누각이 설치되어 조선시대 일반적인 지방관아의 형태를 따르고 있었으나, 현재는 안해루에 사용된 높이 2m의 석주 2개와 돌계단만이 남아 있다.



교동부 터

(10) 부근당(扶芹堂)

■ 지정사항 : 비지정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55

교동읍성 안에 있는 당집이다. 부근당은 읍내리 교동읍성 내 북쪽 언덕에 위치하여, 마을이 한눈에 보이고 멀리는 교동 앞바다가 한 눈에 보인다. 당집은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건물로서, 그 위 지붕은 슬레이트로 마감하였다. 내부에는 신상과 함께 남근목을 걸어 두었는데, 마을에서는 남자 신상을 연산군이라 하고 여인을 연산군의 부인 신씨로 여기고 있다. 매년 이곳에서 원혼을 달래는 굿을 벌이다가 명맥이 끊어졌으나 최근 ‘연산제’라는 명칭으로 다시 시행되기도 하였다.

(11) 사신당(使臣堂)

■ 지정사항 : 비지정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1-2

남산포에 있는 산 중턱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처음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지금의 건물은 한국전쟁 때 없어진 것을 1969년 다시 세운 것이다. 중국 사신이 교동도 앞을 지날 때 뱃길의 안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낸 곳이라 한다. 당집 안에는 임경업 장군으로 추정되는 신상이 모셔져 있으며 매년 이곳에서 대동굿을 지내왔다고 한다. 사신당 아래에는 배를 정박할 때 사용했다는 돌계단이 일부 남아 있다.

『교동군읍지』(1899)에는 ‘진망산 아래 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사신관이라고 불렀고, 옆에 신당(神堂)이 있어 사신당이라고 불렀다. 바닷가 바위 위에는 정으로 쪼아 만든 계단이 있어 사신등선지로(使臣登船之路)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2) 삼도수군통어영지(三道水軍統禦營址)

■ 지정사항 : 비지정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420-1

읍내리 남산포 일대에 있던 삼도수군통어영 관련 유적이다. 지금은 당시의 모습은 살필 수 없고, 어촌 민가 사이에는 높이 1m, 최대 폭 45m의 함정계류석이 남아있다. 삼도수군통어영은 경기·충청·황해도의 수군을 통제하던 곳으로 1629년(인조 7)에 교동으로 옮기면서 교동읍성의 신축과 동시에 읍성 내에 어영지를 두고, 남산포 일대에는 선박계류장과 비슷한 성격의 시설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3) 수정산 봉수대

■ 지정사항 : 비지정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 산101

수정산은 교동면의 서남부에 자리하는 해발 100m의 낮은 산이다. 북

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난정리 일대와 서한리 일대를 가로막는 산지이다. 산 정상부에는 능선을 따라 동서 25m, 남북 10m 범위 내에 봉수대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최근에 마련한 인공시설물이 있고, 일부 석축이 잔존할 뿐 그 원형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14) 읍내리 비석군(碑石郡)

■ 지정사항 : 비지정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139

읍내리 비석군은 교동향교와 화개사 방향으로 갈라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39기의 비석이 있는데, 대부분이 교동부사를 지낸 이들의 선정비다.



읍내리 비석군

(15) 인사리 석불입상(石佛立像)

■ 지정사항 : 비지정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 687

인현동 마을의 해안가에 접한 산 아랫턱에 위치하는데, 석불입상은 전면이 개방된 건조물 안에 봉안되어 있다. 석불의 크기는 높이

126cm, 견폭 46cm, 두께 50cm, 안고 33cm, 두께 25cm이다. 상호는 파손이 심하여 그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고, 두손은 배 앞으로 모아 연봉 혹은 약함으로 생각되는 지물을 받쳐 들고 있으며, 옷 주름은 몇 가닥으로 간략히 표현되어 있다.

(16) 진망산 봉수대[남산봉수]

■ 지정사항 : 비지정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1-1

읍내리 남산포의 배산인 진망산(남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현재는 인공시설물로 인해 봉수대 원형을 찾아볼 수 없다. 『속수증보강도지(續修增補江都志)』에 진망산 봉수는 ‘화개산 서남쪽에 위치하는데 장봉(長峰)에서 시작하여 망도(望島)에 전하고 다음으로 말도(謫島)에 전하여 본산에 내용하여 본영에 알렸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교동 남서쪽에 위치하는 장봉, 불음도, 말도 등의 작은 섬들 사이에서 봉수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7) 경원전(慶源殿) 터

■ 지정사항 : 비지정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206

교동은 고려~조선을 거치면서 많은 왕과 왕실가족 및 문·무신들이 다양한 사건으로 연루되어 유배를 왔던 곳이기도 하다. 경원전 터는 고려 희종(熙宗)이 유배되어 기거하던 곳으로 고구리 206·207번지 일대로 추정하고 있으나 구전으로만 전해진 곳이어서 확실하지는 않다. 『교동향토지』(1995)에는 이곳에 초석이 있으며 축대와 인근의 연못이 경원전과 관계가 있는 유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8) 화개암지(華蓋庵址)[현재 화개사]

■ 지정사항 : 비지정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산25

교동향교 북서쪽으로 약 250여m 떨어진 화개산의 남사면 중턱에 위치한다. 화개암지는 전등사의 말사(末寺)로 고려 때 창건하였다 하며,



화개암 터



화개사 부도

목은 이색이 독서하던 곳이라고 전한다. 1967년 화재로 인해 불상 및 사찰이 소실된 것을 이듬해 지금의 법당 건물을 새로 지었다. 화개사 마당 한 가운데 부도탑도 하나 서 있다. 『교동군읍지』(1899)에는 교동 내에 있던 절로 화개사 외에 화개산 북쪽의 갈공사, 화개산 남쪽의 안양사, 돌곶리에 있던 화양사 등이 함께 소개되어 있다.

(19) 황경례(黃景禮) 정려(旌閭)

■ 지정사항 : 비지정

■ 소재지 : 강화군 교동면 양갑리 236-2

1624년(인조2) 이괄의 난 때, 황경례는 경기순찰사 이서(李曙)에게 명을 전하러 송경(松京)에 이르렀다가, 갑자기 흉적의 예봉을 만나 절개를 지켜 굴하지 않고 순절하였다. 이에 그 공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려이다. 후손 양신이 왕에게 진언하여 정문을 하사 받았고, 근세에 지은 시멘트 블록 건물 내에 모셔져 있다. 정려문의 크기는 높이 190cm, 폭 148cm이고 현판은 폭 132cm, 높이 34cm이다. 현판에 ‘忠臣保功將軍武臣兼宣傳官贈兵曹 議黃景禮之門 上之十二年十一月日命旌閭’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려 앞에는 1989년에 후손들이 세운 ‘忠臣黃景禮公旌閭實蹟碑’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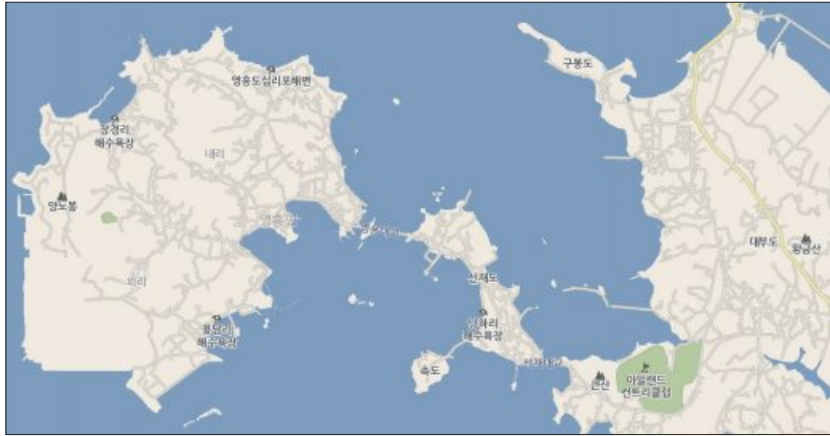
— 황은수(남구청 주무관)

※ 참고문헌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 2002.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편, 『인천역사문화총서 6—인천의 섬』, 2004.
- 인하대학교박물관 편, 『강화 교동읍성 정밀 지표조사 보고서』, 강화군, 2007.
- 인하대학교박물관 편, 『교동연륙교 건설공사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주)삼안, 2009.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편, 『인천역사문화총서 55—인천의 갯벌과 간척』, 2009.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교동향교지』, 교동향교, 2012.
- 강화군, 『강화의 문화재』, 강화군, 2013.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지와 지도(인천광역시사⑥)』, 인천광역시, 2015.
- 이영호, 『교동도의 역사적 특성』, 『인천섬연구총서 1—교동도』 3, 2015.
-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신편 강화사 증보』 중편, 강화군, 2016.
- 강화군, 『2016 군정백서』, 2016.
- 강화군, 『2016 강화기본통계』, 2016.
- 강화군청(<http://www.ganghwa.go.kr>)
- 강화 히스토리(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history/)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 종로도서관 고문헌 검색시스템(<http://jnliboldbook.sen.go.kr/web.do>)

3. 영흥도와 선재도

1) 현황



영흥 · 선재도

(1) 영흥도

인천의 남서부 앞바다에 위치한 영흥군도는 유인도인 선재도·측도·부도와 18개³⁾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 26.04km², 해안선 길이 42.2km이다. 2016년 7월 현재 영흥면 전체 3,097세대, 6,145명(남 3,385명, 여 2,76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인천항에서 남서쪽으로 29.6km 해상에 위치한다. 최고봉은 중앙에 솟은 국사봉(國思峰: 127.7m)이며, 동쪽에 대부도(大阜島), 북쪽에 무의도(舞衣島), 서쪽에 자월도(紫月島)가 있다. 해안은 대체로 굴곡을 이루고 있어 어

3) 영흥면의 무인도는 어평도(漁坪島, 섬업벌), 자암도(紫岩島, 자도), 소어평도(小漁坪島, 섬업벌), 황서도(黃嶼島, 누엇섬), 북장자서(北長子嶼, 북창지섬), 남서도(南嶼島), 갑죽도(甲竹島), 창서도(蒼嶼島, 창섬), 길마섬(길마섬), 피도(둔두레), 항도(項島, 목섬, 목도), 광도(廣島, 너브섬), 주도(周島, 두루섬), 홍수만도(洪水灣島), 외항도(外項島, 판둥우리, 판두무리), 상석섬(석섬), 중석섬(석섬), 하석섬(석섬) 등이다.

장이 발달하였고, 간조 때에는 넓은 개펄 위로 바지락·굴·소라·낙지 등의 해산물이 풍부하게 채취된다. 산이 낮고 농경지가 많아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해조·조개류의 생산이 많다. 섬 전체에 상수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십리포해수욕장·장정리해수욕장 등의 관광 명소가 있으며, 2001년에 선재도와 영흥도가 영흥대교로 연결되어 접근이 쉬워졌다. 서쪽 해안에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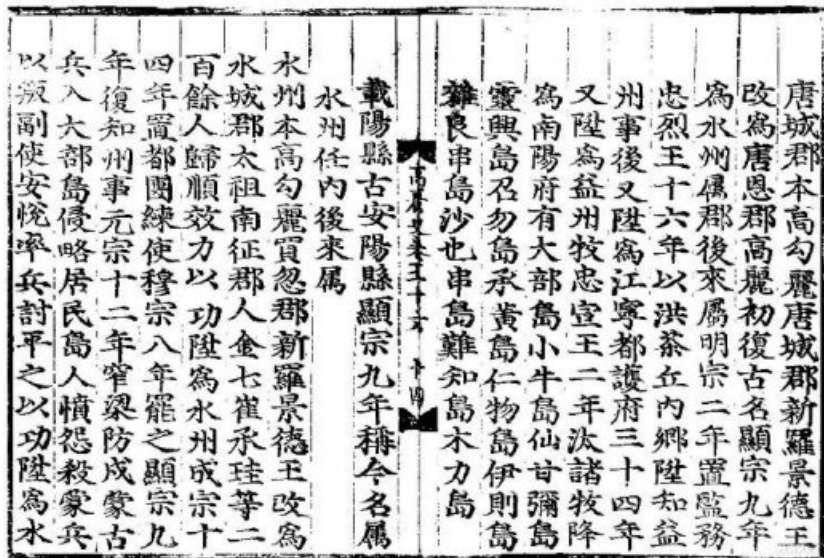
(2) 선재도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13km 지점, 영흥도와 대부도 사이에 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섬으로 100m 이하의 낮은 평지로 되어 있다. 면적은 2.47km²이고, 해안선 길이는 10.9km이다. 영흥도와 선재도 간의 영흥수도(靈興水道)는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르나 대부도와와의 사이에 있는 바다는 얕고 간석지가 발달하였다. 서쪽의 영흥도와와는 2001년 11월에 개통된 영흥대교를 통해 연결되고, 동쪽의 대부도와는 2000년 11월에 개통된 선재대교를 통해 연결되었다.

2) 연혁

영흥도와 선재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이다. 영흥도의 소장골과 용담이, 업별 등지에서 패총유적과 간돌도끼, 갈돌과 같은 신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선재도에서도 신석기시대 패총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사매기패총의 청동기시대 석촉과 사매기·벼드러지 패총에서 나온 원삼국시대의 타날문토기로 청동기시대와 삼한 시대에도 영흥도 일대에는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영흥도와 선재도는 한강하류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해상교통로상의 요충인 덕물도와 남양만의 당항성을 차지하려는 삼국간의 쟁패에 따라 소속이 바뀌었다. 삼국시대 초기부터 백제의 공주 천도의 시



『고려사』 「지리지」 당성군

기인 475년경까지는 대체로 백제에 속하였던 것 같다. 475년 (장수왕 63)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장악하면서부터는 영흥도는 고구려에 속하였고, 551년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한강유역을 되찾은 2년 뒤인 553년 진흥왕 때 신라가 이곳을 장악한 뒤에는 신라에 속하였다. 삼국시대에 서 통일신라에 이르는 시기는 남양만의 당항성이 덕적도를 거쳐 산동반도에 이르는 해상교통로의 시작 지점이었으므로 영흥도와 업별 인근 해역은 중요 항로상의 요충지 역할을 하였다.

고려시대 해상무역의 교통로였던 인천 앞 바다의 영흥도는 고려 왕족과 정치범의 유배지로도 유명했다. 또는 1231년(고종 18) 몽고의 침입에서 1259년 강화가 뒤흔들 때까지 삼별초가 대몽항전을 한 곳이기도 하다.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길 때까지 영흥도에서 70여 일을 주둔하면서 전투를 하였고, 삼별초의 주력이 진도 다시 제주로 옮겼을 때도 영흥도는 항쟁의 근거지 역할을 하였다. 이는 영흥도가 육지와 가까우면서도 섬 내에서 직접 군량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해상권을 장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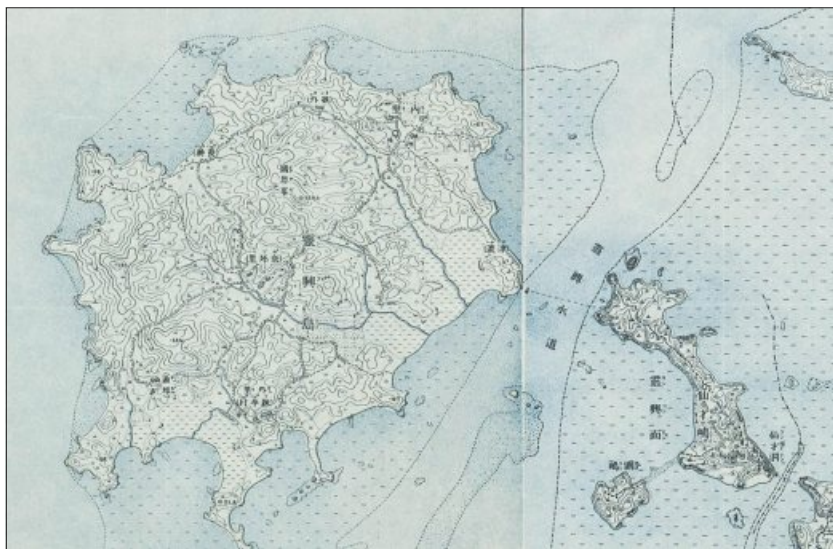
하는데 요충지가 될 수 있었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흥도는 대몽항쟁기가 본격적으로 민간집단의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진 때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영흥도는 남양도호부에 속해 있었으며, 고려 말~조선 초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섬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섬을 비우는 쇄환정책을 실시하여 공식적으로는 주민이 살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서해도서지역에 국영 말목장이 운영 되면서 국가적 관심과 함께 주민이 다시 거주하였다. 이것은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의 '선재도는 염부 2호, 영흥도는 염부 5호가 살고 있다'는 기록과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남양도호부에 영흥도에 말목장이 있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 수 있다.⁴⁾

조선후기에는 영흥도 일대가 해양의 요충으로 기능하면서 거주 호수도 늘었다. 1750년 제작된 해동지도의 영흥도에 인가(人家) 178호가 거주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후에 편찬된 『경기지(京畿誌)』 등의 읍지류와 지도류에서 남양도호부 대부도면 소속의 포내동(浦內洞), 포내외동(浦内外洞), 소우동(小牛洞)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1871년(고종 8) 5월에는 대부도(大阜島)의 진(鎭)에서 영흥도와 선재도의 토지와 호구를 관리하게 하였고, 1872년 5월에는 화량의 수군진을 영흥도 업별로 이설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는 영흥도의 해상교통에서 중요성이 강조된 조치이다. 그러나 영흥도의 수군진 또한 다른 수군진과 마찬가지로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4월 1일 지방행정구역의 개편과 군·면의 통폐합으로, 영흥면 지역은 신설된 부천군(富川郡)에 편입되었다. 1966년 8월 24일 '부천시 조례 제137호'에 의해 영흥면 자월리(紫月里)에 자월출장소(紫月出張所)가 설치되었고, 이어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4) 영흥도와 선재도의 목장은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678년 『목장지도』, 1908년 『증보문헌비고』에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오만분의일지형도 영흥도(1919년)

2597호에 의해서 영흥면은 영종·북도·용유·덕적·대부면과 함께 부천군에서 용진군으로 편입되었다. 영흥면의 자월출장소는 1983년 2월 25일 자월면으로 승격하여 영흥면에서 분리되었다. 1995년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개편되면서 용진군 전체는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다.

3) 지명유래

(1) 영흥도

영흥도란 지명은 '고려말 왕족으로 익령군(翼靈君) 왕기(王琦)라는 사람이 입도하여 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익령군의 영(靈)과 흥할 흥(興)을 합하여 영흥도란 지명이 탄생하였다고 전한다. 즉, 왕기가 고려 왕가의 기운이 다해 곧 망하게 될 것임을 알고 가족과 함께 수도인 개성을 떠나 이 섬에 미리 피한 덕분에 이씨 왕조에 의한 죽음을 피했다는 것이

다. 또한 영흥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국사봉(國思峰·167m)과 관련해서, 이곳으로 피난을 온 고려의 왕족들이 산꼭대기에 올라 '멸망해 가는 나라(國)를 생각했다(思)고 해서 산 이름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이 전설과 이어져 있다. 그러나 『고려사』의 기록을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전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상인들이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게 되자 거북이가 구멍을 막아 섬에 닿았으며, 배를 수리하여 인천의 제물포에 들어가게 되어 신령이 도와 배가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되어 영흥도라 하게 되었고 한다. 그러나 이 모두 전해오는 얘기로 영흥도라는 지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긴 이름인지 잘 알 수가 없다.

① 부도(甓島)

영흥도 서남쪽 18km 해상에 있는 섬으로 승봉도와는 동남방 4km 거리이다. 1904년에 설치한 유인등대가 있고 섬의 형태가 오리가 떠있는 것 같다 하여 물새 부, 또는 오리 부(甓)자를 써서 부도(甓島)라 칭하였다.

② 석섬, 삼서도(三嶼島)

영흥도 진도선착장 남쪽 2km 떨어져 있는 작은 섬들로서 세 개의 봉우리가 산(山)자처럼 생겼다 하여 석섬 또는 삼서도(三嶼島)라 하였다.

③ 둔두레섬

진도선착장 앞에 있는 작은 바위섬으로 정상에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 섬은 진도선착장의 큰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풍치를 돌아주기도 한다. 본래 여기저기서 떠밀려 내려온 부서진 섬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로 붙여지면서 “두두룩하게 언덕이 졌다” 하여 둔두레섬이라고 부른다.

④ 측도(測島)

선재도 서남쪽 해안인 ‘목데미뿌리’에서 서쪽으로 약 600m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섬의 주변은 물이 맑아 고기가 노는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어, 바다 밑을 그대로 들여다 보면서 측량할 수 있다고 하여 측도(測島)라 하였다. 한때 선재도의 곁에 있다하여 곁 측(側)자의 측도로 되었다가 다시 맑을 측(測)자 측도로 고쳤다.

⑤ 내동

영흥도 진두선착장에서 서북쪽 도로 4km 거리를 지나 구능재[舊陵峴]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고려 말에 고려왕실의 익령군(翼靈君) 왕기(王琦)가 고려가 망할 것을 미리 알고 자기의 측근인 임씨(林氏)와 채씨(蔡氏)가족들과 함께 개경(開京)을 탈출하였는데,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다 닿은 곳이 영흥도 북쪽 해안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⑥ 삼박골[三朴谷]

내동 동쪽 잿등 너머 내동마을과 경계지역이다. 망재산 줄기내림에 박과 같이 둥근 산이 하나 있고, 또 해안 산돌뿌리 큰 산줄기에도 또 박과 같은 둥근 산이 있으며, 마을 오른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외딴 산 또한 박과 같이 둥글어, 이를 ‘삼박’이라 하여 삼박골로 부른다.

⑦ 서편마을

영흥중학교 북쪽 구능(舊陵) 너머에 있다. 내동 논틀 서쪽이라 하여 서편마을로 부른다. 고려 말 이곳에 와서 숨어살았다는 고려왕실 익령군의 삼간옥이 있던 곳으로 지금도 왕가마을로 전해지는 곳이다. 『택리지』에서도 고려왕실 익령군 왕기가 살던 삼간옥(三間屋)이 영흥도에 있고 그 안에 그가 사용하던 유품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익령군과 함께 탈출한 임씨(林氏)들은 이 마을에서 대대손손이 이어 살면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뒤의 잿등도 구능재[舊陵峴] 또

는 구능재[九陵峴]로 전해지는데 왕씨모라고 하며 본래는 능(陵)같이 컸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낮아졌다 한다. 묘가 9기가 있어 구능(九陵)이라고 불렀다.

⑧ 장뒤[場後]

영흥중학교 바로 서쪽마을로 서북쪽일대 조선시대 국영목장이었던 마성(馬城) 뒤쪽이다 하여 장뒤라 불렀다.

⑨ 벌건너

영흥중학교 논틀 건너의 마을 지명이다. 이 마을을 왕래하려면 썰물 때 뿔이 나야 건넜다 하여 ‘뿔건너 마을’이 ‘벌건너’로 된 것이다.

⑩ 학골[鶴洞]

벌 건너 이웃마을로 거목(巨木)이 무성하였기 때문에 학이 새끼를 쳤다고 하여 ‘학골’이라고 부른다. 또 왕씨들이 이곳에 살면서 서당을 설치하여 학자들을 배출한 마을이라 하여 ‘학(學)골’이라 한다고도 한다.

⑪ 고개넘어

국사봉 북쪽 능선 동쪽 계곡에 있는 내2리 서쪽 고개 밑의 마을이다. 옛 지도에는 영외(嶺外)로 표기되어 있다. 이 고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쪽 저쪽에서도 모두 고개 넘기가 힘들고 어렵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⑫ 우무동골[牛舞洞谷]

벌건너 남쪽 산비탈에 있는 마을로서 소먹이 풀이 많기로 유명하였던 곳이다. 소를 끌고 이곳으로 오면 소먹이가 많아서 그런지 소가 좋아하며 춤을 추는 모양을 한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⑬ 막후지(幕後地)

바다 갯골에 살[漁簞]을 매고 임시 거처하던 어막이 있었던 지역으로 어막 뒤쪽지역이라 하여 막후지(幕後地)라 하였다. 막후지는 안막후지, 바깥막후지가 있는데 보통은 ‘막구지’라 부른다.

⑭ 도장골[道長洞]

면사무소에서 서쪽 도로를 따라 언덕길을 내려가면 붉은노리 다리를 지나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논벌이 서북쪽으로 길게 펼쳐져 있다. 도장골이란 산비탈의 협소한 길이 너무 멀고 길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도장골이란 지명이외에도 당재골, 행랑골, 양짓몰, 고래장골, 순별 등의 지명을 가진 마을들이 논벌 주위로 형성 되었다. 한편 ‘도장’은 ‘안방’의 뜻을 가진 의미로 안방과 같이 아늑한 지형에 쓰이는 이름이기도 하다.

⑮ 버드니, 유천(柳川)

붉은노리 다리를 지나 그 서쪽으로 펼쳐진 논벌이다. 영흥도 서쪽 제일 높은 양로봉(養老峰) 물줄기를 수원(水源)으로 하여 흐르는 개울이 내4리 논벌 중앙으로 흘러 붉은노리 해안으로 빠져나갔다. 이 개울가에 버드나무가 무성하였다 하여 버드내[柳川]라고 불렀다. 후에 ‘버드니’로 불리게 되었다.

⑯ 붉은노리

내4리 동쪽 끝 마을이다. 외1리와 외3리로 통하는 삼거리 길목으로 내4리의 출입구이기도 하다. 이곳 뒷산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멀리서 보아도 벌겋게 보였다 하여 ‘붉은노리’라 부르게 되었다. 더욱이 해가 뜰 때나 질 때에는 햇빛을 받아 더욱 붉게 보였다 한다.

⑰ 터골[基洞]

붉은노리 위쪽 마을로서 우체국을 지나 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이다. 버드니 안에서는 생긴지가 가장 오래되었다 하여 터골이라고 부른다.

⑱ 버드니마을

터골 서쪽 영흥도 감리교회가 있는 마을이다. 평택임씨(平澤林氏) 중시조(中始祖)인 승정대부(崇政大夫) 임세재(林世載)의 사당(祠堂)이 있다.

⑲ 중박골, 중밭골

절의 중들이 농사를 짓던 밭이라 하여 ‘중밭골’, ‘중박골’로 불려졌다. 중박골 서쪽 산에는 절골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현재도 절터에는 석축형 태가 일부 남아 있다.

⑳ 탐골

버드니 위쪽 마을로 탐이 있었다 하여 ‘탐골’이라고 부른다. 이 마을에서 우물을 팔 때에 탐을 쌓던 돌로 우물석축을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우물에 쌓던 탐돌이 그대로 보인다.

㉑ 태나골[胎內谷]

탐골 서쪽 논틀 건너 마을이다. 산에 둘러 쌓여 마을 형태가 마치 여자 태(胎)와 같이 생겼다 하여 태내골로 부르다가 ‘태나골’이 되었다.

㉒ 당제골[堂峴洞]

양로봉 줄기 남쪽마을 뒤쪽 산봉우리 중간에 ‘서낭당’이 있어 ‘당제’라 하고, 그 밑의 마을을 ‘댕젯골’, ‘당제골’로 부르며 이 당산(堂山)을 신압산(神鴨山)이라 하였다. 이 서낭당에서 내4리 전체가 해마다 풍년과 연중 무사고를 기원하는 당제를 지낸다고 한다.

②③ 덕골[德洞]

내4리 서쪽 끝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 마을이 제법 커서 큰 덕(德)자 ‘덕골’이라 하였고, 이곳에 살고있는 어느 선비가 모든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 ‘덕골’이 되었다 하기도 한다.

②④ 쉬영골

마을이 산으로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아 숨어 있는 것 같다 하여 ‘숨어골’이라 하였는데 ‘쉬영골’로 부르게 되었다.

②⑤ 진두(津頭)

영흥도 동남 쪽에 돌출된 부위로 여객선 선착장이 있는 마을이다. 진두는 본래 가시나무 덤불의 작은 섬이었는데, 1920년대 말에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내5리인 진두에서 내3리로 건너막은 제1제방과 내7리인 ‘가마깨촌’으로 건너막은 제2제방이 완성되면서 연육(連陸)이 되고 주민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또 6·25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이 공지(空地)인 이곳에다 판자집과 토막 등을 지으면서 큰 마을이 되고, 선착장은 활기를 띠게 되면서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 이 진두를 ‘바깥두이’라 하고 제1제방 소나무 동산 밑의 나루터를 ‘안두이’라 한다. ‘두이’ 또는 ‘도이’등으로 불렸다.

‘도이’나 ‘두이’는 ‘진도(津渡)’나 ‘진두(津頭)’를 뜻하는 것으로 갯골을 건너다니는 나루터를 말한다.

②⑥ 장경리(長耕里)

영흥도 국사봉(國思峰) 서쪽 해안지대이다. 과거에는 국사봉 밑에 까지 조수가 들어왔고 간조 때에는 넓은 갯벌이 보이던 곳으로, 뽕 동북 쪽에는 ‘염벚’이 설치되어 소금을 생산하였다. 질이 좋고 많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 쟁기를 대고 뽕을 갈아엎어야만 했다. 그런데 뽕의 면적이 넓고 작업하는 구간이 길다 하여 장경(長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②⑦ 한우물

장경리 해수욕장과 가장 가까운 마을이다. 마을의 우물이 이곳 하나 뿐이어서 모두 이 물을 길어다 먹었다고 전해지는데 후에 마을을 한우물로 부르게 되었다.

②⑧ 가두리

한우물 논벌 건너 산밑에 있다. 이 곳에 집이 두 집뿐이었다 하여 가두리[家二里]라 불렸다.

②⑨ 막재[幕峴]

동남쪽으로 내4리로 가는 고개 밑의 마을이다. 조수가 이곳까지 들어올 때에 이곳에 어막(魚幕)을 치고 ‘살’을 매던 곳이라 하여 막재라 불렀다 한다.

③⑩ 신노루

장경리 해수욕장 남쪽 높은 고갯길을 신노루고개라 하고 신노루고개 너머 계곡해안의 마을을 ‘신노루’라 한다. 높은 산으로 둘러 쌓이고 교통도 불편하여 후미지고 외딴 곳이다. 산에 높은 경사가 진 지형이나 또는 막다른 벼랑을 ‘노루막’이라 하는데, 언덕진 벼랑 내리막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산내리막골’, ‘산노루막’으로 부르다가 ‘신노루’로 변하였다.

③⑪ 수해(水海)

어렵골 뒤 갯등 너머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에 고기를 말리던 건어장이 있었고 또 뱀뱀이를 잡던 어막이 있던 곳이다. 이곳 바다에는 고기가 많아 언제든지 낚시나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다 하여 사냥 수(狩)자 고기 어(漁)자를 써서 수어(狩漁)골이라고 부르다가 수해(水海)로 부르게 되었다.

⑫ 가마깨촌, 부포촌(釜浦村)

내5리 진두 북쪽인 제2제방 건너 도로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제방이 되기 전에는 가마깨촌과 진두사이에 바닷물이 들어 왔으나, 간조 때에는 조수의 작용으로 모래와 자갈이 섞인 툽이 생겨, 사람은 물론 소가 등에 짐을 싣고 건너 다닐 수 있었다. 1·4후퇴 때 웅진반도의 봉구면 가마깨 부포리(釜浦里)에서 나온 피난민들이 산비탈에다 자리를 잡고 정착하게 되면서 ‘가마깨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전에는 이 지역을 ‘삼앞’이라 불렀다.

⑬ 방계골 [方家谷]

가마깨촌과 이웃을 하고 있는 마을이다. 피난민들의 농경지확보를 위한 임야 개간사업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방씨(方氏)들이 살았다 하여 방가골이었는데 ‘방계골’로 되었다.

⑭ 은골[恩谷]

방계골 서쪽 ‘누의 머리뿌리’를 돌아 오른쪽에 있는 마을이다. 구전에 의하면, 개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부지한 노인이 죽으면서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여 짐승의 신세를 지고도 그 은혜도 갚지 못하고 죽는구나” 하였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인이 개의 은혜를 입어 살아났으나 그 은혜도 갚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여 은골이라 하게 되었다.

⑮ 소장골

내4리 입구 붉은노리 삼거리에서 남서쪽 도로를 따라 논뚝 건너에 있다. 이 마을에 서당이 있어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였으므로 서장골[書藏洞]로 불렀다 하고, 선비들이 시를 읊으며 지내던 정자가 있어 이를 서정(書亭)이라고 하여 서정골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일제시대에 작성된 영흥도 지도에는 소정동(蘇亭洞)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정자가 있었던 듯하다.

⑯ 노가리

소장골 마을에서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이곳에는 많은 염벚이 있었는데, 소금을 만들어 벚짚으로 엮어만든 섬[俵]에다 넣어 노천(露天)에다 곡식을 쌓은 것처럼 높이 쌓았다 하여 ‘노가리’라는 지명이 되었다.

⑰ 우대마을

소장골 마을 동쪽으로 우대재 너머에 있다.

⑱ 업벌(業伐)

외2리의 마을이다. 서북쪽 양로봉(養老峰) 줄기가 마을을 감싸고 남쪽은 넓은 농경지여서 농어업을 겸할 수 있는 곳이다. 『남양읍지』 방리조에 의하면 “대부도면 엇벌동(齡伐洞)은 남양부에서 서쪽으로 바다셋을 건너 70리 거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가 작성한 영흥도 지도에는 어평(漁坪)으로 기록되어 있어 엇벌(齡伐)을 어평(漁坪)으로 개칭하였다. 고기가 많고 물이 맑아 어청(漁淸)이라고 하다가, 배들이 많이 드나들 뿐 아니라 마을 앞 뺨에 살터도 많고 패류 등이 많아 고기 많은 뺨이라 하여 어평(漁坪)이라 하였다. 1920년대에 간척사업으로 마을 앞에 넓은 갯벌이 문전옥답으로 된 후부터, 어평(漁坪)이란 지명을 일할 업(業)자와 들 평(坪)자의 업평(業坪)으로 고치고 ‘업벌’로 불렀다.

⑲ 용담이[龍潭里]

내4리 입구인 붉은노리 삼거리에서 남동쪽 도로를 따라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1·4후퇴 때 난민들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 임야개간 사업장이 되면서 웅진반도 지역의 피난민 30여 가구가 정착한 마을이다. 마을 앞 우물에서 용이 나와 하늘로 올랐다고 하여 ‘용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2) 선재도

선재도란 지명은 주위의 경관이 아름답고 수려하여 선녀가 내려와 춤을 추던 곳이라 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 소우도(小牛島) 또는 독우도(犢牛島)라 하였는데, 조선 후기부터 선재도(仙才島)로 바뀌었다. 소우나 독우는 모두 송아지를 뜻하는 것으로 ‘영흥도를 어미소처럼 따라다니는 송아지 섬’이라는 유래를 갖고 있다.

① 너출마을

선재도 서북쪽 끝 영흥도 진두선착장과 마주보고 있는 나루터이다. 나루터 산밑에서부터 바다쪽으로 바위가 너출너출 길게 뻗어 나갔다 하여 너출뿌리 또는 너출나루터로 부른다.

② 구름말, 구름마을

선재도 중앙인 선재초등학교 소재지 마을이다. 이곳 우물이 골우물[谷井]이었는데 후에 이곳에 마을이 생기면서 ‘골우물’로 부르다가 ‘굴우물’, ‘구름물’, ‘구름말’ 등으로 되었다.

③ 문말

조선시대 한양에서 어떤 선비가 이곳에 와서 젊은이들을 위하여 서당을 설치하고 글을 가르쳤다 하여 글 문(文)자의 문마을이 되었다 한다.

④ 갑진말

선재도 남동쪽 끝에 있는 마을로 대부도와 마주보고 있다. 본래 산비탈이 급경사였는데 1·4후퇴 때 웅진반도 지역에서 나온 피난민들이 이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 급경사의 각이진 마을에서 유래하여 각진마을이 ‘갑진말’로 되었다.

⑤ 뱃말, 선촌(船村)

선재도 남쪽 끝 나루터가 있는 마을로 500m의 갯골을 사이에 두고 대부도 ‘흥선리 나루터’와 마주보고 있다. 원(元)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선재도의 수백년 자란 나무를 베어서 배를 지었다 하여 선재도(船材島) 또는 선촌(船村), 배촌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고려 때부터 소우도(小牛島)로 부르다가 1870년대에 선재도(仙才島)로 개칭하였다. 현재는 대부도와 다리가 놓여 차량과 도보로 왕래하고 있다.

4) 옛 기록의 영흥도와 선재도

(1) 지지류

① 1451년 『고려사』 「지리지」

• 양광도 인주 당성군 : 대부도(大部島), 소우도(小牛島), 선감미도(仙甘彌島), 영흥도(靈興島), 소물도(召勿島), 승황도(承黃島), 인물도(仁物島), 이척도(伊則島), 잡량곶도(雜良串島), 사야곶도(沙也串島), 난지도(難知島), 목력도(木力島)가 있다

②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경기도 남양도호부

• 소우도(小牛島) : 대부도 서쪽 5리에 있으니, 둘레 15리이며, 염부(鹽夫) 2호가 있다.
• 영흥도(靈興島) : 소우도 서쪽 7리에 있다. 길이 25리, 너비 15리이며, 염부(鹽夫) 5호가 있다.

③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남양도호부

• 산천 영흥도(靈興島) : 대부도 서쪽에 있으며 목장이 있다. (신증) 소우도 대부도 서쪽에 있다.

④ 1757~1765년 『여지도서』

• 「남양도호부」에는 기록 없음 · 「연기군」 전세(田稅)에 쌀 320석 12두 5승 3홉 6사(夕) 등을 3월 말 조운선에 실어 아산의 작계포(作界浦)에서 수로로 영흥도로 들어가 강화로 향한다. (……)

⑤ 1842년 『경기지』 「남양도호부」

- 지도에는 영흥도와 소우도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 방리 소우동 관문에서 서쪽으로 바다 둘을 건너 60리에 있다. 엇벌동(訖伐洞) 관문에서 서쪽으로 세 바다 건너(越三海) 70리에 있다. 영흥내동 관문 서쪽 바다 세 번을 건너 있다.
- 도서 대부도 · 영흥도 · 소홀도(召忽島) · 이작도 · 선감도 · 유도 · 계오리도 · 우음도가 있다.

⑥ 1860년대 『대동지지』

• 목장 속장(屬場) 선감미(仙甘彌) · 영흥(靈興) · 명홀(名忽) · 이작(伊作) · 소우(小牛) · 불(佛) · 입피(立彼)가 있다.

⑦ 1871년 『경기읍지』 남양도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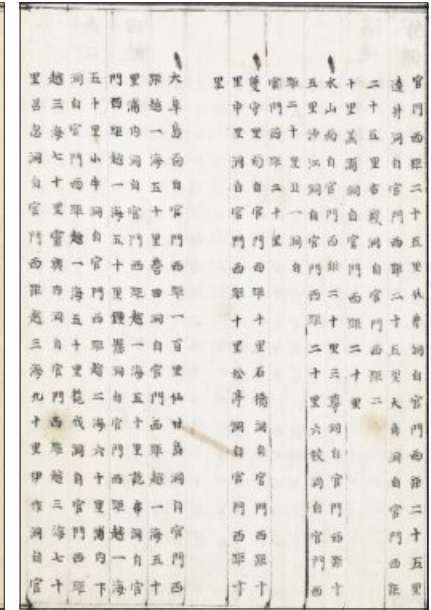
- 지도에 영흥도와 소우도가 표시되어 있다.
- 방리 소우동 관문에서 서쪽으로 바다 둘을 건너 60리에 있다. 엇벌동(訖伐洞) 관문에서 서쪽으로 세 바다를 건너 70리에 있다. 영흥내동 관문 서쪽 세 바다 건너 70리에 있다.
- 도서 대부도 · 영흥도 · 소홀도 · 이작도 · 선감도 · 제부도 · 계오도 · 우음도

⑧ 1891년 『남양부읍지』

- 지도에 영흥도와 소우도가 표시되어 있다.
- 읍지 기록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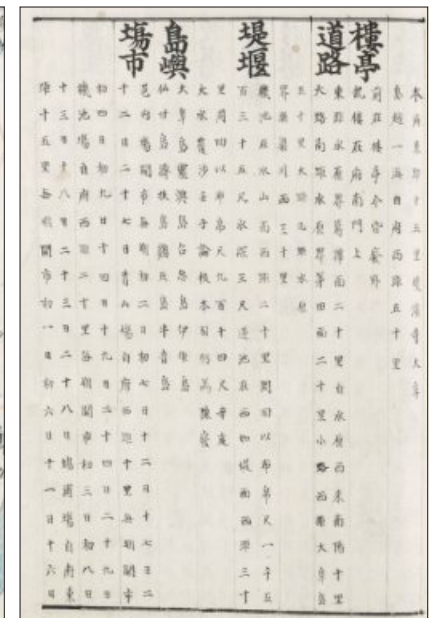
1842년 경기지 남양도호부 지도



1842년 경기지 남양도호부 방리



1871년 경기읍지 남양도호부 지도



1871년 경기읍지 남양도호부 도서

⑨ 1899년 『남양부읍지』

- 지도에 영흥도와 선재도가 표시되어 있다.
- 방리 : 소우동 관문에서 서쪽으로 바다 돌을 건너 60리에 있다. 엇벌동(鰐伐洞) 관문에서 서쪽으로 세 바다를 건너 70리에 있다. 영흥내동 관문 서쪽 세바다를 건너(越三海) 있다.
- 도서 : 대부도 · 영흥도 · 소홀도(召忽島) · 이작도 · 선감도 · 유도 · 계오리도 · 우음도

⑩ 1910년 경 『조선지지자료』 남양군 영흥면

- 동리명 : 내동 외동 선재동 소홀동 대이작도 소이작도
- 도진(渡津)명 : 선재진 영흥진
- 토산명 : 석화(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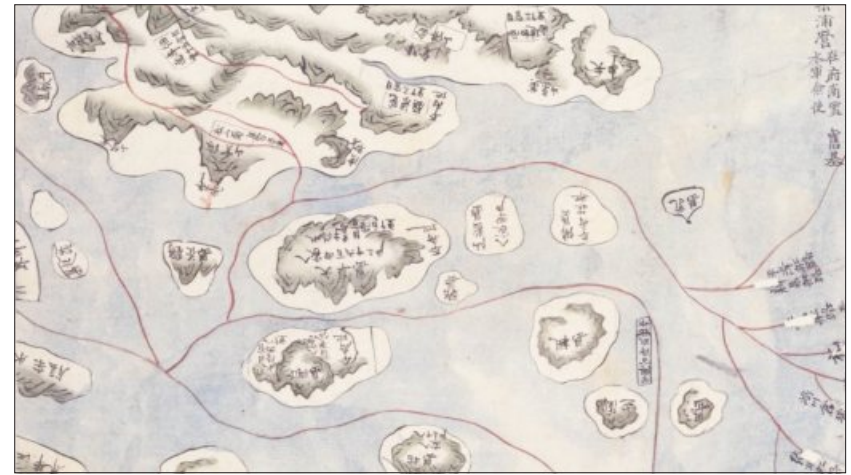
土産名	渡津名	洞名	面名	種別
石花	靈興	仙才	外洞	靈興面
굴	영흥나루	선재나루	대이작도	소이작도
			소홀도	
			내동	외동
			선재동	

1910년 경 『조선지지자료』

(2) 고지도⁵⁾

① 1750년대 『해동지도』 남양도호부

영흥도(延興島) 남양도호부의 땅으로 인가(人家)는 178호이며 관아로부터 80리 거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선재도에 관한 기록은 없다.



1750년대 『해동지도』 남양도호부의 영흥도

② 18세기 중엽 『해서경기해로도』

영흥도는 연흥진(延興津)으로 표시되어 있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거(人居)로 표시되어 있으나 선재도에 관한 기록은 없다. 남양부에서 불도진(佛島津)－대부진(大埠津)－연흥진(延興津)－소야도진(蘇爺島津)을 거쳐 덕적진(德積鎭)에 이르는 해로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18세기 중엽 해서경기해로도

5) 현재 전하고 있는 고지도 중 영흥도와 선재도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나타나는 고지도를 선정 수록하였다.

③ 1861년 『대동여지도』

남양부의 대부도 서쪽으로 소우도, 영흥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영흥도에 목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861년 대동여지도의 영흥도

④ 19세기 전반 『광여도』 남양도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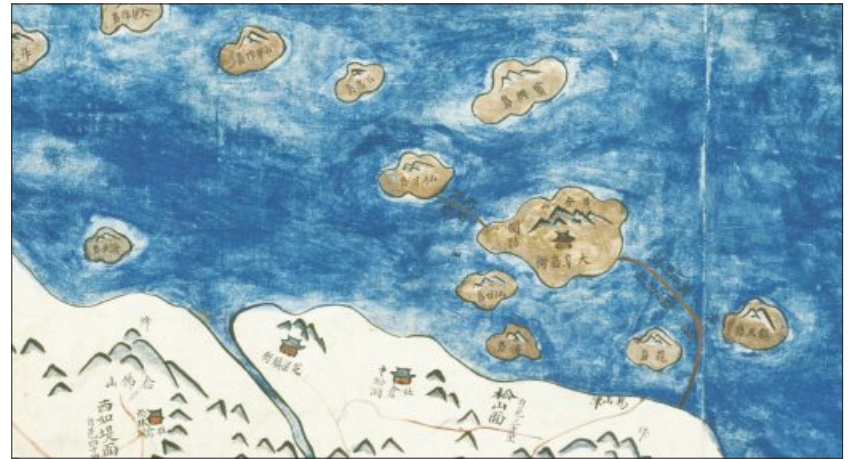


19세기 전반 『광여도』 남양도호부

영흥도가 연흥도로 기록되어 있으며, 인호가 170호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흥도가 남양도호부의 관할임을 대부도와 함께 명확히 밝히고 있다. 선재도에 관한 기록은 없다.

⑤ 1872년 『지방지도』 남양부도호부

영흥도와 선재도가 기록되어 있고, 남양부에 대부도로 건너던 마산진 인근 해안에서 계오도(鷄五島)와 엇도(鹵島)의 사이로 대부도·선재도로 이어지는 선을 그어 “조수가 들어오면 바다가 되고 조수가 나가면 개펄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1872년 지방지도』 남양도호부

⑥ 1872년 『지방지도』 대부도

선재도와 영흥도가 본래 사복시(司僕寺)에 속하며, 대부도에서 각각 수로로 20리, 30리 거리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영흥도의 앞뒤로 내양수로(內洋水路)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지도에서 이 수로는 남으로는 풍도(楓島) 북으로는 팔미도와 월미도를 거쳐 강화수로로 이어져 있다. 특히 영흥도와 소홀도 사이는 이양선이 지나간 해로로 기록되어 있다.



『1872년 지방지도』 대부도의 영흥도와 선재도

(2) 사서류⁶⁾

① 『고려사』

■ 세가 권27 원종 13년 11월 24일

삼별초(三別抄)가 거제현(巨濟縣)에 침입하여 전함(戰艦) 3척을 불사르고 현령(縣令)을 붙잡아갔다. 적선(賊船)이 또 영흥도(靈興島)에 와서

6) 전통시대 사서류에 영흥도에 관한 기록은 다수 있으나 영흥도가 기록의 중심이 되는 것만을 수록하였다.

정박한 채 부근 지역을 횡행하자, 왕이 원수(元帥) 혼도(忻都, 힌두)에게 기병 50명을 청하여 궁궐을 숙위(宿衛)하게 하였다.

■ 세가 권30 충렬왕 18년 4월 8일

경오 원(元)이 합단(哈丹, 카단)의 부하 대왕(大王)들을 영흥도(靈興島)와 조월도(祖月島) 두 섬으로 유배 보냈다.

■ 세가 권34 충숙왕 5년 4월 18일

여름 4월 무신 왕이 상왕(上王, 충선왕)의 군지(鈞旨)에 따라 대호군(大護軍) 장공윤(張公允)과 제주부사(濟州副使) 장운화(張允和)를 순군(巡軍)에 가두었다가 얼마 후 장공윤을 자연도(紫燕島)로, 장운화를 영흥도(靈興島)로 유배 보냈다.

■ 세가 권35 충숙왕(후) 6년 12월 6일

임신 조득구(趙得球)를 영흥도(寧興島)로 유배 보냈다. 그는 전왕(前王: 충혜왕)의 가까운 폐행(近幸)이 되어 오로지 재물을 모으는 계책을 올렸다.

■ 열전 권15 제신 이장용

원종 8년(1267) 몽고가 병부시랑(兵部侍郎) 흑적(黑的) 등을 사신으로 보내 일본(日本)을 초유(招諭)하도록 하였다.…… 대개 이장용은 일본이 결국 입조하지 않을 것을 헤아리고 장차 우리나라에도 걱정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몰래 흑적을 설득하여 보고가 전해지게 함으로써 그 일을 멈추게 하려 한 것이었다. 국왕은 그가 먼저 알리지 않았다 하여 탄 마음이 있는가 의심하였고, 이에 영흥도(靈興島)로 유배하고, 관반(館伴)인 기거사인(起居舍人) 반부(潘阜)도 또한 불고죄(不告罪)로 연좌하여 채운도(彩雲島)로 보내려 하였다.

■ 열전 권17 제신 김방경

삼별초(三別抄)가 반란을 일으켜 백성을 협박하고 재물을 빼앗고는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갔다. 왕은 참지정사(叅知政事) 신사전(申思佺)을 추토사(追討使)로 삼아 보내고 또 김방경에게 명하여 군사 60여 명을 이끌고, 몽고 송만호(宋萬戶) 등 군사 1,000여 명과 함께 추토(追討)하라 하였다. 바다 가운데에서 이르러 멀리 살펴보니, 적선이 영흥도(靈興島)에 정박하고 있어 김방경이 공격하려 하였으나, 송만호가 두려워하며 이를 막는 사이에 적이 달아났다.

■ 열전 권37 폐행 전영보

전영보(全英甫)는 본래 제석원(帝釋院)의 종[奴]으로서, 금박(金箔) 세공이 생업이었다.…… 백원항이 전영보의 잘못을 끝까지 추궁하자 전영보가 이 일을 매우 원망하였다. 마침 백원항이 사복령사(司僕令史)를 곤장을 때려 죽였으므로, 전영보가 왕에게 알려 백원항을 영흥도(靈興島)로 유배 보냈다.

■ 열전 권43 반역 우정

우정(于琨)은 진주(鎭州) 사람이다.…… 뒤에 우정은 고려로 돌아와 임유인(林惟楸)의 처 채씨(蔡氏)를 처(妻)로 맞아들였다. 원의 중서성(中書省)에서 “우리 조정(朝廷)에서 일찍이 임연(林衍)과 임유인의 가족들을 경사(京師)로 오도록 독촉하였는데 채씨는 조정의 명령을 어기고 법망을 빠져 나와 홀로 남아 있었으며, 우정이 그녀를 처로 맞이하였으니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내 다루가치에게 공문을 보내 우정과 채씨를 죽이도록 하고, 채씨의 아버지인 추밀사 채인규(蔡仁揆)도 연좌(緣坐)하여 영흥도(靈興島)로 유배 보내었다.

② 『세종실록』

■ 11년(1492) 11월 11일 계축

예조에서 전국의 영험한 곳에서 제사드리는 것을 국가에서 행하는 치제의 예에 따를 것을 건의하다.…… 인천(仁川)의 자연도(紫燕島)·수심도(水深島)·구음도(苟陰島)·용매도(龍媒島)·검대도(黔對島)·고도(孤島)·어울도(馭鬱島)·미정도(彌正島)·마전도(麻田島)·구상도(構桑島)·송가도(松家島)·대인도(大忍島)·영흥도(靈興島)·독우도(犢牛島)·용류도(龍流島)·장봉도(長峯島)·부령도(婦靈島)·구자굴도(求子屈島)·우도(牛島)·소물도(召物島)……

③ 『광해군일기』

■ 즉위년(1608) 9월 5일

전라도의 전세선(田稅船) 17척이 영흥도(靈興島)에 정박하였는데, 폭우가 물을 들어붓듯이 오고 미친 듯이 사납게 부는 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침몰하였다고, 경기 수사 김거병(金去病)이 보고하였다.

④ 『고종실록』

■ 고종 8년(1871) 6월 7일 병인

대부도(大阜島)는 방금 진영(陣營)을 설치하였습니다. 본도(本島)의 지계(地界)가 5, 6십리 정도에 불과하니 여러 섬들을 부속(付屬)시킨 다음에야 진영으로서의 모양을 갖추 수 있을 것입니다. 근방의 영흥도(靈興島), 선재도(仙才島), 풍도(楓島), 선감도(仙甘島), 탄매도(炭埋島), 불도(佛島) 등의 전결(田結)과 호구(戶口)를 모두 해진(該鎭)으로 이속(移屬)시키고 그 장적(帳籍)의 마감(磨勘)도 본진(本鎭)에서 주관해야 할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단속하여 더욱 방수(防守)에 힘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고종 9년(1872) 5월 14일 정유

화랑진(花梁鎭)을 영흥도(靈興島)에 옮겨 강화(江華)의 어구를 지키라고 명하였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신석희(申錫禧)가 장계(狀啓)로 첨하였기 때문이다.

■ 고종 9년(1884) 7월 10일 임진

김병학이 아뢰기를, “강화 유수(江華留守)가 장계(狀啓)를 올려 화랑첨사(花梁僉使)의 진영(鎭營)을 영흥도(靈興島)로 옮길 것을 청한 것과 관련하여 무부(武府)에서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진장(鎭將)의 칭호를 영흥도 첨사(靈興島僉使)로 하도록 해조로 하여금 하비(下批)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고종 21년 4월 14일 무오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민영목(閔泳穆)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대체로 해안을 방어하는 법은 바다를 차단하여야 하는 만큼 전적으로 수군(水軍)을 의지해야 하는데 …… 교동(喬桐)은 외딴 섬에 위치해 있어서 통어사(統禦使)의 명칭은 명색뿐이고 실속이 없는데다가 또 해방영(海防營)에 소속되어 있으니 체제가 서로 모순됩니다. 수군 절제사가 때에 따라 바꾼 전례가 한 번만이 아닌 만큼, 참작하여 변통하는 것이 때와 형편에 알맞을 것입니다.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阜島)는 영흥도(靈興島)와 덕적도(德積島) 사이에 끼여 있어서 선박들이 왕래하는 요충지이고, 둘레에 있는 아홉 섬의 1,000호에 가까운 백성들은 물길에 익숙합니다.

■ 고종 21년 4월 21일 을축

남양(南陽) 대부도(大阜島)에 대(臺)를 설치하고 포(礮)를 안치하되 따로 하나의 진영을 만들고 별장(別將)을 두는 일이었습니다. 이 섬은 영흥도(靈興島)와 덕적도(德積島) 사이에 끼여 있어서 실로 해문(海門)

의 요충지입니다. 진영을 설치하자는 논의는 필경 깊이 재량한 것이겠지만 별장 한 자리는 해당 아문에서 자벽(自辟)하여 차송(差送)해야 합니다.

⑤ 『승정원일기』

■ 고종 10년(1873) 7월 24일

호조가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 김재현(金載鉉)의 장계를 보니, 남양 부사 이용의(李容儀)의 첩정을 들어 말하기를, ‘전라도 영암군의 대동미를 실은 배가 남양부 영흥도(靈興島) 앞바다에서 침몰하였는데, 줄곧 건지려고 했으나 형적조차 없어 구조의 일을 철수했다’ 고 하였습니다.

■ 고종 21년(1884) 4월 14일

남양(南陽)의 대부도(大阜島)는 영흥도(靈興島)의 남쪽과 덕적도(德積島)의 동쪽에 끼여 있어 선박들이 왕래하는 요충지이며, 둘레에 있는 아홉 섬의 1000호에 가까운 백성들은 모두 물길에 익숙합니다. 요해처에 망대(望臺)를 만들고 대포를 안치하면 영흥도, 덕적도와 더불어 앞뒤에서 적을 공격하는 형세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 고종 30년 (1893) 2월 18일

이수홍이 아뢰기를, “병조계목(兵曹啓目)으로 인하여, 남양 부사(南陽府使)를 판관(判官)으로 삼고, 대부도(大阜島) 및 영흥도(靈興島)의 진(鎭)은 혁파하고, 해연총제사(海沿摠制使) 및 판관의 병부(兵符)를 만들어 보내도록 한 내무부 절목(內務府節目)에 대해 계하하셨습니다. 해연총제사의 병부는 정원으로 하여금 새로 만들어서 주도록 하고, 남양 판관(南陽判官)이 찰 병부는 전 부사가 차던 것을 전해 주도록 하며, 병영에 지급할 좌척(左隻)은 경리청(經理廳)에 지급한 것을 옮겨 보내고, 감영에 지급한 좌척 및 대부도와 영흥도 첨사가 차는 병부로 나누어 지급했던 것을 모두 거두어서 정원에 올려보내 태우도록 윤허를 내리셨습

니다. 해연총제사가 찰 병부는 새로 만들어서 하직 인사를 하는 날 전해 주고, 판관의 병부는 전 부사가 차던 것을 전해 주도록 하며, 병영에 지급할 좌척은 경리청에 지급한 것을 옮겨 보내고, 감영에 지급한 좌척 및 대부도와 영흥도 침사가 차는 병부로 나누어 지급했던 것을 모두 거두어서 올려보내도록 경기 감사, 해연총제사, 경리사(經理使)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⑥ 『우계집(牛溪集)』

■ 제6권 잡저 효자전

임수복은 남양(南陽) 영흥도(靈興島) 사람이다. 영흥도는 서해(西海) 가운데에 있으니, 숲이 무성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열대여섯 집이 마소를 치고 사는데, 임수복은 바로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만력(萬曆) 임진년에 왜적이 경성에 침입하니, 강진(姜晉, 휘는 자서 子舒)이 난리를 피하여 처자를 데리고 그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

5) 문화유산

(1) 영흥도

① 평택임씨(平澤林氏) 묘역

영흥면 내4리 영은사 주변의 평택 임씨 일가 묘역이다. 묘역은 사당의 북쪽에 있는데, 4기의 묘와 석물이 있다. 묘지 관리인에 의하면 북쪽 묘역은 선대 묘역이고, 서쪽 묘역은 임세재의 묘역이라 한다. 묘역에는 묘표와 문인석, 상석 등 조선 중기의 것으로 보이는 석물들이 남아 있어 묘역의 연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북쪽 가장 위쪽 묘의 묘표는 마모가 심한 상태이다.

비는 폭 46cm, 높이 117cm, 두께 17cm 의 양면 비인데, 전면에는 “折衝將軍贈嘉善大夫○○城林公之墓 淑夫人金海金氏之墓”라고 각자



평택임씨 묘역

되어 있고, 후면에는 “蔚山後人林貴○ 行訓練院判官○○○…”라 각자 되어 있다. 묘역에 있는 4기의 동자석은 크기와 표현기법으로 미루어 조선 중기의 것으로 보인다.

② 임세재(林世載) 묘

영흥도의 내4리 산38-12 버드니 마을에 있는 묘이다. 묘역에는 3기의 묘와 석물이 있는데, 근래에 새로 단장하여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새로 조성한 묘비에는 “正一品平澤林公世載 配 貞敬夫人金海金氏之墓”라고 각자 되어 있다. 임세재(1724~1783)는 원래 영흥도에 설치된 국영말목장의 목마군(牧馬軍) 출신이었으나, 영조 때 별군직(別軍職)에 차임되는 것을 계기로 1747년(영조 23) 무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보성군수·울



임세재 묘

진현령·언양현감·낙안군수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낙안군수 재임시 사망하자, 고향인 영흥도에 안장하였다.

③ 영은사(靈隱祠)

영흥면 내4리의 영은사는 임씨 7대 중손 자부인 황정심이 2002년 음력 8월에 33㎡ 규모의 재실을 66㎡으로 증축한 것이다. 영흥도 임씨 가문의 중부인 황씨가 남편이 작고한 후 조상들을 위해 1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만들었다고 한다. 20년 전부터 10월 10일 오후 2시에 제사를 지낸다. 영은사는 못을 쓰지 않는 전통 기법으로 지어졌다.



영은사

④ 임현규(林顯圭) 정문

영흥면 내1리 평택임씨의 세거지인 가갓골의 기와집에 있는 1885년(고종 22) 임현규에게 내려진 효자 정문이다. 정문에는“효자 학생 현규의 문 광서11년(을유) 6월 효행의 뛰어남으로 명정되어 정려의 은전을 문에 표시한다.(孝子學生顯圭之門 光緒十一乙酉年六月命旌 卓絕之孝行命賜旌閭之典表其門)”고 새겨져 있다. 이 집은 1930년대 영흥도 일원의 간척사업으로 치부하고, 섬에서 권력을 휘두른 영흥면장 임원배(林元培)의 집이기도 하였다.



임현규 정려

⑤ 영흥목장 마성터(靈興牧場馬城址)

영흥면 외2리 야산 일대의 조선시대 영흥도에 설치되었던 목장의 터로, 경계석으로 보이는 석축이 일부 남아있다. 석축은 1996년 인하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일부 확인되었고, 2001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의 영흥진 추정지 시굴조사 때 다시 확인된 바 있다. 대부분 붕괴되어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폭과 높이가 각각 50~60cm에 달하는 1열의 석축이 일부 남아 있다. 목장의 설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중종대부터는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선조대의 기록인 『목장도(牧場圖)』에는 “국마 119필을 281명의 목자가 방목하였다”고 되어 있어 영흥도에 대규모 목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영흥도목장은 고종 9년(1872) 화랑진을 영흥도로 옮기면서 폐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목장의 시설로는 외2리 뒷 산인 ‘큰산’ 정상에 동서로 마성의 석축이 일부 남아 있고 업별 큰산 북쪽지역으로부터 양로봉(養老峯) 너머 신노루와 마경리(馬耕里)쪽과 가두리, 매부리, 화랑골 등지에도 마성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⑥ 영흥대교

2001년 11월 15일 선재도와 영흥도를 연결하는 영흥대교가 개통되어 영흥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니다. 영흥대교는 길이 1,250m, 너비 9.5m의 왕복 2차선 도로로, 국내 기술진에 의해 최초로 건설된 해상 사장교(斜張橋)이기도 하다.



영흥대교 전경

⑦ 십리포 해변의 서어나무 군락지

서어나무는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키는 15m이며 잎은 어긋나는데 어릴 때는 붉은 색을 띠지만 자라면서 녹색으로 바뀐다. 5월쯤 잎보다 먼저 꽃이 피며, 열매는 10월 무렵에 익는다. 십리포 해변의 서어나무 군락지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괴수목으로 약 35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룬다. 150여 년 전에 내동마을 선조들이 해풍 바람막이를 위해 심어 놓았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미 극동사령부 클라크 대위와 해군 첩보대원 17명, 영흥도 청년방위대원 60여 명이 이곳에 기밀첩보 작전기지를 두었다.

⑧ 해군영흥도전적비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한 ‘X-Ray작전’을 수행한 임병래 중위와 대한청년단 방위대원 13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2년 12월 2일에 세운 전적비이다.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미 극동사령부 클라크 대위와 해군본부 정보국 임병래 중위가 이끄는 특수공작대는 1950년 8월 22일 인천 앞바다의 영흥도에 상륙하여 잠입하였다. 이후 인천과 서울, 수원 등을 왕래하며 첩보를 수집하여 해군본부와 맥아더 사령부에 제공하였다. 이들의 첩보수집 활동은 인민군의 병력배치와 규모, 보급관계, 지뢰매설 사항, 상륙지점의 지형, 암벽의 높이, 기뢰수송 사항, 인천해안포대의 위치, 인천 시내 주둔 병력의 규모와 활동 내용 등이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을 하루 앞둔 1950년 9월 14일, 영흥도로 상륙한 북한군 1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포위되어 위기에 처하였고, 적에게 체포되어 특수공작임무의 기밀이 누설될 것을 우려한 임병래는 자결하였다.



해군 영흥도전적비

⑨ 영흥진 터

영흥진 설치의 배경이나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고종실록』9년 5월 14일에 “화랑진 진영을 영흥도로 옮기고 강화의 어구를 지키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수원유수 신석희(申錫禧)의 제의를 따른 것이다”라고 하여 1872년 5월에 화랑진을 남양에서 영흥도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7월 ‘영흥진첨사’로 정식 명명되어 영흥진은 1894년까지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영흥면 외2리 업벌마을은 남쪽으로 천연의 호안이 형성되어 있고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등 수군진이 자리하기에 적절한 조건을 갖춘 곳이다. 그러나 진(鎭)과 관련된 유력한 유구들을 확인되지 않았다. 2001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표상에서 자기편 몇 점과 교란층에서 조선시대 기와편과 자기편을 수습하는데 그쳤다. 이후 영흥화력발전소와 관련 시설들이 건축되는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더 이상 관련유적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⑩ 외1리 패총1

영흥면 외리 29-7임 일원으로 빗살무늬토기편과 함께 패각이 혼토되어 있다. 1996년 인하대학교 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보고된 유적이다. 이후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다시 조사되었다.



영흥도 외1리 패총 출토 빗살무늬 토기편

⑪ 외1리 패총2

외1리패총1에서 서쪽으로 40여 미터 떨어진 영흥면 외리 16임 지점 일원에 있으며, 해안에 인접한 구릉 남사면에 위치해 인근의 외1리 패총1과 유사한 입지를 보이고 있다. 1996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보고된 유적이다. 이후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다시 조사되었다.

⑫ 외1리 패총3

영흥면사무소에서 장경리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영흥면 외리 29-7 임 일원에서 횡단도로의 우회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공사를 실시하던 중 발견된 유적이다. 1996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외1리 패총3'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2003년 한양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다시 보고된 유적이다.

⑬ 용담이 패총1

영흥도패총1에서 용담리 마을로 넘어가는 영흥면 외리 산64-4, 17-3전 일대 포도밭과 주변의 경작지에서 패각이 확인된 유적이다. 1984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고,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영흥도 용담이 패총'으로 재확인된 곳이다.

⑭ 용담이 패총2

용담이 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고개 북쪽 영흥면 외리 59-1 임 일원의 절개면에서 패각층이 확인된 유적이다. 패각의 두께는 40~100cm 정도이며 길이는 10m 정도이다. 1996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용담이패총2로 보고된 유적으로,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재조사되었다.

⑮ 용담이 패총3

용담이 패총2에서 해안을 따라 영흥면 외리 40임 일원 해수욕장의 중간지점 도로에 인접한 지역에서 패각이 확인된 유적이다. 1996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용담이패총3으로 보고되었다.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재조사되었다.

⑯ 내리 큰우물

영흥면 내4리 700m 지점에 있는 마을 전체가 식수로 사용했던 자연 우물이다. 마을 처녀들이 더운 여름에 이 우물에서 목욕을 즐기기도 했다 하여 '처녀물'이라 부르다가 마을사람들이 처녀물이란 말이 좋지 않다 하여 조선 중기 '큰우물'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⑰ 삼신우물

영흥면 외2리 업벌마을에서 당고사 때 쓰던 우물이다. 새마을사업 때 우물물을 펌프로 끌어올리게 되면서 이웃 마을도 삼신우물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무당들은 삼신우물이 영험하다고 믿어 그 근처에서 굿을 하기도 했다.

(3) 선재도

① 선재도 패총1

선재도와 영흥도를 잇는 연육교를 건너기 바로 전 선착장으로 내려가는 영흥면 선재리 산24-2, 24-4번지 일대에 있다. 이 길 좌측의 구릉과 절단면에서 패각이 희미하게 확인되었다. 1984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처음 보고된 유적으로,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선재도 버드러지 패총'으로 재확인된 곳이다.

② 선재도 패총2

영흥면 선재리 산16 일대 완만한 구릉의 사면 끝자락에 위치한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 '선재도 옛 선착장 패총'으로 처음 보고된 유적이다.

③ 선재도 패총3

선재도패총2에서 해안을 따라 판둥이리섬 부근, 영흥면 선재리 산 3-4, 3-45 일대 능선의 절단면에서 패각이 확인된 유적이다. 1984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하여 ‘통우리 조개더미’로 처음 조사된 유적으로 후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선재도통우리패총’으로 재확인하였다.

④ 선재도 패총4

선재도패총3에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200여m를 가다 영흥면 선재리 513-1·산311·3·7번지 일대 깊게 안으로 굽은 해안과 만나는 구릉의 끝자락에서 패각이 확인된 유적이다. 패각의 두께는 30cm 정도로 두껍지 않다. 1984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하여 ‘사매기 조개더미’로 조사된 유적이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선재도사매이패총’으로 재확인되었다.

⑤ 뱃말 패총

구름말유물산포지에서 선재분교방향으로 가다 영흥면 선재리 23, 25 전 일원 밭에서 마제석부 1점과 함께 패각이 확인된 유적이다. 1996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뱃말패총’으로 보고된 유적으로,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재조사되었다.

⑥ 구름말 유물산포지

영흥면 선재리 68임, 331일원 능선 일대에서 고려~조선시대 도자기 편이 수습된 유적이다. 2005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구름말유물산포지’로 보고되었다.

6) 설화

(1) 영흥도

① 영흥도의 유래

옛날 어느 때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중국 상선이 우리나라로 오던 중 큰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중 암초에 부딪쳐 배 밑이 파손되어 구멍이 났다. 바로 침몰 직전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큰 거북이가 한 마리 나타나서 파손된 배 밑창 구멍을 막아 무사히 영흥도로 인도하였다 한다. 이때 배를 인도한 곳은 북풍받이를 피하여 현재 내 5리 지역으로 인도를 하여 며칠 체류하면서 배를 수선하여 다시 항해하여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 배를 신당이 도와주었다 하여 도와준 섬의 지명을 영흥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② 1945년 여객선사고

1945년 2월 6일(음력 1944년 12월 15일)경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해 갈 무렵, 영흥도의 여객선이 따로 없어서 대부도 여객선이 영흥도를 경유하여 화객을 같이 싣고 인천을 왕래할 때이다. 이 때 일본이 패망하게 되자 인력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우리나라 젊은 청장년들을 징용으로 또는 징병으로 끌고 가서 탄광으로 또는 전쟁터로 강제로 보내던 때이다.

이 날도 영흥도에서는 징용으로 강제 인솔되어 가던 장정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 전날 마을에서 송별연이 있어 소를 잡았는데 소를 버드니 앞 당산 밑에서 잡았는데, 당에다 고사를 드리지 않고 내려와서 송별연을 베풀었다. 그 다음날 장정을 싣고 인천으로 향하여 출항한 제이통운환이 사고가 나서 300여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 그 후 이 영흥에 약간 정신이 이상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소를 당산 밑에서 잡고도 성황님께 당고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여 가족들은 물론 그 동리 사람들이 당고사 못 드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후회하였다 한

다. 그러나 대참사는 정원 초과에 일본인 선장이 술에 취해 배질을 잘 못하여 생긴 대사건이었다.

③ 쾌등혈형 묘지

내4리 덕골 골짜기 어둠골이라는 지명이 있다. 어둠골이라는 지명 그대로 외진 곳이다. 이 산은 김씨의 산으로 어둠골에다 묘를 썼으니 어두운 골짜기에 등잔불을 켜 놓은 형이라 하여 이를 쾌등혈형 산발이라 하여 묘지로서는 드물게 있는 명당이라고 풍수설에서 전한다. 김씨 가문에서는 이곳에 묘를 쓴 후부터 재물이 늘어나고 인재가 나왔다. 근 300석의 부자가 이 좁은 섬에서 나왔으니 큰 부자이다. 이웃을 잘 도와 공덕을 쌓고 인물이 배출되어 지역사회를 위하여 또한 공헌을 하니 어둠골 쾌등혈형에 산소를 모신 후부터 김씨 가문에 서광이 비친 명당손이라 이르고 있다. 이제도 그 후손들이 여러 호종이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④ 보성군수 임세재

임세재는 조선 영조와 정조대의 인물로 영흥도 출신이다. 1724년(경종 4)에 영흥도 내리(버드니)에서 출생하였으며 당시 내리에 살던 임영운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나면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성장이 유달리 빨랐다. 당시 그가 사는 마을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던 마목장이 있었다. 힘이 장사이며 기운이 또한 넘치는 그는 무술에 취미가 있었다. 16~17세 때 그는 벌써 어른 같이 성장하여 말을 타고 싸움도 하고 싶고 힘껏 달리고도 싶어 목장의 말을 은밀히 끌어내어 말 잔등에 오르자마자 말에 채찍질을 하여 번개같이 달렸다. 급작스럽게 달리던 말은 그 청년의 육중한 몸무게에 그만 말허리가 부러져 주저앉고 말았다. 관리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는 물론 부모까지 처벌을 받아야 되므로 그는 겁을 먹고 육지로 탈출하여 수원 지방에 머무르고 있었다. 할 일 없어 하루는 거리를 방황하다가 마침 때 사냥을 하려고 사냥꾼이 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임세재가 가까이 가서 매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매가 마침 톱을 싸서 그의 손잔등에 떨어졌다. 그때 매 톱이 살에 묻으면 재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서 그 매의 모가지를 단번에 비틀어 죽였다. 그랬더니 화가 난 주인은 그렇게 모가지를 잘 빼면 사람의 모가지도 빼 보라고 하여 자기 모가지를 내미니 임세재가 하는 말이 네 모가지는 못 뺄 줄 아느냐 하며 달려들어 매 임자의 모가지를 빼어 죽여 버렸다고 전한다. 이때부터 임세재는 힘이 세고 날쌔 장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다. 이때 어느 사람의 도움으로 사도세자가 그를 보니 생김생김이 남다르고 젊고 날쌔 것을 보고 그를 수하로 삼게 된 것이다. 그 후 그는 세자 휘하로 충청도에서 군율·축지법 등을 배우며 무예를 닦았다. 이렇게 되니 사도세자의 신임을 받고 배경이 좋은 그는 24세 때 무과에 응시해서 64명 합격하는데 같이 급제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관직에 올랐다. 1747년(영조 24) 일본에 수신사를 보낼 때 용맹한 장사 임세재는 호종무관으로 수행원이 되어 일본에 다녀왔다. 그는 여러 무관직을 지내고 1751년 7월에는 가선대부에 오르고 백령진 관할인 장연 남해안 오우포 수군첨사가 되어 변방의 방어에 힘썼다. 그 후 여러 곳의 첨사를 지내며 국방에 헌신하여 임장군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그가 39세 때인 1762년(영조 38)에 사도세자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가 가장 존경하던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일 때 왕명에 의하여 그 뒤주를 임세재가 져서 왔다고 한다. 세자가 죽은 뒤 그 뒤주를 임세재보고 치우라고 상사가 말하니 내가 가장 존경하던 세자를 가두어 죽인 이 뒤주만은 치울 수 없다고 하였으나, 왕명이라 그는 눈물을 머금고 그 뒤주를 져다가 버렸다고 한다.

⑤ 바위에 새겨진 괴문형

외 2리 뒷산 텃바위재에 올라가면 그다지 웅장하지도 않은 바위가 있다. 이 바위가 남향 쪽으로 좀 평평한 곳에 확실치는 않으나 여섯 자가 새겨져 있다. 이곳 학자 김경환 응(고인)의 말에 의하면 언젠가 육지에

서 도승이 이곳에 들러 쉬게 되었는데 김웅이 이곳에 같이 가서 이 글자 형을 보이면서 뜻을 알려 달라고 하였다. 이때 이 도승은 서슴치 않고 한 마디로 “왕·임·제 세성의 피난지”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한다. 영흥도에는 이와 같은 왕임제 삼성 피난지라고 새긴 곳이 국사봉 정상에도 있다고 하였으나 올라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덩바위재 바위에 새겨진 것만 볼 수 있다.

⑥ 용담이 우물과 용마바위 전설

용담이 우물에서 장사가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장사는 겨드랑이에 날개 죽지가 난 장사였다고 한다. 옛날에는 이와 같은 장사가 나오면 나라에서 그 가족까지 멸족을 시켰다고 전한다. 이와 같은 말에 마을사람들은 크게 겁이 나서 아기장사의 날개 죽지를 자르고 큰 돌로 찍어 죽였다. 이 우물에서 장사가 난 다음에 이어서 용마가 나와 보니 장사는 죽었다. 주인이 죽은 용마는 크게 울면서 뛰며 우물을 몇 번 씩 돌아보고는 업벌 쪽으로 달아나다시피 달려갔다. 양노봉 줄기인 무선내 쪽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서 약간 머무르며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크게 울부짖다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이때 이 용마가 이 바위에서 힘주고 뛰어다닌 발자국과 말웅덩이 자국이 이제도 남아 있다 하여 용마바위라 전한다.

⑦ 국사봉의 유래

고려 말 내외정국이 불안할 때 왕실의 실권이 없어지며 어지러워진 도성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는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을 짐작한 익령군 왕기라는 사람은 개경을 탈출하여 배를 타고 정치 없이 다다른 곳이 서해에 있는 영흥도였다. 오는 동안 항로도 방향도 잘 모르는데 파도가 심하여 난생 처음으로 고생을 하며 구사일생으로 이 섬에 닿은 것이다. 심정도 불안하고 모두 지칠 대로 지쳤으나 두고 온 개경이 그리워 산위에 올라 멀리 북쪽의 송악산 쪽을 바라보며 조국인 고려

의 안녕과 앞으로의 융성을 빌었다. 그러나 마음만 초조해져 힘없이 산에서 내려와 삼문 읍집에서 애수를 달래기 위하여 가져온 옥 바둑판을 어루만졌다. 왕기의 나날은 산에 올라가 그리운 도성을 바라보는 것과 바둑 두는 것과 바닷가에 나가 조개류를 잡다 고기를 잡다 하는 것으로 지냈다. 그러면서도 매일 남서쪽의 높은 산에 올라 나라를 생각하며 마음 속 깊이 고려의 평안과 융성을 기원하였다 하여 이 산 이름을 국사봉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전한다.

⑧ 명마 벌대추니의 전설

조선 17대 효종이 특별히 아끼면서 강화도에 놓아기르던 말의 이름을 벌대총 또는 벌때추니라 하여, 매어 기르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방목한 말이다. 벌때추니, 벌때총이 하면 한자리에 있지 않고 “짹짹 거리며 돌아다니는 계집아이”라고 사전에 풀이하고 있다. 영흥도에도 이와 같이 석성을 제 맘대로 넘어 다니며 돌아다니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들은 우리를 넘어도 곡식을 함부로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곳에도 이 말을 벌대추니라 불렀던 것이다. 그러나 옛날 고기가 귀한 때라 나와 다니는 벌대추니 말을 몰래 잡아먹고 말았다. 그 다음 벌대추니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잡아먹었다거나 죽었다는 보고를 하게 되면 극형을 받게 되므로 보고하기를 “벌대추니가 먹이를 안 먹은 지가 사흘이요 일어나지 못한 지 사흘입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때 보고받는 쪽에서는 “사흘이나 먹지 않고 사흘이나 누어서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러면 죽었다 말이나”라고 물으니 그때에야 “네, 그렇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죽었다는 말은 보고하는 측에서는 죽었다는 말을 않고 보고받는 측에서 먼저 죽었다는 말을 했으므로 보고한 자는 죽음의 형을 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⑨ 임원배와 영흥도 간척사업

영흥 내5리(진두)와 영흥 본도와는 60여 년 전(1930)까지도 따로 떨어진 진두라는 지명이 붙은 섬이었다. 다만 가만개촌(삼앞)의 사이에 들물 때 밀려 쌓인 모래자갈의 자연 독이 생겨 썰물 때 신발 신고 또 소바리 정도가 겨우 건너다닐 수 있는 정도였다. 지금 중학교 위쪽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던 넓은 간척지였다. 이 간척지는 염분이 여러 곳에 있었으며 갯골에는 살을 매고 조개·바지락·낙지 등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영흥도 내리 주민들의 소득원이 되기도 하던 갯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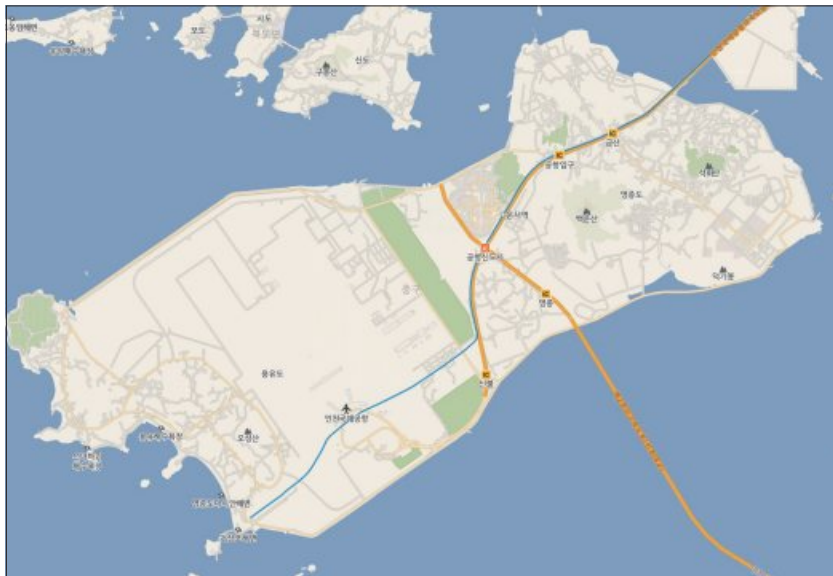
이때 영흥도 내동에는 큰 부자이며 일본 동경 와세다대학에 유학한 임원배라는 인물이 내동 개와집 주인이었다. 또한 그는 당시 조선 총독과는 친숙한 사이로 권력·금력·학식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임원배는 영흥도의 간척사업에 착안하여 자기재산을 투자하고 농경지는 물론 새로 개발된 천일염전 등으로 부자의 큰 꿈을 안고 서기 1926년경부터 제1제방, 제2제방, 내동제방, 내4리 붉은노리제방 등을 순차적으로 축조하였으며 작업인부들은 중국인들을 많이 고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지역발전과 식량증산은 된다고 하나 개발 전 이 지역 염분이나 갯벌에 의지하여 생계를 하여 오던 주민들은 완전히 생활터전을 잃게 될 실정에 다다랐다. 특히 수백 년 동안을 경영하여 오던 염전은 삶에 중점이 되었는데 제1제방과 제2제방이 완공됨으로써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다. 이때는 일제가 쌀 생산을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권장하던 사업으로 생활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당장 곤란한 지경이니 앉아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하여 진정서 탄원서 등을 써가지고 염분업자 대표들과 당시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외2리 김씨(당시 20여세) 등이 선두에 나서 부천군수, 도지사, 조선총독부를 찾아다니며 몇 달을 여관에서 침식을 하며 많은 경비를 써 가면서 반대활동을 하였으나 모두가 소용없는 일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임원배는 사재를 투자하여 영흥도의 간척사업을 하였으므로 자기개인소유가 되

었으며 저수지와 간척업, 천일염전 등을 만들어 수천 석의 거부가 되었다.

— 오정윤(동구사 편찬위원회 상임위원)

4. 영종도

1) 현황



영종도 지도

영종도(永宗島)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중구의 섬으로, 동경 126° 31′, 북위 37° 29′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약 103km²이며, 2015년 12월 기준 인구는 60,960명이다. 본래 영종도 본도를 비롯해 삼목도, 신불도, 용유도, 무의도가 군도를 이루고 있었으나, 인천국제공항건설을 위한 매립으로 무의도를 제외하고 모두 매립되어 하나의 섬이 되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연육되기 전 용유도의 면적은 13.6km², 해안선 길이는 48.2km였고, 삼목도는 면적 4.74km², 해안선 길이 12.5km이었다. 영종도는 고려시대부터 제비가 많은 섬이라 하여 자연도(紫燕島)라고 불렸고, 조선시대 남양부의 영종진이 옮겨오면 지금의 이름 영종도를 갖게 되었다. 영종진은 1894년 폐지되었고, 1914년 부천군 영종면과

용유면으로 편제되었다가 1973년 부천군 폐지로 경기도 용진군에 편제되었다. 1989년 인천직할시 중구로 편입되었고, 1995년 인천광역시 중구로 변경되었다. 2012년 영종출장소 운서지소가 행정동 운서동으로 승격되어, 현재의 행정동인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이 갖춰지게 되었다. 영종동은 3개의 법정동(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용유동은 4개의 법정동(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서동에 속한 법정동은 없다.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과 함께 영종도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공항전용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2009년 완공된 인천대교는 송도국제도시와 연결된다. 공항철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구읍벚터에서 인천 월미도 사이를 운행하는 정기선이 있다.

2) 연혁

영종도에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선사시대부터이다. 송산리의 신석기시대 주거지, 운남동의 고인돌, 삼목도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 그 외 영종도에서 발견된 많은 고고학적 자료가 늦어도 신석기시대 말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삼국시대 영종도는 대체로 4세기까지는 백제, 5세기에는 고구려, 6세기 이후는 신라의 영향 아래 있었다. 삼국시대 이 지역은 왕산포구의 조천대라는 지명으로 보아 중국과 내왕하는 기항지로서 기능하였던 것 같다. 통일신라시대 영종도는 한산주에 속하였다.

고려시대에 영종도는 인주(仁州, 인천)에 속하였는데 당시의 명칭은 자연도(紫燕島)였다. 자연도는 섬에 제비가 많아 붙은 이름으로 중국과 왕래의 무대가 되어 중국 남송(南宋)과 무역거점인 경원정(慶源亭)이 설치된 요충지였다. 자연도는 예성강-자연도-고군산도-흑산도-명주를 잇는 명주항로(明州航路)를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 자연도는 죄인의 유배지로도 이용되었다. 1197년(신종 1) 11

월, 자연도에 유배된 고려 공신 두경승 장군이 독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1211년(희종 7) 12월, 최충헌에 의하여 고려 희종이 폐위되어 자연도로 이거하였다는 기록, 1314년(충선왕 1) 대호군 장공윤 또한 자연도로 유배되는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자연도 일대는 1653년(효종 4) 자연도에 영종진이 이전 설치되기 이전까지 인천에 속하였고, 국영 말목장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자연도에는 둘레 25리의 목마장에 358필의 국마가 방목되고 30여 호의 목자가 있었으며, 삼목도에는 둘레 45리의 목마장이 있고, 30여 호의 목자·수군·염부들이 살고 있었다.

1653년 남양부에 있던 영종진의 이전으로 자연도는 영종도라는 지금의 지명을 갖게 되었고, 인천도호부의 부속 도서였던 자연도·삼목도·용유도·신불도·물치도 등의 섬을 관할하게 되었다. 종4품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영종진의 책임자였다. 남양부에 설치된 영종진의 역할은 왜구 격퇴와 관련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병자호란 이후 강화도 방비와 유사시 국왕의 강도 입도 수로의 확보 일환으로 영종진이 자연도로 이전하게 되고 군사상의 비중도 커졌다.

1681년(숙종 7) 영종진의 책임자는 종4품 만호에서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로 승격되었고, 어영청(御營廳)에 배속되었다. 1690년(숙종 16) 영종진의 책임자는 종3품 첨절제사에서 종2품 방어사(防禦使)로 다시 승격되었다. 해양 방어상 영종진의 군사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1715년(숙종 41) 어영청에서 교동수영으로 관할이 바뀌어 배속되었다가, 1758년(영조 34) 다시 교동수영에서 어영청으로 배속되었고, 영종진을 독진(獨鎭)으로 설정하였다. 1653년 남양도호부의 영종진을 자연도(현 구읍벚터)로 이전 설치하면서 조선후기까지 영종진은 강화와 도성의 해상로 방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조선 말 이양선이 출몰하자 영종도는 강화·김포와 함께 한양으로 향하는 수로 방비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1866년(고종 3) 병인양

요 때 프랑스군함이 물치도에 정박하자 영종첨사가 문정(問情)을 하였고, 1868년(고종 33) 4월에는 오페르트 일행이 침입해와 영종첨사 신희철(申孝哲)이 문정을 시도하고, 상륙하자 격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영종진 방비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중앙정부는 오페르트 사건 후 진무영의 군사와 갑곶진에 정박 중인 세곡을 영종진에 지원하였다. 또한 1869년에는 훈련도감에서 화포·총포·화약 등의 무기를 내려주어 방비를 강화하였으며, 1874년에는 흥선대원군이 운현궁에서 별주한 대포·중포·소포를 분급하기도 하였다.

1875년 9월은 영종진이 함락되는 운요호사건이 발생하였다. 9월 20일 일본의 운요호가 강화의 초지진을 공격하고 항산도를 점령, 불을 지른 후 9월 22일 남하하여 영종진을 공격한 것이다. 일본군은 2척의 보트에 보병부대 56명을 나누어 탑승 후 영종도에 상륙하였다. 영종진을 지키는 600여명의 군인은 이에 응전하였지만,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상륙을 막지 못하고 영종진은 점령당하였다. 당시 영종진 군사는 35명이 전사하고 16명이 포로로 잡혔다. 반면에 일본군은 2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귀환 길에 1명이 사망했을 뿐이었다. 영종진을 점령한 일본군은 화포 36문을 비롯한 영종진의 군기(軍器)를 약탈하고 나가사키로 귀환하였다. 조정에서는 전몰자 35명에게 급료와 위문금을 하사하였고, 전몰자 위령제를 시행하였고, 영종진은 폐지되었다. 그 후 같은 해 10월 영종진은 구읍에서 신읍으로 옮겨 영종진을 재설치되는 변화를 겪었으나, 갑오개혁의 과정에서 1894년 영종진은 완전히 폐지되고 인천부의 영종면으로 편제되었다.

일제강점 후인 1914년 영종도 일대는 부천군이 신설되자 부천군 영종면과 용유면으로 편제되었다. 1919년 3월에는 영종지역의 용유도에서 조명원·조종서·문무현·최명교 등이 혈성단을 조직하여 3월 28일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만세시위는 이틀간 계속되었고, 무의도로도 확산되었다.

광복 후 영종지역은 1973년 부천군 폐지와 함께 경기도 용진군에 편

제되었고, 1989년에는 인천직할시 중구 영종동, 용유동으로 편입되었다. 1991년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영종·용유·삼목·신불의 매립이 시작되었고, 1995년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 용유동으로 변경되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통과 함께 영종대교·인천대교·공항철도로 육지와 연결되어 세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3) 지명유래

(1) 영종동

조선시대 인천도호부 관할지역으로 자연도(紫燕島)라 하였는데 1653년(효종 4) 남양부에 있던 수군기지 영종진(永宗鎭)을 이곳으로 옮겨와 용유(龍流), 무의(舞衣), 삼목(三木), 월미(月尾), 신불(薪佛), 물치(勿淄) 등의 7개 섬을 관할하였다. 영종진 첨사는 1680년(숙종 6) 어영별부 천총을 겸임하였고, 1691년(숙종 17)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로 올리고 1779년(정조 3) 좌해방장(左海防將)을 겸임하다 1788년에 수군첨절제사의 직책만 담당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진(鎭)이 폐지되면서 용유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영종면이라 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산·운북·운남·운서의 4개리로 개편되어 경기도 부천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 경기도 용진군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용유면과 함께 인천직할시 중구에 편입되었다.

(2) 운남동(雲南洞)

옛 영종면의 전소리와 외중촌리 일부, 후소리 일부, 송산리 일부를 합친 지역이다. 1914년 운남리라 하여 경기도 부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에 경기도 용진군으로, 1989년 1월 인천직할시 중구에 편입되어 운남동이 되었다.

(3) 중산동(中山洞)

옛 영종면의 구읍리와 송산리 일부, 중외촌 일부를 합친 지역으로 1914년 중산리라 하여 경기도 부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용진군으로 편입되었고, 1989년 1월 인천직할시 중구에 편입되어 중산동이 되었다.

(4) 운북동(雲北洞)

옛 영종면의 북촌리와 예호리, 후소리 일부를 합친 지역으로 1941년 운북리라 하여 경기도 부천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 용진군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1월 인천직할시 중구에 편입되면서 운북동이 되었다.

(5) 운서동(雲西洞)

옛 영종면의 후소리 일부와 삼목리, 신불도를 합친 지역으로 1914년 운서리라 하여 경기도 부천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에 용진군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인천직할시 중구에 편입되면서 운서동이 되었다.

(6) 용유동(龍遊洞)

조선시대 인천도호부 지역의 용유도(龍遊島)로 1663년 영종진이 설치되면서 영종진 용유면으로 개편되었다. 그 후 영종진이 폐지되고 구한말 인천부에 포함되었으며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경기도 부천군에 편입되어 을왕, 남북, 덕교, 무의의 4개 리(里)로 개편되었다. 1973년 용진군에 편입되었고, 1975년 5월(군조례 제341호)에 무의출장소를 두어 1출장소 4개리를 관할하다가 1989년 인천직할시 중구에 편입되었다. 이때 4개 리가 동으로 바뀌었다.

(7) 남북동(南北洞)

인천부 용유면 지역으로 1914년 남리(南里), 북리(北里), 관청말, 날개, 등개, 영구리 등을 병합하여 남북리라 하여 경기도 부천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 용진군 편입되었고 1989년 인천직할시 중구에 편입되

면서 남북동이 되었다.

(8) 덕교동(德橋洞)

인천부 용유면 지역으로 1914년 거잠리, 공댕이, 마시안, 순목개를 병합하여 덕교리라 하여 경기도 부천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 옹진군에 편입되고 1989년 인천직할시 중구에 편입되면서 덕교동이 되었다.

(9) 을왕동(乙旺洞)

인천부 용유면 지역으로 늘목, 또는 얼항, 을항, 을왕이라 하였는데 1914년 목개, 약수, 왕산, 입구지, 장말, 학방재를 병합하여 경기도 부천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 옹진군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인천직할시 중구에 편입되면서 을왕동이 되었다.

4) 옛 기록의 영종도⁷⁾

(1) 지지류

① 1451년 『고려사』 지리지

인주(仁州) 자연도(紫燕島), 삼목도(三木島), 용유도(龍流島)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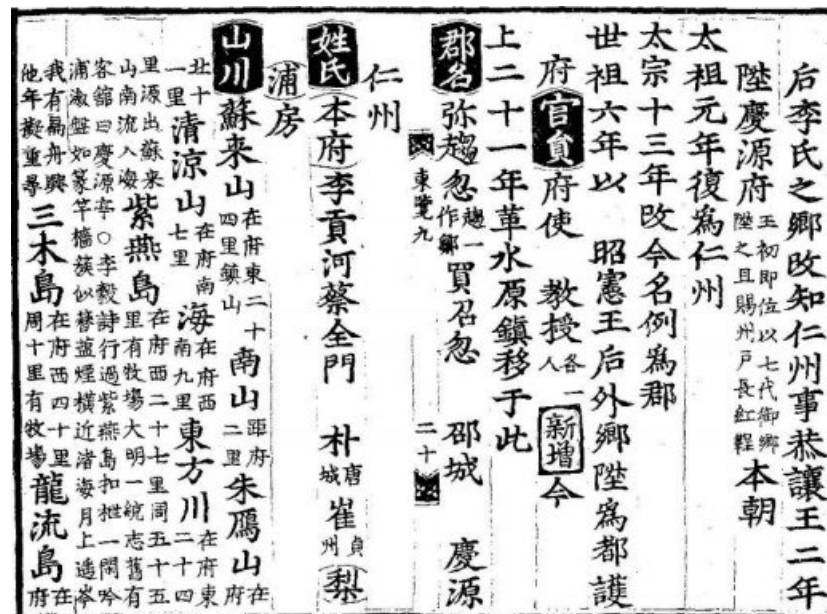
7) 영종도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에 전하고 있으나, 그 양이 방대하여 수록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시대 영종도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읍지는 현재 『여지도서』의 『영종방영도지』(18세기 중엽), 『경기지』의 『영종진도지』(1842~3년), 『영종진읍지』(일제강점기), 『경기읍지』(1871년)와 『기전읍지』(1895년)의 『영종진지』가 있다. 그러나 이들 기록 중 가장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은 『여지도서』이며, 『경기지』의 『영종진도지』는 『여지도서』의 내용을 일부 전제하면서 편찬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이 두 읍지만을 정리하였다. 『영종진읍지』는 『영종진도지』를 전사한 것이고, 『경기읍지』와 『기전읍지』의 『영종진지』는 재정을 정리한 사례에 가까워 신지 않는다.

②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인천군(仁川郡) 자연도(紫燕島) 재물량 서쪽 수로 3리에 있다. 둘레가 25리인데, 나라의 말 3백 58필을 놓아 먹이며, 수군(水軍)·목자(牧子)·염부(鹽夫)가 있는데, 모두 30여 호이다. 삼목도(三木島) 자연도 옆에 있다. 둘레가 45리인데, 수군·목자·염부 30여 호가 살고 있다. 매번 조수가 물러가면 자연도의 말이 서로 왕래한다. 용유도(龍流島) 삼목도 서쪽 수로 5리에 있다. 둘레가 23리인데, 나라의 말 59필을 놓아 먹이며, 수군·목자·염부 20여 호가 살고 있다.

③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천도호부 산천 자연도(紫燕島) 부 서쪽 27리 되는 곳에 있으며 주위가 55리이고 목장이 있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예전에 객관(客館)이 있었는데 경원정(慶源亭)이라 한다.” 하였다. 이곡(李穀)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천도호부 산천

시에, “가다가 자연도를 지나며, 샛대를 치고 한 번 한가하게 읊조린다. 개펄은 구불구불 전자(篆字)같고 돛대는 종종 꽃아 비녀와 같도다. 소금 굽는 연기는 가까운 물가에 비졌고, 바다 달은 먼 멧부리에 오른다. 내가 배타고 노는 흥이 있어, 다른 해에 다시 찾기를 약속한다.” 하였다. 삼목도(三木島) 부 서쪽 40리 되는 곳에 있으며 주위가 10리이고 목장이 있다. 용유도(龍流島) 부 서쪽 55리 되는 곳에 있으며 주위가 25리이고 목장이 있다. 무의도(無衣島) 부 서쪽 57리에 있으며 주위가 28리이고 목장이 있다. 사탄도(沙呑島) 용유도와 서로 연하였으며 주위가 5리이다.

④ 1757~1765년 『여지도서』 「영종방영도지(永宗防營圖誌)」

건치연혁(建置沿革) 영종(永宗)은 옛날에 자연도(紫燕島)라고 불렀다. 숭정 계사년(1653년)에 남양부에 있던 영종진만호(永宗鎭萬戶)를 본 섬으로 옮기고 감목관(監牧官)을 겸하게 하였다. 강희 신유년(1681년)에 첨사(僉使)로 승격시켜 어영청(御營廳)에 속하게 하였다. 바다를 방어하는 긴요하고 중요한 곳이지만 관직이 낮아 조정에서 설치하려는 뜻이 어긋남이 있었으므로 경오년(1690년)에 방어사(防禦使)로 승격시켰다. 을유년⁸⁾(1705년)에 교동수영(喬桐水營)에 속하게 하였다. 무인년(1758년)에 다시 어영청에 소속시켜 독진(獨鎭)으로 만들었다. 형편(形便) 본진(本鎭)은 강도(江都)에서 1식(息)⁹⁾ 거리에 있는 땅으로 땅의 형세는 거북이가 엎드린 모양을 하고 있는데 동쪽이 머리가 되고 서쪽이 꼬리가 된다. 둘러싼 바다가 해자(垓字)가 되고 에워싼 산이 외성(外城)이 되니 강도(江都)의 한 쪽 면을 덮고 있어 적을 막아 지키는 형

8) 영종진이 교동수영에 속하는 시기는 1715년(숙종 41)으로 을유년은 을미년의 오키로 보인다.

9) 1식(息)은 1참(站)이라고도 한다. 1자(尺)는 20cm, 1보(步)는 6자 즉 1.2m, 1리(里)는 420m, 1식(息)은 12.6km이다.

세를 이루고 있다. 조운선(漕運船)과 상선(商船)들은 모두 이곳을 지나니 물길의 인후(咽喉)가 된다. 동쪽으로는 제물진(濟物津)이 있는데 긴급한 때나 혹 겨울에 강도(江都)의 갑곶진(甲串津)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강이 막혀서 뱃길이 통하기 어렵게 되면 인천부(仁川府)에서 본진(本鎭)으로 건너 강도(江都)에 이른다. 남쪽에는 월미도(月尾島)가 있는데 행궁을 지어 위급할 때 머무르는 장소로 삼고 아울러 수군과 육군을 두어 오로지 어가(御駕)를 맞이하여 경호하는 계책으로 삼았다. 서쪽에 용유도(龍流島)가 있어 포구와는 10리 떨어져 있다. 밀물 때는 바다가 되고, 썰물 때는 육지가 된다. 진흙에 사람이 빠지므로 만약 밀물을 만나면 토착인이라고 해도 길을 찾기 어렵다. 형주(荊州)의 하구(夏口)¹⁰⁾와 금릉(金陵)의 채석(采石)¹¹⁾도 이와 같지는 않다. 서울과 경기(京畿)를 돕는 형세로 믿을 만한 것으로는 아직 이곳보다 뛰어난 곳은 없다. 행궁(行宮)은 월미도에 있으며 정남쪽을 향하고 있다. 정전(正殿)은 8칸이고, 동월랑(東月廊)은 4칸이며, 서월랑(西月廊)은 4칸이고, 남월랑(南月廊)은 7칸이다. 수직(守直)간은 3칸이고 내중문(內中門)은 1칸이며 외중문(外中門)은 1칸이다. 옛 임해사(臨海寺) 터이다. 인천부사 윤부(尹攸)가 창건하여 관방(關防)의 대비책으로 삼았다. 그 후 본진(本鎭)의 첨사 한석량(韓碩良)이 중수(重修)하였다. 수직군(守直軍) 3명이 항상 살고 있다. 신역(身役)과 호역(戶役)을 면제 받았다. 진도(津渡) 제물진(濟物津) 진(鎭) 앞에 있다. 동쪽으로 인천 지역과 10리 떨어져 있다. 나룻배는 2척이 있다. 수영에서 수군을 훈련할 때, 바다를 건너는 연습을 하고 수군과 육군의 병사들은 각기 대변선(待變船)에 올라 좌우를 협위(挾衛)하는 등의 절차는 비변사 절목에 의거하여 거행한다.

10) 중국 호북성의 성도(省都)인 무한시(武漢市) 한구(漢口)로 적벽대전(赤壁大戰)의 무대이다.

11) 채석기(采石磯)라 불리는 안휘성(安徽省) 당도현(當塗縣) 우저산(牛渚山) 북쪽 장강의 한 강변이다.

진지폭원(鎭地幅圓) 길이는 동서로 30리이고 너비는 남북으로 10리이며 주위는 70리이다. 경계(境界) 동쪽으로는 인천과 경계를 하고 있다. 물길로 10리 떨어져 있다. 서쪽으로는 바다와 떨어져 있다. 물길로 50리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는 남양(南陽)과 경계를 하고 있다. 물길로 50리 떨어져 있다. 북쪽으로는 강화의 경계를 하고 있다. 물길로 20리, 육로로 80리 떨어져 있다. 북쪽으로는 교동수영과 떨어져 있다. 물길로 180리, 육로로 150리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서울과 떨어져 있다. 물길로 200리, 육로로 80리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는 덕적진(德積鎭)과 떨어져 있다. 물길로 90리 떨어져 있다. 관직(官職) 방어사[무관으로 종2품]는 첨사[무관 종3품]를 겸하며 2년을 주기로 교체된다. 관리하는 읍은 인천, 부평, 안산이다. 영(營)에 소속된 것으로는 중군(中軍) 1명, 파총(把總) 2명, 초관(哨官) 8명, 교련관(敎鍊官) 8명, 기패관(旗牌官) 15명, 대술군관(帶率軍官) 2명, 방영군관(防營軍官) 160명이며 돌아가며 번을 선다. 대변군관(待變軍官) 60명이 돌아가며 번을 선다. 주사장(舟師將) 1명, 군기감관(軍器監官) 1명, 별파진(別破陣) 18명, 영리(營吏) 1명, 진무(鎭撫) 15명, 지인(知印) 12명, 사령(使令) 25명, 취수(吹手) 25명, 관노(官奴) 12명, 관비(官婢) 12명이다. 수·육군병(水陸軍兵) 수군은 279명이다. 인천에 67명, 부평에 94명, 본진(本鎭)에 60명, 통진에 3명, 장단(長湍)에 1명, 양근벌정(楊根罰定) 1명 육군별대군(陸軍別隊軍) 8초, 대기수(大旗手) 48명이다. 선창(船倉) 방선(防船) 2척, 병선(兵船) 2척, 거도선(艍舳船) 1척, 급수선(汲水船) 4척이다. 번고에 대비한 군량미는 150섬이고 찌쌀은 6섬이고, 미수가루는 3섬이다 [3년 안에 바꾼다]. 장은 27섬이고 [5년 안에 바꾼다], 소금에 절인 준치는 20속이며, 뱀등이젓갈[蘇魚醃]은 500급이다[매년 바꾼다]. 토화(土花)젓은 4섬 11두이고 [3년 안에 바꾼다], 숯은 100섬이다[백운산(白雲山) 구담사(瞿曇寺) 입구에 묻는데, 진(鎭)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산과 바다 백운산(白雲山): 진(鎭)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있다. 금산(禁山)이다. 석화산(石花山): 진(鎭)

에서 서쪽으로 5리 떨어진 곳에 있다. 왕산(王山): 진(鎭)에서 서쪽으로 40리 떨어진 용유도에 있고 금산(禁山)이다. 대산(大山): 진(鎭)에서 북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있다. 금산(禁山)이다. 송산(松山): 진(鎭)에서 남쪽으로 7리 떨어진 곳에 있다. 팔미해(八尾海): 진(鎭)에서 남쪽으로 물길로 50리 떨어진 곳에 있다. 뱃길의 인후(咽喉)이다. 무근해(無根海): 진(鎭) 앞에 있다. 호도양(虎島洋): 진(鎭)에서 북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에 있다. 황산양(黃山洋): 진(鎭)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강도로 가는 입구이다. 왕산곶해(王山串海): 진(鎭)에서 서쪽으로 60리 떨어진 곳에 있다. 여러 섬 물치도(勿淄島)¹²⁾: 진(鎭)의 북쪽 5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다. 신불도(薪佛島): 진(鎭)에서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람이 산다. 용유도(龍流島): 진(鎭)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람이 살며 목장이 있다. 호도(虎島): 진(鎭)에서 북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부평과 경계를 이룬다. 팔미도(八尾島): 진(鎭)에서 남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다. 삼목도(三木島): 진(鎭)에서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람이 산다. 무회도(無懷島)¹³⁾: 진(鎭)에서 남쪽으로 55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람이 살고 목장이 있다. 방리(方里) 영하방(營下坊)¹⁴⁾ 전소방(前所坊)¹⁵⁾: 진(鎭)의 서쪽 10리 떨어진 곳에 있다. 후소방(後所坊)¹⁶⁾: 진(鎭)의 서쪽 20리 떨어진 곳에 있다. 삼목방(三木坊): 진(鎭)의 서쪽 30리 떨어진 곳에 있다. 용유방(龍

12) 지금의 작약도이다. 영종도 동북방에 자리 잡고 있는 면적 69,000㎡의 작은 섬으로 영종진에 뿔나무를 공급하던 수목지였다.

13) 용유도 남쪽의 무의도(舞衣島)를 말한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무의도(無衣島)로 표기하고 있다.

14) 엽말, 여앗말, 영아랫말로 불리운 돌팍재의 동쪽, 舊 영종진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다.

15) 운남동의 으뜸 되는 마을이다. 고종 12년(1875) 운요호사건으로 구읍에 있던 영종진이 백운산 아래 현 영종중학교 자리로 옮겨진 후에는 신읍(新邑)으로 불리었다.

16) 넓디, 넓티, 廣洞, 廣峴里, 後所, 후수로도 불리는 현 운서동 가막골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流坊): 진(鎭)이 서쪽 40리 떨어진 곳에 있다. 리임(里任)이 있는데 풍헌(風憲)¹⁷⁾ 1명, 약정(約正)¹⁸⁾ 5명, 존위(尊位)¹⁹⁾ 5명이다. 호구(戶口) 기묘식(己卯式)²⁰⁾ 호적에 의하면 850호(戶)에 인구 3,038명이다. 남자는 1,591명이고 여자는 1,447명이다. 성씨(姓氏) 경주 정(鄭)씨, 문화 류(柳)씨, 밀양 박(朴)씨, 하음 전(田)씨, 창원 유(兪)씨, 김해 김(金)씨, 파평 윤(尹)씨, 전주 이(李)씨 순흥 안(安)씨, 고령 신(申)씨, 청송 심(沈)씨, 안동 권(權)씨, 남양 홍(洪)씨, 창원 황(黃)씨, 양천 허(許)씨, 거창 신(愼)씨, 강릉 함(咸)씨, 창녕 조(曹)씨, 인동 장(張)씨. 풍속(風俗) 농사에 힘쓰고 물고기와 소금으로 이익을 얻는다. 토산(土產) 천초(川椒)²¹⁾, 바다 쑥[海艾], 흰 소금, 민어, 숭어, 준치, 뱀뱀이, 농어, 석어(石魚), 상어, 낙지, 홍어, 해양(海臙)²²⁾, 미네굴, 참굴, 생 대합(大蛤), 맛조개, 가무락조개, 조기[石首魚], 명승(名勝) 태평암(太平巖), 용유기암(龍溜妓巖): 고려사신이 중국에 갈 때 이곳을 통해 등주와 내주로 갔다. 배가 뜨기에 알맞은 바람을 기다리다가 배에 오를 일이 돌아오자 기녀는 이별의 정을 이기지 못해 바위에서 떨어져 죽어 그 바위에 이렇게 부른다. 백사장의 해당화(海棠花), 왕산(王山)에서 보이는 바다. 당산(唐山)의 낙조, 순지(蓴池)의 순채(蓴菜)²³⁾ 채집, 백암(白巖)의 조수 기다리기. 관사(館舍) 영해관(領海館), 양해당(量海堂), 태평루(太平樓), 정원정(慶源亭): 옛날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교량(橋梁) 만세교(萬歲橋): 진(鎭)의 서쪽 2리쯤에 있으며 돌로 쌓았다. 길이는 60파(把)이고 넓이는 2파(把)이다. 구담사(瞿曇寺)의 승장(僧將) 해명(海明)

17) 조선시대 면내의 수세(收稅)·차역(差役)·금령(禁令)·권농(勸農)·교화 등 일선의 행정실무를 주관하였다.

18) 조선시대의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 조직의 임원이다.

19) 조선시대 각 동리의 자치조직인 동약(洞約) 혹은 동회(洞會)의 우두머리이다.

20) 己卯年은 영조 35년(1759)이다.

21) 천초(川椒)는 조피라고도 하며, 상납품 약재로 유명했다.

22) 해파리로 추정된다.

23) 수련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수초를 말한다.

이 옛 터에 증축하였고 다리 이름을 비석에 새겨 세웠다. 사찰(寺刹) 구담사(瞿曇寺): 백운산(白雲山)에 있으며 승장(僧將)이 1명이다. 요미(料米)는 6두인데 대동미에서 내어준다. 요망(瞭望)을 보는 승려는 3명: 황당선(荒唐船)²⁴⁾을 감시한다. 목장(牧場) 용유도(龍流島) 목장 진(鎭)에서 서쪽 4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길이는 15리이고, 넓이는 5리이다. 목장에 있는 말은 88필이다. 암말이 39필이고 수말이 49필이다. 목자(牧子) 72명과 임시 가옥 15칸이 있다. 7칸은 목장 안에 있으며 8칸은 북정(北井)에 있다. 교곡초(郊穀草)²⁵⁾: 4천속이고 목자(牧子)가 쌓아두는 일을 담당한다. 표내(標內)의 전답(田畓)은 총 18결 72부이다. 목자(牧子)의 위전(位田)으로 지급한다. 무회도(無懷島) 목장 진(鎭)에서 남쪽으로 55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길이는 15리이고 너비는 10리이다. 목장의 말은 109필이다. 암말이 49필이고 수말이 64필이다. 목자(牧子) 28명과 임시 가옥 5칸이 있다. 교곡초(郊穀草)는 2천속이고 목자(牧子)가 쌓아두는 일을 담당한다. 표내(標內)의 전답(田畓)은 총 1결 86부이다. 목자(牧子)의 위전(位田)으로 지급한다. 두 섬에서 기르는 말은 197필이다. 암말은 88필인데 매년 암말 세 마리에 대해서 새끼 한 마리를 바치는 것을 점고(點考)하여 기록한 다음 본 관청(사복시)에 보고한다. 신불도(薪佛島)의 옛 목장: 장봉진(長峯鎭)으로 기르던 말들을 옮긴 후 백성들이 농사짓는 것을 허락하니 전답이 모두 2결 80부인데 매년 본 관청으로 세금을 낸다. 봉진(封進) 목장의 말 1필이다. 매년 두 섬에서 기르는 말 중 별도로 택한다. 8월에 말을 뽑아서 길들이고 다음해 4월 본관청에 상납한다. 본 관청의 분양마(分養馬)는 모두 본 관청에서 알아서 나누어 뽑아 보낸다. 한전(旱田) 111결 25부이다. 5결은 본진(本鎭)에서 세금을 거두는 용도로 획급(劃給)하여 군수

24) 조선 중기 이후에 ‘이국선(異國船)’을 달리 이르던 말. 모양이 눈에 설어서 황당한 것이라는 뜻이다.

25) 들풀과 곡초(穀草)를 말한다.

물자를 보충하였으므로 실제 결수는 106결 25부이다. 수전(水田) 58결 60부이다. 5결은 본진(本鎭)에서 세금을 거두는 용도로 획급(劃給)하여 군수물자를 보충하였으므로 실제 결수는 48결 60부이다. 세미(稅米) 12섬 14말, 콩 28섬 5두 4되이다. 2월에 받고 3월에 지토선(地土船)²⁶)으로 짐을 꾸려 옮기고 진(鎭)에서 무근해(無根海)로 내려가는데 강화 손돌목을 지나 갑곶진에서 정박하였다가 밀물을 기다려 서강(西江)에 이르러 광흥창(廣興倉)²⁷)에 납부한다. 대동(大同) 쌀은 123섬 14말 5되이다. 본진(本鎭)에서 거두어 비변사에 준다. 방어사의 녹봉과 각 향(項)의 녹봉은 매달 1일 9섬 2말 9되인데 줄 것과 받을 것을 서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셈하여 취해 쓴다. 1년에 방출하는 것은 110섬 4말 8되이며 나머지는 쌀 13섬 9두 9승이니 배를 바꾸고 고칠 때를 기다려 방출한다. 창고(倉庫) 영(營)의 창고에는 환곡미(還穀米) 449섬 8말이 있다. 비변사에 회부(會付)된 것은 437섬 12말이며, 진휼청에 회부(會付)된 것은 11섬 11말 4되이다. 둔창(屯倉) 환조(還租)는 639섬 4말이다. 비변사에 회부된 것이 456섬 5말, 진휼청에 회부된 것은 182섬 10말이다. 태(太)는 187섬 3말이다. 비변사에 회부된 것은 82섬 9말, 진휼청에 회부된 것은 104섬 14말이다. 콩은 43섬 10말이다. 비변사에 회부되었다. 봄보리[春麥]는 717섬 1말이다. 비변사에 회부된 것이 612섬이고, 진휼청에 회부된 것이 104섬 10말이다. 메밀[木麥]은 121섬이다. 비변사에 회부된 것이 84섬 7말이고, 진휼청에 회부된 것이 36섬 8말이다. 모두 합하여 2,217섬 11말이다. 절반은 창고에 있고 절반은 봄에 나누어 준다. 10월에 창고를 열었다가 12월에 거둔 후에 창고를 봉한다. 목창(牧倉) 환조(還租)는 206섬 11말, 봄보리는 363섬, 모두 합하여 569섬 11말이다. 사복시가 관리한다. 용유도(龍流島)와 무회도(無懷島) 두 목장의 목자가 (이것을) 받아먹는데 창고(倉庫)의 물건

26) 지방 토착민이 소유한 배를 말한다.

27)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있던 세곡을 저장하였던 창고이다.

(物件)을 다 내놓아 나누어 주고 가을을 기다려 돌려받는다. 창고는 용유도(龍流島)에 있다. 병고(兵庫) 돈[錢文]은 837냥이다. 558냥은 수군 279명이 각 사람마다 1필을 돈2냥으로 대신하도록 정한 것이며, 바치는 279냥은 수군이 1필을 줄이는 대신 매년 균역청에서 받아오는 것이다. 무명[白木]은 7동 34필이다. 물건 대신 주는 돈 768냥이다. 매년 병조에서 받아온다. 모두 합하여 1,605냥이다. 방군(防軍) 32명은 각 사람마다 매달 3냥 6전 7푼씩이며, 매달 나가는 돈의 액수는 117냥 3전 4푼씩이고, 1년 12달 나가는 돈의 액수는 1408냥 8푼이다. 남은 돈 196냥 9전 2푼으로 군수물자를 보충한다. 균역(均役) 관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명목으로 돈 81냥 6전은 지토선(地土船) 32척에 대한 세금이고, 돈 228냥 9전은 소금을 굽는 솥 31개에 대한 세금이며, 돈 10냥은 어장(漁場) 1곳에 대한 세금이고, 돈 11냥은 그물틀 17개에 대한 세금이다. 모두 합하여 332냥 4전 이나[60냥은 절목에 의거하여 변고에 대비하는 용도로 쓰고, 장과 짓갈은 본래 가격에서 33냥을 깎고 세금을 10분의 1로 하여 본진에 획급(劃給)한다], 실제 받는 돈은 239냥 2전이다[봄과 가을로 나누어 거두어들여 해당관청에 상납한다]. 봉름(奉廩)²⁸) 쌀 60석 : 매달 초 1일 5섬씩 주기로 정하였다. 대동미에서 쓰고 나중에 회감(會減)²⁹) 한다. 생뽕고기 20마리, 생닭 120마리: 대호(大戶)는 날 꿩고기 1마리를 바치고, 중호(中戶)는 닭 1마리를 바치고, 소호(小戶)는 닭 반마리를 바치도록 정하였고 1년에 1번만 바치도록 정하였다. 잡목 2,200속, 초(草) 600속, 숯[炭] 27섬: 결역(結役)³⁰)으로 매번 잡목10속, 풀 10속, 숯 10두를 준다.

28) 관리(官吏)에게 봉급(俸給)으로 주는 쌀로 늬봉(廩俸)이라고도 한다.

29) 줄 것과 받을 것을 마주 셈쳐 보아서 나머지를 셈하는 것을 이른다.

30) 조선시대 결세(結稅) 중에서 경저리(京邸吏), 영저리(營邸吏)들에게 내어 주던 급료(給料)이다.

⑤ 1842~1843년 『경기지』 「영종진도지」

건치연혁(建置沿革) 형편(形便) 행궁(行宮) 폭원(幅圓) 토산(土產) 목장(牧場) 31) 군총(軍摠) 방영(防營) 군관이 277명, 대변(待變) 군관이 300명, 별파진(別破陣)이 18명, 별대군(別隊軍)이 5초 575명, 중군수솔(中軍隨率)이 32명, 파총수솔(把摠隨率)이 24명, 대기수(大旗手)가 48명, 취수(吹手)가 25명, 순뢰(巡牢)가 27명이다. 수군 279명 내 인천에 74명, 부평에 97명, 통진에 90명, 김포에 5명, 교하(交河)에 8명, 고양에 10명, 장단(長湍)에 6명, 송도(松都)에 5명, 남양에 2명, 양근(楊根)에 1명, 경중(京中)에 2명, 영종진에 60명이 있다. 전선(戰船) 방선(防船) 2척, 병선(兵船) 2척, 거도선(艇舠船) 1척, 급수선(汲水船) 4척, 제물진을 왕래하는 참선(站船) 2척, 조세선(漕稅船) 호송선(護送船) 1척, 지토선(地土船) 34척. 방곡(坊谷) 영하면(營下面) : 관(官)으로부터 1리 떨어져 있다. 전소면(前所面) : 관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후소면(後所面) : 관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삼목면(三木面) : 관으로부터 서쪽으로 30리 떨어져 있고, 사이에 5리 되는 포벌(浦洑)이 있는데, 밀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고, 썰물이 되면 육지가 된다. 용유면(龍流面) : 관으로부터 서쪽으로 40리 떨어져 있고, 사이에 10리 되는 포(浦)



1842~3년 『경기지』의 「영종진도지」

31) 건치연혁(建置沿革), 형편(形便), 행궁(行宮), 폭원(幅圓), 토산(土產), 목장(牧場)은 여지도서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어 수록하지 않았다.

가 있다. 무의도(舞衣島) : 관으로부터 서쪽으로 50리 떨어져 있고, 사이에 5리 되는 진(津)이 하나 있다. 영종진[本鎮]으로부터 동쪽으로 인천 경계 제물진과 수로로 10리 떨어져 있고, 또한 서울과 육로로 80리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 부평과 수로로 20리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 남양 경계와 수로로 100리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 덕적진(德績鎭)과 수로로 300리 떨어져 있다. 서쪽으로는 망망대해[茫茫大洋]에 임하고, 북쪽으로는 강화 경계와 수로로 80리 떨어져 있다. 호총(戶摠) 지난 경자식(庚子式, 1840)에 따르면 원호(元戶)는 869호이다. 인구는 남정(男丁), 여정(女丁)을 아울러 2,769명이다. 명산(名山) 석화산(石花山) : 진에서 5리 떨어져 있다. 송산(松山) : 진에서 남쪽으로 7리 떨어져 있다. 백운산(白雲山) : 진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대산(大山) : 진에서 북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왕산(旺山) : 진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져 있다. 휴곶산(鵝串山) : 진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져 있다. 무의산(舞衣山) : 진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져 있다. 대천(大川) 동강천(東江川) : 진에서 서쪽으로 7리 떨어져 있다. 당곡천(堂谷川) : 진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아사(衙舍) 정세당(淨洗堂) : 동헌(東軒)이 서좌묘향(西坐卯向; 동향)이다. 내아(內衙) : 서좌묘향(西坐卯向)이다. 태평헌(太平軒) : 1842~1843년 『경기지』 「영종진도지」의 지도 패장청(牌將廳)이 자좌오향(子坐午向; 남향)이다. 중영(中營) : 서좌묘향(西坐卯向)이다. 객사(客舍) 영해관(領海館) : 서좌묘향(西坐卯向; 동향)이다. 사찰(寺刹) 구담사(瞿曇寺) : 백운산에 있고, 진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승장(僧將) 1명이 있다. 급료로 매달 쌀 6말씩을 주고, 규정상 비변사에 의해 증감된다. 요망(瞭望) 막사는 백운산 위 구담사에 있고, 승도 중 1명이 서남해를 요망(瞭望)하고, 황당선이 표류하거나 정박하는지 유무를 살핀다. 결총(結摠) 신축조(辛丑條)에 따르면 실전(實田)은 102결 13부(負)이고, 논은 77결 82부 1속(束)이다. 창우(倉宇) · 영고(營庫) : 환곡을 들이는 창고 · 병고(兵庫) : 공전(公錢)을 들이는 창고 · 호고(戶庫) : 관수미(官需米)를 들이는 창고 · 황고(黃庫) : 소에 관한 조

세를 들이는 창고·본둔창(本屯倉): 탈곡하지 않은 갯가지 환곡을 들이는 창고·군기고(軍器庫): 군 물자를 들이는 창고·육물고(陸物庫): 배 위의 번물(汴物)을 들이는 창고·화약고(火藥庫): 화약을 들이는 창고 이상은 모두 영종진 내에 있다. 목창(牧倉): 진에서 서쪽으로 40리 떨어져 있고, 용유도(龍流島) 감목관 소관으로 각 환곡을 들인다. 제언(堤堰) 비변사언(備邊司堰): 진에서 서쪽으로 2리 떨어져 있다. 대언(大堰): 진에서 북으로 3리 떨어져 있다. 대왕평언(大王平堰): 진에서 서쪽으로 5리 떨어져 있다. 한천언(寒泉堰): 진에서 서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통산언(桶山堰): 진에서 서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소교언(小橋堰): 진에서 서쪽으로 5리 떨어져 있다. 동강언(東江堰): 진에서 서쪽으로 7리 떨어져 있다. 청다라언(靑多羅堰): 진에서 북쪽으로 7리 떨어져 있다. 명현묘소(名賢墓所) 고려 왕릉³²⁾이 진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진 용유도에 있다. 전진유지(戰陣遺址) 교장기(教場基): 진에서 서쪽으로 2리 떨어져 있다. 옛 교장기: 진에서 서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⑥ 1860년 『대동지지(大東地志)』

- 인천도호부 목장 용류도(龍流島)·무의도(無衣島)
- 영종포진 효종4년(1653년) 남양(南陽)의 영종포만호(永宗浦萬戶)를 자연도(紫燕島)로 옮겼다. 숙종 6년(1680년) 어영별후부천총(御營別後部千總)을 겸하였다. 어영(御營)에 전속(專屬)한다. 17년(1691년) 수군방영(水軍防營)을 두었다. 방어사를 겸하였다. 영조 17년(1741년)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로 올랐다. 정조 3년(1779년) 좌해방장(左

32) 고려 희종은 최충헌에 의해 강화도로 귀양을 간 후 영종도로 유배지를 옮겼다. 후에 송도 부근으로 옮겼다가 희종의 재위 움직임이 보이자 다시 용유 남북동 천택골에 유배되었다가 승하하였다. 희종의 유해가 안장된 곳이 문헌기록에는 강화 교동으로 확인되나, 용유도 왕산리 통계에도 이와 관련된 전승이 있다. (『영종·용유 향토지』, 영종·용유 향토지발간회, 1992, 289쪽)

海防將)을 겸하게 하였다가 12년(1788년)에 감(減)하였다. 관원(官員) 수군첨절제사 경기수군방어사와 인천감목관을 겸하였다. 1명 전소(前所): 서쪽에서 처음이 7리이고 끝이 10리이다. 방리 후소(後所) 서쪽에서 처음이 10리이고 끝이 12리이다. 삼목(三木) 서쪽에서 처음이 12리이고 끝이 30리이다. 무의(無衣) 서쪽에서 처음이 40리이고 끝이 45리이다. 용유(龍流) 서쪽에서 처음이 35리이고 끝이 40리이다. 자연도(紫燕島) 동쪽으로 인천까지는



1842~1843년 『정기지』 「영종진도지」의 지도

25리 떨어져 있고 서울까지는 85리 떨어져 있다. 주위는 55리이고 중앙에 백운산(白雲山)과 석화산(石花山)이 있으며 포구의 물살은 세차게 회전한다. 땅은 매우 비옥하며 주위에 고기와 소금이 나서 강도(江都)의 외호(外戶)로 삼았으며 남쪽에서 오는 조운선들이 지나가는 이후이다. 용유도(龍流島) 동쪽으로 자연도에서 25리 떨어져 있고 왕산(王山)과 여기암(女妓岩)이 있으며 포구 가까이에 돌로 된 돈대가 있는데 이름을 조천대(朝天臺)라고 하니 즉 신라가 당나라로 가던 길이다. 도서 서북쪽에 사탄도(沙呑島)³³⁾가 있는데 썰물때 육지와 연결된다. 삼목도(三木島): 동쪽에서 자연도와 15리 떨어져 있고 서쪽으로 용유도와 10리 떨어져 있으며 썰물이 되면 건너간다. 무의도(無衣島): 북쪽으로 용유도와 15리 떨어져 있고 산은 매우 높고 완만하다. 섬남쪽에 자월도(紫月

33) 현재 영종도에서 연륙도로로 이어져 있는 잠진도이다.

島)가 있으니 고려사에서 말하는 단월도(袒月島)이다. 월미도(月尾島): 섬 동남쪽에 행관(行館) 있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의하면, “옛날에 객관(客館)이 있었으니 경원정(慶源亭)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³⁴⁾라고 하였다. 신불도(薪佛島): 무의도 동북쪽에 있다. 물지도(勿淄島) 진(鎭)의 동북쪽에 있다. 응도(應島) 물치(勿淄)의 북쪽에 있다. 옛성 진(鎭)의 서쪽으로 1리 떨어진 곳에 토성을 쌓은 흔적이 있다. 창고 두 개: 진(鎭) 안에 있다. 용창(龍倉) 용유에 있다. 어물(魚物): 인천과 같다. 소금과 썩. 다양한 전합이 9척이 있다. 요망(瞭望) 백운산(白雲山)에 있다. 목장(牧場): 용유도와 무의도에 있다.

병인양적(丙寅洋賊: 1866년의 병인양요) 후에 축성하였다. 무진년(1868년) 봄에 양적(洋賊)이 영종(永宗)에 침입하자 첨사 신표철(申孝哲)이 그들을 역습하여 7명을 죽였다.³⁵⁾

⑦ 1899년 『인천부읍지』 「산천」³⁶⁾

자연도 · 삼목도 · 용유도 · 무의도 국초에는 모두 본부(인천)에 영종진에 이속되었다.

(2) 옛 지도

① 1750년대 『해동지도』

영종도의 규모를 둘레는 70리이고, 조수가 물러나면 삼목 · 신불 · 용유 · 무의도는 육지가 되어 서로 이어지는 현상을 기재하고 있다. 영종진의 태평루, 아사(衙舍), 객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흑석산 · 석화산 ·



1750년대 『해동지도』 영종진

백운산 · 대산 · 수덕봉(壽德峰)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중 백운산과 대산은 금산임을 나타내고 있다. 옛 중심지는 고목창(古牧倉) 구담사 옛 자연현 터가 있다. 삼목도와 신불도는 사람이 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기재사항은 없다. 용유도에는 목장 · 옥산(금산) · 휴곶(鵠串)이, 무의도에는 목장과 금산만 표시되어 있다. 영종도의 현황을 기록한 지도의 주기는 다음과 같다. 영종에서 동쪽으로 월미도와 무치(茂淄, 작약도)가 5리이고, 제물진은 7리이다. 동남으로는 화량의 불도 · 선감도 · 영흥도에 이르는데 60리다. 서남으로는 소홀도에 이르는데 70리다. 이 모두가 영종의 가운데 문호이다. 남으로는 안흥 앞의 바다가 120여 리이고, 서쪽으로는 덕적 · 승황 · 소야 등의 섬에 이르고 90여 리로 영종의 바깥 문호(門戶)이다. 북으로는 향산도가 13리이고, 손돌항이 20리, 덕포진이 20리이고 이곳에서 북으로 문수산성이 40리이다. 서남으로는 무의도에 이르고 33리이다. 남으로는 팔미도에 이르고 30리이다. 서쪽으로는 장봉진에 이르고 30리, 주문진은 60리다. 북으로는 강도 초지진에 이르고 20리이다. 강물이 열면 대가(大駕)가 강도로 행차할 때 인천의 제물진을 거쳐 거동을 월미도행궁에서 멈춘 후 영종 앞

34) 경원정(慶源亭)은 영종도에 있는 것으로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의 저자가 월미도의 행궁을 영종도의 경원정(慶源亭)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35) 본문 상단에 있는 주석이다. 1868년(고종 5) 4월 윌페르트 일행의 영종진(永宗鎭) 상륙 때 교전한 사건이다.

36) 1842년 『인천부읍지』와 1842년 『경기지』 · 1871년 『경기읍지』의 「인천부」 산천의 관련기록은 모두 동일하다.

바다를 건너 만세교를 넘어 청니(靑泥, 갯벌)를 지나 동검도 앞의 작은 포구로 건너간다. 강도의 거리는 영종에서 20리고, 조수가 물러나면 동검도 앞의 작은 포구 외에는 모두 저여(沮洳, 수렁)와 갯벌이다.

② 18세기 중엽 『해서경기해로도』

영종도의 본섬에는 영종방영, 태평루, 석화산·대산(봉산)·백운산, 전소면·후소면 등이 표시되어 있고, 옛 자연현의 터가 표시되어 있다. 삼목도와 신불도는 인가가 있음이 표시되어 있고, 용유도는 섬의 규모는 둘레 10리, 목장의 규모는 둘레 4리로 표시되어 있다. 무의도는 섬의 규모는 둘레 40리로 기록하고 있고, 목장의 존재만 표시하고 있다.

지도 제작 당시 영종도의 상황을 기록한 주기(注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종도는 고려의 자연현이다. 초기에 목장에 모민하여 기경하였고, 계사년 영종만호진을 설치하고, 그 후 신유년 강도의 입구라 첨사로 올리고, 경오년에 이르러 방어사로 올렸다. 본 섬의 지세는 거북이형으로 동으로 머리를 서로 꼬리를 두고 있는 형상이다. 둘레가 70리고 4면에 갯벌이 있어 사람이 통행하기가 어렵고, 배 또한 대기 어렵다. 인호는 850호, 기경전은 120결, 기경답은 76결, 방선 2척, 병선 2척, 거도선 1척, 급수선 3척, 진선 2척이다. 수군은 281명이고, 인천·



18세기 중엽 『해서경기해로도』의 영종도

부평·안산 3읍의 별대군 8초가 본도에 있다.

③ 1861년 『대동여지도』의 영종도

영종진이 자연도에는 백운산, 송산, 석화산이 표시되어 있고, 삼목도와 신불도는 섬의 위치만이 표시되어 있다. 용유도에는 왕산·조천대·둔전·목장이, 무의도에는 목장만 표시되어 있다.



1861년 『대동여지도』의 영종도

④ 1872년 『지방지도』 영종진

지도의 기재 내역은 앞의 지도들과 비슷하나 백운산에는 봉화대, 경오년에 신축한 토성 3곳이 표시되어 있고, 성현에는 왜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영종진의 외성과 내성, 동·서·남·북 문의 위치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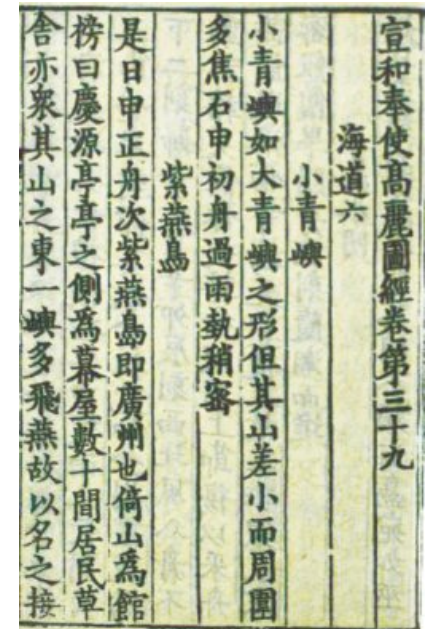


1872년 『지방지도』 영종진

⑤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9, 바닷길 자연도(紫燕島)

이날 오후 4시[申正]에 배가 자연도에 머무르니, 이곳이 곧 광주(廣州)이다. 산에 의지하여 관사[館]를 지었는데, ‘경원정(慶源亭)’이라는 방문[榜]이 있다. 경원정 곁으로는 막사[幕屋] 수십 칸이 있으며, 거주하는 백성의 초가집도 역시 많다. 그 산 동쪽에 섬 하나가 있는데, 제비가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도라 이름했다. 점반 윤언식(尹

彦植)과 지광주(知廣州) 진숙(陳淑)이 개소(介紹)와 역관 탁안(卓安)에게 서찰을 가지고 와서 맞이 하도록 했는데, 의장대의 의례[兵仗禮儀]가 매우 정성스러웠다. 오후 5시가 다 되어[申後] 비가 그 치자 정사·부사가 삼절(三節)과 함께 육지에 올라 관사에 이르렀다. 그 음식과 상견례는 전주에서의 의례와 같았다. 오후 10시쯤[二刻]을 지나자 배로 돌아갔다. 10일 신묘일 오후 8시쯤[辰刻] 서북풍이 불어 8척의 배가 움직이지 못했다. 도할관 오덕휴(吳德休)와 제할관 서궁(徐兢)이 상절과 함께 다시 채주(采舟)를 타고 관사에 갔다가 제물사(濟物寺)에 들렀다. 제물사에서 원풍(元豐)³⁷⁾ 연간의 사신인 고(故) 좌반전직(左班殿直) 송밀(宋密)을 위해 승려들에게 공양을[飯僧] 마친 후 배로 돌아갔다. 오전 10시쯤[巳刻]에 조류[潮]를 따라 전진하였다.



『선화봉사고려도경』 「해도」6 자연도

5) 문화유산

(1) 송산선사유적지

영종도 남쪽 송산마을의 해안가 모래언덕 위에 있는 유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해양탐구학습장 안에 있다. 맨 아래의 검은 모래층

³⁷⁾ 송(宋) 신종(神宗)의 연호(年號)로 1078~1085년이다.

에 신석기시대의 문화층이 포함되어 있고, 위의 노란 모래층은 청동기 시대 문화층이며, 맨 위의 표토층은 초기철기시대-고려시대의 문화층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유적의 중심층위인 검은 모래층에서는 700㎡의 발굴면적 내에서 21기의 화덕자리가 발견되었다. 화덕자리의 형상은 원형 또는 타원형이며, 편암계통의 자갈돌을 깔아 화덕을 만들었고, 규모는 가장 큰 것이 장축 0.7~4.9m이고, 1~1.5m 크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출토유물로는 빗살무늬토기편과 석촉, 연석(硯石), 흑요석, 수정새끼개 그리고 토제방륜차, 어망추 등이 화적자리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청동기시대의 문화층에서는 무문토기편, 마제석검편, 마제석부편 등이 발견되었다. 그 외에 표토층에서 타날문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고려청자편도 일부 발견되었다. 이 유적은 주거지는 발견되지 않고 오직 화덕자리만이 밀집 분포된 상태로 발견된 특이한 생활유적이다. 빗살무늬토기와 화덕의 자갈돌을 깔 형식은 가까운 운서동 삼목도 유적과 시흥 오이도 유적 등과 공통점이 있다.

(2) 삼목도 선사주거지

삼목도 선사유적지는 중구 운서동 1830번지 일대에 분포된 신석기유적이다. 중서부 내륙의 암사동 유적을 제외한 서해 도서 지역에서 확인된 최대 규모(17기)의 신석기 주거지이다. 기존의 패총 중심의 조사와 연구에서 벗어나 도서 지역에서의 취락을 통한 생업 및 주거 양식에 대



삼목도 선사주거지(8호) 출토 빗살무늬토기



삼목도 선사주거지 5호

한 중요한 연구 자료로 인정받았다. 서해안 일대의 유적들은 내륙 주민들이 식량 또는 자원을 얻기 위해 도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단기간 거주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을 부정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유적지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수혈주거지 17기, 수혈 1기, 적석유구 1기와 조선시대 구들 1기 등이 확인되었다. 2006년 9월 11일 인천광역시 지정기념물 제55호로 지정되었다.

(3) 을왕동 1유적

유적은 “을왕동 유물산포지4”가 위치한 해남이에서 약 400m 가량 동쪽에 있다. 2002년 용유지역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남북동유적과 함께 발굴조사 되었다.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2기와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패각층은 바다에 면한 사면 하단부에서 소규모로 확인되었고, 상부에서 원삼국시대 토기편이 출토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유구는 없었다. 패각층은 굴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자는 신석기시대 후기의 유적으로 보고 있다.

(4) 남북동 유적

을왕동 1유적에서 1km 떨어진 동쪽에 긴장골이라는 동서방향 해안가의 역삼각형 사구 서남쪽에 밭 경작지 일대이다. 을왕동 I 유적과 같이 2002년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다.

88기의 야외노지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82기가 신석기시대 것으로 유적의 북측에 군집을 이루며, 중서부 최대규모의 신석기시대 야외노지이다. 용유도 I 유적과는 달리 패층이 확인되지 않아 조개류를 조리 하던 자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소량의 빗살무늬토기와 마연된 소형 단인석부와 석촉이 출토되었다.

시기는 영종도 송산유적이거나 삼목도 I 유적과 유사한 시기로 추정된다.

(5) 을왕동 2유적

2004년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조사된 곳으로 을왕동 Ⅱ유적으로 명명한다. 용유중학교를 지나 을왕리해수욕장으로 가다보면 도로의 오른쪽에 공동묘지를 지나 삼거리가 나온다. 이 삼거리가 위치한 곳에 바닷가를 내려다보는 구릉 사면 중단(해발 50m)



을왕동 2유적 집자리

에 방형계 주거지 2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2기 모두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1호 주거지는 586×470×41cm로 장축 방향을 따라 2열로 배치된 주혈과 저장혈, 노지가 확인되었고, 횡주어골문계 빗살무늬 토기편 소량과 길이 10cm 내외의 자갈돌이 주거지 북쪽 바닥을 중심으로 7점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는 284×160(잔존)×17cm이며, 주혈과 소량의 빗살무늬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6) 을왕동 3유적

을왕동 유물산포지 5에서 약 100m 가량 서쪽에 비재고개라는 곳에 위치한다. 2004년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영종도 북측 유수지에서 신설동간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A·B·C 구역으로 나뉘어 조사되었다. A구역에서는 신석기시대 패총 2기, 주거지 3기 등이 확인되었고, B구역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1기와 시대미상 구덩이 2기, C구역에서는 중세이후 패총 2기와 수혈유구 3기, 소성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을왕동 3유적 집자리

(7) 덕교동 신석기시대 패총

2000년 한양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빗살무늬 토기편 한 점이 확인된 곳이다. 용유도를 순환하는 북로를 따라 가다보면 도로의 오른쪽에 '한국도심공항터미널(주)'건물이 보인다. 이 건물 맞은편의 오성산(해발 172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낮은 구릉의 말단에 20m 가량 패총이 길게 퇴적되어 있다. 패각층이 1m에 달하고 밀도도 높은 편이다. 현재 주변에 잡목이 많아 접근이 쉽지 않다.

(8) 영종도 눈들(또는 눈들)유적

인천 신공항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1998~1999년에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다. 현재 공항신도시 I.C에 인접한 곳으로, 정확한 위치는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운서동 첫개마을 [가]지구를 중심으로 남·북쪽에 A지구(서울대)-첫개마을 [가]지구(한양대)-B지구(서울대) 순이다.

A지구에서는 원형적석유구와 중복 수혈주거지 2기가 확인되었다. 원형적석유구는 야외노지 시설로 추정되는데 직경 약 1m 가량이며, 내부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 1점이 출토되었다. 수혈주거지는 안쪽 수혈주거지가 만들어진 이후 두 번째 수혈주거지가 시간적으로 중복된 것이 아닌 증축관계로 추정하고 있다. 출토된 유물은 확대된 주거지 북서쪽 모서리 안쪽에서 소형의 발형토기가 완형으로 수습되었고, 다수의 빗살무늬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토기의 형태나 문양으로 미루어 신석기 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지구에서는 원형적석유구와 '회(回)자형 방형구(方形溝)', 수혈 9기가 조사되었다. 원형적석유구는 야외 노지로 추정된다. 크기는 A지구 것보다 크며, 상당량의 빗살무늬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回'자형 방형구 내의 노지시설인 원형적석유구를 중심으로 제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 운서동 젓개마을 유적

1998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된 곳으로, 수혈주거지 2기, 파괴주거지 1기, 야외노지 3기, 수혈유기 18기, 파괴된 구(溝) 1기가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이 유적이 야외노지의 규모나 숫자, 인근의 삼목도와 송산유적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유구들과 비교하여 임시캠프나 계절적 이동의 행위를 영위했던 곳으로 판단하였다.

(10) 운남동 고인돌

이 유적은 1962년 인천고등학교 향토반 학생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구읍나루터에서 관청말로 향하는 방향의 중촌마을의 뒤편 해발 41.1m의 낮은 구릉의 정상부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 주변으로는 후대의 민묘가 여러 기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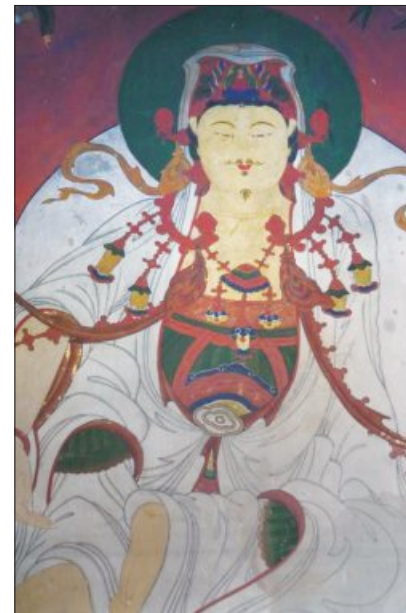


운남동 고인돌

고인돌은 1963년 6월 인천박물관과 최숙경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다. 발굴당시 고인돌은 개석만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발굴조사 결과 2개의 받침돌과 함께 막음돌로 여겨지는 석재가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막음돌은 가로 160cm · 세로 130cm · 두께 13~16cm이고, 동쪽 지석은 길이 93cm · 높이 68cm · 두께 12~20cm, 서쪽 지석은 길이 112cm, 높이 84cm, 두께 17cm이다.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잡석들과 함께 서쪽 지석 부근에서 빗살무늬토기편, 편병편, 청자편 등이 출토되었다. 분묘 바닥과 주변에서 출토된 목탄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 720 ± 100 A.D.와 880 ± 110 A.D.로 나타났으나, 조사자는 선사시대의 고인돌을 고려시대에 들어와 무덤으로 조성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11) 용궁사

용궁사(龍宮寺)는 영종도 백운산(白雲山)에 있는 사찰이다. 사전(寺傳)에 따르면 670년(문무왕 10)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백운사(白雲寺)라 하였다고 전하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다. 구담사(瞿曇寺)로도 불려오다가 고종의 등극을 발원한 흥선군(興宣君)에 의하여 1854년(철종 5) 중수되면서 용궁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영종에 사는 윤씨 성을 가진 어부가 작약도 부근에서 그물을 쳤다가 옥부처를 건져 올려 이 절에 봉안하였다고 하는 일에서 연유한 것으로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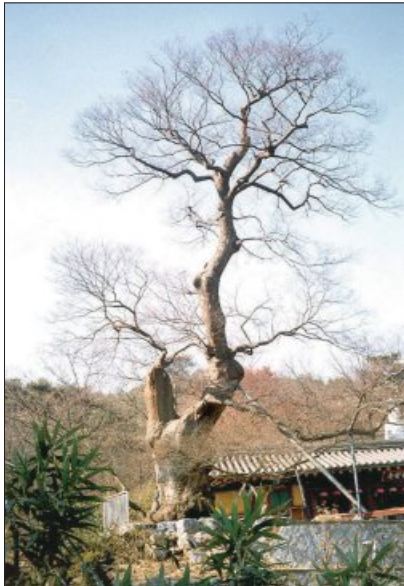


용궁사 수월관음도

용궁사는 1884년(고종 21)에 건립된 관음전(觀音殿), 1966년에 지어진 용황각(龍皇閣), 1944년에 지어진 칠성각(七星閣), 요사채 등으로 구성되었다. 요사채 앞에 15m 간격을 두고 마주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으며 절 뒤에는 높이 11m의 백색 미륵불이 있다. 관음전은 맞배지붕에 홑처마집이며, 기둥에는 해강 김규진(海岡 金圭鎭)이 쓴 4개의 목판주액(木板柱額)이 걸려 있다. 본래 옥석(玉石)으로 조각된 관음상이 안치되어 있었으나 일제 때 도난당하고 지금은 새로운 관음상을 모셔놓고 있다. 요사채에는 갑인년(甲寅年, 철종 5) 정월 낙관이 찍혀 있는 흥선대원군의 친필 편액이 걸려 있다. 199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12) 용궁사 느티나무

백운산 용궁사 경내에 위치하는 수령 약 1,300년, 나무 둘레가 5.63m, 높이가 약 20m, 수관(樹冠)이 약 16m에 달하는 거목이다. 오른쪽의 것을 할아버지 나무, 왼쪽의 것을 할머니나무라고 부른다. 느릅과에 속하는 낙엽활엽목인 느티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일본·시베리아·유럽 등지에 분포하는 장수목이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라는데 흔히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로 쓰인다. 용궁사 느티나무는 생물학적 보존 가치가 커 199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되었다.



용궁사 느티나무

(13) 운남동 마을회관 선정비군

① 양주성금속비

영종첨절제사(永宗僉節制使)를 지낸 양주성(梁柱星)의 공덕을 기리는 비이다. 규모는 높이 91cm, 폭 31cm, 두께 3cm로 황동(銅)으로 만들어졌다. 1915년(고종 12) 8월에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에 침입하여 초지진을 포격한 후, 영종진을 점령하고 관아에 불을 질렀다. 이에 조정에서는 인천부를 방어영으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강화유수부에 속해 있던 영종진을 인천방어영에 속하게 하였으며, 10월에는 홍문관 제학 양주성을 영종첨절제사로 임명하여 관아를 복원하였다. 양주성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아를 복원하여 방비를 튼튼히 함과 아울러 선정을 베풀었는데, 그가 떠나게 되자 은혜를 잊지 못한 주민들이 늦고

늦을 모아 이 비를 세우고 그 뜻을 기렸다고 한다. 긴 직사각형의 비는 윗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놓은 간결한 모습으로 1878년(고종 15)에 세웠다. 1993년 7월 6일 인천광역시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었다. · 이택청덕애민불망비(李澤淸德愛民永世不忘碑) 이택(李澤: 1651~1719)은 조선 후기 무신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운몽(雲夢)이다. 1676년(숙종 2) 무과 급제하여 선전관, 고산진첨절제사, 훈련원정, 전라좌도수군절도사, 평안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너비 62.8cm, 높이 133cm, 폭 25.5cm이며, 1693년(숙종 19) 10월에 건립되었다.



양주성금속비

② 윤숙애민선정비(尹淑愛民善政碑)

윤숙(尹淑)은 본관은 파평, 무과를 통해 관직에 나가 선천부사, 영종첨사, 전라좌수사를 역임했다. 1703년(숙종 29) 3월 영종첨사로서 올린 장계를 올린 기록이 남아 있다. 너비 60.5cm, 높이 125cm, 폭 24cm이며, 1705년(숙종 31) 10월에 건립되었다.

③ 유하애민선정비(柳賀愛民善政碑)

유하(柳賀: 1624~?)는 본관은 전주, 자는 길보(吉甫)이다. 1682년(숙종 8) 진사시에 합격하여 관직에 올라 온양군수, 교동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너비 62.5cm, 높이 133cm, 폭 23.8cm이며, 1714년(숙종 40) 4월에 건립되었다.

④ 양헌석애민선정비(楊憲奭愛民善政碑)

양헌석(楊憲奭)은 지평현감, 광양현감, 장흥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너비 61cm, 높이 129cm, 폭 23cm이며, 1714년(숙종 40) 4월에 건립되었다.

⑤ 이윤성청덕만세불망비(李潤成淸德萬世不忘碑)

이윤성(李潤成: 1727~?)은 본관은 전의, 자는 사원(士元)이다. 영종첨사, 경주영장, 충청병사, 제주목사, 황해병사, 통제사, 북병사, 평안병사, 금위대장 등을 역임하였다. 자헌대부에 제수되었다. 너비 50cm, 높이 123cm, 폭 25cm이며, 비는 1754년(영조 30) 9월에 세워졌다.



윤남동마을회관 선정비군

⑥ 박시좌거사대(朴時佐去思臺)

박시좌(朴時佐)는 영종첨사와 전라좌수사를 지냈다. 너비 112cm, 높이 62cm, 폭 30.5cm이며, 1820년(순조 20) 6월에 세워졌다.

⑦ 윤동거사대(尹東去思臺)

윤동(尹東)은 영종첨사를 지낸 이력 외에는 알 수 없다. 너비 72.5cm, 높이 101.5cm, 폭 27cm이며, 1806년(순조 6) 12월에 세워졌다.

⑧ 이석거사대(李皙去思臺)

이석(李皙)은 장연현감, 황해도병마절도사, 수사, 영종첨사 등을 역임하였다. 너비 43cm, 높이 101cm, 폭 25.5cm이며, 1819년(순조

19) 3월에 세워졌다.

⑨ 이관식거사대(李觀植去思臺)

이관식(李觀植)의 이력은 영종첨사를 지낸 것 이외에는 알 수 없다. 너비 41.8cm, 높이 94cm, 폭 24cm이며, 1819년(순조 19) 3월에 세워졌다.

⑩ 오의상거사대(吳毅常去思臺)

오의상(吳毅常: ?~1820)은 무과를 통해 관직에 나가 전라도병마절도사, 평안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너비 41cm, 높이 97.5cm, 폭 21.5cm이며, 1819년(순조 19년) 3월에 세워졌다.

⑪ 이주봉거사대(李周鳳去思臺)

이주봉(李周鳳)은 영종첨사를 지낸 것 이외에는 알 수 없다. 너비 42.5cm, 높이 99cm, 폭 23cm이며, 1819년(순조 19) 3월에 세워졌다.

⑫ 이길회거사대(李吉會去思臺)

이길회(李吉會)는 풍덕부사, 영종방어사, 황해도수군절도사 등을 지냈다. 너비 58cm, 높이 125cm, 폭 27cm이며, 1859년(철종 10) 4월에 세워졌다.

⑬ 김원상청근애민비(金元祥淸謹愛民碑)

김원상(金元祥)은 영종첨사를 지낸 것 이외에 이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너비 55.5cm, 높이 133cm, 폭 19cm이며, 1819년(순조 19) 3월에 세워졌다.

(14) 세계여행문화원 선정비군

① 신희철영세불망비(申孝哲永世不忘碑)

신희철(申孝哲)은 조선후기 무신으로 순무영우후, 영종방어사, 부호군,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등을 지냈다. 영종첨사로 1866년(고종 3) 11월부터 1868년 9월까지 22개월간 재임하였다. 재임 기간 중 남연군의 묘를 도굴한 오페르트 일행이 영종진에 상륙하자 교전하여 퇴거시켰다. 너비 62.5cm, 높이 121cm, 폭 27cm이며, 1869년(고종 6) 12월에 건립되었다.

② 서유방영세불망비(徐有防永世不忘碑)

서유방(徐有防: 1741~1798)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 자는 원례(元禮), 호는 봉헌(奉軒)이다. 1768년(영조 44) 진사로 교관을 지내다가 1772년 문과로 출사하여 홍문관부응교, 이조참의, 대사헌, 이조참판, 경기도관찰사, 한성부판윤, 형조판서,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지냈다. 너비 53cm, 높이 125cm, 폭 25cm이며, 1788년(정조 12) 2월에 세워졌다.

③ 강주하청덕애민비(姜柱河淸德愛民碑)

강주하(姜柱河)는 『일성록(日省錄)』에 영종첨사로서 장계를 올린 기록만이 남아 있다. 너비 56cm, 높이 135cm, 폭 21cm이며, 1788년(정조 12) 2월에 건립되었다.



세계문화원선정비군

(15) 남북동 조병수가옥

1890년에 건축된 조병수 가옥은 중부 해안지방의 중류 농촌 가옥의 전형을 보여준다. ‘ㄱ’자 안채와 사랑채를 맞댄, 튼 ‘구(口)’자형으로 지붕은 한식 골마루기와의 합각지붕이다. 안채는 정면 3칸, 측면 1.5칸으

로 앞에 좁은 툇마루를 설치하고 뒤에는 퇴를 내어 벽장으로 만들었다. 사랑문에 1890년에 건립된 기록이 보이며, 안방은 2칸의 넓이를 통간으로 만들고 부엌쪽 벽에 다락방으로 오르는 문을 설치하였으며 대청과의 사이에는 ‘아(亞)’자형 미닫이문을 달았다. 건넌방은 대청으로 연결되는 출입문과 앞 툇마루 쪽에 띠살문을 달았다.



조병수가옥

안방 앞에는 2칸의 넓은 부엌을 두었고 안방 쪽 1칸의 부엌 천장을 낮추어 다락방을 만들고 안방에 붙여서 부뚜막을 설치했다. 서부 모서리는 원래 창방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연료 목재를 놓는 자리로 사용하고 있다. 안채 대청과 건넌방 마루 끝에는 유리창을 설치했다. 대문 문비(門扉) 위 중방 윗부분은 회벽 처리된 가운데에 팔각형의 격자문창이 설치되어 있다. 사랑방 앞 기단 끝에는 붉은 벽돌로 화장(化粧)담을 설치했다. 바깥 담장은 토담 위에 기와를 얹어 바깥채와 연결되며 바깥마당은 대나무 숲이 이 가옥의 측면을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다. 1997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6호로 지정되었다.

(16) 용유쉼터 선정비

① 이유증거사대(李儒增去思臺)

이유증은 흥덕현감, 영종첨사, 전라우군절도사, 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영종첨사 재임시에 진에 포병을 설치하여 훈련을 잘 하였다는 공로로 왕으로부터 사슴가죽을 하사받았다. 장서각에 소장된 『외안(外案)』에 1869



용유쉼터 선정비

년(고종 6) 2월부터 1897년(고종 8) 8월까지 재직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869년(고종 6)에 건립되었다.

② 이중영영세불망비(李重榮永世不忘碑)

이중영(李重榮)은 영종침사를 지낸 것 이외에는 알 수 없다. 비는 너비 43cm, 높이 109cm, 폭 18m이며, 병진년(?) 8월에 건립되었다.

(17) 백운산 봉수 터

백운암(사) 요사채 옆길을 따라 20분 정도 올라가면 봉수지로 추정되는 곳이 있다. 2001년 인하대 박물관의 조사에서 석렬 3개가 발견되었는데, 1872년에 작성된 '화도진도'에 보이는 봉수대 자리로 보인다. 현재 잘 정리되어 있지만, 부지가 넓지 않아 봉수대도 그리 크지 않았을 듯하다.



백운산 봉수터

(18) 구 영종진 터

구읍선착장 뒤의 좌측으로 해안을 따라 있는 구릉이 옛 영종진의 터이다. 고려시대에는 경원정이 설치된 대송무역의 거점 이었고, 조선시대에는 국영 말목장이 운영되었던 인천(인주)에 속했던 섬 중 하나였던 자연도라 불렸던 영종도는 정묘호란 후 1653년(효종 4) 남양도호부의 영종포에 있던 영종진을 지금의 구읍벚



영종진 전몰영령추모비

터로 이전 설치하면서 섬 이름도 자연도에서 영종도로 바뀌게 된다. 군진으로서 영종진의 역할은 유사시 강화도 방어, 그리고 왕실이 월미행궁을 거쳐 강화로 들어가는 제2의 피난로를 방어하는 것이었다. 영종진은 19세기 중반 이양선의 잦은 출몰, 병인양요, 오페르트의 영종진 습격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종진 방어의 강화를 위해 관서의 포수 200명을 추가 배치하거나 진무영(鎭撫營)의 포수와 사수(射手)를 추가 배치하였고, 특히 1869년에는 어영청을 통해 지자총통 1문, 대포 3문, 불랑기 6문, 마반차, 화약 1천근 등을 분급하였다. 1874년에는 운현궁에서 별주한 대포·중포·소포 등을 김포, 강화와 함께 분급하여 화포의 증강 배치를 통해 영종진 앞 바다를 거쳐 강화-서울로 향하는 해로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영종진은 1875년 9월 22일 윤요호의 영종도 침탈로 35명이 전사하고 16명이 포로로 잡혔고, 동제포·불랑기·완구(碗口) 등 화포 36문을 비롯하여 많은 물품을 약탈당하고 관아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영종진은 재건되면서 신영종진터로 옮겨 갔고, 터만이 남아 있었다. 현재는 영종진공원을 설치하여 성곽과 태평루를 재현하여 놓았고, '영종진전몰추모위령비'를 세워 당시의 전몰자들을 기리고 있다.

(19) 만세교 터

구(舊)영종진과 본 섬을 이었던 다리로 1663년(현종 4)에 영종진 만호 남득화가 주민을 동원하여 두 섬을 연결시킨 것이다. 규모는 폭 12척, 길이 360척이나 되는 큰 다리였다고 한다. 이후 용궁사 주지였던 해명스님이 감독하여 보다 크고 튼튼한 다리를 완공하였는데, 제1차는 이곳 주민을 동원하였고 제2차 공사는 경기도 내 각 사찰의 승병을 동원하여 완공하였다 한다. 다리를 가설하고 그 기념비도 세웠다고 하나, 현재는 주변지역을 매립하여 도로를 개설하였기에 옛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0) 유물산포지

① 운남동 남뒤(또는 남디) 유물산포지1

남뒤유적은 운서초등학교 가기전 도로 우측에 있는 청원농장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인하대박물관에 의하여 이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덩이 주변에서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이후 인천시립박물관이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빗살무늬 토기편을 비롯한 다수의 유물을 수습하였다. 현재 가축을 사육하는 일부 평탄지와 수목이 있는 부근을 중심으로 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② 운남동 남뒤 유물산포지2

남뒤 유물산포지 1에서 동쪽으로 약 150m 가량 가다보면 도로 우측에 작은 아파트 1채가 있다. 이 아파트 남쪽으로 넓고 편평한 경작지가 있는데, 지형은 얇은 구릉이 남쪽 해안가로 돌출하여 끝단에 작은 봉우리가 있고, 그 사이에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운남동 남뒤 유물산포지 4와 동일한 양상이지만, 4지역보다 유물의 밀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삼국시대~고려시대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③ 운남동 남뒤 유물산포지3

남뒤 유물산포지 2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남디교회를 중심으로 한 경작지와 구릉 일대이다. 2003년 조사 당시 유물산포지 2·3·4 지역이지만, 지형상 같은 지역이므로 여기에서는 하나의 산포지로 간주한다. 유물은 석곽묘가 확인된 경작지 일대에서 무문토기 1점이 확인되었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또한, 인하대박물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확인 조사 때 운남동 148-1번지의 동사면 구릉말단에서 원저단경호로 추정되는 유물이 수습되었다.

④ 운남동 남뒤 유물산포지4

2000년 운서동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하대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이희인과 인하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다시 소개된 유적이다. 유적은 구읍 나루터에서 공항남로를 따라 가다가 운남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가다보면 운서동과 운남동으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오는데, 이 삼거리 바로 서쪽에 위치한다. 지형은 백운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와 바다쪽으로 돌출한 설상대지로 민가와 도로가 있는 곳에 말안장처럼 낮아지다가 해안가로 가면서 높아지는 형태를 띠는 해발 17.4m의 낮은 독립구릉이다. 이 구릉과 주변의 경작지에서 다량의 타날문토기편과 경질토기편들이 확인되어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⑤ 운남동 중촌 유물산포지1

운남동 고인돌이 위치한 경작지와 구릉 일대이다. 한빛맨션 2동에서 뒤편 야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조성되어 있는 텃밭에서 경질무문토기 1점과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한 경작지일대에서 고려 ~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구읍나루터에서 관청말로 가는 도로 개설과 주택건립으로 인해 원 지형은 많이 변형된 상태이다. 이 일대의 지형이 운남동 남뒤 유물산포지나 반길안 유물산포지와 같고,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앞의 두 유물산포지와 유사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⑥ 운북동 유물산포지1

영종도의 서북방향 예단포에 위치한 곳이다. 2005년 인하대박물관에 의해 확인된 곳으로 예단포에서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독립 구릉 능선 말단부에서 도기편과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현재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원 지형이 잘 남아 있어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⑦ 운북동 유물산포지2

운북동 유물산포지 1에서 남쪽에 위치한 박촌이라는 자연부락이 형성된 곳이다. 능선 말단부는 해안선이 바뀌기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까지 해수가 들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작지 일대에서 도기편과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민가가 들어선 곳을 제외하면 원 지형은 비교적 잘 남아 있어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곳은 2002년 세종대학교박물관에서도 조사하였던 곳이다.

⑧ 운북동 유물산포지3

운북동의 군사시설 신축 현장 진입도로의 오른편에 위치한 해안가에 돌출된 구릉으로,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기편과 도기편이 출토되었으나 빈도수는 높지 않다. 하지만 원 지형이 잘 남아 있어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⑨ 운북동 유물산포지4

뒷골이라 불리는 자연부락으로, 숙호경로당의 맞은편에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에서 상감청자편과 도기편 일부가 수습되었다. 또한, 능선 하단에 위치한 논둑에서는 백제토기편이 확인되었으나 출토지가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⑩ 운북동 유물산포지5

세종대학교박물관에서 2002년도에 조사한 곳으로 폐채석장을 지나서 포장된 도로를 따라 예단포 쪽으로 가는 길에 있다. 이곳은 산세가 험한 지역인데 논과 밭경작지가 많다. 수습된 유물은 경질 토기편으로 고추밭에서 수습되었다.

⑪ 운북동 유물산포지6

운남동 유물산포지 1에서 북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으로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의해 2002년도에 조사된 곳이다. 구릉의 완만한 경사면인

해발 30m부터 20m 사이로 밭이다. 유물은 산자락에 개간된 밭과 경사면에서 수습되었다. 토기와 자기, 기와편 등으로 다양하다.

⑫ 운북동 유물산포지7

영종전통식 바로 전에 좌회전하여 가다가 첫 능선 위에서 좌회전하여 50m 정도에 위치한 과수원인데,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의해 2002년도에 조사된 곳이다. 능선의 안쪽은 굴곡이 심하고, 지표에 암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적의 매장가능성이 희박한 편이지만 이곳은 산의 서북쪽에 해당하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현재는 배나무 과수원이 입지해 있는데, 서북쪽으로 전망이 좋은 곳이다. 삼국시대 토기편과, 고려 ~ 조선시대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⑬ 운북동 유물산포지8

금산 경노당부터 공항고속도로에 인접하는 능선에 걸쳐 분포한다.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의해 2002년도에 조사된 곳으로 해발 30m 미만의 산을 끼고 있는데, 산의 아래쪽에는 묘목밭과 비닐하우스 등이 있다. 묘목밭에서는 회청색 경질토기와 웅기류 등이 수습되었다.

⑭ 운북동 논골 유적

이곳은 논골이라 불리는 곳으로 한양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유적 옆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남북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다. 당시 조선시대 후기로 추정되는 패총이 확인되었다. 패각층의 깊이는 10 ~ 60cm이며, 패총을 구성하는 주된 패류는 가무락과 같은 이목패류가 많았으며, 그 외에 굴과 고동류가 일부 확인되었다. 그러나 패총의 주요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는 민가가 세워져 있어 조사된 부분을 제외한 곳은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5년 인하대박물관 조사시 동일시기의 유물이 수습되어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⑮ 운남동 유물산포지1

잔다리 삼거리에서 공향고속도로 방면으로 100여미터를 가다가 좌측으로 영종전통식품 바로 전에 좌회전하여 운남교회로 가는 3거리에서 좌측으로 50여미터 가면 분지성 구릉이 보이는데 현재 수목용 나무가 심어져 있다. 이곳은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의해 2002년도에 조사된 곳으로(유물산포지 11) 주변의 지형은 남고북저(南高北低)와 서고동저(西高東低)이다. 유물은 밭과 도랑에 산포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토기와 자기조각이다.

⑯ 중산동 유물산포지1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의해 2002년에 조사된 곳으로 포장된 길을 중심으로 서남쪽의 고추밭에서 백자와 조선시대 토기류가 수습 되었으며, 동북쪽 밭에서도 자기류가 수습되었다. 동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릉지대이며 남쪽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다.

⑰ 중산동 유물산포지2

중산동 유물산포지 1에서 70미터 떨어진 현재 고추밭으로 약간의 조선시대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2002년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곳이다

⑱ 중산동 유물산포지3

중산동 유물 산포지 2에서 북동쪽으로 20미터 떨어진 곳으로 밭에는 밭벼가 재배되고 있다. 2002년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곳으로 길의 남쪽 옆에는 포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 있다. 산능선의 정상부로 갈수록 지표면에는 돌이 많은 편이지만, 지형의 조건이 좋고 유물이 넓게 산포되어 있다.

⑲ 운남동 중촌 유물산포지2

운남동 584, 585, 587, 588, 589, 590, 591, 592번지 일대은골 사슴농장을 지나 50m 정도 내려가면 남 ~ 북쪽에 발달한 산지성의 구릉지대가 양쪽으로 감싸고 있는 경작지대가 나타난다. 구릉의 안쪽에서 소량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세종대학교에서 2002년도에 조사한 곳으로 당시의 유물산포지 7·8·9를 여기에서는 하나의 유물산포지로 간주하였다.

⑳ 운남동 잔다리 유물산포지

운남동 중촌유물산포지2와 마주보고 있는 산의 경사면에 위치한다. 2002년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곳으로 서쪽과 북쪽에 해발 70m와 4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 자리하고 있어 서북쪽이 가로 막혀 있는 지형이다. 이곳의 경사면은 남동쪽으로 갈수록 낮아 지는데 계단식 밭경작지가 많다.

㉑ 운남동 유물산포지2

운남교회로 가는 길中间的 공터에 위치한다. 세종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추밭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나 현재는 공터로 남아 있다.

㉒ 중산동 유물산포지4

백운산의 남동쪽에 위치한 해발 30m 정도의 작은 산으로 현재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길을 내놓은 상태이다. 이 길을 따라 50m 정도 올라가면 좌측으로 토루가 확인된다. 유물산포지는 토루가 끝나는 능선의 아래에 위치한다. 이곳은 2002년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바 있다.

㉓ 중산동 유물산포지5

송산교회의 북동쪽 일대 밭으로 해발 20m 정도의 나지막한 구릉지대로 남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심해지고 북쪽으로 갈수록 완만하다. 2002년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곳으로, 구릉의 남서쪽이 트여 있어 선사유적이 입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㉔ 중산동 유물산포지6

2002년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곳으로 현재는 일부 콩이 재배되고 있고 일부는 공터로 남아 있다. 산의 능선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뻗어 있다. 능선 서쪽의 밭에서 토기조각이 수습되었는데, 생활 용기가 많은 편이다.

㉕ 을왕동 유물산포지1

2003년 인천시립박물관에 의해 을왕동 유물산포지 3으로 확인되었다. 이곳은 영종도에서 용유도로 이어지는 공항북로를 따라 왕산리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에 삼거리가 나오는데, 이 삼거리에서 남북방향 신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안악대들이라는 경작지가 나온다. 이 경작지의 맞은편에 위치한 민가를 둘러싼 경작지 일대 남사면에서 빗살무늬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토기편이 수습된 곳이 민가 안쪽 경작지이나, 주변 지형상으로 보아 도로로 파괴된 일부 지형을 포함한 지역이 유적이 존재했던 곳으로 보인다.

㉖ 을왕동 유물산포지2

을왕동 유물산포지 1에서 동쪽으로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역시 인천시립박물관에 의해 “을왕동 유물산포지4”로 확인되었다. 동서방향 도로의 오른쪽에 늪목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의 입구에 해당되는 늪목 해변과 낮은 구릉을 감싸고 있는 경작지 일대에

서 토기편 3점과 부분적인 패각이 확인되었으나 유물의 출토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㉗ 을왕동 유물산포지4

2003년 인천시립박물관에 의해 “을왕동 유물산포지5”로 확인된 곳이다. 을왕동 유물산포지 3의 동북쪽 해남이 라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동서 양쪽 경작지와 사구에서 패각과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패각은 언덕 사면에 흩어져 있으나 별다른 층위가 관찰되지 않는다. 유구의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주변 을왕동 I 유적에서 패각층이 확인되어 동일시기의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㉘ 을왕동 유물산포지3

을왕동 유물산포지 2에서 동쪽으로 약 100m가량 떨어진 곳에 도토지굴이라 불리는 경작지의 말단에 위치한 신도 북쪽의 해안가이다. 1994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이 조사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을왕동 II 유적으로 명명되었던 곳이다. 을왕동 I 유적, 남북동 유적과 함께 확인되었으나 도로 개설이 변경되면서 조사되지 않았다. 현재는 주변 지형이 도로개설로 인하여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과거의 지형은 찾기 힘들다. 당시 무문양 빗살무늬 토기 동체부가 수습되었다.

㉙ 남북동 고려시대 패총

남북동 유적의 남쪽에 최근에 개통된 용유도를 순환하는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오른쪽에 북리라는 밤나무 단지가 조성된 마을과 연결되는 작은 소로가 나온다. 이 소로를 따라 약 50m 가량 가다보면 포장된 삼거리가 나오는데, 삼거리의 왼편에 패총이 존재한다. 패총은 이 포장도로의 하단에 대략 길이15m, 높이 150cm 가량 잔존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이 마을을 관리하는 동사무소에서 포장 도로를 걷어내면서 거의 파괴되었다. 주변에는 패각이 흩어져 있고, 청자를 비롯한

자기편과 도기편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패총은 사면에 일부만 확인된다.

③⑩ 운남동 반길안 유물산포지

운남동 남뒤 유물산포지 4 같이 해안가에 돌출된 독립구릉으로, 남디 교회에서 운서동으로 가다보면 주유소와 대우자동차 정비소가 나오는데, 여기서 남쪽으로 향하면 반길안으로 들어가는 포장도로가 있다. 마을일대를 감싸고 있는 구릉과 경작지 일대에서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 다량의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밀집도가 높고 퇴적층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2003년 인하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지역의 제한으로 인해 운남동 1152번지 일대만이 보고되었으나, 이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이 일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운남동 1168번지 일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동일시기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하대학교박물관에서 처음 확인된 곳을 반길안 유물산포지 2로, 추가 조사된 지역을 반길안 유물산포지 1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이 산포지 두 곳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동일한 지형이어서 하나의 유물산포지로 간주하였다.

③⑪ 을왕동 유물산포지5

2003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확인된 곳으로, 을왕동 유물산포지 1·2로 명명된 곳이다. 당시 을왕동 유물산포지 1에서는 밭 경작을 위해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가운데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와 패총이 확인되었고, 을왕동 유물산포지 2는 도로 개설로 인해 생긴 단애면에서 빗살무늬토기편과 석기들이 확인되었다. 두 유물산포지가 동시대의 유물임이 확인되었고, 지역적인 위치도 거의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의 유물산포지로 간주한다.

③⑫ 덕교동 고려시대 패총

영종도에서 무의도로 향하는 공항남로를 따라 가다보면 무의도 초입 원편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이 상가 뒤편에 위치한 해발 41.1m의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 말단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상가 뒤편에서 덕교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소로가 있는데, 이 소로의 양편에 패각이 노출되어 있다. 패각층의 높이는 1m, 길이는 약 6m 가량이다. 2000년에는 한양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백자저부편이, 2003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는 고려 이후의 도기 구연부편이 수습되었다.

6) 설화

(1) 용수동 차(車)부자의 전설

영종도 용수동에는 큰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마을 농민들이 모두가 물로 농사지었다. 이 연못은 이 마을 차부자의 것이었다. 차씨는 부자였으나 인색하기로 유명했다. 하루는 떠돌이 중이 이집 대문 앞에서 목탁을 치며 시주할 것을 빌며 염불하였는데 한참 후에야 차씨가 나와 중 보고 호통을 치며 시주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중이 말하기를 ‘그러면 물이라도 한 그릇 달라’고 하였더니 차씨는 쇠죽을 쑤는 바가지를 주며 ‘저 아래 우물이 있으니 가서 떠먹어라’는 것이었다. 중은 우물에 가서 물을 떠먹는 시늉만 하고는 돌아와서 차씨에게 쇠죽 쑤는 바가지를 돌려주고는 ‘지금도 귀 댁은 부자이지만 저기 보이는 연못을 메워 논을 만들면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하였다. 인색하고 구두쇠인 차씨는 그 중의 말에 ‘과연 그럴만한 일이다.’ 생각하고 인부를 시켜 연못을 메워 논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연못 속에서 살고 있는 용이 먹구름을 타고 팔미도 쪽 바다로 날아갔다. 그 후로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가 나서 차씨 집은 물에 휩쓸렸다. 결국 차 부자는 망해버리고 마을 이름은 용수동이 되었다 한다.

(2) 선녀암의 사연

영종도에 한때는 영종진 방어영을 두고, 군인이 상주하였다. 영종진 영은 첨사, 첨제사, 방어사 등이 군을 통솔하였는데 참모는 호군이다. 어느 때 한 호군에게 어여쁜 소실(첩)이 있었는데 그는 차차 소실에게 정이 멀어져 그 소실은 슬퍼하며 자기 남자가 근무하는 영종 진영을 찾아가서 진영 앞의 태평암이란 바위에서 바다에 몸을 던져 익사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시체를 찾는 사람이 없어 조수에 밀려 용유도 포구에 떠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그 시체가 호군의 소실임을 알고 건져다 묻어 주었다. 그 후로 태평암을 선녀암이라 불렀고, 용유도 포구의 고개를 호군의 소실을 묻었다고 호군재라고 불렀다 한다.

(3) 방귀와 오이씨

옛날 영종도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한 아들과 어머니가 있었다. 아버지가 없는 까닭에 어머니가 근근이 바느질 품팔이로 살아가고 있었다. 집은 비록 궁핍하였으나 아들은 아주 총명하고 재치 있는 소년이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땐 아버지에 대해서 묻지 않더니 점점 나이가 들고 자라남에 따라 아버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였다. 하루는 아이가 밖에서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엉엉 울며 말하되, 밖에 나가서 놀 때면 아이들이 자꾸 아비 없는 자식이라 놀린다는 것이었다. 어느날 아들이, “어머님, 왜 우리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겁니까? 딴 애들은 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겁니까? 동네 분들에게 여쭙어보니 돌아가시지는 않았대요 하온데 그럼 어디에 계시며 무슨 연유로 헤어져 사시는 건지요” 하는 것이었다. 끈질기게 물어대는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너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단다.” “그렇다면 왜 우리와 함께 사시지 않는 것입니까?” 어머니는 그 이유를 말했다. 어머니가 출가해서 시집간 첫날밤 일이었다.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서 방귀를 뀌자 여자가 버릇없이 방귀를 뀌었다하여 소박을 맞았고, 그 이후로 계속 아버지와 헤어져 살

게 된 것이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아버지가 어느 동네에 계시는지 알아낸 후, 하루는 다짜고짜 어머니에게 오이씨 일 전어치만 사다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이씨를 사다주자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 뵙고 같이 돌아오겠노라 하며 집을 나갔다. 아들은 오이씨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가서는, “오이씨 사시오, 오이씨 사시오, 아침에 심으면 저녁에 따고, 저녁에 심으면 다음 날 아침에 딸 수 있는 오이씨요.”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때 바로 그 집에서 아버지가 나와서는 “애야, 오이씨 사자.” 하며 그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는 “얼마냐” 하고 묻자 아들은 몇 백 냥 한다고 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자 아버지는 벌컥 화를 내며, “야 이놈아, 그렇게 비싼 오이씨가 어디 있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하기를 “이 오이씨가 이렇게 비싼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 나와 한 번도 방귀를 안 뀌 사람이 심어야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야 이놈아, 이 세상에 나서 방귀를 안 뀌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제야 아들이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어머니를 방귀 뀌었다고 소박을 해서 내가 이제껏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하셨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문득 옛날 일이 떠오른 아버지는 아들을 찬찬히 살펴보고는, “네가 몇 살이냐”고 물었다. “소자 올해 열 두 살이옵니다.” 하고 공손히 대답하자, 아버지는 연수가 맞음을 알고 자기 아들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아들의 재치와 영리함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4) 무자유손

예부터 영종도에 ‘무자유손(無子有孫)’이란 말이 전해져 오고 있다. ‘무자유손’이란 비록 아들은 죽지만 그 손자가 삼정승(三政丞)을 지낸다는 뜻이다. 옛날 영종도 어느 양반집에 주인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마땅한 산소 자리를 정하지 못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소 자리를 봐 주는 지관이 좋은 자리가 하나 있다고 하며 말하기를, “이 자리는 삼정승이나 올 자리가 분명한데 액운이 끼어 장례를 치른 초상(初喪) 석 달째에는 큰아들이 죽고, 다음해 소상(小喪)에는 둘째 아들이 죽고, 대상(大喪)에는 막내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상주(喪主)는 삼형제가 비록 죽지만 삼정승이 난다는 말에 그곳을 산소 자리로 정하기로 하였다. 상주는 자신에게 아직 아들이 없지만 곧 태어날 아이가 정승을 지낼 것으로 믿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석 달째 되던 날 큰아들이 저녁밥을 먹고 나서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아프다며 뒹굴다가 죽었는데 그때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 이듬해에는 새벽 제사를 드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이도 역시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막내아들 하나 남았는데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고 그 집안의 이런 소문이 이미 파다한지라 어느 처녀도 시집오려 하지 않았다. 생각 끝에 둘째 아들 장례를 치른 다음날 막내아들은 어머니께 말씀 드리기를,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지관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여 보면 큰 형님이 돌아가시고 작은 형님마저 돌아가셨으니, 이제 저 하나 남았는데 저도 죽을 날을 정해 놓고 있는 처지입니다. 자식 된 도리로 어머님 슬하를 떠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왕 죽을 몸, 살아 있는 동안 팔도강산(八道江山)이나 구경하고 돌아올 테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어머님은 남편과 아들을 잃은 데다 손주 하나 없는 터라 막내아들마저 집을 나가면 과부 며느리들과 늙은 사람 하나 남아 이 집이 더욱 쓸쓸해질 것 같았으나 막내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하였다. 괴나리봇짐을 지고 집을 나선 막내아들은 정처 없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던 중 어느 날 산 속을 헤매게 되었다. 이미 날은 저문지라 길조차 분간할 수 없던 차에 멀리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는 집이 보였다. ‘웁다구나!’하고 찾아 간 막내 아들은 조심스럽게 “주인장 주인장.” 하고 부르며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나오며, “누구시오” 하는 것이었다. 막내아들은 “초행(初行)길로 부지(不知) 중에

이 산행(山行)을 들렀다가 밤도 늦고 길도 잃어 쉴 자리가 없었는데 불빛이 있기에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그저 아무 방에서라도 하룻밤 쉬어가게 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막내아들을 훑어보더니 들어오라고 하였다. 저녁상을 물린 뒤 할머니가, “총각 고단하지? 내가 오늘 저녁 재너머 우리 친정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올 테니 혼자서 편히 쉬게.” 하며 나가버렸다. 막내 아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 금방 잠이 들어버렸다. 한참 깊은 잠에 빠졌을 무렵, 그때 웬 아리따운 아가씨가 들어오더니 총각이 자고 있는 이부자리로 들어와 잠자리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할머니가 돌아와서, “총각 편히 쉬었어” 하는데 이 여인이, “아이구, 유모.” 하며 할머니에게 덩싹 안기는 것이었다.

이 여인은 원래 대감집 고명딸이라 생모(生母)가 젖을 먹이지 않고 유모 할머니를 두어서 이 여인을 키웠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내일 시집을 가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유모와 같이 자기 위해 왔다가 총각이 유모인 줄 알고 그만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총각마저 송장으로 변해 있으니 그야말로 맑은 하늘에 날벼락인 셈이었다. 그날 밤이 마침 총각 아버지의 제삿날이었으니 바로 지관의 말이 딱 들어맞았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 사실대로 이야기 하니 여인의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젠 우리 집은 망했다.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이 놈의 계집애에게 냉큼 약사발을 내려 죽게 하여라.” 하였다. 이에 하나뿐인 딸이 죽는 꼴을 보게 된 어머니는 대감을 설득하여 목숨만은 살려 이 집을 떠나도록 하였다.

집을 나온 여인은 시체에 있던 호패(號牌)를 갖고 총각 집을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고 상을 치른 뒤 네 과부가 함께 살게 되었다. 상을 치른 뒤 얼마 안 있어 막내며느리가 입덧을 하더니 열 달 뒤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세 쌍둥이었다. 첫 번째 진통이 시작되자, 큰 동서가 와서는 “이 애는 계집아이던 사내아이던 간에 내가 기르겠다.”

며 데리고 가고, 또 두 번째 진통이 시작되자 둘째 동서가 와서, “이 아이는 내가 맡으리라.”며 데리고 갔다. 그래서 막내며느리의 차례 되는 아이가 없었는데 또 한 차례의 진통이 있더니 셋째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하여 세 과부가 모두 한 명씩 자식을 맡아 기르게 되었는데 ‘과부의 자식 버릇없다’는 옛말처럼 귀엽게 금지옥엽(金枝玉葉)처럼 길러서 버릇이 없었다.

이 아이들의 외조부는 세월이 흐른 후 두루 근심도 되고 화도 가라앉고 딸도 보고 싶어 드디어는 사돈을 찾아가 뵈기로 하였다. 사돈을 찾아간 외조부가 외손자들을 보니 충기 어린 얼굴이었으나 귀엽게만 길러 버릇이 없었다. 외조부는 아이들이 잘못될까 싶어 사부인(查夫人)에게, “사부인, 이런 말하기 참 어렵지만, 후세를 생각하자면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켜 큰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부디 맡겨 주십시오.” 하였다. 사부인은 얘기를 듣고 흔쾌히 승낙을 하고 아이들을 보냈다. 그 후 아이들은 훌륭하게 교육을 받아 삼정승이 되어 크게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5) 사주 이야기

영종도 운북동에서는 예로부터 한낱 한시에 태어나면 똑같은 생활로 산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어떤 성,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든지 똑같이 산다는 것이었다. 옛날 이 마을에 김씨와 이씨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時)에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 모두 아들 삼형제씩을 두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김씨는 매우 가난하게 살고 이씨는 엄청난 부자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김씨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씨와 나는 한낱 한시에 태어났거늘 어찌하여 그는 부자로 사는데 나는 이처럼 가난하단 말인가. 아무래도 이씨에게 무슨 비결이 있나 보다.’하고 이씨를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며칠 후 저녁나절 이씨를 찾아갔다. “어떻게 그 동안 소식이 없었나” 하고 반기자 김씨는, “오랜만에 한 번 찾아왔네. 도대체 자넌 왜 이렇게

잘사나?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 난 사흘에 죽 한 끼도 먹기 힘든데 자넌 어찌 이리 잘 사나? 자네 잘 사는 비결 좀 들으러 왔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럴 리가 있나? 자네하고 나는 한낱 한시에 태어났는데 난 이렇게 잘 살고 자넌 왜 못살겠나”라고 말하더니, 밖을 향해 “주안상을 올려라.” 하고 소리쳤다. 곧 이어 술상이 들어오고 두 사람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잔이 한참 오가고 나서야 이씨가 입을 열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네. 우리가 변변히 내세울 게 뭐가 있나. 그저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들은 부모에게 지극한 효자들이 아닌가? 죽으라면 죽은 시늉까지 한다네. 이제부터 한번 보게나.” 그러더니 갑자기 세 아들 중 맏아들을 불렀다. 한참 단잠을 자고 있던 큰 아들은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안채로 건너왔다. 그리고 아버지께 공손히 “아버님 왜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지요” 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저 헛간 마루에서 ‘뚝뚝’소리가 나는데 아마도 귀신이 씌운 듯 하니 저 헛간을 당장 짚어 없애라.” “예, 알겠습니다.” 큰 아들은 급히 일어나 멀쩡한 헛간을 도끼로 마구 짚어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씨가 얼마 후, “이제됐다, 들어가 자거라.”라고 말하자 그제야 물러가 자는 것이었다. 김씨는 속으로 ‘아니 저럴 수가? 아버지 말에 저렇게 순종을 잘 하다니?’하고 탄복하였다.

잠시 후 이번엔 이씨가 둘째 아들을 불렀다. 아들이 “아버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저 외양간 소가 이 여름에 더워서 자지 못하고 울어대니 저 다락에 당장 올려다 매라.”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둘째는 소를 다락으로 끌고 올라가려 했다. 그러나 도저히 소를 끌어 올리지 못하자, 이씨는 “됐다. 그냥 들어가 자거라.” 하였다. 그제야 둘째 아들은 공손히 물러나 들어가는 것이었다.

또 얼마 후 이씨가 이번에는 막내아들을 불렀다. “막내야, 내 가만히 보니 저 산골짜기 가운데에 돌무더기가 있더구나. 그 돌무더기를 모두 가져오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막내는 당장 지계를 지고 산골짜기

로 올라갔다. 한참 돌을 줍다 보니 커다란 바위가 땅속에 박혀 있는 것이었다. 막내가 한참 동안 바위를 파내려가니 갑자기 ‘쿵’소리가 나면서 바위가 갈라지고 커다란 금덩이가 보이는 게 아닌가? 막내는 얼른 금덩이를 캐서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이러니 이씨네는 더욱 큰 부자가 되었다. 이 광경을 본 김씨는 너무나 놀라 이씨에게 연유를 묻자 이씨는 빙긋이 웃으며, “이제야 알겠나? 예로부터 효자가 있는 집은 화목하고 부유하기 마련일세. 자네 집은 어떠한가? 한번 나와 같이 가서 시험해 보세.” 하는 것이었다.

이씨의 말을 들은 김씨는 이씨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아들들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세 아들을 차례로 불러 이씨와 같이 해 보았으나 세 아들 모두 통명스럽게 신경질만 부리며 말을 듣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이씨가 그제야 김씨를 쳐다보며 “보게나. 집안이 화평해야 부자도 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늘도 돕는 거라네.” 그제야 김씨는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한다.

(6) 지관 이야기

옛날 사람이 죽으면 좋은 산소 자리를 찾아 그곳에 묻어 주는데 그 산소 자리를 봐주는 사람을 지관이라 한다. 그러므로 지관은 풍수지리를 잘 알고 산세(山勢)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영종도 중산동의 어떤 지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중산동 마을에 청년 한 사람이 들어와서는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 청년이 한참 다니다가 어느 곳을 지나가려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므로 가만히 들어보았다. “그 아무개 정승이 돌아가셨는데 그 정승의 산소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야단이야. 만일 좋은 자리를 잡아주면 술이고 밥이고 간에 뭐든지 먹여 주고 좋은 옷도 주고 상금도 후히 준다는 거야.” 하는 것이었다. 이 청년은 속으로 ‘옳다구나 그 집에서 신세를 져야겠구나.’하고, 정승 집으로 갔는데 문지

기가 그의 행색을 보고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 청년의 행색은 다 떨어진 갓에 해진 도포를 입고 있어 양반은 분명한데 거지처럼 초라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 옆에는 조선 천지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 모였으므로 행색이 초라한 양반은 들어가기 쉽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청년이 꺾을 내어, “나는 돌아가신 정승의 산소자리를 봐주려고 왔습니다.”고 큰소리를 치니 문지기는 얼른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주인에게, “새로운 지관이 오셨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조금 후 안에서 주인인 듯한 사람이 나와 반기며 좋은 방으로 안내를 하고 하인을 불러 주안상을 차려 오라 하였다. 한 이틀 동안은 잘 먹고 좋은 옷도 입고 해서 대접을 잘 받았는데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겁도 나고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 몸 성히 나가기 힘들 것 같았다. 생각 끝에 망신을 당하기 전에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였다.

한밤중에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문을 열어 보니 웬 여인이 서 있는 것이었다. “누구요?” 하고 물어도 아무 대답없이 차린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뭘요? 웬 여자가 이렇게 남자가 자는 방에 들어 오는거요?”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어르신네께서 오셨다 하여 집 안에서는 내일쯤 어르신네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꼭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인 데 사람 하나 살려 주시으면 ……” “그래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거시오?” “하여간 내일 산에 올라가 이러구 저리구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주겠소.” 대답하고 술 한 잔 잘 얻어 먹고 또 경보(輕寶)까지 받았다.

총각은 ‘이 정도면 얼마간은 편안히 지낼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해가 뜰 무렵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여인이 가져다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늦잠을 자고 말았다. “어르신네 일어나셨습니까?” 하고 묻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난 청년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주인이 옷을 차려 입고 나와 산소 자리를 보러가자고 하여 산으로 가는데 청년은 정말 큰일이었다. 산세를 알기는 커녕 지리학적(地理學的)으로 뭘 아는 게 있나 무슨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다 하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 생각하다 못해 뛰어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심을 하고 눈치를 보다가 뛰어 달아났다. 그런데 산꼭대기까지 치달려 계속 달아나도 쫓아오는 하인들과의 거리는 좁혀지기만 하였다. 이제 올라갈 데도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주위를 살펴보니 그 자리가 평평하고 금잔디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이 좋은 자리 같았다. 그 청년은 손뼉을 탁 치면서 “여기가 산소 자립다. 아! 팔삭둥이를 낳겠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왜냐하면 어제 밤 방에 들어왔던 여인은 이 집 머느리로 시집오기 전에 신랑과 관계가 있어 어린애가 든 지 두 달 만에 시집을 오게 되어 열 달 만에 낳을 아기를 여덟 달 만에 낳게 됐으니 분명 행실이 나쁘다고 소박을 맞을 일이었다. 그러니 청년에게 산소 자리를 찾으면 팔삭둥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청년은 산소자리를 가리키며, “여기다가 조상을 모시면 팔삭둥이를 낳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팔삭둥이 쳐놓고 팔자가 나쁜 사람이 없으며 고관대작이라 하는 높은 사람들이 팔삭둥이가 많고 머리가 좋다고 한다. 그래서 그 집안사람들은 매우 기뻐하며 그 청년에게 후한 상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7) 지네와 이무기

옛날 영종도 운북동네에 일찍 부인을 잃은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자식은 여럿이고 살림은 궁핍하여 매일 같이 밥을 굶다시피 하며 살아가던 중 농부는 이런 삶을 살아서 무엇 하나 싶어 죽음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 나무에 목을 매어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웬 여자가 나타나서는 “아니 왜 죽으려 하십니까” 하며 목을 맨 줄을 끌러 놓는 것이었다. “난 살림이 궁핍하여 자식들도 제대

로 먹이질 못해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였다. 그러니 아비 된 입장에서 자식이 굶어 죽는 꼴을 볼 수 없어서 먼저 이승을 떠나려 하는 것이다.” 하였더니, 여인은 “그럼 저를 따라 오세요.” 하며 농부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이었다. 농부는 이상하고 두렵기도 하였으나 어차피 죽을 목숨 어디인들 못가랴 싶어 따라 나섰다.

따라가 보니 여인은 어느 대궐같은 집 앞에 농부를 데려다 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집은 무척 크고 화려하였으면 집안에는 온통 향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다. 농부가 어리벙벙하여 서 있는데 소박한 차림의 절세가인(絕世佳人)인 한 여자가 방에서 나오며 농부에게 말하길,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어떨지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집안도 잘 살게 될 뿐 아니라 저에게도 큰 덕이 됩니다.” 하였다. “아! 우리가 잘 살게 된다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농부가 대답하기가 무섭게 여인은, “그렇다면 내가 돈을 줄테이니 지금 가서 말을 한 필 사 오시오.” 하는 것이었다.

농부가 말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말 한 필을 사 가지고 돌아오자 여인은 돈 꾸러미를 말허리가 휘어지도록 잔뜩 실어 주면서 “이 돈을 가져가셔서 오늘 안으로 다 쓰고 들어오세요.” 하는 것이었다. 얼떨결에 돈을 받아든 농부는 밖으로 나왔으나 워낙 구차하게 살라던 사람이어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아무리 궁리해도 모를 일이었다. 그 집이 워낙 부자라서 사 가지고 들어 갈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여인을 위해 살림살이를 장만할 수도 없고 해서 농부는 고심고심 하다가 해질 무렵에 하는 수 없이 돈을 갖고 돌아왔다. 여인은 농부가 돈을 고스란히 가져온 것을 보고 “아니 돈을 쓰라고 주었지 그냥 갖고 돌아오라고 하였습니까? 왜 안 쓰시고 돌아오신 겁니까” 하며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오늘은 이왕 날이 저물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내일은 이 돈을 다 쓰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였다.

다음날 다시 돈을 갖고 나온 농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다가

우연히 거지가 득실거리는 저자거리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거지들에게 옷과 곡식을 사서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면서 떠돌아 다녔다. 그렇게 사흘을 계속 거지들을 도와주며 돈을 쓰고 다니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발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그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긴 담뱃대를 하나 주고 아주 독한 엽초를 한 묶음 주면서, “이 엽초를 줄 테니 네가 가진 돈을 모두 나에게 다오. 그리고 이 엽초를 오늘 하루 종일 다 피우고 내일 또 이 곳으로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농부는 그 엽초를 다 피우고 집으로 돌아와 여인에게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였다. 그렇게 이틀을 계속하고 사흘이 되던 날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하길,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 엽초를 다 피우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여인의 얼굴에 침을 뱉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하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 온 농부는 여인의 얼굴에 침을 뱉으려 하였으나 도저히 뱉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여인이 돈을 어디에다 썼느냐고 어찌나 캐어 묻던지 침을 뱉을 경황조차 없었다. 할 수 없이 농부는 여인의 얼굴 대신 문을 열고 섬돌에 침을 뱉으니 지독한 담배 독기에 섬돌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이었다. 그제야 여인은 큰 절을 하며 말하길, “저의 마법을 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지네이며 서방님이 만난 할아버지는 이무기였습니다. 오랜 옛날 저희 둘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저는 좋은 일을 하는 반면에 이무기는 못된 짓만 일삼았습니다. 이에 저를 시기한 이무기는 저를 마법에 걸리게 하여 서방님으로 하여금 저를 죽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무기가 그런 계획을 꾸민 줄 다 알고 있었지만 다행히 서방님이 제 얼굴에 침을 뱉지 않으신 까닭에 저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었다. 모든 사정 이야기를 들은 농부는 이 여인과 정식으로 혼인하여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8) 용궁사의 돌부처

영종도 백운산 밑에는 용궁사라는 절이 있다. 이 용궁사에는 절을 지켜 주는 돌부처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 그 돌부처의 유래는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종도에 아주 가난한 손씨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다른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어선 하나로 고기를 잡으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고기잡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음력 사월이 되었다. 음력 사월이 되면 어부들은 모두 연평도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는데 손씨도 남들과 같이 출어하게 된 것이다. 마침 조기가 많이 몰릴 때라 군데군데 닻을 집어넣고 그물을 치고 한참 후에 돌아왔다. 기대에 부푼 손씨는 그물을 열심히 끌어올렸다. 그물이 여간 묵직한 것이 아니어서 손씨는 조기가 많이 잡힌 줄 알고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끌어 올렸다. 그러데 이것이 웬일인가 잡혀야 할 고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돌부처가 하나 들어 있는 것이었다. 손씨가 돌부처를 살펴보니 바다 속에 오래 있었던지 이끼가 잔뜩 낀 것이 아무 쓸모도 없어 보였다. 손씨는 투덜대며 돌부처를 다시 바다에 던져 버렸다. 다른 어부들은 고기를 많이 잡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손씨는 다시 그물을 치고 한참 후에 다시 끌어 올렸다. 그런데 또 고기는 보이지 않고 아까 버렸던 돌부처만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손씨는 투덜거리며 다시 돌부처를 바다속에 처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이었다. 꿈에 백발이 성성한 도사가 나타나 손씨에게 이르기를, “네가 오늘 바다에서 건져 낸 돌부처는 본디 백운산 밑 용궁사에 안치되어야 할 부처이니라. 내일 네가 고기를 잡으러 할 때 또 그 돌부처가 건져 질 것인즉 그 부처를 잘 모셔 영종도 태평암 위에 세워 놓아라.” 하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손씨는 기이하고 이상스러워 잠을 설치며 날이 새기가 무섭게 바다에 나가 그물을 쳤다. 아니나 다를까 그물을 끌어 올리니 그 도사의 말대로 또 돌부처가 끌어 올려지는 것이었다. 어부는 꿈에서 본 도사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그 돌부처를

태평암 위에 잘 모셔 놓았다.

그 태평암 근처에는 활 쏘며 세월을 보내는 한량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한량이 태평암 위에 부처가 있는 것을 보고 장난삼아 쏘 버렸다. 순간 부처의 오른팔이 활에 맞아 떨어졌는데 떨어진 팔이 무섭게 다시 붙으면서 조그만 약병을 쥐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부처를 향하여 활을 쏘았던 한량은 그 자리에서 이유 없이 즉사해 버리고 말았다. 또한 돌부처를 안치해 놓았던 손씨는 그때부터 고기가 잘 잡혀 후손들이 대대로 잘 살았다고 한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부처의 소문이 퍼지자 백운산 밑에 있는 용궁사에서 웬 스님이 찾아와 이 부처를 용궁사에 모셔 놓았다. 부처를 용궁사에 모신 후로는 그 앞을 지나 갈 때면 소나 말을 탄 사람은 내려서 걸어가야 했으며, 담뱃대를 물고 가지도 못했다. 만일 소나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은 말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아 꼼짝도 못했으며, 담뱃대를 물고 가던 사람은 담뱃대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영험한 돌부처의 소문이 퍼지자 이 용궁사를 지나는 사람은 모두 예의를 갖춰 지나 다녔고 부처가 들고 있던 약병의 약으로 희귀한 병도 다 고쳤다고 한다. 오랫동안 이 절을 지켜주던 돌부처는 왜정 때 약탈당하였지만 용궁사는 지금도 영종주민의 유서 깊은 절로 남아 있다.

(9) 아기 장사의 죽음

영종도 백운산 서남 기슭은 크고 웅장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맑고 시원한 물이 계곡을 흐르는 산수 좋은 곳이다. 이곳은 대대로 추씨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비록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가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이었다.

이 마을 어귀에 있는 성황단(城皇壇)을 돌아 마을 뒤쪽에 추씨 문중의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 집은 부유하지 않지만 마음씨 착한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어

부인은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고 남편이 삼대독자인지라 대를 잇지 못하게 되어 조상님들께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늘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부인은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가 보았으며 좋다는 약은 모두 지어다 다려먹어 보았으나 소식이 없자, 성황(城皇)님께 매일 정화수를 떠 놓고 백일기도를 정성스럽게 드리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부인이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엄청나게 큰 용이 천상(天上)에서만 열리는 크고 빛깔 좋은 천도복숭아 하나를 입에 물고 집 주위를 빙빙 돌다가 마당에 떨어뜨리고는 어디론지 사라지는 것이었다. 부인이 깜짝 놀라 일어나보니 생시가 아닌 꿈이었다.

이러한 꿈을 며칠간 계속 꾸게 되자 어느 날 밤 혹시나 해서 방문을 열고 마당을 살펴 보니 전에 없었던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싸리문 밖에 우뚝 서 있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부인은 신발을 신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보니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린 천도복숭아 나무가 있는 게 아닌가! 부인은 탐스러운 복숭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늘이 나에게 내려 주신 사랑의 열매이구나. 아기를 낳으면 저 복숭아를 많이 먹여 훌륭하고 힘이 센 장군을 만들어야지’ 하고 다짐을 하였다. 그리고 한 개를 따 먹어보니 향긋한 복숭아 내음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분명 천상의 것 같았다.

날이 밝아 아침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갑자기 생겨난 천도복숭아 나무의 크고 맛있게 생긴 복숭아를 보고는 군침을 삼키는 것이었다. 마음씨 좋은 부인은 동네 사람들이 너무 먹고 싶어하는 바람에 복숭아를 따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숭아를 맛있게 먹고도 고맙다는 인사 한 마디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일이 있고난 다음날 아침이었다. 천도복숭아 나무의 복숭아는 온데 간데 없고 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부인은 너무나 당황해서 나무를 엉엉 울어버렸다.

그 후 부인은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 백일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그까짓 나무 한 그루 죽었는데 무얼 저리도 정성을 다해 백일기도까지 드리느냐고 수군수군거렸지만 부인은 복숭아나무를 살려야 한다고 다짐하고 밭고 또 밭었다.

백일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한 지 구십 구일이 되는 날이었다. 어둡고 컴컴한 하늘이 환하게 열리면서 희미한 불빛이 나무를 향해 비치자 싹이 나고 물기가 오르는 것이었다. 복숭아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할 즈음에 부인에게 산기(産氣)가 있었고, 복숭아나무에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자 옥동자를 낳았다.

그 아기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매우 총명했으며 불과 몇 개월만에 걸음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 아기는 천도복숭아를 무척 잘 먹었으며 복숭아나무에 올라가 놀기를 좋아하였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한 아기는 보통 아기들보다 힘이 세어서 첫돌에 육칠세 아이들과 대등한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기골(氣骨)이 장대하여 마을 사람들도 추씨 집에서 장사가 나왔다고 기뻐하였다.

그런데 아기가 세 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없어졌다. 집안사람들이 모두 놀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되었다. 그때 집 앞을 지나던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사정 이야기를 듣고 대들보 위를 쳐다보라는 말을 남기고 어디론지 가버렸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대들보 위를 쳐다보니 아이가 그 위에 매달려 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일어난 후 그 아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 또 없어졌다. 한 나절이 지나서야 아이는 대문으로 유유히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집안사람들이 놀라며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묻자 축지법(縮地法)을 써서 한양을 갔다 왔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후 아이가 없어지는 일이 빈번하고 또 아이가 없어졌다 돌아오면 한양 사정 이야기를 하곤 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틀리는 것이 없었다.

아이가 범상치 않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식구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왜냐하면 한 집안에 범상치 않은 장사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 나라에 반역을 할까 두려워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그 가족은 삼대(三代)를 멸할 뿐 아니라 외가 쪽으로도 삼대를 멸하게 하는 벌이 내려진다는 것이었다.

그 아이의 부모들이 매일 근심 걱정에 싸여 지내던 중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앉혀놓고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그 아이는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듯이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곧 자신의 양팔을 들어보였다. 그런데 그의 겨드랑이에는 전에 못 보았던 작은 날개가 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그 날개에서 비늘을 빼라고 말하였다. 식구들은 깜짝 놀라며 그 날개에서 비늘을 떼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때 그 동네의 연못에서 용이 올라와 그 집 주위를 빙빙 돌며 울부짖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아이를 잃은 부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 영영 울다가 복숭아나무 생각이 나서 마당으로 나와 보니 복숭아나무는 간 데 없고 잡초만이 무성히 있었다. 시운(時運)을 잘못 타고 난 아기 장사는 이렇게 해서 죽어간 것이다.

(10) 은혜 갚은 쥐

옛날 영종도 한 마을에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상냥하니, 흠 잡을 데 없는 마음씨 착한 처녀였다. 어찌나 마음씨가 착한지 어린아이는 물론이요, 하찮은 동물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가 저녁상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부엌 옆 조그만 구멍에서 쥐 한 마리가 나와 흠어진 밥알을 주워 먹고 있었다.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처녀는 밥알을 다 먹고 부엌 바닥을 훑는 쥐를 위해 밥을 한 술 더 떠서 놓아 주었다. 쥐는 고맙다는 듯이 ‘찍찍’거리며 처녀가 더 덜어 준 밥을 다 먹어 치웠다. 그 후부터 처녀는 쥐를 위하여 매일 저녁상을 치우고 나면 밥을 한 술씩 놓아 주었다. 처녀 덕분에 쥐는 매일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그 동네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매년 산 속 동굴에다 처녀를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그 이유인즉 동굴에 사는 천년 묵은 지네가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마을에 커다란 재앙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도 지네에게 바쳐진 처녀가 아주 많았고 때문에 어떤 집에서는 어린 딸을 서둘러 시집을 보내기도 했다.

그 해에도 이 동네 풍습대로 제비를 뽑아 제물로 바치는 처녀를 결정하는데 마음씨 착한 처녀가 뽑히게 된 것이다. 결국 시집을 못 가보고 죽게 된 처녀의 집에선 벌써부터 초상집과 같이 울음바다가 됐고, 죽을 날을 받아 놓은 처녀는 매일 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드디어 처녀가 지네에게 제물로 바쳐지게 될 마지막 밤이었다. 마지막으로 쥐에게 밥을 주는 처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쥐야, 이제는 너와도 마지막이라네. 난 내일이면 지네에게 잡혀 죽는 몸이 된단다.”라고 말하였다. 쥐도 처녀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마지막 밤이 지나고 드디어 처녀가 지네에게 제물로 바쳐질 날이 되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고 동네 사람들이 준비한 가마에 올라 탄 처녀는 눈물로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동굴 앞 바위를 향해 갔다. 제사상을 준비한 어른들은 눈물을 보이면 재앙이 깃든다며 우는 처녀를 나무랬다.

바위에 도착하자 바위 위에 마련된 제단에 처녀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네가 나와 하늘을 보며 말하길, “신령스럽고 영험하신 우리마을의 수호자(守護者)이신 지네님이여! 이번 해에도 다름없이 처녀를 바치오니 부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풍년이 들게 하시고 우리 마을을 보살펴 주소서.” 하였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푸르던 하늘에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면서 장대같은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은 처녀만을 남겨두고 모두 도망갔다.

이제 마지막이다 싶은 처녀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죽은 듯이 누워 있는데 갑자기 동굴에서 천년 묵은 지네가 노란 연기를 내뿜으면서 나오는 것이었다. 거대한 몸집에 수없이 달려 꿈틀거리는 다리들, 노란 연기에 가린 지네의 얼굴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매섭고 징그러웠다. 이내 지네는 긴 수염으로 처녀를 휘어말아 동굴 속으로 사라졌고 그 순간 처녀는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처녀가 그 동안 밥 한 숟가락으로 먹여 키우던 쥐가 처녀를 따라 동굴 속에 들어온 것이었다. 지네가 막 처녀를 잡아먹으려는 순간 쥐는 날쌔게 지네의 몸뚱이에 매달려 세게 물었다. 따끔한 지네는 귀찮은 방해자를 없애기 위해 처녀를 내려놓았다.

하늘도 은혜를 갚으려는 쥐의 마음에 감복을 했는지 천 년 묵은 지네의 눈에서 뿜어 나오는 광채 못지않게 쥐의 눈에서도 굉장한 빛이 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노려보던 끝에 거대한 지네와 조그만 쥐는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은인을 구하기 위한 쥐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지네도 쥐도 모두 지쳐버렸다.

다음 날 새벽 처녀의 주검을 이장(移葬)시키기 위해 동네사람들이 그 동굴로 몰려 왔다. 불쌍한 처녀의 죽음에 혀를 차며 동굴 안으로 들어선 사람들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처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곁에는 지네와 쥐가 함께 죽어있었다. 사람들은 하찮은 미물에 지나지 않은 쥐의 결초보은(結草報恩)하는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복하여 모두가 서로서로 도우며 잘 살았다고 한다.

(11) 비포 장군 바위

용유도 연육교 입구에 있는 사람모양의 큰 바위로써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왜적들이 영종도를 점령한 후 용유도를 침략하여 감나루를 도보로 건너다가 장군바위와 그 앞에서 수많은 갈매기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용맹스러운 장군과 병사로 오인하여 겁을 먹고 퇴군하다가 밀물에

빠져 전멸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12) 거북바위

왕산리 통개포구에는 커다란 넓적바위 위에 거북이와 흡사한 모양을 가진 큰 바위가 올라 앉아 있다. 입은 연평도 쪽을 향하고 있고, 꼬리는 서풀마을 삼현과 김해 김씨네 집안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향하고 있는데, 마치 항문 부분에 변이 달려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다. 이 바위에 얹힌 전설을 다음과 같다.

영종도 서풀 신불도에 한 사나이가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 밭을 갈고 툇을 막아 논을 만들어 근근이 살아오던 중 그의 후손 형보가 세상을 떠났다. 이때 낯선 손님이 지나다가 시장기가 들어 들렀노라고 하니 상주는 차려놓은 음식과 술을 잘 대접하였다.

손님은 음식을 다 먹고 말하기를 신세를 갚는 게 도리인 것 같으니 묘 자리를 잡아 드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상주는 쾌히 응낙하고 그를 따라 산으로 올라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마침내 손님이 정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 손님은 방향을 을좌신향으로 잡아야 된다고 이 방향이 바로 왕산 통개포구 거북바위를 향하고 있지 않으면 거북이 황해의 고기떼를 들푹 먹고 이곳을 향해 변을 누는 형국이니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니 이만 하면 후대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 설명했다. 상주는 너무 고마워 며칠 더 묵어가기를 권했으나 손님은 바쁘다며 떠났다.

상주는 그가 가르쳐 준대로 장례를 치르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던 중, 조부 항렬의 김종우 할아버지 때 외국 광산 기술자들이 영종도에 와 시금해 본 결과 질 좋은 금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음을 알고 광권을 허가 받아 금광이 성황을 이루었다. 김종우, 중현, 달현, 동일 등은 그 광에 뛰어들어 큰 부자가 되었다. 김종현, 달현 형제는 문화 사업은 물론 도서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자비로 돌다리를 놓아주는 등 자선사업을 하여 칭송을 받았다. 주민들은 삼목·용유학교에 그의 송덕비를 세웠다. 이로 인해 왕산리 통개포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거북

바위가 삼현과 김해 김씨를 위해 생긴 바위라고 말하고 있다.

(13) 박다곡(박씨촌)

영종도 속호현 고개(예담포 고개) 북녘 기슭은 돌무덤이 많다고 하여 박다곡이라고 불렸다. 훗날 박씨 성을 가진 이들이 이곳을 개척해 부락을 이루었다고 하여 박씨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속호현에는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석두라는 이름의 샘이 바위틈에서 철철 흘러 나왔다. 이 샘은 수질이 좋아 먹고 목욕을 하면 피부병, 안질, 속병에特效이 있다고 소문이 나 사시사철 찾아오는 인파가 끊이지 않았다.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중병에 온갖 약을 다 써도 효험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갖고 이곳을 찾아와 심야 백일 정성을 드렸다. 그러한 밤이면 번번이 범이나 짐승들이고갯길을 가로막아 백일 정성을 중도에 그치기가 일쑤였다. 무서움을 이겨내고 끝까지백일 정성을 드린 사람들이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낳고, 병을 고쳤음은 물론이다. 박다곡에는 또 냉이천이라는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그 옛날 예담포에는 식수가 부족하였고, 백여 척에 달하는 배의 선원들이 빨래하기도 힘들어 이곳에 와 빨래를 했던 것으로도 유명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냉이천에 상수도가 설치되면서 박다곡의 석두샘과 냉이천은 옛날이야기로만 남게 되었다.

— 오정윤(동구사 편찬위원회 상임위원)

※ 참고문헌

-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2002
- 중구사편찬위원회, 중구사
- 옹진군지편찬위원회, 옹진군지
- 인하대학교 박물관, 인천남부학술조사
- 영종용유지발간위원회, 『영종용유지』, 2008.
- 인하대학교박물관, 『운북동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5.
- 한양대학교박물관, 『永宗島 文化遺蹟-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지역 내 문화유적 결과보고』, 1999.
- 서울대학교박물관 · (주)신공항고속도로, 『영종도 논들 신석기유적-신공항고속도로건설지역 발굴조사보고서』 1999.
- 인하대학교박물관 · (주)보암엔지니어링, 『영종도 도시개발사업지구(9 · 10 · 11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3.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남부 종합학술조사』, 2003.
- 인하대학교박물관, 『영종지역 군사시설이전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1.
- 인하대학교박물관, 『영종도 도시개발사업지구(9 · 10 · 11) 문화재 지표조사』, 2003.
- 인하대학교박물관, 『영종문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0.
- 이희인, 「永宗島 雲南洞遺蹟 출토 百濟土器」, 『博物館誌』4, 인하대학교박물관, 2002.
- 인천남부 종합학술조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공사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세종대학교박물관, 2002.
- 인천지역 유물 · 유적지명표(Ⅰ), 인하대학교박물관, 1999.
- 수도권신공항건설지역문화유적지표조사, 인하대학교박물관, 1994.
-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부지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유도 북측외곽도로건설 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2003.
-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부지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유도 북측외곽도로건설 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2003.
- 수도권신공항건설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인하대학교박물관 · 신공항건설공단, 1994
- 한양대학교박물관 · 인천광역시, 2000, 「龍遊 · 舞衣觀光團地 文化遺蹟 地表 調査」.
- 한양대학교, 영흥도 외1리파종, 2005
- 인천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유적 발굴조사 자료,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 영종도 북측유수지-을왕리해수욕장 도로구간내 을왕동 I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 龍遊 · 舞衣觀光團地 文化遺蹟 地表調査, 한양대학교박물관, 2000.

- 崔淑卿, 「永宗島 雲南里支石墓」, 『金愛馬博士梨花勤續40周年紀念 論文集』,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66.
- <http://kyujanggak.snu.ac.kr>
- <http://jnliboldbook.sen.go.kr/web.do>

제3장

사라진 인천의 섬



사라진 인천의 섬

1. 현황

인천 연안은 복잡한 해안선과 넓은 갯벌이 있어 간척에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었다. 인천은 2009년 현재 육지부 면적의 34%에 해당하는 106.789km²이 간척사업에 의해 새로 생겨난 땅이다. 이러한 간척과 매립의 과정을 겪으며 수많은 섬들이 간척의 기점 혹은 그 대상이 되어 사라졌다.

전통시대의 지지류와 지도 그리고 일제강점기 제작된 지도에서 확인한 인천연안에서 사라진 섬은 아래와 같다.

■ 전통시대의 지지자료와 고지도에 기록된 인천 연안의 사라진 섬

- 다소면 인근 : 월미도(月尾島) 소월미도 수리도(愁里島, 분도) 사도(沙島) 원도(猿島) 소원도
- 호구·장도포대 인근¹⁾ : 대원도(大元島) 소원도 성정도(成井島), ○○○도(○○○島), 원요항서(元曉項嶼), 모도(帽島)
- 검단면 : 울도(栗島)

1) 호구포대와 장도포대 인근의 섬은 인천부읍지, 시흥군읍지 등 인근 지역의 지지자료와 지도류에서는 보이지 않고 화도진도에서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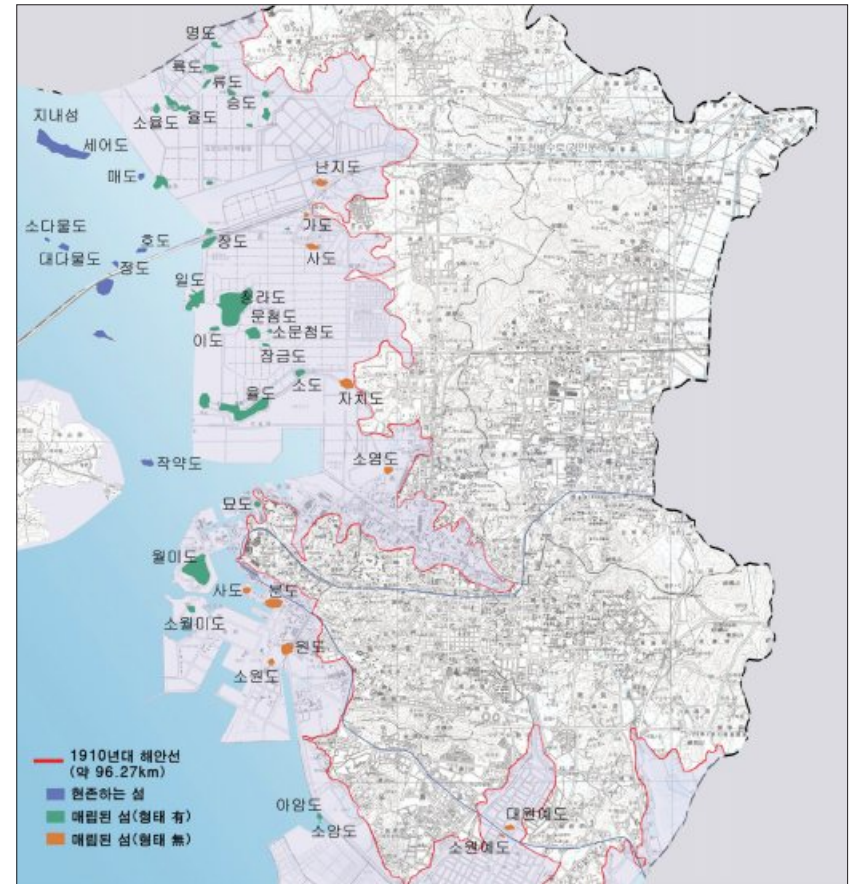
• 모월곶면 : 기도(箕島), 난지도(蘭芝島) 울도(栗島), 일도(一島) 장고도(長古島) 장도(獐島) 장산도(長山島) 정자도(亭子島) 문점도 청라도(靑羅島)

■ 「근세 오만분의일 지형도」(1916년 측도)에서 확인되는 인천 연안의 섬

- 인천항 인근 : 월미도(月尾島) 소월미도 분도(糞島) 사도(沙島) 원도(猿島) 소원도
- 부천군 문학면 : 대원례도(大遠禮島) 소원례도 외암도 아암도
- 김포군 검단면 : 안암도(安岩島) 명도(明島) 육도(陸島) 누도(柵島) 토도(兎島), 울도(栗島) 소울도(小栗島) 매도(梅桃) 거점도(巨簷島) 도도(桃島) 길무도(吉舞島)
- 부천군 석곶면 : 난지도(蘭芝島) 사도(蛇島) 장도(獐島) 문점도(文沾島) 소문점도(小文沾島) 울도(栗島) 소도(小島) 일도(一島), 자치도(雌雉島), 장금도(長金島), 청라도(靑羅島)

위에서 확인되는 많은 인천 연안의 섬들이 사라지게 된 이유인 간척과 매립은 지역과 시기별로 그 원인은 다양하다. 인천 연안의 섬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개항기였다. 먼저 중구의 사도와 분도는 일본조계의 거주지의 확대를 위한 갯벌 매립과 1911년 인천축항 과정에서 사라졌다. 동구의 모도는 1905년 이나다가쓰히코(稲田勝彦)가 일대의 공유수면을 10만평을 매립하여 유흥단지와 농경지를 만들며 사라졌다. 또한 남구의 원도와 소원도는 일제강점기 일대에 염전을 조성하면서 제방으로 연결된 후 1976년 송도임해도로가 생기면서 육지화 되었다.

인천 연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매립이 이루어진 곳은 서구 일대로 1965년 10월 경서동 금산-사도-포리-주안으로 이어지는 공업용지가 계획되면서 사도가 사라진 것을 시작으로, 1970년 발전시설 설치로 울도가 연육되었다. 1964년부터 1971년까지는 난민구제사업으로 울도-장금도-문점도-청라도-일도-장도-경서동(고잔) 간에 길이 6,830m



인천 연안 도서 현황 (『서구사』)

의 제방으로 이어졌다. 1980년 1월에는 동아건설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취득하여 1983년 9월부터 기존 간척지를 포함하여 원창동-울도-청라도-김포 약암리를 잇는 매립공사였다. 이로 인해 서구 연안의 섬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연수구와 남동구 해안에 있던 대원례도와 아암도 등의 섬은 송도해안도로와 남동공단의 조성과 함께 사라지거나 연육되어 인천은 지금의 해안선을 가지게 된다.

2. 사라진 섬들

1) 중·동구

(1) 월미도와 소월미도



1899년 『인천부읍지』 월미도 · 사도 · 수리도 · 원도



『화도진도』의 월미도

월미도(月尾島), 어을미도(漁乙未島 · 於乙味島), 어미도(於味島), 열도(突島), 월성(月星) 등으로 옛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한말에는 ‘Rose Island’로 외국에 알려지기도 하였다. 월미도는 둘레 약 1km, 육지와와의 거리 1km의 아담한 섬이었으며, 남쪽의 소월미도와 함께 인천의 북서쪽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근세 오만분의일 지형도』(1917년 측도)의 사도 · 분도 · 묘도

조선시대 월미도는 병자호란 이후 국왕의 임시 거처인 행궁(行宮)을 1656년(효종 7) 설치하면서 영종도에 영종진이 이설되면서 영종진에 편입되었다. 월미도의 연육은 1904~1905년 러일전쟁 때 군용철도 부설을 위한 목교 설치로 처음 되었고, 1918년에는 인천항과 콘크리트 제방도로로 연결되었다. 1923년 월미도에 대규모 유원지 시설이 들어서면서 23,141㎡의 해면 매립이 이루어졌고, 1930~1945년 사이 월미도 제방과 인천역 사이의 해안 지역이 3차에 걸쳐 매립되었다. 6.25 전쟁 때에는 인천상륙작전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월미도는 1974년 월미도와 소월미도 사이에 현대식 갑문을 설치하여 인천 내항 전체를 선거화(船渠化)한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완전히 육지와 연결되었다.

(2) 사도(沙島)

지금의 사동(沙洞)에 있던 섬이다. 전통시대 지리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고지도(읍지의 지도 포함)에는 제물항 앞 바다의 사도 모습이 보인다. 사도는 분도와 함께 일본인 거류지 확대와 인천 축항으로 사라진 섬이다.



『화도진도』의 사도

1906년 설립된 일본인매립조합에 의해 사도 앞까지 13,000평을 매립하는 과정과 1911년 동양 유일의 갑문식 선거(제1독)공사로 중구 향동의 분도와 함께 매립에 쓰일 돌과 흙 채취로 섬의 모습이 손상됐고, 제2독 공사(1966~1974)로 완전히 사라졌다. 개항기 서양인들은 스테이션 아일랜드(station island)로 부르기도 했으며,²⁾ 한동안 이 섬 인근에서 일본인을 중심으로 5푼짜리

2) 『인천부사』, 1933, 30쪽

가짜 돈을 만든 일이 있어 ‘오폴도’라 불리기도 했다. .

(3) 분도(糞島)

전통시대 지리지와 지도류에는 수이도(愁伊島) 혹은 수리도(愁里島)로 기록되어 있는 분도는 1879년경 제작된 화도진도에 분도(糞島)로 처음 기록이 나타난다. 원도나 사도에 비해 크기가 작은 섬이어서 동섬, 즉 분도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분도는 사도와 함께 인천공원 앞 해안을 매립과 축항이 시작되면서 없어졌다. 1911년 동양 유일의 갑문식 선거(제1도크)공사로 매립에 쓰일 돌과 흙 채취로 섬의 모습이 손상됐고, 제2도크 공사(1966~1974)로 완전히 사라졌다. 인천항의 조수간만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갑문식 도크가 사도와 분도 안쪽 바다를 매립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화도진도』의 분도

(4) 묘도(猫島)

묘도는 동구 만석동에 있던 섬이다. 1879년 경 화도진에 소속된 묘도 남변포대와 북변포대가 있었다. 1905년 이나다가쓰히코(稲田勝彦)가 만석동 일대의 공유수면 10만평을 유원지와 농경지로 매립을 하면서 1910년대 육지화되었다. 육지화된 묘도와 만석동 일대는 팔경원, 묘도유곽 등 유흥시설과 정미소와 간장공장, 양조장 등이 들어섰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동양방직, 조선기계제작소 등 일제의 산업시설들이 들어서 공업지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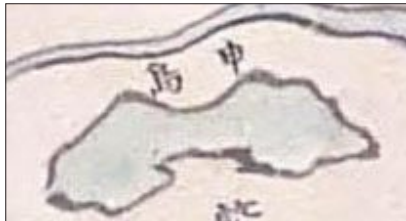


『화도진도』의 모도

2) 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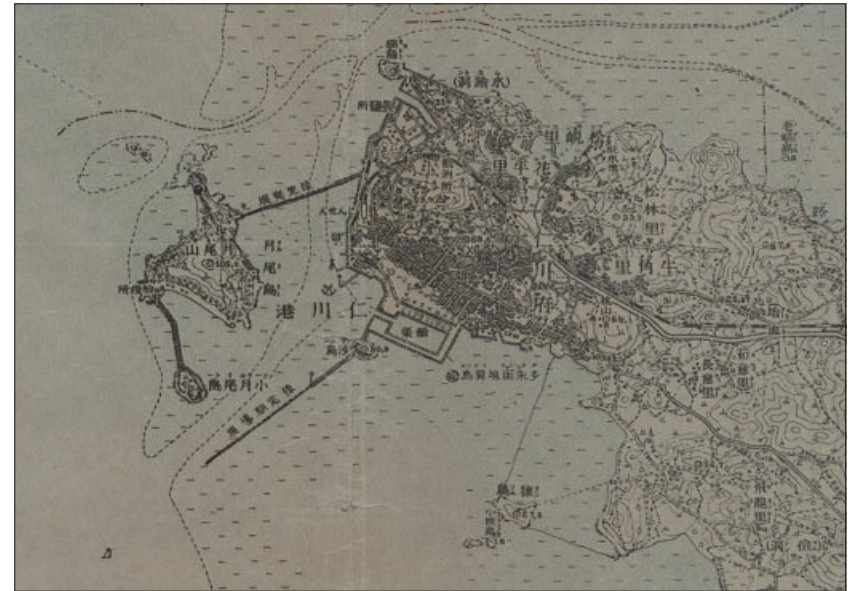
(1) 원도 · 소원도

원도(猿島)와 소원도(小猿島)는 남구 용현동 토지금고 근처에 있던 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지지류에 ‘원도는 인천 치소의 서쪽 55리 되는 곳에 있으며 섬 안에 신제단(神祭壇)이 있는데



봄과 가을에 악독해(嶽瀆海)에 제사를 지낼 때 수령이 친히 행한다.’와 ‘원도사(猿島祠)는 여러 섬의 신령을 이 섬에서 합하여 제사지내며 봄·가을에는 본 고을에서 제사를 드린다.’란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전통시대의 원도는 인천 일대의 여러 섬에서 지내던 제례를 합사하여 봄과 가을에 지내던 원도사(猿島祠)가 있던 섬인 것을 알 수 있다. 제사를 지내던 섬이라 남섬, 육지와 떨어져 있어 낙섬 또는 낙도(落島)로도

불렸다. 병자호란 때 이윤생(李允生)과 의병이 분전한 곳이기도 하다. 1879년 경 제작된 화도진도에는 신도(申島)로 분도 옆에 기록되어 있다. 원도는 1929년 조선염업주식회사에서 염전을 조성하면서 육지와 독으로 연결되었고, 송의동에서 원도를 관통하여 옥련동까지 이어지는 송도임해관광도로가 1976년 준공되면서 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근세 오만분의일 지형도』(1917년 측도)의 원도 소원도

3) 연수 · 남동구

(1) 대원례도(大遠禮島) · 소원례도(小遠禮島)

대원례도 · 소원례도는 지금의 남동구의 연안에 있던 섬이다. 전통시대 지지류와 지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1879년 경 제작된 화도진도에 동막과 호구포대 일대에 있던 섬으로 대원도(大元島)와 소원도(小元島) 기록되어 있다. 화도진도는 인천 연안의 관할 포대의 지리적 정보를 상세히 담고 있어 대원례도와 소원례도 외에 인근의 모도 · 원요

항서·성정도 등의 섬들을 기록하고 있다. 『근세 오만분의일 지형도』(1917년 측도)에는 대원례도(大遠禮島)·소원례도(小遠禮島) 기록되어 있다. 두 섬은 수인선 남동역의 북쪽에 있었으며 섬 가운데에 있는 산의 높이는 32m였다. 대원예도와 소원예도는 1980년대 남동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매립되고, 대원예도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남아 있다.



(2) 장도(獐島)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던 섬이다. 섬의 최고봉은 해발고도 약 40m인 구릉이었으며, 산 모양이 노루와 닮았기에 노루목이나 노름으로도 불렸다. 조선 말기 인천 연안의 국방강화를 위해 설치한 화도진에 소속된 장도포대가 있었다.



(3) 아암도(兒岩島)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었던 1,800평 가량의 면적을 지녔던 섬이다. 1937년 수인선 개통과 함께 송도 인근이 매립되기 시작된 이래 꾸준히 매립되어 아암도까지는 1980년대에 송도해안도로 매립공사로 연육되었고, 아암도 해안공원으로 단장되어 있다. 옆의 소아암도(小兒岩島)도 1981년 육지화되었다. 특히 낙섬에서 아암도까지 이어지는 갯벌에는 1970년대 초까지 백합 껍질이 수북히 쌓일 정도로 백합이 풍부하였고, 1980년대 말까지 동죽 생산량은 전국 총생산량의 90%를 차지하였다.



1879년 『화도진도』의 남동·연수구의 섬



『근세 오만분의일 지형도』(1917년 측도)에 나타난 남동·연수구의 섬

4) 서구

(1) 난지도(蘭芝島)

난지도는 경서동 금산의 정북쪽 300m에 놓인 큰 섬이었다. 물에서 가까워 경서동의 한 마을로 여겨져 왔다. 형체는 몸을 크게 편 해파리 같은 모습이었다. 금산과의 사이에는 큰 갯골이 하나 있어 밀물 때는 건너가지 못했다. 1789년(정조 13)에 간행한 『호구총수』에 난지도(蘭芝島)라는 지명이 보인다. 한약재의 명약 난지초(蘭芝草)가 자생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난점이라고도 불렀다. 난점에는 옛날에 세곡미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 흥성한 때가 있었으나 그 뒤에는 인구가 줄어들었다. 50~60년 전에는 30여 가구가 어업으로 삶을 영위하였으나 어획량이 많지 않아 무척 가난하게 살았다. 난지도는 물과 워낙 가까운데다 간척사업을 하면서 만든 방죽으로 연결되어 육지화되었다.

(2) 사도(蛇島)

경서동의 서단인 금산에서 정북쪽 700m, 연희동 ‘용의 머리 반도’의 서단에서 북서쪽 800m에 있던 섬이었다. 뱀이 유난히 많아 그런 이름이 붙었고 말뜻 그대로 ‘뱀섬’이라고도 불렀다. 40~50년 전 그곳에서 백사(白蛇)가 여러 마리 잡혀, 땅꾼들이 드나들었다. 서곶의 대부분의 섬이 그랬듯이 썰물 때 물에서 걸어 나갈 수 있었으나 경작지도 적고 밀물 때 물살이 빨라 배를 대기 어려워 민가가 없었다.

(3) 장도(獐島, 노렘)

경서동 서단 금산에서 서남서 3km, 연희동 ‘용의 머리’ 서단에서 4km 떨어진 섬으로 서곶사람들은 ‘노렘’이라고 불렀다. 이 섬에 노루가 많이 살아 ‘노루섬’이란 지명이 붙었다가 ‘노렘’으로 축약이 되었고, 한자로 뜻을 살려 장도로 표기했던 곳이다. 꽤 먼 섬이었지만 거침도나 사도처럼 썰물 때 물에서 걸어 나갈 수 있었다. 경서동에서 가려면 갯

골이 없었으며, 연희동에서는 3개를 건너야 했다. 지금은 매립지에 포함되어 육지가 되었다.

(4) 자치도(雌雉島, 까투림)

까투리처럼 생겨 그런 이름이 붙었다. 원창동의 갯말 서쪽 갯벌에 있던 섬이다.

(5) 청라도(靑蘿島)

청라도는 원창동 환자곶 해안에서 3.5km, 연희동 ‘용의 머리’ 서단에서 2.5km 떨어진 섬이었다. 푸른 넝쿨 관목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서곶 사람들은 파란 섬이라는 뜻으로 ‘파렘’이라고도 불렀는데, 멀리 보이는 그 섬이 유난히 푸른색이기 때문이었다. 서곶 앞바다의 섬들 중 가장 컸다. 썰물 때 부지런히 갯벌을 걸으면 밀물이 오기 전 섬에 이를 수 있었다. 원창동에서 가려면 갯골을 3개, 연희동에서 가려면 갯골 5개를 건너야 했다. 김포매립지가 만들어지면서 육지의 끝이 되어 버렸다. 원창동 환자곶 해안과 이 섬 사이에는 자치도, 소도, 소문점도, 대문점도 등 작은 섬들이 놓여 있었다.



(6) 일도(一島)

청라도 등 뒤에 숨듯이 앉아 있던 섬이었다. 위의 호도처럼 육지에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매립되어 한국가스공사 기지와 한국전력공사의 인천북합화



력발전소가 있다. 그리고 위의 장도와 청라도와 더불어 방조제로 연결되어 서곶의 새로운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다.

(7) 율도(栗島)

원창동 환자곶 해안에서 서남서 2km에 있던 섬이다. 멀리서 보면 밤알처럼 보여 밤염이라고도 불렀다. 그 사이에 갯골이 하나 있었으며 해안에서 썰물 때 갯



벌을 걸어 섬까지 갈 수 있었다. 율도는 매립되어 1974년 인천화력발전소가 세워졌고, 정유시설과 발전시설이 들어왔다.

(8) 소염도(小鹽島)

가좌동 해안에서 1.5km 떨어져 있던 섬이다. 어린아이 팔뚝만한 지네가 살고 있어, 이 섬에 나물 캐러 건너간 여인이 물려 죽은 전설이 있다.

(9) 거침도(巨簷島)



『근세 오만분의일 지형도』(1916년 측도)에 나타난 서구(서곶)의 섬

경서동의 서단 금산에서 서쪽 4km,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의 맨 끝이었다. 섬의 바로 등 뒤(서쪽)는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닷물이 머무는 큰 갯골이 있었다. 사도처럼 썰물 때 물에서 걸어 나갈 수 있었다. 서쪽에는 매도가 있었다.

(10) 육도

검단의 오류농장 안에 있던 섬으로 서쪽에는 고도, 북쪽에는 명도가 있었다.

(11) 추도

육도 남쪽에 있는 섬으로 싸리염이라고도 했다. 남쪽에 되섬이라고도 했던 승도(升島)가 있었고 인근에는 토도와 길무도도 있었다.

(12) 율도

육도 서남쪽에 있던 비교적 큰 섬으로 중앙에는 해발 65m 정도의 산이 있으며 서편의 작은 섬은 소율도라고 불렀다.

(13) 도도(桃島, 복숭아섬)

율도 동남쪽 약 1.7km 정도의 거리에 있던 복숭아 모양의 섬이었다.



『근세 오만분의일 지형도』(1916년 측도)에 나타난 서구(서곶)의 섬

3. 옛 지리지와 지도³⁾

1) 지리지

(1)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인천도호부 산천 : 원도(猿島) 부 서쪽 12리 되는 곳에 있으며 섬 가운데에 여러 섬의 신제단(神祭壇)이 있는데, 봄 가을에 악(岳)·해(海)독·(瀆)에 제사를 지낼 때에 수령이 친히 행한다. …… 수이도 부의 서쪽 14리에 있다.
- 부평도호부 산천 : 호도(虎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고 둘레는 200보이다. 응도(鷹島) 부의 서쪽 15리에 있고 둘레는 300보이다. 정자도(亭子島) 부의 서쪽 15리에 있고 둘레는 100보이다. 문지도(文知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고 둘레는 100보이다. 청라도(靑羅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고 둘레는 800보이다. 일도(一島) 부의 서쪽 8리에 있고 둘레는 300보이다. 장도(獐島) 부의 서쪽 6리에 있고 둘레는 500보이다. 울도(栗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고 둘레는 800보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천도호부 산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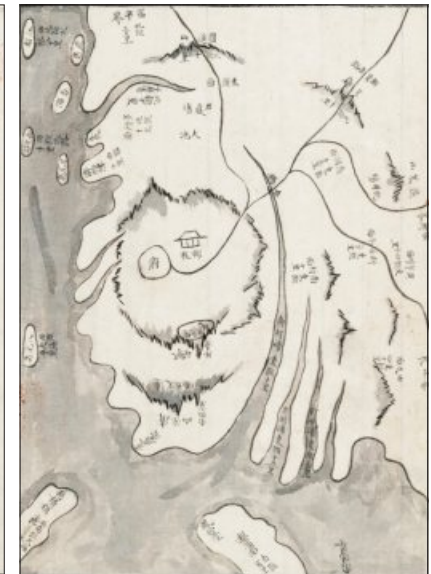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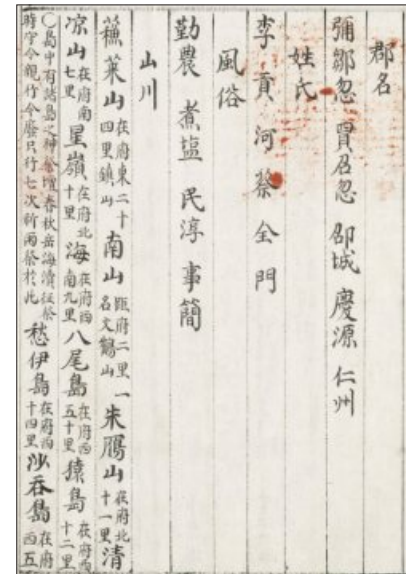
『신증동국여지승람』 부평도호부 산천

- 3) 인천의 사라진 섬에 관한 전통시대의 지리적 정보는 지리지와 지도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록 내용과 체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거의 동일하여 대표적인 자료만을 소개한다. 특히 인천과 부평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섬이 기록되어 있으나 김포의 검단면 소속 섬은 울도만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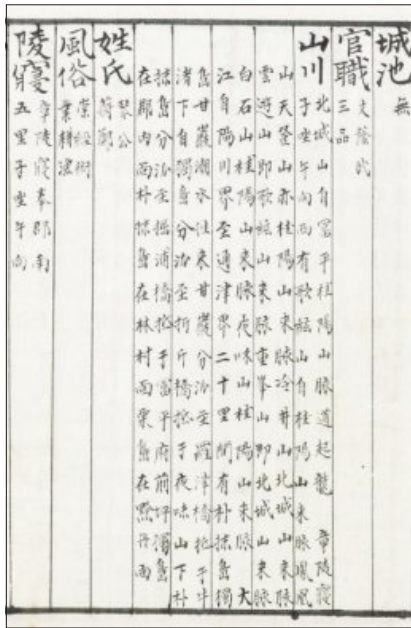
다. 기도(箕島) 부의 서쪽 20리에 있고 둘레는 50보이다. 김포현 섬에 관한 기록은 없다.

(2) 1871년 『경기읍지(京畿邑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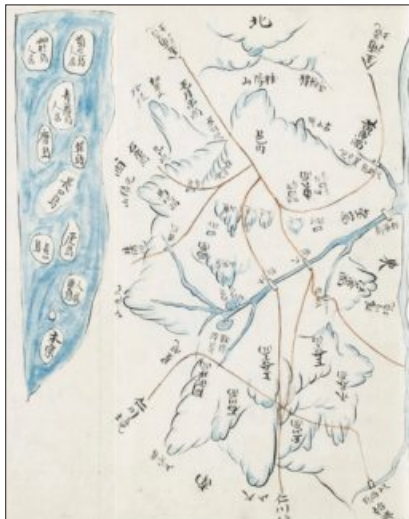
- 인천도호부 산천 : 원도(猿島) 부의 서쪽 12리에 있다. 섬 안에는 여러 섬의 신웅 제사하는 제단이 있어 봄 가을로 악해독에게 제사할 때 수령이 친행하였으나 지금은 폐하고 다만 기우제를 일곱 차례 지낸다. 수이도(愁伊島) 부의 서쪽 14리에 있다.
- 부평도호부 산천 : 호도(虎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고 둘레는 200보이다. 응도(鷹島) 부의 서쪽 15리에 있고 둘레는 300보이다. 정자도(亭子島) 부의 서쪽 15리에 있고 둘레는 100보이다. 문지도(文知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고 둘레는 100보이다. 청라도(靑羅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고 둘레는 800보이다. 일도(一島) 부의 서쪽 8리에 있고 둘레는 300보이다. 장도(獐島) 부의 서쪽 6리에 있고 둘레는 500보이다.



1871년 『경기읍지』의 「인천도호부」산천과 지도



1871년 『경기읍지』의 「김포군」산천과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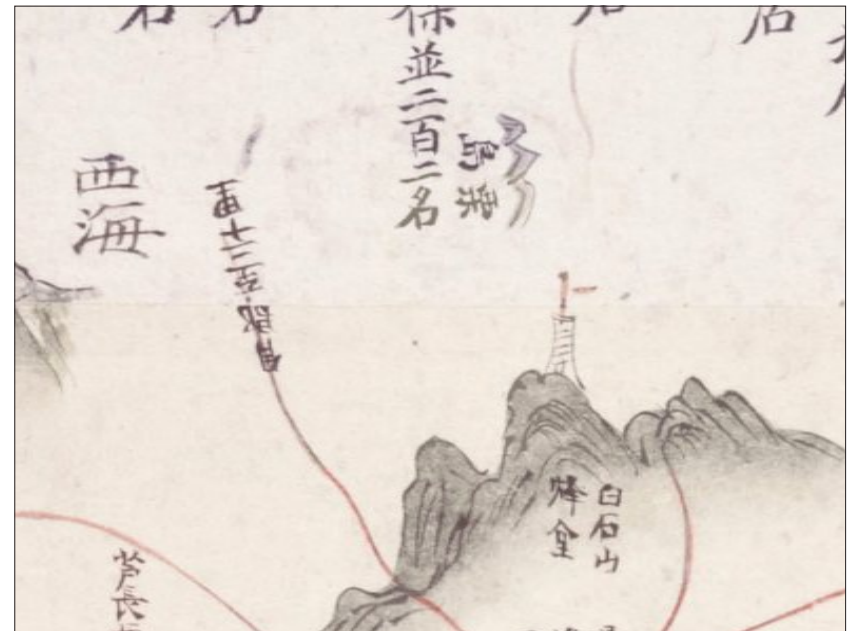
1871년 『경기읍지』의 「부평도호부」산천과 지도

는 500보이다. 울도(栗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고 둘레는 800보이다. 기도(箕島) 부의 서쪽 20리에 있고 둘레는 50보이다.

- 김포군 산천 : 큰(한)강은 양천의 경계에서 시작하여 통진의 경계에 이른다. 20리 사이에 박말도·독도·감암이 있다. 조수가 왕래한다. 감암에서 나누어진 갈래는 나진교에 이르고, 우저(牛渚) 아래에서 그친다. …… 독도는 군내면에 있다. 박말도는 임춘면에 있다. 울도는 검단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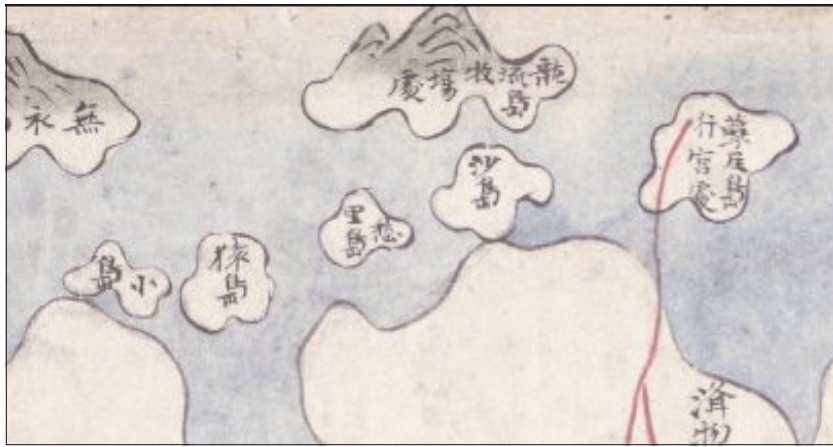
2) 옛 지도

(1) 1750년대 해동지도⁴⁾



1750년대 해동지도의 김포 울도

- 4) 해동지도의 부평부의 지도에는 섬에 관한 정보는 지도에는 보이지 않고 주기에만 보이며 주기의 내용 또한 이제까지의 지리지의 정보와 다르지 않다.



1750년대 해동지도의 사도 분도 원도 소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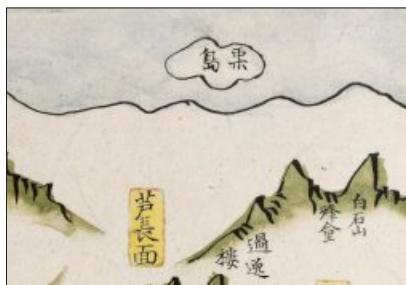
인천부는 제물진두(濟物津頭) 앞 바다에 행궁이 표시되어 있는 얼미도(擘尾島, 월미도), 목장이 표시되어 있는 용유도와 무의도에서 육지 쪽으로 사도, 수리도, 원도 소도(小島, 소원도)가 보인다. 김포군은 검단면과 모월곶면 앞 서해 바다에는 울도만 표시되어 있다.

(2) 1736~1767년 여지도

인천부는 제물진두(濟物津頭) 앞 바다에 얼(擘)로 표시되어 있는 월미도, 용유도와 무의도 안으로 사도, 수리도, 원도 소도(소도, 소원도)가 보인다. 부평부는 지금의 세어도인 서천도, 난지도, 청라도, 장도, 응



1736~67년 여지도의 사도 분도 원도 소원도



1736~67년 여지도의 김포 울도

도, 울도, 기도, 호도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섬은 인거(人居)로 구분하였고, 청라도는 절수지(折受地)였음을 표시하고 있다. 김포군은 노장면과 검단면의 앞 서해에 울도만을 표시하고 있다.



1736~67년 여지도의 난지도 청라도 울도 등

(3) 화도진도(1879년 경)

화도진 소속 제물남변포대 밑으로 사도, 분도(糞島), 신도(申島)가 표시되어 있고, 섬 자체에 포대가 설치된 묘도의 포대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특히 이전까지의 지도나 지지류에는 수리도 또는 수이도로 표시되던 분도란 지명이 처음 보이고, 원도가 신도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제물진에서 수로로 연결되어 있는 월미도 옆에는 소월미도가 표시되어 있다. 지금의 동구지역인 묘도는 물이 빠지면 건너갈 수 있었고, 석축이 구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의 남동구 일대인 호구포대와 장도포대 일대에는 성정도(成井島), ●●●島, 대원도(大元島, 대원례도), 소원도(小元島, 소원례도), 원요항서(元曉項嶼), 모도(帽島)가 기록되어 있으며, 대원도에는 우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1879년 『화도진도』의 제물진 일대의 섬



1879년 『화도진도』의 묘도



1879년 『화도진도』의 호구포대 일대의 섬



1879년 『화도진도』의 장도포대 일대의 섬

4. 옛 기록의 사라진 섬

1)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권1, 1년 윤3월 29일

부평부 울도의 돌이 저절로 6백 70척이나 옮겨졌다.

『세종실록』 76권, 19년 3월 13일

예조에서 악·해·독·산천의 단묘와 신평의 제도를 상정하다.

예조에서 여러 도의 순심 별감(巡審別監)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악(嶽)·해(海)·독(瀆)·산천의 단묘(壇廟)와 신평(神牌)의 제도를 상정하기를, "경기, 나라에서 행하는 임진현의 덕진(德津)은 중사(中祀)이고, 단의 위판(位版)은 덕진지신(德津之神)이라고 쓰며, 위의 위판을 간직하여 두는 실(室)은 교지에 의하여, 단유(壇壝)안에 북쪽으로 가까이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조성하되, 신주(神廚)·고방(庫房)·재실(齋室)을 아울러 조성할 것. …… 인천군의 자연도(紫燕島)·수심도(水深島)·용류도(龍流島)·고도(孤島), 【이상은 같은 군(郡)의 땅이다.】 송가도(松家島)·장봉도(長峰島)·검대도(黔對島), 【이상은 강화의 땅이다.】 소홀도(召忽島)·영흥도(靈興島)·독우도(犢牛島), 【이상은 남양의 땅이다.】 용매도(龍媒島), 【연안의 땅이다.】 구음도(苟陰島)·어울도(馭鬱島)·미정도(彌正島)·마전도(麻田島)·구상도(構桑島)·대인도(大忍島), 【이상은 여러 도에 있는 것으로서 소재처를 알 수 없다.】 상항의 여러 섬들은 원도(猿島)의 단에서 이끌어 청하여 치제(致祭)하였는데, 위의 여러 섬에 있는 것으로서 타관에 있는 것은 각각 소재관에 보내어 사전에 고쳐 기록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섬은 도태(淘汰)하여 버릴 것.

『세종실록』 권121, 30년 8월 27일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해 소나무에 관한 감독 관리에 대해 상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병선(兵船)은 국가의 도둑을 막는 기구이므로 배 를 짓는 소나무를 사사로 베지 못하도록 이미 일찍 이 입법을 하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가만히 서로 작별(斫伐)하여 혹은 사사 배를 짓고, 혹은 집재목을 만들어 소나무가 거의 없어졌으니 실로 염려됩니다. 지금 연해(沿海) 주현(州縣)의 여러 섬[島]과 각 곳(串)의 소나무가 잘되는 땅을 방문하여 장부에 기록 하는데, 경기 남양부(南陽府)의 선감미(仙甘彌) · 대부(大部) · 연흥(鸞興) 세 섬과 거재곶(巨才串), 인천군(仁川郡)의 자연도(紫鳶島)와 용류도(龍流島), 부평부(富平府)의 문지도(文知島)와 보지곶(甫只串) …… 등 위의 주현(州縣)의 도(島)와 곳(串)에 전부터 소나무가 있는 곳에는 나무하는 것을 엄금하고, 나무가 없는 곳에는 그 도 감사(監司)로 하여금 관원을 보내어 심게 하고서 옆 근처에 있는 수령(守令) 만호(萬戶)로 하여금 감독 관리하고 배양하여 용도가 있을 때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59권, 22년 5월 28일

가뭇에 기우제를 지낼 일시 · 장소를 예조에 묻자 단자를 올린다.

비망기(備忘記)를 써서 내렸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 【단자(單子)의 내용은 이러했다. …… 인천(仁川) 자연도(紫烟島) · 심수도(深水島) · 대인도(大忍島) · 우음도(雩音島) · 용매도(龍媒島) · 검풍도(黔葑島) · 고도(孤島) · 어울도(馭鬱島) · 미정도(彌正島) · 마전도(麻田島) · 구상도(構桑島) · 송가도(松家島) · 영흥도(靈興島) · 독우도(犢牛島) · 용류도(龍流島) · 장봉도(長峰島) · 부령도(婦靈島) · 구자굴도(求子屈島) · 우도(牛島) · 소홀도(召忽島) · 원도(猿島). 원도의 제도(諸島)에는 신단(神壇)이 있으니 이상 제도는 원도에 치제(致祭). 양주 성황(城

隍) · 임강(臨江) 용호산(龍虎山) · 가평(加平) 화악산(華岳山) · 해풍(海豐) 백마산(白馬山).】

『숙종실록』 46권, 34년 4월 21일

부사용 민치대가 영종도보다 인천에서 방어하면 득책이 될 것이라는 상소를 올린다

부사용(副司勇) 민치대(閔致岱)가 상소(上疏)하기를, "대저 인천(仁川)의 영종(永宗)은 해방(海防)의 요로(要路)입니다. 왕성(王城)과의 상거(相距)가 1백 리도 안되는 곳이며, 삼남(三南)에 문호(門戶)가 되어 강도(江都)와 더불어 서로 성원(聲援)하게 되니, 강도(江都)에 중점(重點)을 돌리는 계책으로는 영종(永宗)을 버리고는 그 형세를 의지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故) 상신(相臣) 홍명하(洪命夏)는 행궁(行宮)을 인천(仁川)과 월미도(月尾島)에 설치하기를 건백(建白)하였습니다. 이른바 월미(月尾)라는 곳은 곧 인천(仁川)과 영종도(永宗島) 사이의 소치(小峙)이니, 그의 의도(意圖)는 대개 일의 위급하기가 병자년 · 정축년 과 같이 되는데도, 유시(流漸)가 끊어지고 갑곶진(甲串津)을 통할 수 없게 된다면, 인천(仁川)으로부터 영종(永宗)에 이르고, 영종(永宗)으로부터 강도(江都)에 이르게 될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조정에서 영종(永宗)을 승격하여 방어사(防禦使)로 삼는 것은 계책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지마는, 지방이 수십 리(數十里)에 지나지 않고 백성이 수백 호(數百戶)에 차지 않으면서 바다속에 외롭게 있는데, 인천(仁川)은 3면(面)이 바다에 닿아 있고 한 면(面)만이 육지에 연(連)하여 양서(兩西)와 삼남(三南)을 호령(號令)하는 것이 함진(函秦)의 백이(百二)와 같은데, 이것을 하지 않고 인천(仁川)을 버리고서 영종(永宗)에서 방어(防禦)한다면 또한 소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만약 영종(永宗)을 옮겨서 인천(仁川)에서 방어하기를, 마치 광량(廣梁)의 방어(防禦)를 삼화(三和)에 옮기는 것과 같이 한다면 득책(得策)이 될 듯합니다."

『정조실록』 20권, 9년 7월 26일

방어책 · 병제 · 무기 등에 대한 유학 조익의 상소

…… 대체로 영종동(永宗島) 한 섬은 역시 예사로 볼 곳이 아니며, 방어사(防禦使)의 영(營)은 태평암(太平巖)에 있습니다. 조수(潮水)가 물러가면 다른 섬과 서로 통하고, 앞뒤 마을은 가까워야 10리이므로 갑자기 서로 호응(呼應)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인천부(仁川府)를 옛 제물진(濟物鎭) 터로 옮기고 방영(防營)을 설치하여 안산(安山) · 부평(富平) · 금천(衿川) · 양천(陽川)의 육군(陸軍)을 관령(管領)하게 하여 육로(陸路)를 방어하고, 또 영종도(永宗島)와 화량진(花梁鎭)의 수군을 관할하게 하되 중군영(中軍營)을 월미도(月尾島)에 설치하여 또 수로(水路)의 방어를 겸하게 한다면 수륙(水陸)에 방어하는 태세(態勢)가 됩니다. ……

『고종실록』 권3, 3년 9월 6일

크고 작은 이양선 6척이 팔미도로부터 올라오다.

경기감사(京畿監司) 유치선(俞致善)이 ‘이양선(異樣船) 큰 배 3척과 작은 배 3척이 이번 5일 오시(午時)에 팔미도(八尾島)로부터 올라왔는데, 큰 배 1척은 부평(富平) 울도(栗島) 앞 나룻가에 서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으며, 큰 배 2척과 작은 배 3척은 석곶면(石串面) 세어도(細於島) 쪽으로 올라갔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실록』권3, 3년 9월 6일

『고종실록』 권3, 3년 9월 7일

경기감사와 통진부사, 덕포첨사가 팔미도에 정박한 이양선의 이동을 보고하다.

경기감사 유치선(俞致善)이, ‘영종첨사(永宗僉使) 심규(沈永奎)가 올린 등보(騰報)에 의하면, 이달 5일 오시(午時) 경에 이양선(異樣船) 3개의 돛을 단 배 3척과 2개의 돛을 단 배 4척이 신의 수영(水營)의 경내에 있는 팔미도(八尾島) 외해(外海)에서부터 부평 경계의 물치도(勿雉島)와 호도(虎島) 사이에 가서 정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시와 방비를 계속 강화하도록 엄히 신칙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그리고 본부의 감시하던 장수와 교리(校吏) 등이 올린 보고에 의하면, ‘위로 올라간 3척 외에 자그마한 배 1척과 먼저 올라간 배와 같은 배 1척이 또 그 뒤를 따라 올라왔는데, 이미 강화의 기포(圻浦)를 지나 갔으며 큰 배 1척은 응도 앞 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2척의 배는 경강의 조선(漕船)보다 약간 컸는데 두 척이 모두 일시에 물을 거슬러 올라가 본진(鎭)의 앞 바다를 지나갔으며 이어 갑곶 앞 바다를 향해 나갔습니다. 큰 배 4척과 자그마한 종선 15척은 오늘 사시(巳時)에 올라갔으며 부평(富平) 일대에 가서 정박하고 있는 3척의 배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실록』 권12, 12년 8월 22일

일본군함 운양호가 영종진 난지도에서 정박하다.

영종첨사(永宗僉使) 이민덕(李敏德)이, ‘이양선(異樣船)이 난지도(蘭芝島)에 정박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일본군함 운양호(雲揚號)가 항로를 측량할 때이다.】

『고종실록』 19권, 19년 4월 12일

경기 감사 김보현이 영국의 파견 관리가 중국 총리 아문의 편지를 가

지고 왔다고 보고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보현(金輔鉉)이 아뢰기를, “영국에서 파견한 관리가 중국 총리 아문(總理衙門)의 편지를 가지고 월미도(月尾島)의 뒷 바다에 와서 정박하였습니다.” 하였다.

『고종실록』 19권, 19년 5월 7일

독일 사신과의 협상에 조영하와 김홍집을 전권 대신으로 임명하도록 하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독일 사신을 태운 배가 월미도(月尾島) 뒷바다에 닻을 내리고 무역 문제 때문에 편지를 전하여 왔습니다. 경리사(經理事) 조영하(趙寧夏)와 김홍집(金弘集)을 이에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차하(差下)하여 그들로 하여금 문건을 만들어 회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19권, 19년 5월 10일

통리기무아문에서 중국 사신이 도착하였음을 아뢰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보현(金輔鉉)의 장계(狀啓) 등보(謄報)를 보니, 중국 사신을 태운 배가 월미도(月尾島) 뒷바다에 와서 정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권 대관(全權大官) 조영하(趙寧夏)와 부관 김홍집(金弘集)을 다 같이 하직 인사는 그만두고 내일 내려 보낼 것입니다. 주사(主事) 이조연(李祖淵)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차하하고 경리사(經理事) 조준영(趙準永)을 그대로 반접관(伴接官)으로 차하하여 그들과 같이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21권, 21년 5월 19일

이탈리아 흠차 전권 대신이 월미도에 도착하다.

경기감사(京畿監司) 김홍집(金弘集)이, ‘이탈리아 흠차 전권 대신(欽

差全權大臣) 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 Ferdinando de Luca) 【누가】 이 수원(隨員) 6인, 병관(兵官) 15인, 배 인부(水手)와 병정 230명을 거느리고 이달 17일에 월미도(月尾島) 뒷바다에 와서 정박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실록』 27권, 27년 12월 12일

월미도 부지 조차 약정서가 체결되다.

월미도(月尾島) 부지 조차 약정서가 체결되었다. 〈조차월미도지기약단(租借月尾島地基約單)〉

이에 일본 정부는 해군을 위한 창고를 건조하고 석탄을 저장하기 위해 조선 경기도(京畿道) 월미도(月尾島) 중의 부지 총 4,900평(坪)을 【한 평은 사방 2미터이다.】 조차한다. 이 부지의 조차액(租借額)은 매년 은화 80원(圓)을 조선 정부에 완납하는 것으로 정하며, 바로 약정을 교환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일본 공사관에서는 매 양력 12월 15일에 이듬해의 조차액을 미리 통리아문(統理衙門)에 교부하여 사수(查收)한다. 이에 약정서를 체결하고 아울러 지도를 첨부하여 신용을 밝힌다. 대조선 개국 499년 12월 12일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종묵(閔種默) 대일본 명치 24년 1월 21일 대리공사(代理公使) 곤도 모토스케(近藤真鋤)

『고종실록』 31권, 31년 3월 9일

홍준우가 상해에서 김옥균을 살해하고 청나라에서 그 시체를 경강으로 보내왔으므로 검험한 사정을 부에 보고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규홍(金奎弘)의 장계(狀啓)를 등보(謄報)한 것을 보니, ‘중국(中國) 병선(兵船)이 월미도(月尾島) 뒷 바다에 와서 정박하였는데 역적 김옥균(金玉均)의 시체를 싣고 왔으므로 즉시 한양(漢陽) 배에 옮겨 싣고 이어서 경강(京江)으로 출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시체를 검사하는 것은 원래 일의

체모가 그러한 만큼 경조(京兆)와 형조(刑曹)에서 형전에 따라 당일로 거행하게 하고 검험(檢驗)한 사정을 부(府)에 보고하도록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41권, 38년 11월 22일 양력

신기선이 죄인에 대한 처리 문제를 건의하다.

법부대신(法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검임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이근택(李根澤)의 질품서(質稟書)를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에 ‘…… 피고 강면희는 수륜과장(水輪課長)으로 재임 시에 묵어 황폐한 각처(各處)의 개척(開拓) 사무를 주관하면서 기사(技師) 정규만의 청탁을 받고 인천항(仁川港) 월미도(月尾島) 개척을 인허하는 일에 김준희, 임원상 등의 청원서에 제급(題給)한 뒤 당해 과의 주사(主事) 서상진(徐相津)을 당해 섬에 파송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개척에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 ”.

『고종실록』 42권, 39년 8월 20일

영정모사 도감과 진전중건 도감 등 제반 재정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 각 군대의 깃발을 새로 만드는 비용으로 1,273원, 시위 기병대(侍衛騎兵隊) 병영 수리비와 월미도(月尾島) 포대(砲臺) 건축비로 6,510원, 군사비 증가액으로 20만 5,897원, 불러 올린 진위대(鎭衛隊)의 병영 신축비와 각종 비용으로 10만 1,082원, ……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며 예비금을 1백만 원을 더 첨가하여 계산해서 배용(排用)할 것에 대한 문제를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순종실록』 2권, 1년 9월 29일

폭풍우 표식을 인천의 월미도에 설치하다.

농상공부(農商工部) 고시(告示) 제11호, 〈폭풍우 표식을 인천 월미도에 설치하되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暴風雨標設置于月尾島自來十月一日實施)〉고 하였다.

2) 등록류

『비변사등록』 49책, 숙종 21년 3월

左議政 柳尙運 등이 인견 입시하여 文殊山城의 좌우 산록에 수목을 크게 기르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좌윤 이세선(李世選)이 아뢰기를

“자연도(紫燕島)의 영종진(永宗鎭)은 어영청의 진보입니다. 만일 완급이 있으면 법가(法駕)가 인천(仁川)에서 초지진(草芝鎭)을 경유하여 야만 섬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어을미도(於乙味島)가 있습니다. 지난 병신년(효종 7년 (1656))에 처음으로 관사를 짓고 행궁(行宮)으로 부르고 있으나 해가 오래되고 퇴락하여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건하려 하는데 재목과 기와는 본진에서 채취한 어염(魚鹽)으로 약간의 돈과 베를 마련하여 현재 이것으로 재목을 사들여 일을 시작하였으나 역량(役糧)에 있어서는 마련할 길이 없으니 일이 걱정스럽고 답답합니다. 만일 본진에 있는 군향의 모미(耗米) 50석만 본진에 제공하여 주시면 필역할 수 있을 것 같기에 감히 이렇게 양달합니다.” 하니, 임금 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각사등록』

「팔도사도삼항구일기(八道四都三港口日記)」

사도(沙島)에서 사주(私鑄)한 자를 엄벌할 것

• 발신일 : 1884년 5월 28일(음)

• 수신자 : 인천부사(仁川府使)

말하기를, 친군전영에 온 문건을 살펴본 바 화도진 별장 김광신(金宏臣)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5월 25일 밤 본진의 별파진 최용석(崔龍石)이 고하기를 본 항의 사도(沙島) 포구 주변 선박이 있어 배의 안을 보니 동전을 주조하던 곳과 연장이 있어 이에 본 포구의 백성 김일갑과 함께 가니 배안의 일본인 2명이 검을 뽑아 휘둘러 최용석은 칼에 배이는 상처를 입고 김일갑은 잡혀 묶인 후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사사로이 동전을 만든 것이라 관예(官隸)를 내어 선상의 조선인 유경복(柳景福)과 황희룡(黃喜龍)을 잡았으나, 편수 손치범(孫致凡)은 도망하여 일찍이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검을 휘두르고 도망한 일본인은 더욱 예측할 수 없으니 교섭을 이어 뒷날의 폐단을 크게 막을 것이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인과 결탁하여 바다에 떠서 사사로이 동전을 만든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이니 현장에서 잡은 무리는 먼저 법에 비추어 엄히 치죄하고, 도망한 손치범은 비록 포도청으로부터 발포가 있으나 본 읍 역시 마땅히 많은 염탐을 놓아 기한 내에 잡을 것이다. 일본인의 범죄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다는 예를 따리 죄를 벌하고 잘못을 따지는 법을 일본조약 제5관에 명확히 실어 이후로부터 관문에 기록한다. 도착하는 즉시 일본영사관에 밝혀 이에 따라 죄를 벌하고 판별하는 규약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문편안(公文編案)」 3

전운서가 보내는 관문(轉運署去關) 부평의 고패자(故敗者)⁵⁾ 처리에 대한 건⁶⁾

• 발신일 : 1894년 8월 20일(음)

5) 일부러 자신의 선박을 침몰시키는 자

6) 「公文編案」 7 法務衙門來關 도 풍랑을 만나 전복된 임희경의 운반선의 쌀을 민이 포탈한 사건의 전말에 관한 같은 내용이다.

• 수신자 : 전운서(轉運署)

탁지아문이 상고하는 일입니다. 법무아문에서 온 해당 관문을 보니 8월 10일 남문 내에 거주하는 이조이(李召史)가 고한 것을 보건데, 임희경(林熙敬)이 작년 선달 쌀 35석을 용산에 거주하는 이흥선(李興善)을 인천항에서 만나 팔고 배로 같이 가서 부평 땅에 이르러 바람을 만나 배가 침몰하였습니다. 살펴보건데 이흥선은 물속의 혼(魂)과 결탁하여 침몰한 배의 쌀을 포구의 백성 무리와 건져내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 본(8)월 13일 경무관의 첩보를 살펴보면 그때의 객주 최치홍(崔致弘)을 조치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지난 선달 서울 사는 임희경이 서울 사는 김봉운(金奉云)에게 공가미(貢價米) 35석을 부평의 포리창에서 매득하여 이흥선, 한명오 양인과 더불어 본 항구로 내려오려 하였으나 묘도 앞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침몰하였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3인은 동시에 죽었고, 그때의 곡물 주인은 임희경이었습니다.

전운서

개국 503년 8월 20일

3) 문집

『경세유표』 제1권 지관호조(地官戶曹) 제2 교관지속(敎官之屬)

사축서(司畜署) 제조중대부1인, 주부중사1인, 봉사하사2인. 서리4인, 조례8인, 목인(牧人) 20인. 살피건대, 속전(續典)에도 오히려 이 관청이 있으니, 혁파된 것이 오래지 않았다. …… 이제 목축(牧畜)을 맡은 관서를 다시 설치하고 목인 수십 명을 증원한 다음, 근교(近郊)에 갈라 보내서 양치는 데에 전념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밤섬[栗島: 용산에 있음] · 전도(典島) · 청라도(靑羅島: 부평에 있음) · 미법도(彌法島: 강화에 있음) 같은 여러 곳에 모두 우리를 설치하고 양을 칠 것이다. 그해 연말에 공장(功狀)을 아뢰도록 하고 본 서(本署)에서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고찰한 다음, 호조에 보고한다. 그리하여 공이 있는 자는 서반(西班) 말직(末職)에 참여하도록 하면 10년이 못 되어 조선에도 양이 많아질 것이다.



『정세유표』 제1권 지관호조(地官戶曹)

『임하필기』 제13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서해(西海)와 남해(南海)의 해로(海路)

서울의 용산강(龍山江)에서 서쪽으로 통진(通津)의 유도(留島)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가 백 리이며, 유도에서 남쪽으로 가면 갑곶진(甲串津)을 지나서 손돌목[孫石項]에 이르게 되는데 이 손돌목이 바로 강화부(江華府)의 손방(巽方, 남동쪽)에 있기 때문에 일명 손석항(巽石項)이라

고도 한다. 강화는 그 산맥이 손돌목에서 포구(浦口) 속으로 들어가는 데 그 물밑은 석각(石角)이 울퉁불퉁하고 파도가 소용돌이쳐서 뱃길이 지극히 험하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약산(藥山)의 호도(虎島)를 끼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덕진진(德津鎭)과 초지진(草芝鎭)을 끼고 지나서 다시 왼쪽으로 울도(栗島)와 영종도(永宗島)를 끼고 지나서 월미도(月尾島)에 이르게 되는데 유도에서 이 섬까지 이르는 거리가 130리이다.

4) 관보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1월 24일

인천부 축항 체절제(締切堤)와 사도(沙島) 사이의 해면 4,156여 평의 매축 및 건설거(1천톤급 조선(造船) 및 선박수리능력)의 축조를 인천선 거주식회사(仁川船渠株式會社) 설립발기인 오전정차랑(奧田貞次郎) 외 11명에게 허가하다. 목적은 조선 및 철공업부지, 준공기한은 1920년 6월 30일까지이다.

「조선총독부관보」 1924년 11월 8일

경기도 인천부 사도 앞 수면 448여 평에 선박인양 선거 축조를 서방구(緒方久)에 허가하다.

— 오정윤(동구사 편찬위원회 상임위원)

※ 참고문헌

-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2002
- 중구사편찬위원회, 『중구사』, 2010.
- 남동구20년사 편찬위원회, 『남동구20년사』, 2010.
- 서구사편찬위원회, 『서구사』, 2014.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북부 종합학술조사』, 2003.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남부 종합학술조사』, 2003.
- 인천서구문화원, 『인천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2016.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사라진 섬 파묻힌 바다 태어난 땅』 2015.
- 인천광역시, 『지도로 보는 인천 120년』
- 인천발전연구원 『지도로 보는 인천의 변화』, 2013.
- <http://db.history.go.kr>
- <http://kyujanggak.snu.ac.kr>
- <http://jnliboldbook.sen.go.kr>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위 원 장	유정복 시장
부 위 원 장	전성수 행정부시장
당연직위원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위 촉 위 원	
부 위 원 장	윤승준 인하대 교수
위 원	조우성 시립박물관 관장
	이명숙 인천YWCA 이사
	김윤식 전)인천문화재단 대표
	이원섭 전)가천대 명예교수
	박도화 문화재청 감정위원
	박은경 인하대 교수
	이민우 인천여고 교사
	노영돈 인천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
	백승국 인하대 교수
	장정아 인천대 교수
	이동후 인천대 교수
	구정화 경인교대 교수
간 사	박장규 문화재과장
서 기	김진서 문화재정책팀장
전문위원	강덕우(사학 / 문학박사)
	강옥엽(사학 / 문학박사)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상, 하) 집필위원

상 권

제1장. 청정바다와 사람이 그리운 섬, 서해5도(제1권역)

1. 백령도와 대·소청도 : 이희환 경인교대 기전문화연구소 연구위원
2. 연평도·소연평도 : 남동걸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위원

제2장. 뱃길따라 풍경따라 떠나는 섬, 덕적군도(제2권역)

황규수 동인천중학교 교감
이영태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제3장. 바다가 육지인 듯 가까운 섬, 인천만의 섬

1. 북도면 : 안정현 인하대 강사
2. 자월면 : 안정현 인하대 강사
3. 중·동구 연안의 섬 : 견수찬 계양구청 학예사
4. 서구의 섬 : 신언호 인천개항장연구소 연구원

하 권

제1장.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섬, 강화군도

1. 지명유래와 현황 : 임학성 인하대 교수
2. 근대 이전 지리지 자료에 나타난 강화군의 섬들 : 임학성 인하대 교수
3. 조선시대 지도 자료에 나타난 강화군의 섬들 : 임학성 인하대 교수
4. 역사문화유산 : 문상범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
5. 설화와 민속 : 문상범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

제2장. 연육된 인천의 섬

1. 강화도 : 황은수 남구청 주무관
2. 교동도 : 황은수 남구청 주무관
3. 영흥도와 선재도 : 오정운 동구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4. 영종도 : 오정운 동구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제3장 사라진 인천의 섬

오정운 동구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교정·교열위원

안정현 인하대 강사
김영준 인하대 강사

인천광역시사 ㉘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㉙

발행일 2017. 11.

발 행 인천광역시

발행처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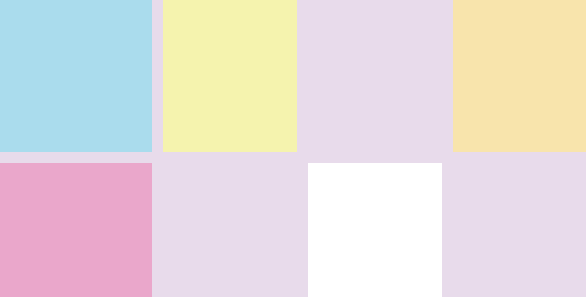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74(송학동 1가 2-2번지)

Tel. 032)440-8382, 8383

ISBN : 979-11-87854-07-4 93900

인 쇄 예일문화사(032-881-7171~3)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사 ⑧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



비매품/무료

93900



9 791187 854074

ISBN 979-11-87854-07-4